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APRIL 1988. NO. 229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판

이 가장 뛰어난
이 50% 이상

다.
디자인을 다양
고 인력하게 만

료로 화제시
방난방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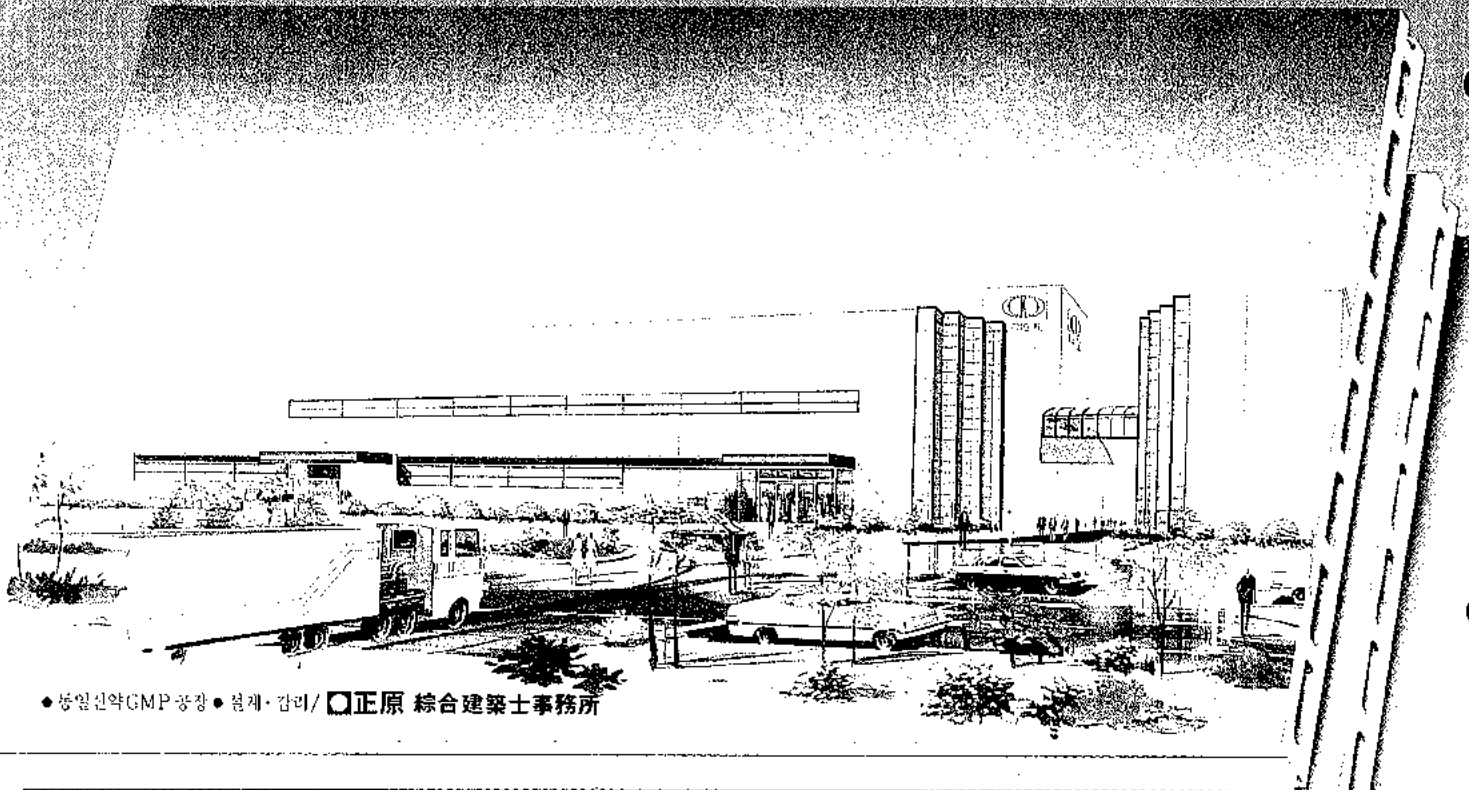
까?

해 무게가 나
주며 원박한
로수. 편리가 관
가격
해 주십시오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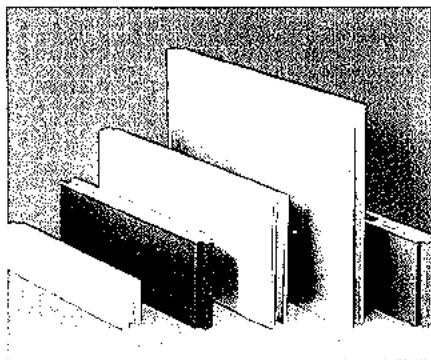
기
이론

1988 4



● 통일인악GMP 공장 ● 설계·감리/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응도 / 건축물의 외벽 · 킨막이 · 계단 · 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8 (구내281) 베이스사업부

제14회 建築士設計作品 巡廻展 제3회 新人・學生 建築設計 公募展

The 14th Architects' Design Show & The 3rd Debutants/Students' Design Show

本協會에서 年例行事로 開催하는 建築士設計作品巡廻展과 新人・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을 다음과 같이 開催합니다. 특히 올해는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또한 本協會에서 아시아지역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면서 本展示會를 병행 개최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13개국 建築士와 기타 세계각국의 參觀國 建築士들에게 作品이 公開됨을 감안, 作品 接受磨勵日을 嚴守해 주시고 배전의 努力을 기울여 作品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主 題

- 건축사 : 제한없음(자유)
- 선인 : 都市의 区 또는 市단위의 文化센터(면적적 3,000㎡ 이하)
- 학생 : 제한없음(자유)

■ 資 格

- 건축사 : 본협회 회원
- 선인 : 대학원생과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졸업후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 학생 : 각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재학생

■ 後援・건설부

■ 出品要領

- 매년규격 : 90×90cm(가로×세로, 유선형수)
- 출품내용 : 1 작품당 메달 3 개이내 및 간단한 작품설명서
- 출품인원 : 1 작품당 3 인이내
- 출품 및 출품
• 건축사 작품집수 : 1988. 9. 15까지
• 선인・학생 : 응모기간/1988. 6. 1~6. 20
작품집수/1988. 9. 1~9. 15.
- 출품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본부 및 지사・도시부사무국
- 기 타 : 모형출품은 금하며, 모형사진과 도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매달화하지 않겠.

■ 展 示

- 전시기간 : 1988. 11~1989. 4.
- 전시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충청에서 '88건축사협회건축공모회전과 동시에 전시

■ 施實内容

○후후발표

■ 審査発表 1988. 10월 중

■ 施 實 : 1988. 10월 중

■ 問 議 處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전화 : 581-5711~4)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 창간 10주년 기념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표지사진: 吳雄錫作 양수리전원주택
사진: 임정의

發行人: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朴榮興

副委員長: 尹錫祐

委員: 金琪碩, 卞 鎔, 金晶東, 趙聖烈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팩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4-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圭(沈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Park, Young-Ik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본지는 한국도서집자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建築士

차 례

1988년 4 월호(통권 229호)

6 88年度 第1回 臨時總會 開會辭

會員作品

- 7 후암원 鄭壽獻
- 10 역삼동 M씨 주택 公日坤 · 文炳國
- 12 화성 B씨 주택 宋光燮
- 14 루터교 선교사 사택 金正湜
- 16 갈현동 K씨 주택 徐鎭宇
- 18 자곡동 주택 鄭求殷
- 20 대덕 에너지절약형 주택 金基弘 · 朴相東

ARCASIA 회원국 출판작품(Philippine 편)

- 22 Mary Immaculate Parish Church
- 26 경제적인 23평형 주택

컬 럼

- 30 이시대 建築士들의 獨門(續) 崔昌奎
- 35 聚落構造 改善事業 유감 鄭求殷

寄 稿

- 32 建築士 協會에 바람 姜綱噉

研 究

- 36 외국의 현대건축가 소개 / 렌조 피아노 成仁洙
- 54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10) 金晶東
- 66 아파트閉地 造景 吳尚坪
- 74 新製연탄아궁이보일러 研究 姜泰旭

일하며 생각하며

- 74 그리운 투가리 상맛 李珏杓

76 資料

84 新入舍員

85 올림픽 광장

86 支部運轉方向(2)/ 忠南支部 · 慶南支部

88 協會消息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동권 제 22P호
구입년월일	1988.4.30.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CONTENTS

March 1988 Vol. 229

FOCUS

Opening Address of the 1988 Preliminary General Meeting

WORKS

Residence Hu Am Won	Chung, Soo-Heon	7
Yoksam-dong M's Residence	Kong, Il-Kon & Moon, Byung-Kook	10
Whasung B's Residence	Song, Kwang-Sub	12
Missionary's Residence Lutheran Church	Kim, Jung-Sik	14
Kalhyun-dong K's Residence	Sub, Jin-Woo	16
Jakok-dong Residence	Chung, Koo-Un	18
Daeduk Energy Efficient Residence	Kim, Kie-Hong & Park, Sang-Dong	20

Architectural Works From the ARCASIA Member Countries

Mary Immaculate Parish Church	22
23sq. M Low-Cost Residence	26

COLUMN

Monolog of Contemporary Architects	Choi, Chang-Kyu	30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Structure	Chung, Koo-Un	35

FEATURE

Wishes for the KIRA	Kang, Kang-Chul	32
---------------------	-----------------	----

REPORT

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s/Renzo Piano	Sung, In-Soo	36
Modern Architecture of Korea	Kim, Chung-Dong	54
Fine View of Apartment Area	Oh, Sang-Pyung	66

ESSAY

Traditional Culture I Miss	Lee, Kak-Pyo	74
----------------------------	--------------	----

MATERIALS

	76
--	----

NEW MEMBER

	84
--	----

OLYMPIC PLAZA

	85
--	----

DIREC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CHAPTER

Choongnam Chapter- Kyungnam Chapter	86
-------------------------------------	----

KIRA NEWS

	88
--	----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603-55 / 581-5715~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원화동 169-16 / 333-1873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 1422-17 / 882-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 191-13 / 903-3425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 317-4 / 484-6387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 1105-5 / 604-7168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 101-7 / 923-6213

성동분소 / 성동구구와동 252-16 / 446-5244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 3가 81 / 634-2143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가 1 (부산대파트네)
(051) 23-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가 1-8 /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 323-11 / (06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 1동 558-1 /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곡로 3가 124-5 /
7072 (0331) 42-6490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 719-9 / (0343)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 74-6 / (032) 63-3144

상남분소 / 성남시인릉동 5512 / (0342) 2-5445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 182 / (0351) 2-1083

송탄분소 / 송탄시인정동 21 / (0333) 4-6153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동 383리 16로트 / (0344) 63-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 409-2 /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시원읍중리 216-8 / (0336) 2-3396

광명분소 / 광명시광명동 464-7 / 682-2875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옥천동 39-5 / (0361) 2-2442

원주분소 / 원주시일산동 206 /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 6 / (0391) 2-2262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 468-66 / (0392) 2-5081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 55-43 / (0397) 2-3106

영원분소 / 영원군영원읍영동 1리 959-35 / (03732) 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가 116-168 /

(0431) 2-2752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 673-1 / (0441) 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삼동 8-8 / (0443) 2-6253

옥천분소 / 옥천보은읍삼거리 139-4 / (0433) 246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 487-1 /

(042) 22-4088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 160-14 / (0417) 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 (0451) 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리 710-2 / (0463) 2-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 (대백빌딩 508)

(0652) 3-3881

이리분소 / 이리시남동 1가 77-22 /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 1가 85 / (0654) 2-4060

남원분소 / 남원시화정동 106- /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구례군정동 783-23 (추선회관)

(062) 364-7567

목포분소 / 목포시호남동 1 / (0631) 2-7280

순천분소 / 순천시장원동 51-3 / (0651) 2-7892

여수분소 / 여수시관동 435 / (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가 285번지 /

(053) 45-4904

포항분소 / 포항시죽동 96-70 / (0562) 74-9 13

경주분소 / 경주시노봉동 9-1 / (0561) 2-2680

구미분소 / 구미시위평동 356-2 / (0546) 52-7903

안동분소 / 안동시삼산동 125-19 / (0571) 2-3641

김천분소 / 김천시남산동 23-10 / (0547) 2-2263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동 470-17 / (0572) 2-4566

문경분소 / 문경시점촌동 261-2 / (0581) 2-27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3 /

(0551) 2-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 (0522) 74-8836

74-2555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 7-20 / (0591) 2-6403, 42-3434~5

충무분소 / 충무시서호동 177-101 / (0557) 2-2504,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 25B-17L / (0594) 2-3155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일동 67-1 / (05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현동 483-9 / (0598) 2-3777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 300-3 / (0523) 4-2669

거제분소 / 거제군 신현을 고현리 139-2 /

(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도 1동 1289-6 /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 425-1 / (0642) 62-3920, 3322

더욱 協調와 努力을

安箕泰 / 本協會長



오늘 本協會 1988년도 제1회 臨時總會를 열어, 역대 會長님과 代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협회의 事務를 협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제6공화국의 막을 올린 새 民主政府가 출범한 이래 각분야에서 의욕적인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과 발맞추어, 우리의 직접 관련이 있는 關係法에 대해서도, 시대감각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改正意志가 뚜렷하여 우리 건축사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法令의 개정과 制度의 개선차원에서 풀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정부당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호흡을 맞추어, 그간 협회가 연구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집중한 보람이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의 對內的인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복지를 위해 마련한 建築士年金制度는 90년도를 앞두고 알차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진행중에 있으며, 대망의 聯合會制度도 현실에 맞게 제반규정에 대한 개정작업등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88년 이 해에는 서울에서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고, 본협회가 아카시아 서울大會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본협회와 회원 여러분이 建築專門人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國內外的으로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代議員 여러분.

올해는 협회와 회원 모두에게 큰 발전이 가능할 여러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만큼 회원 여러분이 더욱 協調하고 努力을 한다면 목적하는 대로 무난하게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건대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좋은 기회가 跳躍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倍前의 지원을 해주시고 舍心協力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總會는 우리 협회와 우리 자신의 일을 협의하는 자리로서 마련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建築文化 發展에도 기여하는 유익한 성과가 거두어 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3월 29일

후암원

Residence Hu Am Won

鄭壽獻 / 하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ung, Soo-Heon

◆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대지면적/ 767.9m²

건축면적/ 가동 : 206.51m²

나동 : 75.4m²

연면적/ 가동 : 322.68m²

나동 : 192.6m²

건폐율/ 36.71%

용적율/ 56.12%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용도/ 가동 : 주택

나동 : 꽃꽂이 연구소

구조/ 조적조

외벽재료/ 효성드라이비트(외벽단열제)

지붕재료/ 아스팔트 형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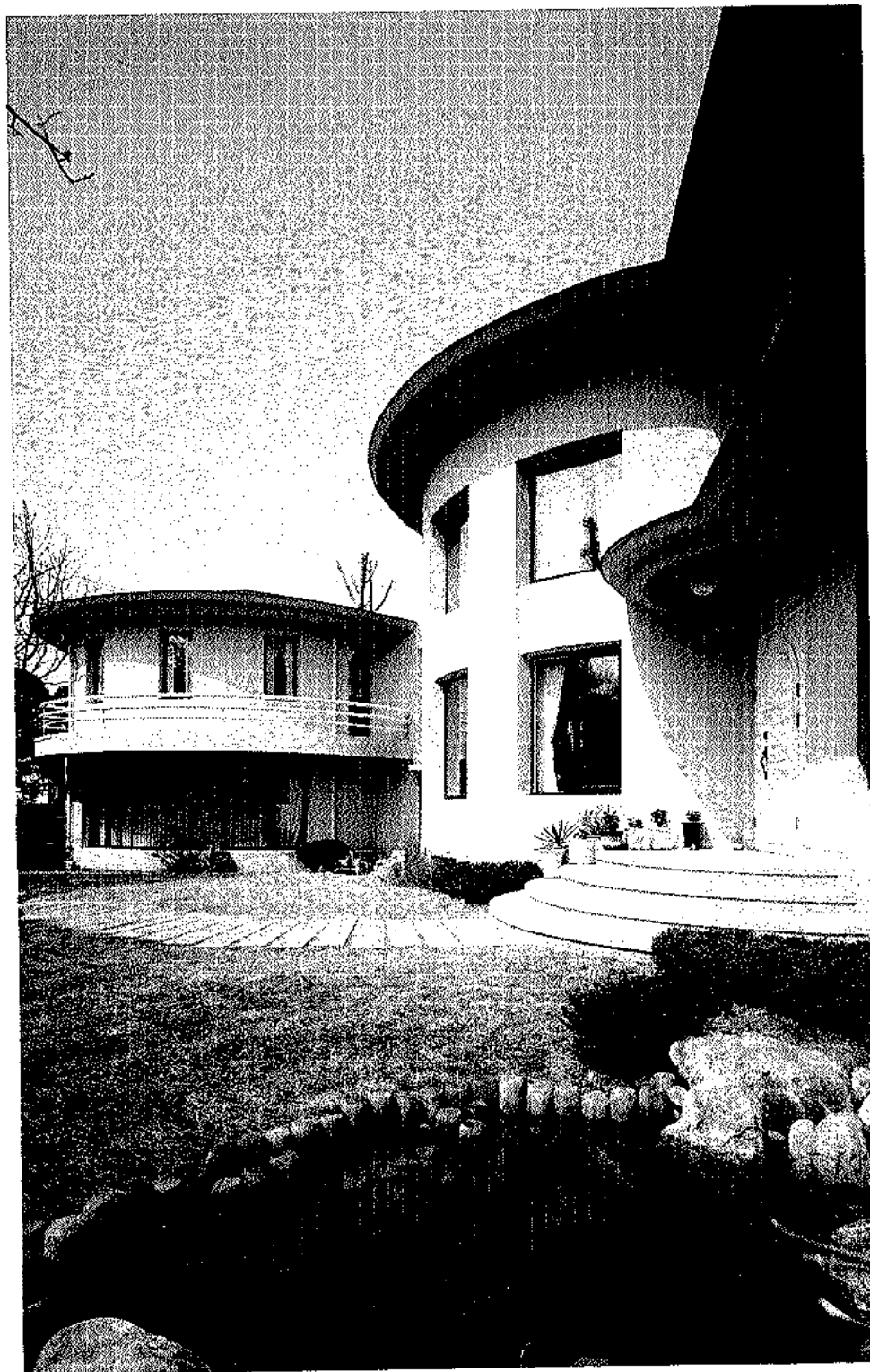
준공/ 1988. 2

시공/ 우진트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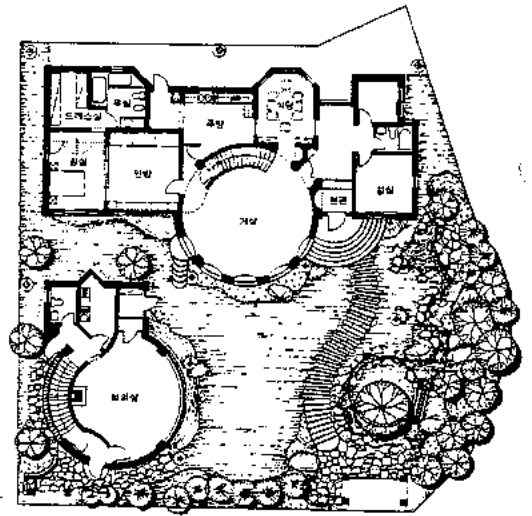
인테리어/ 팀펜타곤

조경/ 우정상(서인조경)

동측외부상세▶
남서측외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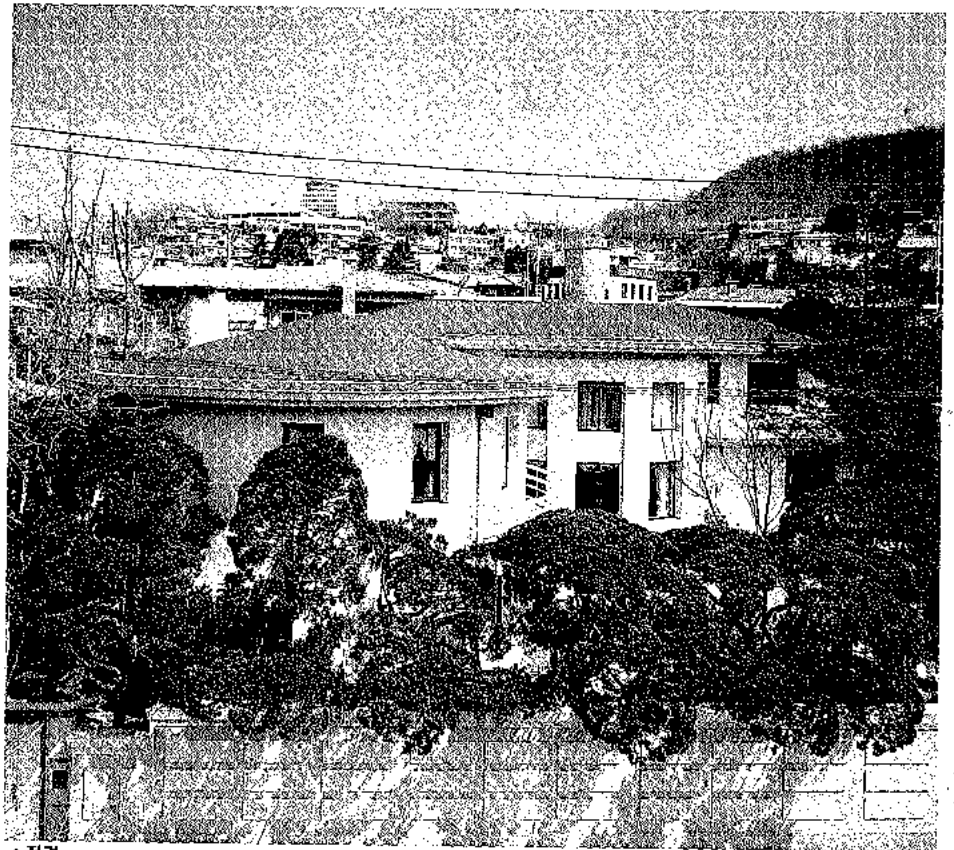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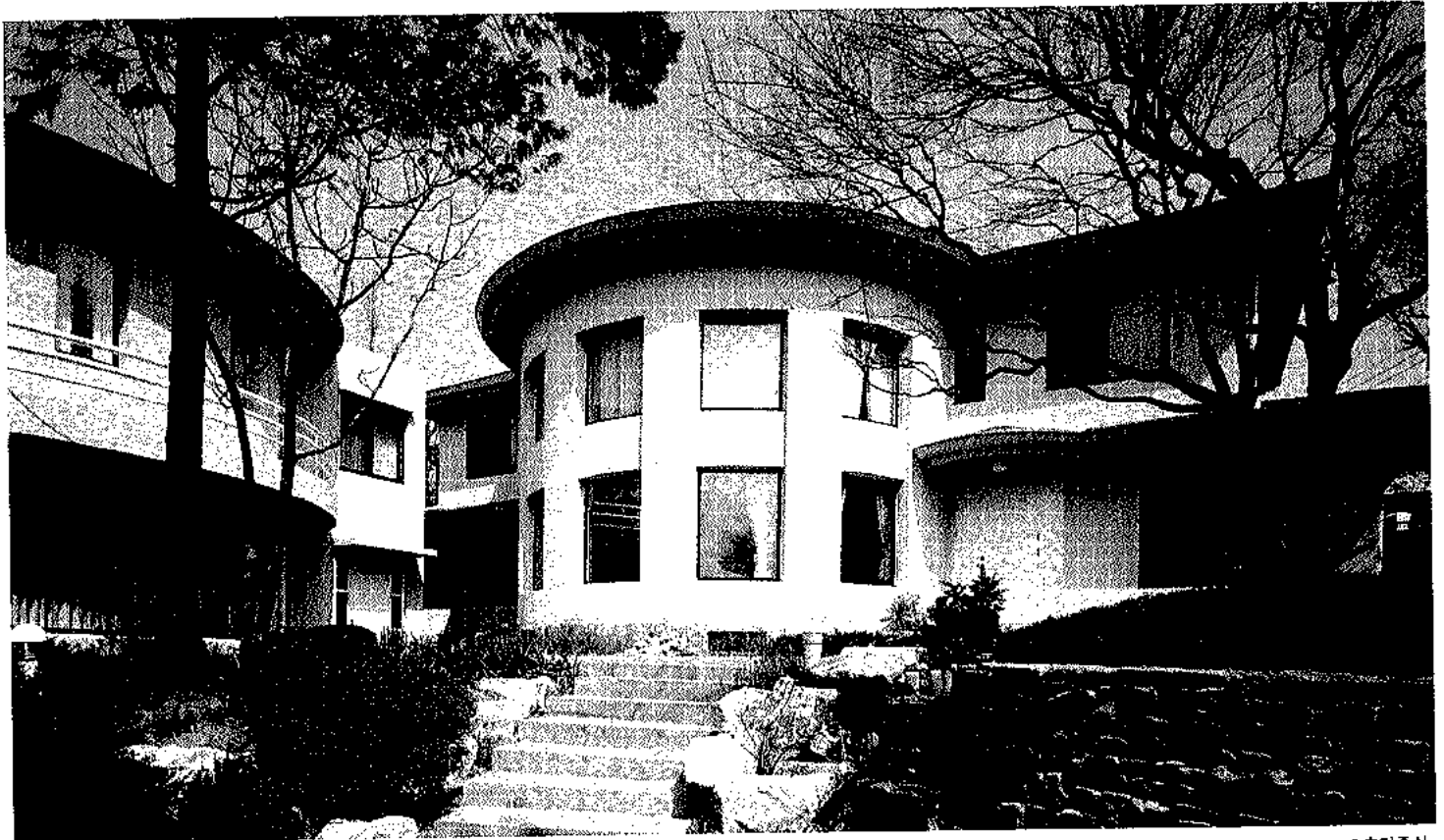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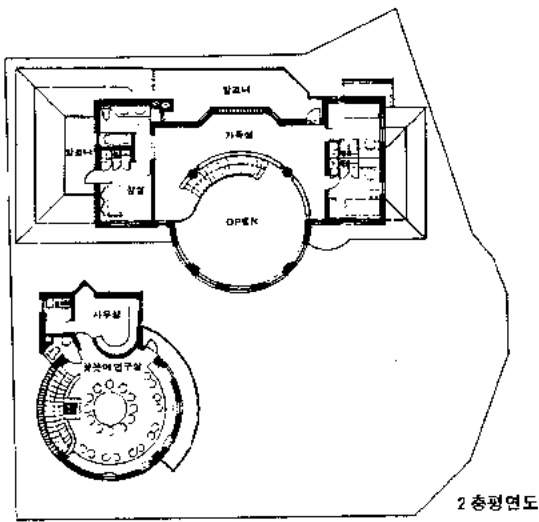
한 건축가로서 이렇게 귀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
 여러번 기쁨의 고민과 스케치를 통하여 사각테마에서
 8각으로 또 원으로 발전되었다.
 무한의 원과 유한의 사각의 만남.
 중심공간과 부속공간들과의 부드러운 관계.
 주공간인 주택의 지붕을 부공간인 부인의 꽃꽂이
 연구소보다 90cm 높여서 디자인 하였고
 가족의 조용한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별도대문과
 정원을 구분하였다.
 건축가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신 건축주께 감사드린다.
 작품을 완벽하게 표현해준 시공자에게 감사드린다.
 도시속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언제나 들을수
 있도록 디자인한 조경디자이너에게 감사드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사람
 한사람의 사랑속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인간관계가 너무도 아름다웠다.
 한건축가의 생애에 이와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있을수 있을까 생각하여 본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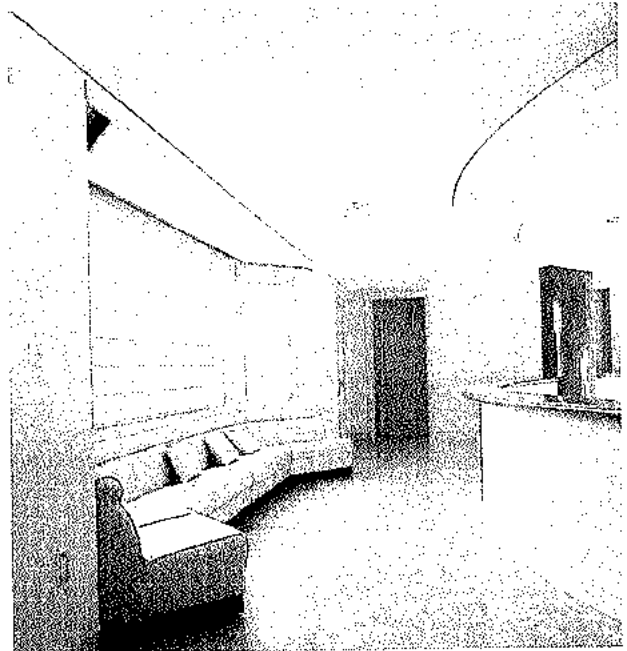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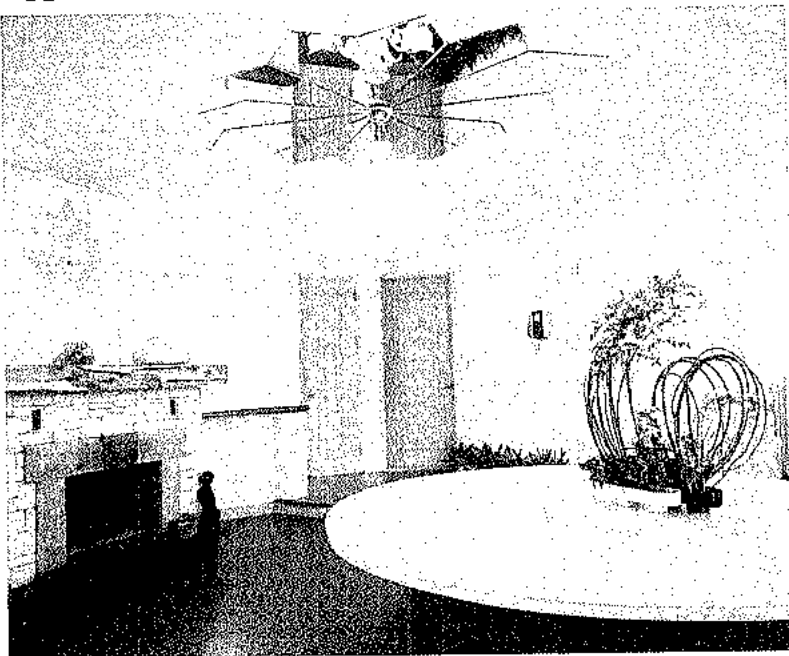
▼거실



▲정원계단 및 외부상세

▼꽃꽂이연구실

▼2층기족실



역삼동 M씨 주택

Yoksam-dong M's Residence

公日坤+文炳國 / 향중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Gong, Il-Kon & Moon, Byung-Kook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640㎡

건축면적/ 185.2㎡

연면적/ 지하층 : 30㎡

1층 : 182㎡

2층 : 84㎡

계 : 296㎡

외부미감/ 변색벽돌 치장쌓기

지붕 : 스페니쉬 오지기와앗기

설계소요

현대를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가 살아
가며 하루하루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현대문명의
소산 들이다. 각종 전자제품, 첨단기구, 의상, 각종 상품
 심지어 음식까지도 대량으로 기계로 만들어 내고 있다.
 건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콘크리트는 어나 오래된
 얘기이고 최근에는 철골, 각종 유리 및 금속, 조립식자재
(P.C), 각종 판넬등이 사용되어 하이테크(Hi-Tech)
 건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학 문명의 홍수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주지만 개인에게는
 삭막하고 외로운 느낌을 강요하고 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복잡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감정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생활의 휴식처이며 안락한 곳이 되어야
 할 주택에는 무엇보다도 원시적이고 자연을 느낄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싶다. 벽돌이 그러한 관점에서
 사용되었는데 벽돌은 고대부터 사용된 재료로써
 수공업적으로 하나 하나 쌓아야하고 주위의 역사적
 건물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벽돌로 되어 있어 친근감을
 느낄수 있으며 보는이를 향수에 젖게 해준다. 또한
 현대 건물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쇠락한
 느낌을 주는데 비해 벽돌 건물은 오래 될수록 더욱
 고동스럽고 멋있어지며 친근감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M씨때에도 거친 변색 벽돌을 사용하였으며 경사
 지붕에 스페니쉬 기와를 얹어 고전적 느낌을 더욱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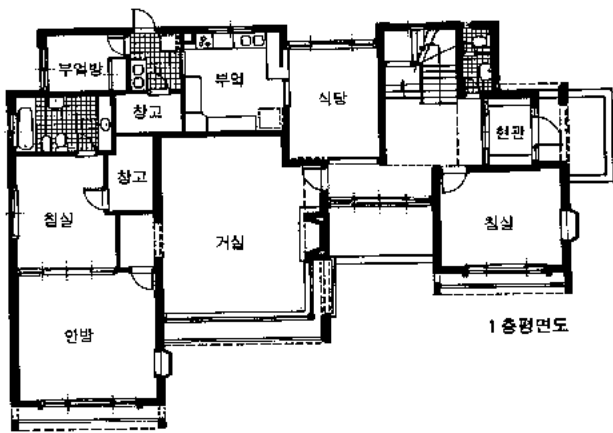
그러나, 고전적 디자인 수법인 모임지붕이나 4면 모두
 처마를 내민 형태를 피하고 기하학적인 면과
 1쪽만으로의 경사지붕, 1~2층을 연속시킨 지붕면,
 돌출창과 Open된 지붕, 7자로 꺾인창, 실내와 실내
 사이에 쌓여진 가벽등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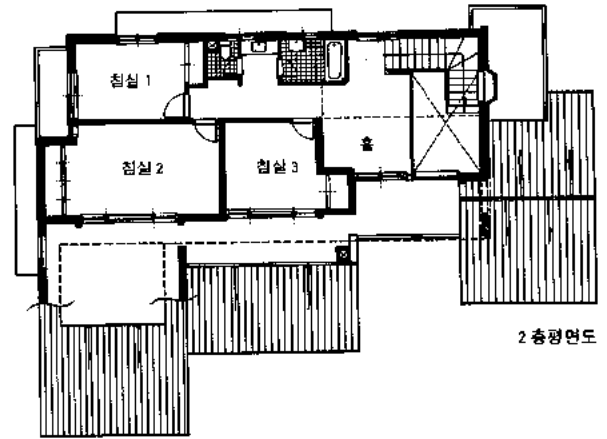
▲전경

거실▼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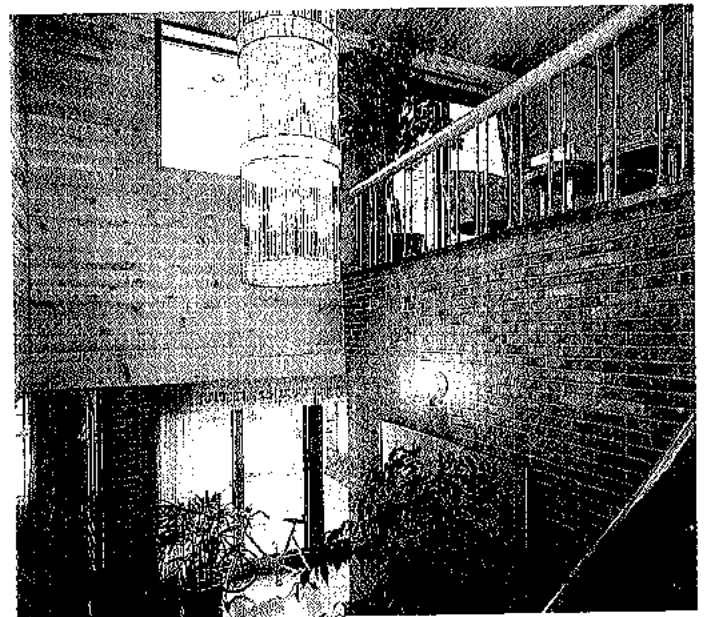
2층평면도



▲전경

외부상세▼

내부홀▼



화성 B씨 주택

Whasung B's Residence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ub

◆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대지면적/ 603m²
건축면적/ 111.44m²
연면적/ 153.53m²
지하 1층 : 53.99m²
지상 1층 : 99.54m²
외장재료/ 지붕 - 아스팔트 평붕
외벽 - 조리바드, 강철처장 빔기
준공일자/ 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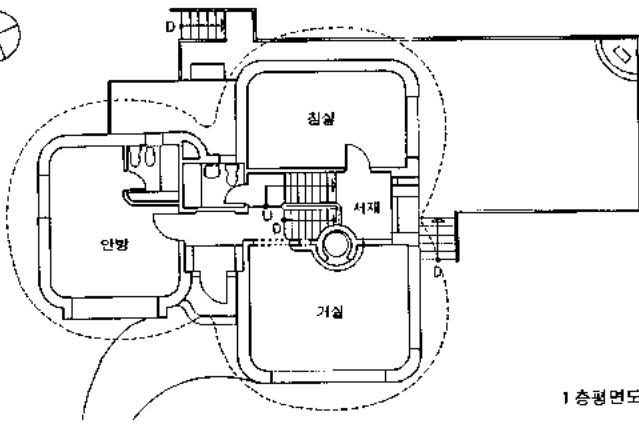
▲우측에서 본 전경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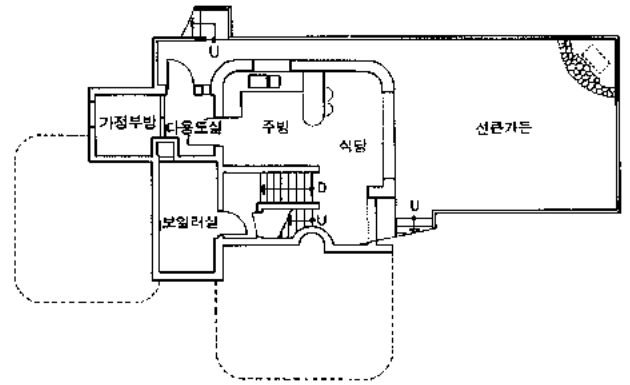
대지를 안고있는 높지 않은 산들, 그 산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줄기, 시내와 이야기 하는 대지, 나무, 새들, 광활하지는 않지만 도시의 그것보다 넉넉한 들판. 대지를 접하고는 이런 풍경속에 인위적인 구조물이 선다면 그역시 자연속에 어우러져야 할텐데 하는 생각을 했고, 전통의 계승이니 뭐니 하는 부잡미묘한 생각들을 떨쳐버린, 다만 우리의 영상기억에 거슬리지 않는 작은집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조가집을 생각했다. 호박들로 결정된 정두리배, 흰색의 상방벽, 짙을 선택할 수 없었던 지붕 재료의 선정..... 이런 작업속에 막돌과 황토흙농 그곳의 재료에 대한 욕심이 생겼지만 소재나 재료선택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과 유지관리의 현실감이 이 정도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30평 한도 내의 건축규모로 단순명료한 평면이 만들어 졌으며, 2세대 공존의 생활구조를 만족하기 위해 계단실과 거실을 매개로 한층 엮일린 형태의 침실이 계획됐다. 그리고 식당층과 연결되는 선큰 가늠은 넓은 마당 한쪽을 함해해 석당에서의 시각적 안정감과 또한 옥외생활과의 연계를 유도했다. 입식생활 위주로 선택된 재료와 가구들은 좌식생활과 같은 아늑한 스케인의 공간을 갖지는 않지만 공갈린 모서리벽이 주는 부드러운 실내분위기와 낮은 원경, 한지벽지가 주는 따스한 질감, 누마루 형식의 바닥매틴들을 선택해 되도록 낮게 가리않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게 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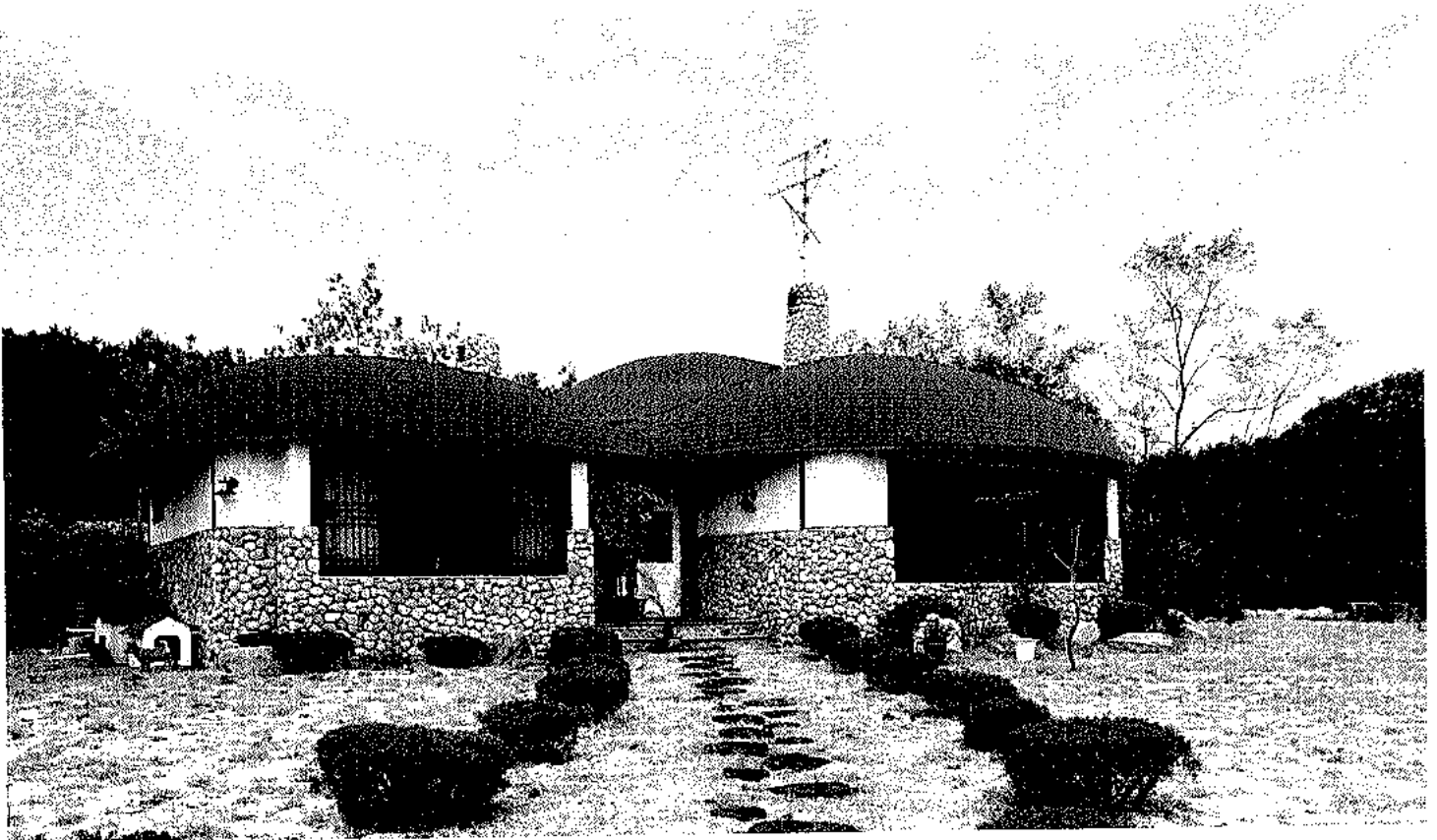
거실▼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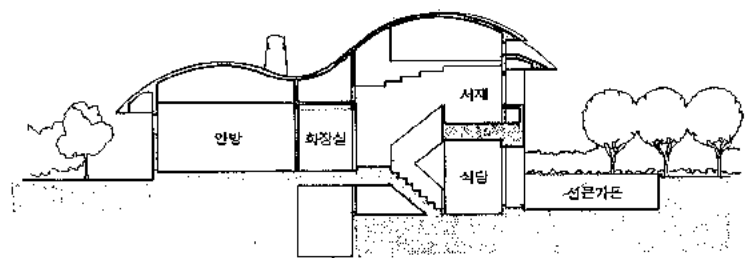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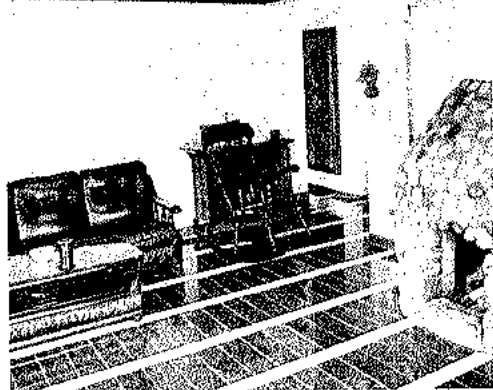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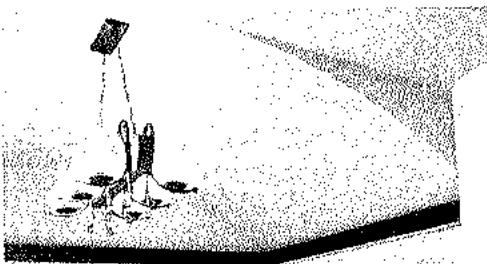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전경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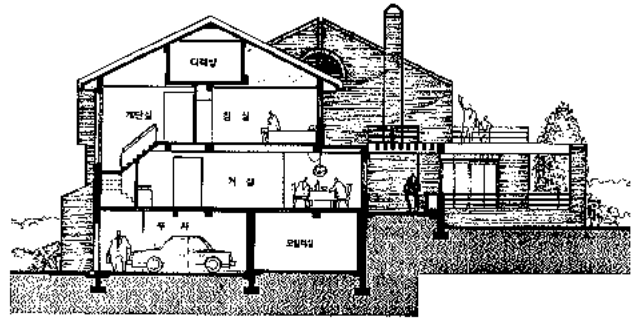
단면도

루터교 선교사 사택

Missionary's Residence, Lutheran Church

金正湜 / (주) 정림건축

Designed by Kim, Jung-SiK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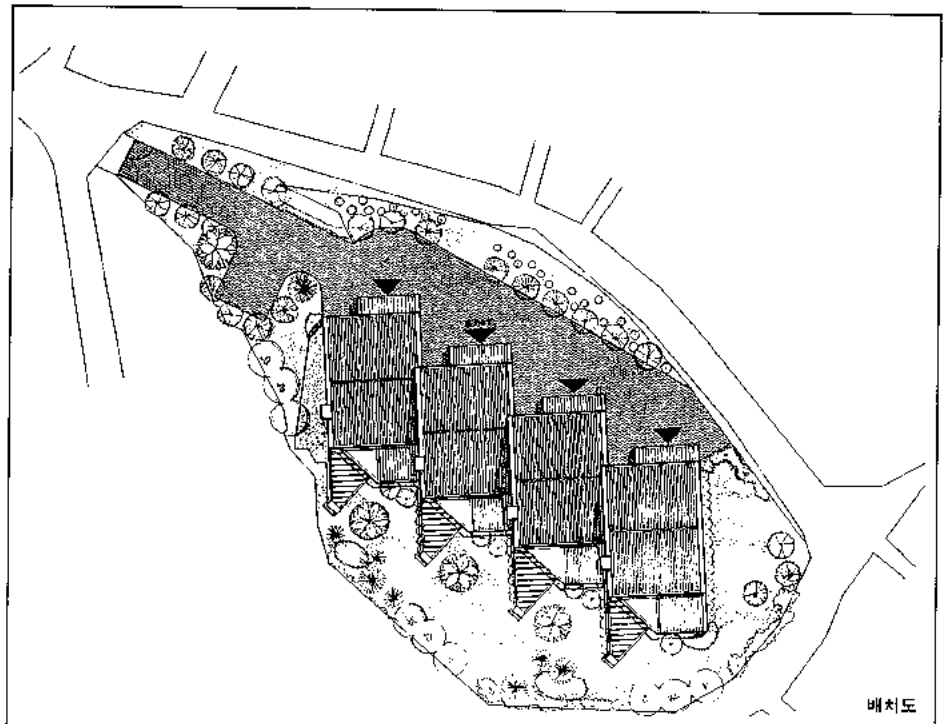
◆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대지면적/ 1910m²
건축면적/ 434.3m²
연면적/ 970.1m²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장재료/ 흰색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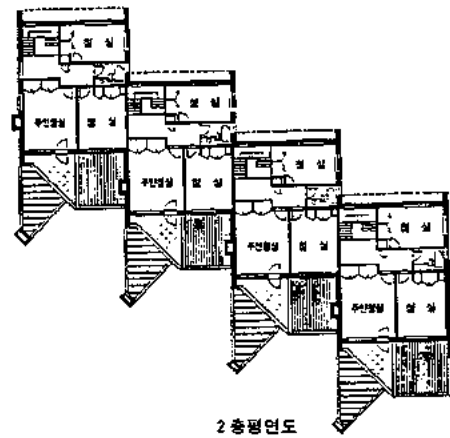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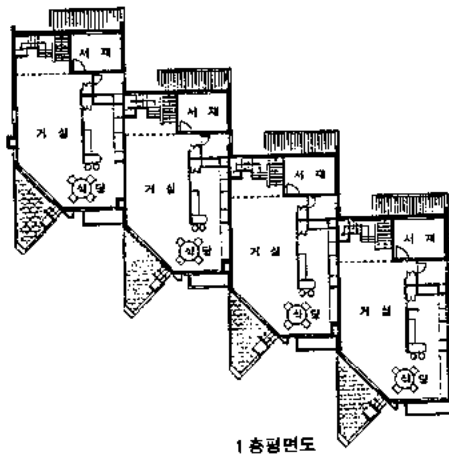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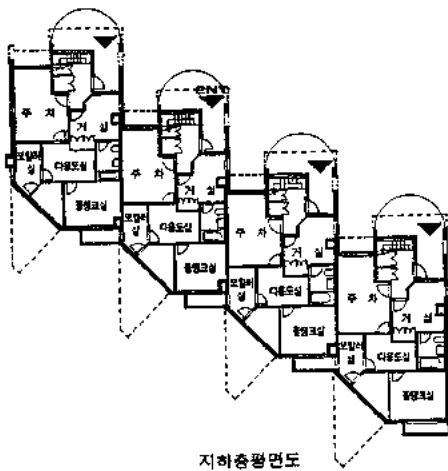
▲ 외부상세

설계소요

남산을 배경으로 넓고 멀리 조망할 수 있는 남향바른 Site 인 반면, 협소한 진입도로와 조밀한 주택가의 위치에 계획된 국내거주 외국인 선교사들의 가족을 위한 4세대의 연립주택이다. 주변현황이 다소 산만하지만 삶의 기준질서 및 Scale을 포용할 수 있게 진입부의 기존 은행나무를 살리며, Mass단위의 분할, 조합, 통일을 Motive로 세대별 거주성에 (일조, 전망, 독립성) 중점을 두었다. 선교사들의 고유한 생활방식을 최대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주 출입구는 전면대지보다 2m 낮은 후면에 설정, 외래인 출입, 차고, 서비스위주인 반면 전면 남향은 바베큐테라스를 중심으로 거실, 식당, 관리정원의 연계성으로 가족중심의 Private한 생활공간으로 부터 세대간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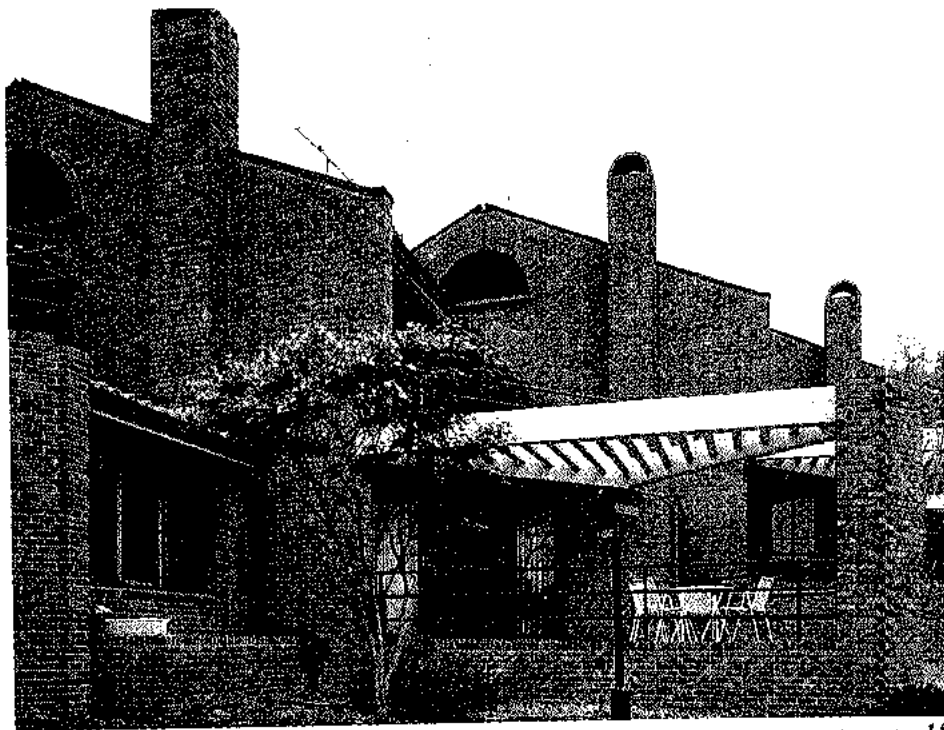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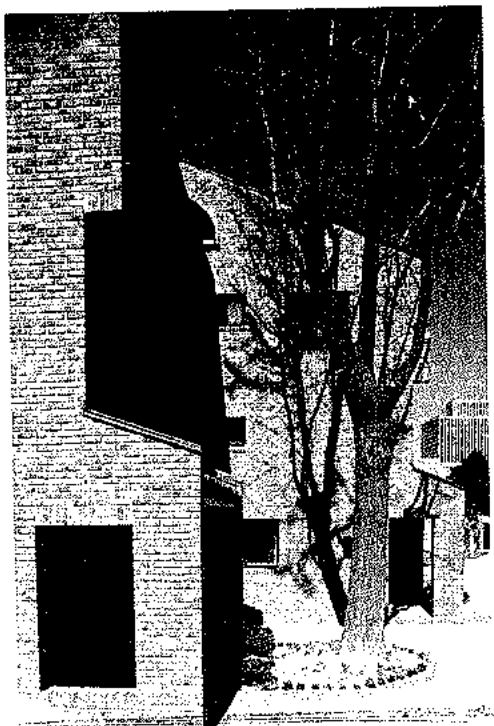
배치도



▲전경

복속출입구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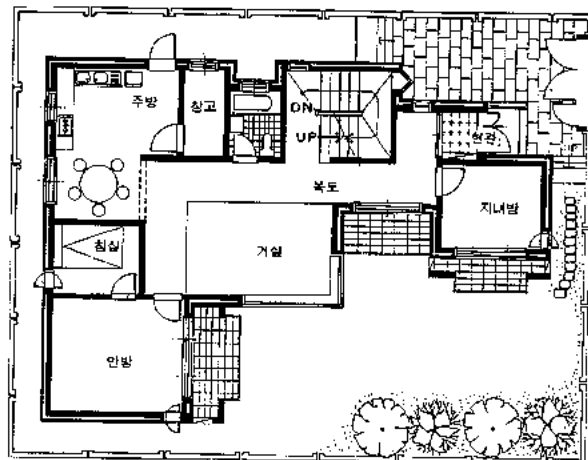
서측의무상세▼



갈현동 K씨 주택

Kalhyun-dong K's Residence

徐鎮宇 / 건축사사무소 協演
Designed by Suh, Jin-Woo



1층 평면도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건축면적/ 113.97m²
연면적/ 227.34m²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조적조
주요의장재/ 스페니쉬기와, 적벽돌

설계소묘

서오능 입구부근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김씨댁은, 가족들의 다양한 바램을 설계자의 기본계획과 모형을 함께 보며 형태와 기능을 정리해나간 가족모두의 소박한 개성을 간직한 주택이다. 반듯한 장방형의 대지위에 인근주택들과 시각적조화, 평면상의 적절한 가설배치, 무엇보다 풍부한 자연혜택을 얻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서를 축으로 남향으로 배치를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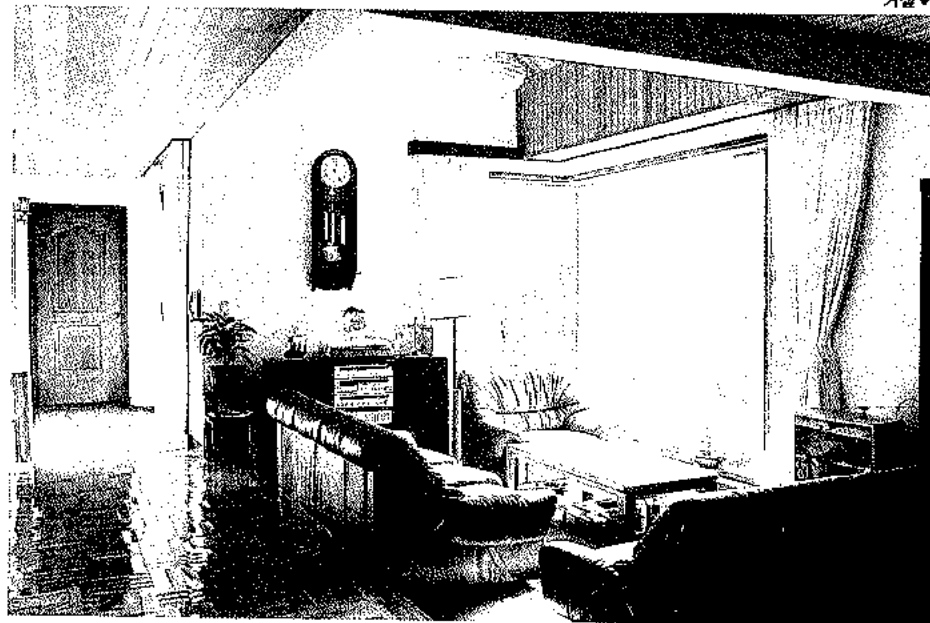
외형은 중앙축 부분을 보다 상승시켜 별첨으로서 안정감을 높이고, 지붕의 사선과 외벽의 수직선이 간결하게 만나게 하여 디테일을 정리 하였다. 각실면적의 분배는 기능상으로 높은 효율을 지닌 공간이 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분리, 조합 하였다. 안방과 침실은, 거실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아늑한 별채의 느낌을 지닌 부부만을 위한 공간이 되게하고, 거실은 북도보다 1레벨을 내리고, 코너부분을 전창으로 하여 안락함과 조금 좁은 정원과 거실이 시각적인 연속성을 이뤄 확대감을 가질수 있게 하였으며, 제단실에는 수직돌출창을 두어 적당한 채광과 순간적인 폐쇄감을 벗어나게 하였다.

정원과 실내는 Sun Deck와 테라스의 전이공간을 두어, 실내외공간을 무리없이 연결하도록 하였다. 외장은 스페니쉬 오지기와와 적벽돌로 평범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마감하였다. 조경은 밀집한 인접주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하고, 정돈된 정원 분위기를 살릴수 있게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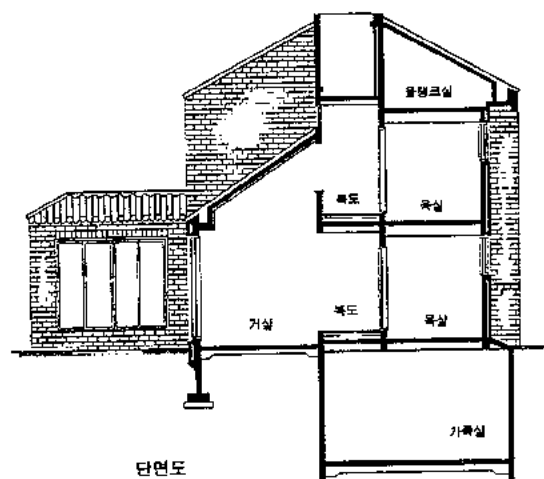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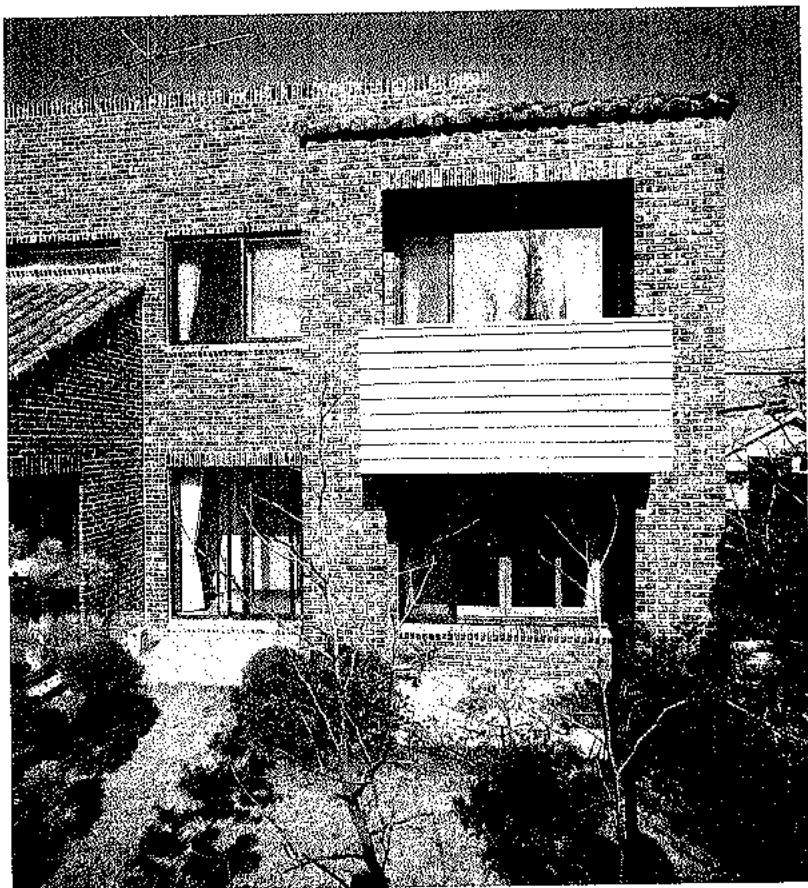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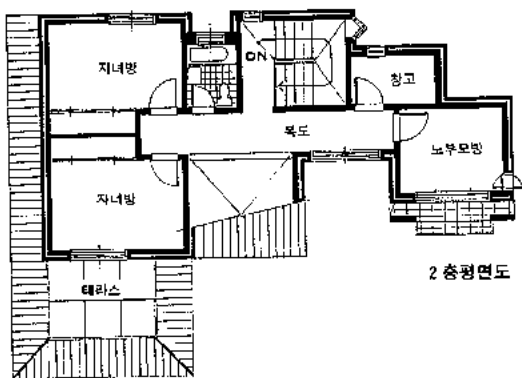
시공은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였으며, 정해진 예산에 우리가 가지않는 범주내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였다. 심플한 분위기의 개성을 지닌 주택으로 김씨댁을 기억하고 싶다.



▲전경



거실▼



자곡동 주택

Jakok-dong Residence

鄭求殷 /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ung, Koo-Uen

◆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대지면적/ 319m²
연면적/ 199.49m²
건축면적/ 99.96m²
건폐율/ 31.36%
용적율/ 31.36%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구조/ 소적도
외부미감/ 직벽돌 치장방기
아스팔트 평단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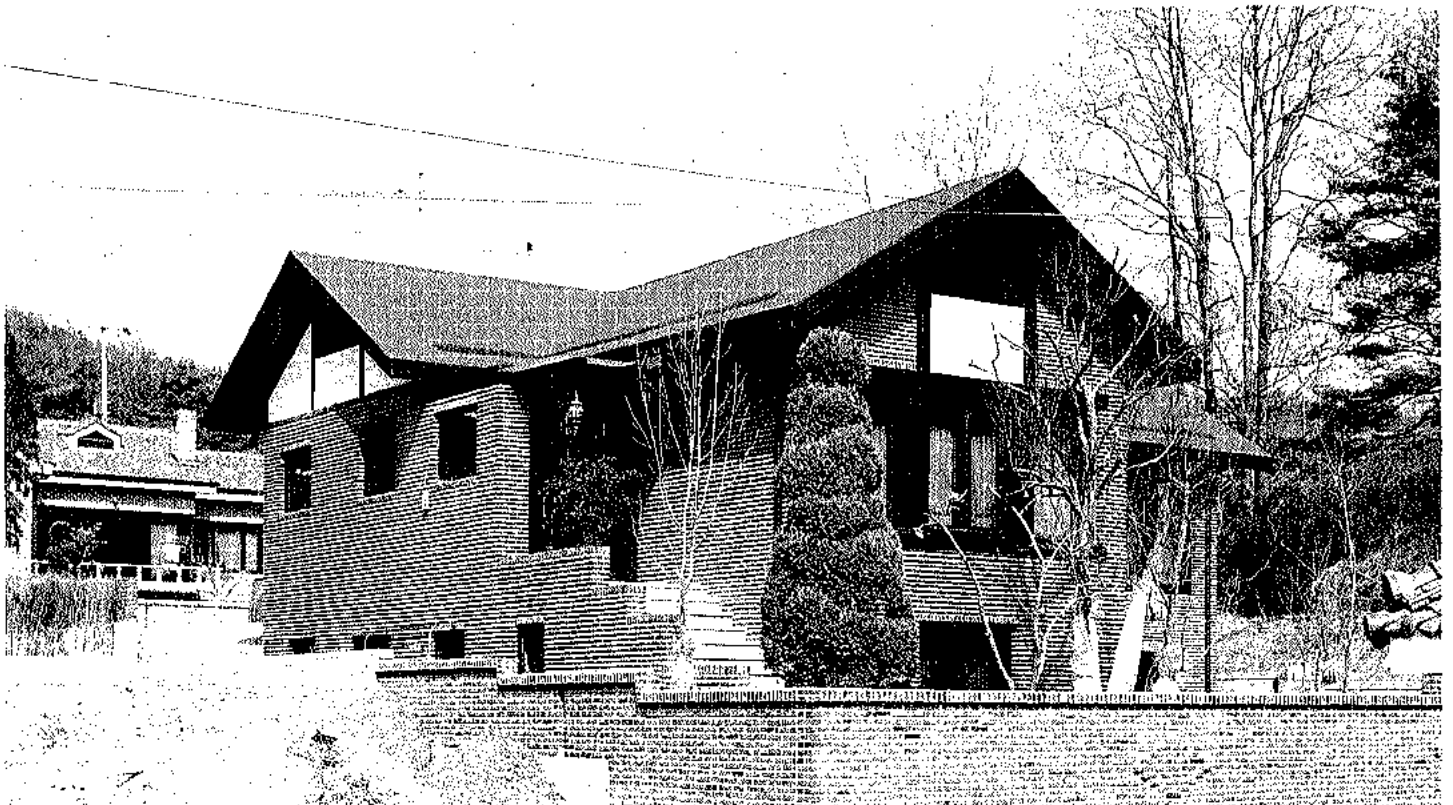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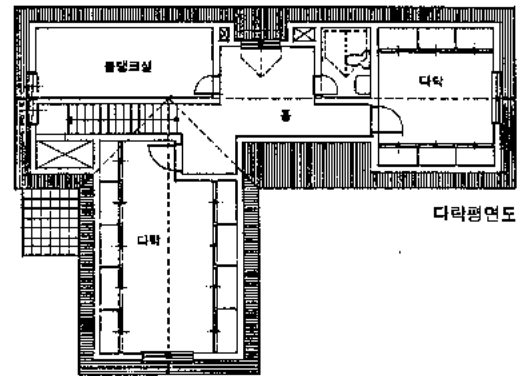


▲ 외부상세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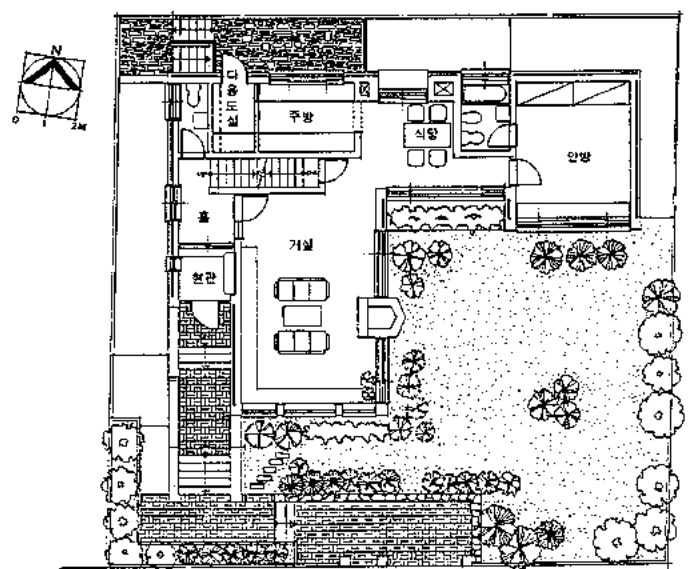
도심속에서 자연과 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이 점차로 도시근교주위에 전원주택단지와 주택군을 형성하면서 전원주택으로의 주택선호경향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계획부지는 가락시장과 성남으로 가는 신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전면의 단천을 끼고 2km쯤 기쁜 논밭과 수목들로 둘러싸인 낮은 야산들이 펼쳐지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 면적 100여평에 건축 면적 30평으로 건축제한된 개발구역으로 지하층과 다락 일부만이 허용되는 지역이므로, 200~300평 대지위에 텃밭을 일구면서 여유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하면서 싱그러운 향기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주거환경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경사면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본 대지에의 진입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지붕면의 수평선 강조를 외관계획의 주안점으로 하여 건물의 배치 및 평면을 구성하였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꾀하기 위하여 거실 및 식당 전면을 창으로 Open시켜 채광, 환기는 물론 훌륭한 경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관상부벽 강화유리로 설치하여 매개공간을 두어 여유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였다. 또한 거실과 식당, 홀을 하나의 공간으로 처리하여 리드미컬한 공간의 연속적인 흐름과 시선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으며, 자연과 접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외관

▲식당



배치도 및 1층평면도

대덕 에너지절약형 주택

Daeduk Energy Efficient Residence

金基弘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朴相東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Designed by Kim, Kee-Hong & Park, Sang-Dong



대지위치/ 대전시 서구 도룡동 397-37

대지면적/ 330㎡

연면적/ 15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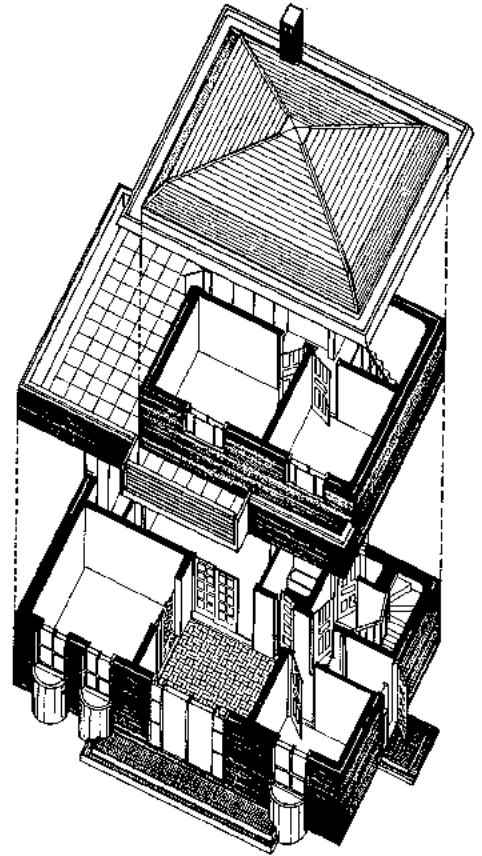
건축면적/ 82.38㎡

구조/ 조적조

미감재료/ 외부- 적벽돌 치장쌓기(일부백색본타일)

지붕- 갈라아스팔트보형균

시공감리 / 徐輔光 (동성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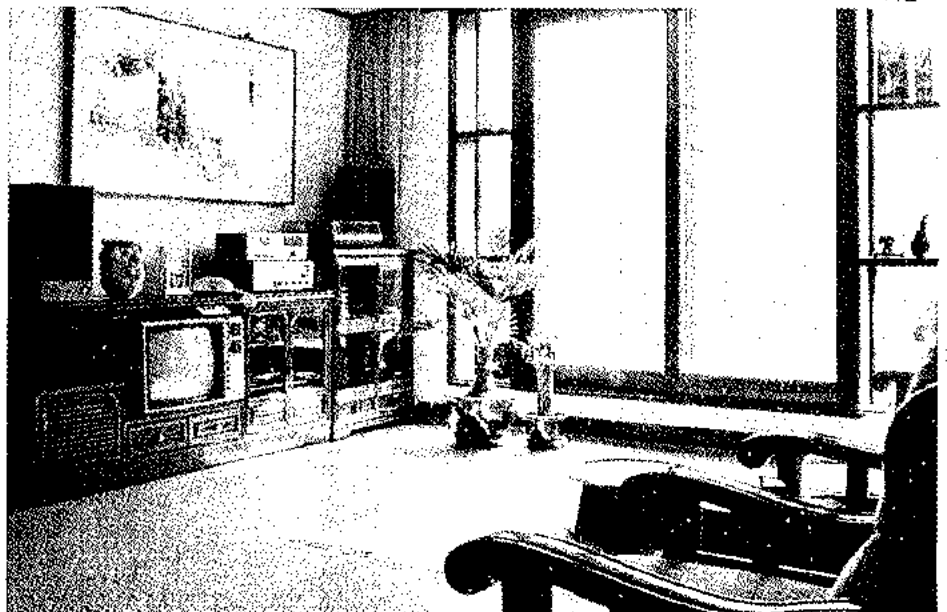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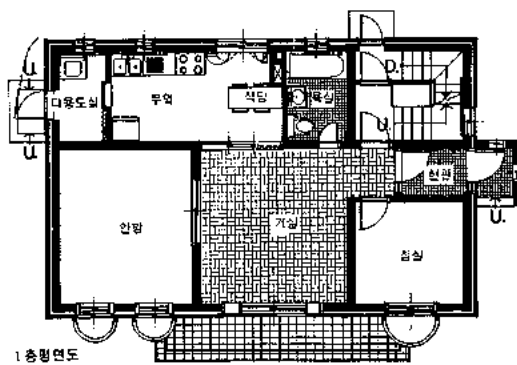
설계소요

본 에너지절약형 주택은 우선 공간 구성에 있어서의 기능성이라든가 쾌적성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등 주택의 기본적인 성질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을 특히 고려 하였다. 전체 에너지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주거 부문에 차지하는 비율은 36%나 되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에 관심이 집중되어 지고 있다.

열 에너지는 그 획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의 평면이나 입면을 단순하게 구성하여 외피 면적을 줄여 에너지 손실을 줄였으며 집안으로 맞 바람을 끌어들이며 여름철의 냉방부하 감소 효과를 노렸고, 창에는 화단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는 많은 열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열을 막게 하였다. 또한 건물 내부에 굴뚝을 두어 이를 통해 빠져 나가는 폐열이 굴뚝 속에서 건물 내부로 방열하도록 하였으며 열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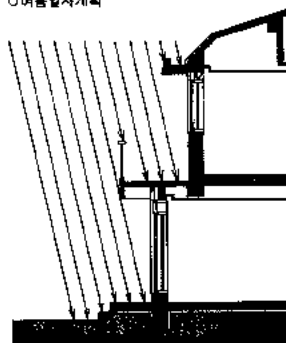
따라서 장기적으로 늘어 나는 주택 수요를 감안 해 볼때 이와 같은 형의 주택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크게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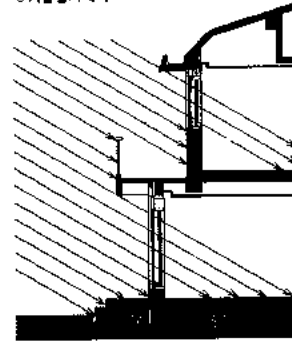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여름일사계획



○겨울일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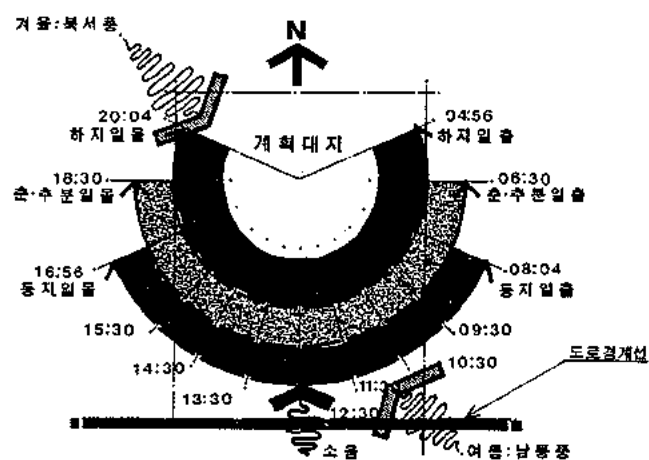


▲전경

주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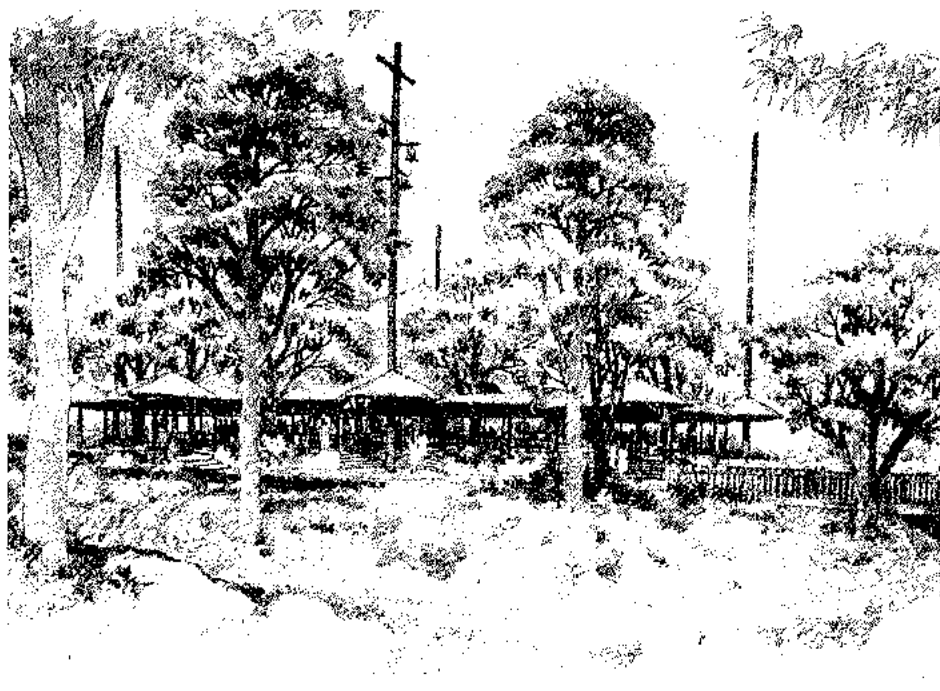
■ 대지분석



Mary Immaculate Parish Church

Designed by Francisco Manosa & Partners

◆ 건축 명: Mary Immaculate Parish Church
 위치: Moonwalk, Las Pinas, Metro Manila
 준공: 1987년 12월
 설계자: Francisco Manosa & Partners
 주소: 4th Floor, ARAZA Building, Paseo De Roxas Corner Makati Avenue Makati, Metro Manila
 작성자: 건축사 Marjorie Enriquez Musni



▲투시도

개념

자연은 신이 인간에게 베푼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다. 그의 피조물인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인바 자연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주위에 또한 자연이 있다는 이 개념이 이 교회의 설계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곳은 고요한 자연적인 형태를 지닌 신의 풍부한 소산으로서 신목의 덩굴과 향기로운 나무, 그리고 천막교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신의 선물인 것이다. 교회의 크기나 모양은 그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어서 인간이 신에게 복종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배경

첫째로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현존하는 유리화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좀더 혁신적이고 향상된 교회를 원했다. 현존하는 건물은 마치 창고같아서 교회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를 위한 그 역할과 임무,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잃고 있다. 이미 현존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희박하더라도, 앞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조와 방법으로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건축사들이 교회신축의 배경을 알았을 때 얻어진 것이다. 울창한 나무와 두껍게 쌓인 낙엽 가운데 실제로 원을 형성하는 명백한 지역이 드러났으며, 그 지역은 건물을 짓기에 안정마춤인 곳이었다. 넓게 퍼진 나무그늘과 경사진 지형, 그리고 양쪽으로 부는 바람 등 모든것이 너무나 자연적으로 보였으며, 이곳에 순수한 자연적인 교회건축물을 짓기에는 더욱 더 좋은 곳이었다. 이 토지의 소유자인 매우 상냥한 Perpetua J. Martin 부인은, 이곳에 영구적인 건물은 짓지않는다는 원칙하에 1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해 줄것을 동의했다. 이러한 조건이 건축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으로서 결국 건물은 임시적인 것이어야만 하며 지붕은 고유의

건축재료인 "anahaw" (열대야자수 잎)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정적인 면에서 볼때, 건물구조는 교회의 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토착교회가 세워질때 신은 또 한번 그의 역사를 매우 신미한 방법으로 행하셨다. 지주였던 부인은 그 교회의 건물구조에 감명을 받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믿음에서 우러나 그 토지를 교회에 기증하게된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전통적인 필리핀 사람의 감정적인 마음과 신심, 그리고 믿음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다.

구조

이 교회의 구조면에 있어서, 기술은 자연과 건축을 매우 조화있게 만들었다. 11/2인치의 두꺼운 강철 주전선로와 3.5m X 5.0m의 보조전선로를 잇는 6개의 콘크리트 탑은 마치 낙엽터미의 일부분 같이 보였다. 표상적으로 전선로는 기술과

NAME OF PROJECT	: MARY IMMACULATE PARISH CHURCH
LOCATION	: MOONWALK, LAS PIÑAS, METRO MANILA
DATE OF COMPLETION	: DECEMBER 1987
DESIGNING ARCHITECTS	: FRANCISCO MAÑOSA & PARTNERS
ADDRESS	: 4TH FLOOR, ARAZA BUILDING PASEO DE ROXAS CORNER MAKATI AVENUE MAKATI, METRO MANILA
 CONCEPT & RATIONALE	
WRITTEN BY	: ARCH. MARJORIE ENRIQUEZMUSNI



CONCEPT

Nature is God's greatest reflection of his love for man. Man as his creation is also a part of this nature—that within nature there is man and surrounding man is nature—a concept that is deeply imbedded in the design of the Mary Immaculate Parish Church. The site of this church, which has been gifted with God's abundant surroundings of verdant shrubberies and luscious trees, nestles a tent-church structure, both natural and indigenous in form. Its size and form do not overpower its natural surroundings, yet it blends with it—metaphorizing man's submissiveness to God.

BACKGROUND

The priest-client wanted primarily to have the existing glass and concrete church be improved and renovated. But

the existing one is warehouse-like and is not reflective of a church, thus, losing its role and impact to the community it serves. It seemed there was very little that one could do on the said existing church, but to provide new grounds for a new structure. The answer to the problem came when the architects explored the back of the church and stumbled into a property—thick of foliage and trees with its center having a clear area that practically formed a circle and was perfect enough to build a structure into. Everything looked so natural—with the existence of huge widespreading shady trees, a sloping terrain and a winding creek that ran on two sides of the property, thus making the site more dramatic—a perfect setting for a simple natural church architecture.

A certain affable Ms. Perpetua J. Martin owns the property, who agreed to 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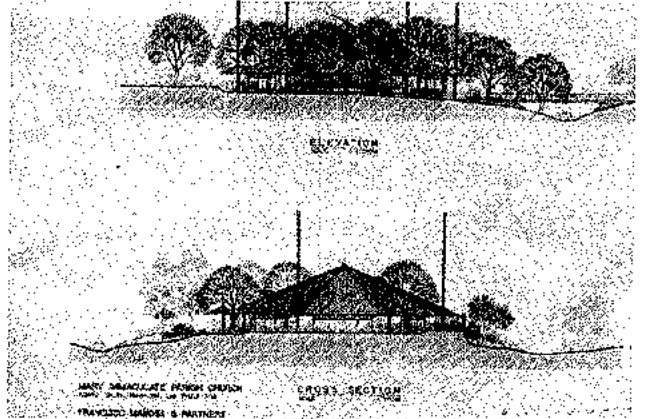
the site for ten years, but preferred not to have a permanent structure be built there. This condition turned out to be the key to the design—something must be built temporarily—and out of this, an indigenous "anahaw" (a tropical palm leaf) tent was conceived to shelter the church. In terms of economy, the tent structure proved to be very feasible and affordable to the parish funds. God must have worked again in His very mysterious ways, for when the indigenous church was being built, the lady was touched by the structure, fell in love with it, and out of faith donated the property. Such act reveals the typical Filipino's emotional character, munificence and faith.

THE STRUCTURE

In this structure, technology embraced nature and architecture in a very



▲내부



자연을 묶은 것이며, 구조적으로는 전선로가 마치 아늑한 “anahaw” 같이 보여 필리핀의 헛간가옥 지붕모양과 필리핀 기후에 맞는 경사진 모양의 전통적인 형식을 이루었다.

자연적인 환경과 함께 “anahaw”란 말은 돌기종을 뿐만아니라 교회설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바람이 불때면 교회로 가는자로 하여금 우주의 움직임울 느낄 수 있게 하고, 또한 대나무로 만든 곡선모양의벽 둘레에는 원천적 생기와 힘이 넘치는 자연의 유산을 받아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필리핀 공간 이용면에 감각적인 환경변화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것을 종합해 볼때, 설득력있는 건축 매개체는 새로운 창조에 기여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만이 외부로부터 잘못받아들여진 기공물질은 환경의 방해없이 필리핀 자국 건축을 재평가할 수 있게된다. 자국의 문화를 하나의 인격으로 볼때, 개개인의 부주의한 표현이 곧 문화의 분리를 초래하게 한다. 강력한 사회적 유산의 전지에서, 본 이론은 다름아닌 필리핀 문화의 영역을 일깨워주는 역할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아치문과 울타리, 그리고 나무다리는 각듯한 예외로 신도들을 환영한다. 교회 입구에 있는 냇가의 바위들과 표석들은 비록 가지런히 놓여있지는 않지만 자연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은 필리핀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850 평방 미터 안에 있는 교회 둘레에는 14개의 망고와 타마린드 나무들이 있어 외부의 경관과 내부의 건축사이에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들은 또한 예수의 수난십자행로의 14처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장막지붕 위로 솟아 나온 넓게 펼쳐진 굽은 나뭇가지들과 잔가지들은 건조물 주변을푸르게 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나무가 솟아나온 지붕부분은 비가 올 경우 그 나무기둥들이 배수역할을 하여 빗물이 자연히 땅속으로 흘러내리게 했다. 교회에는 벽이 없으므로 완전한 환풍과 일광을 얻을수 있고, 사방으로 부터 시원한 미풍이 자유롭게 통풍되며, 적당하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광선, 그리고 나뭇가지들의 푸르름으로 인해 현란치 않은 은은하고 상쾌한 햇빛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은 고결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를 감싸고 있는 자연과 완전하게 조화할 수 있으며, 신과 함께 완전무결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밤이 되면, 175마리의 비둘기 무리 모형의 조명이 장막에 비치고, 이 무리는 마치 자유롭게 난무하는 새들과 같이 보인다.

성령과 평화의 상징과 같은 비둘기 모형의 조명은 두개로 연결된 C형의 1/2인치 두께의 동파이프에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켜 주는 것은 풍성한 교유의 섬유인 “anahaw”의 부채꼴모양으로 겹쳐진 천장이다. 교회 전경의 자연적인 지형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경사진 면에는 예배석을 두어

제단으로 향하게 하였고, 그 제단에 아침 광선이 들게 했으며, 즉 제단을 중심으로 예배석이 둘레에 있어 이들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미사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과 열을 피해서 열수 있도록 하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대리석으로 만든 제단과 연단을 받치는 유목과 교회의자로 사용되는 나무 그루터기, 조그마한 자갈들이 산재해 있는 바닥에 깔은 가로자른 통나무마루, 제단위에 있는 연못, 흙벽돌로 만든 성물실 등의 모든 건축자재들을 그곳에서 얻을수 있었고, 그 둘레의 경관은 이러한 환경조성과 함께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었다.

외관상으로 볼때, 교회에 벽면이 없고 시각적인 기둥이 없어 마치 교회지붕이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하는 것과 또한 개방성의 느낌을 주는것 즉 우주가 공간을 떠돌고 거기에 있는 지붕은 가장 시각적인 요소로서 교회와 주변환경과의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그들을 융합하는 것과 같은 이 느낌이 필리핀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개념에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은 이 교회의 교구민과 비교구민 모두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있어 교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경배를 위한 장소와 신을 위한 성소가 되었다. 지금은, 돌과 바위 위에 서서히 이끼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보다 더 자연과 신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글 : Jorie L. Enriquez - Musni



▲전경상세

graceful manner. Six concrete pylons that seemed to be part of the thick foliage provided support for the 1 1/2" thick steel main cables, to which counteracting secondary cables ran in tension to the 3.5 m by 5.0 m deadman. Symbolically, the cables tied the knot of technology to nature; structurally, the cables brought up the treated "anahaw" tent snugly, hence forming the traditional shape of the Filipino hut's sheltering roof and creating the slope suitable to the Philippine climate. Not only did the "anahaw" tent come in euphony with its natural surroundings, but so did the elements that constituted the church.

The presence of the winding creek provided a feeling of movement in space, for when one enters the church, a wooden bridge has to be crossed with a bamboo arch and bamboo railing ceremoniously welcoming the church-goer; typical of any Filipino religious custom in church entranceways. The existing rocks and boulders along the creek were not landscaped and trimmed in an orderly fashion, but were left in their own unsophisticated state—these stones marking the solidity of the Filipino's unyielding faith. Inside the 850-square meter church,

the encircling fourteen mango and tamarind trees became transition points between the exterior landscape and the interior architecture, also functioning and symbolizing the fourteen stations of the Cross. The thick spreading branches and twigs of the trees jut out of the tent roof, serving and adding to the camouflaging effect of the surrounding greenery to the structure. Rainwater coming from the roof is naturally drained to the ground, and where there is a tree puncturing the roof, its trunk and roots function as downspout and catch basin respectively.

Since no walls enclose the church, ventilation and daylighting is perfectly achieved—a gentle cool breeze flows in freely on all sides and adequate rays and streaks of sunlight filter in through the leaves, twigs and branches of the surrounding verdure—creating no glare at all. With this setting, one feels an atmosphere of elevation and peacefulness, one feels that he is impeccantly attuned to the nature enveloping him, flawlessly in commune with God. At nighttime, lighting is effected by a flock of 175 dove lights done in indigenous capiz shells, and which is formed and patterned like a flock of birds freely flying in a migrating manner. As a symbol of the Holy Spirit

and Peace, the dovelights are held by 1/2 thick brass pipes forming two interlocking C's in layout and pattern. Complementing these capiz lights is the layered ceiling of treated "anahaw" leaves that create a very rich indigenous texture and an overlapping pattern of fans.

The natural contour of the site was fully exploited by facing the church seats towards the altar, where the slope is at its lowest, and where the radiant morning sun shines in—herefrom the church orientation and the theatrical slope run in concomitance with each other. Masses in the afternoon can be held conductively, with no afternoon sun heating and glaring the audience.

The use of driftwood supports for the one-piece unpolished marble altar and the lectern; the use of wood stumps that act as church pews; the cross-cut hardwood logs flooring that were randomly interspersed with small pebbles; a pond at the back of the altar; and the crazy-cut adobe stones for the sacristy—all these available materials at the site complete and complement the encircling landscape—blending softly with its environment.

Important as it is for the Filipino's concept of space; the seemingly floating roof, because no walls and columns support it visually; provide a feeling of openness—where space flows into space and where the roof, which is the strongest visual factor, merges with the landscape to provide an ideal harmony between the church and its terrain.

Parishioners and non-parishioners both enthusiastically attend masses in the church, that it is now fittingly serving its role—a place for worship, a place for God. When the priest moved in to the place, nobody knew him, now after this church has stood, it has given him and his parish a sense of identity.

At present, moss is slowly growing out of the stones and rocks—doing their role to make the Church be more a part of nature, be more a part of God.

Written by: Jorie L. Enriquez-Musni

경제적인 23평형 주택

23sq. M Low-Cost Residence

Designed by Khu Kwan 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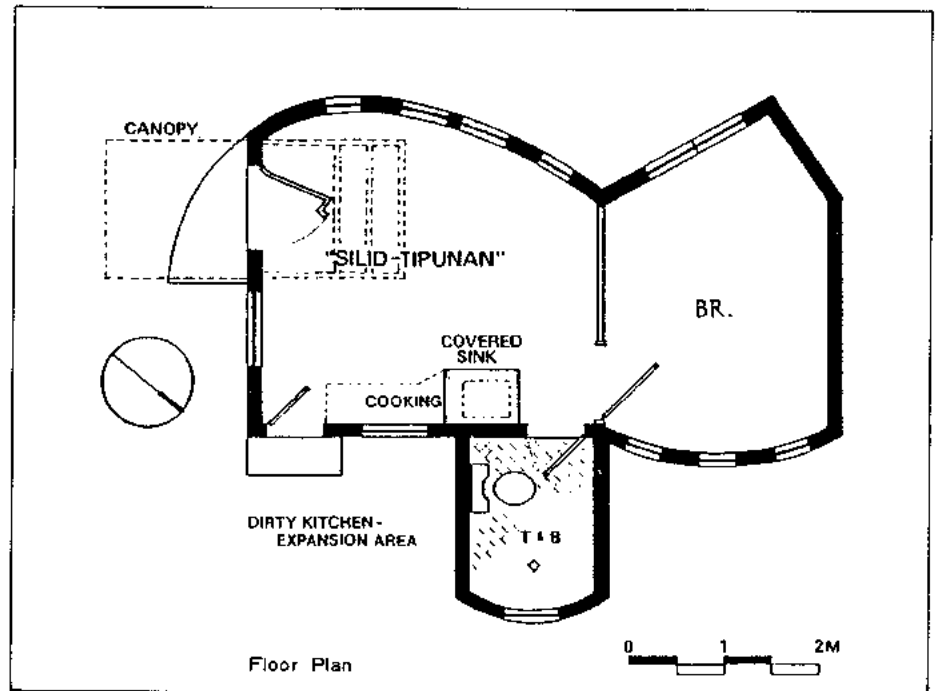
건축설계작품 : 경제적인 23평형 주택

건축사 : NHU KWAN TU

Napolexander B. Mina (설계 원장)

Crisma C. Mina (보조 설계사)

주소 : 42 Miami St., Cubao, Quezon City, Philippines



설계작품의 개념

건축양식이란 자국의 문화를 반영케 하는 매개체로서 그 나라의 문화를 축정케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 문화를 축정할 때에는 전통관념에서 본 형식과 기능의 이중적 가치관만 뿐만 아니라 건축양식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와 그 문화권에 미치는 영향력등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

본 설계작품은 필리핀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건축양식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그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하고, 또한 이 건축물을 시도함으로써 필리핀의 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 이론이 현대건축이 당면한 문제점에 전적으로 처방책이 된다는 것 보다는 한가지 새로운 안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문제점을 위한 대안책이란 필리핀 국민의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이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문화권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훌륭한 매개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일개의 피상적인 요소가 모여 하나의 집합적인 구성체가 될 때 그것은 물질적인 존재인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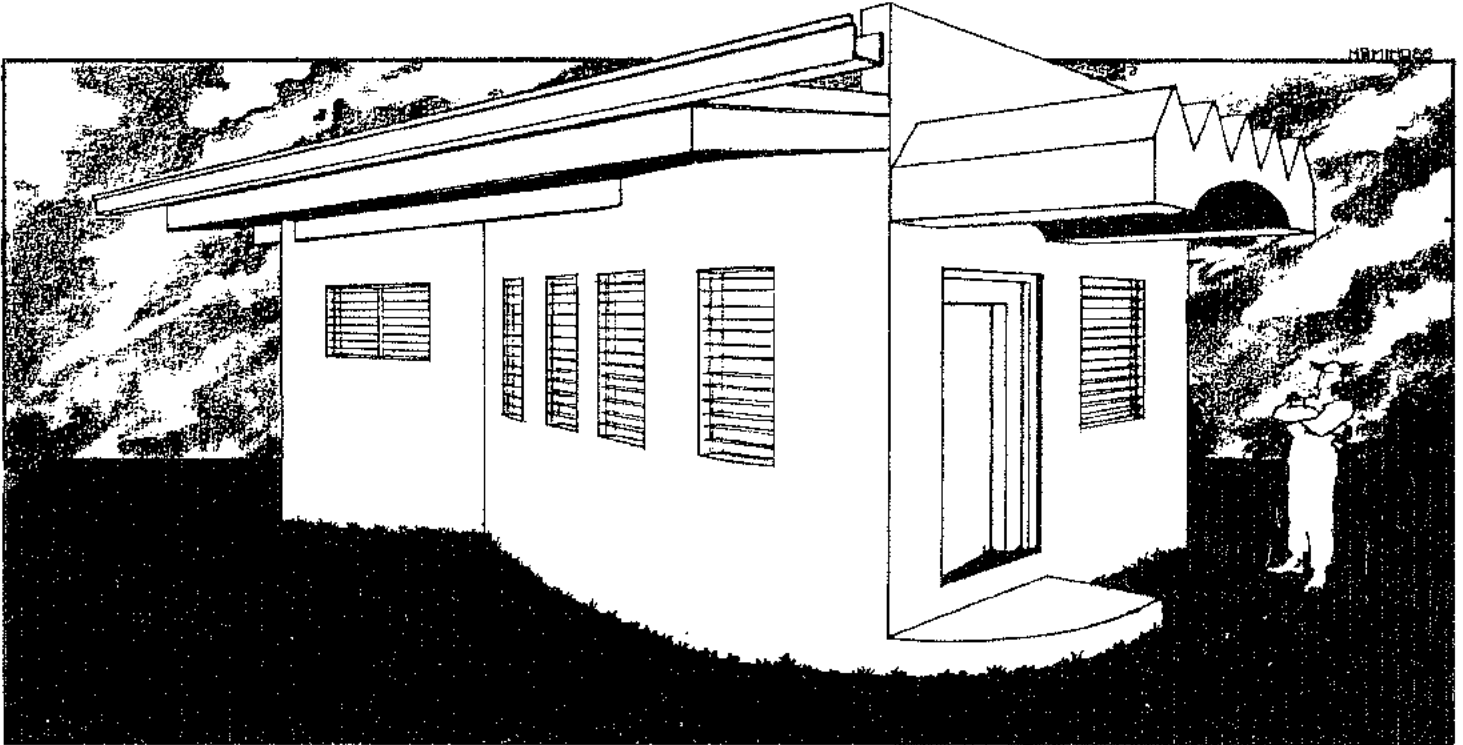
이 매개체의 심장부에는 문화의 힘을 발생케 하는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필리핀 국민의 가장 가치있는 두가지 문화성인 "Pakikisama"와 "hiya"가 놓여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의 가치성은 공동도덕을 유지하는 데에 있으며, 이것은 또한 원만한 상호 인간관계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후자의 가치성인 "hiya"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수줍음"이란 뜻이다. 실제적인 문화적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상태를 초월하고 강한 사회적 중요성을 띠게 되며 동시에 사회를 위한 통제 또는 제약의 역할로서 질서와 도덕을 확립시키고 유지 시킨다.

보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하여 논리적 엄격성은 피하고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건축 매개체의 효율성 평가 기준은 형식과 기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매개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그 문화권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본 이론은 전달과 반응의 이중성을 참조로 하여 전개되어질 것이다.

더우기, 매개체는 그 이중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고안되어져야 한다. 매개체의 도구가 무엇인가는 본 논문을 통해 필리핀 국민의 공간 이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되어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논하는 그들의 개념이란 필리핀 사회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형성되어 온 그들의 열렬한 가족지향주의와 인격주의이다. 이러한 주의는 그들의 사회적인 가치이자 규범이며, 또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범세계적인 가족적관계 지향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필리핀지역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그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경향이 짙다. 그들의 공간 이용은

PROJECT :23 sq.m. low-cost residence
ARCHITECT :NHU KWAN TU;Napolexander B. Mina, principal designer; Crisma C. Mina, design collaborator
ADDRESS :42 Miami St., Cubao, Quezon City, Philippines



THE CONCEPTUAL FRAMEWORK:

An architecture that is reflective of its culture presupposes an architecture that is effective. This effectiveness shall not only be demanded from such traditional criterion of evaluation as the dualism of form and function but also exacted from the architecture's efficiency to transmit symbols and evoke a potent cultural realm.

THE RATIONAL

This project does not strive to be iconoclastic of traditional and prevalent architectural approaches in the Philippines. It is rather, merely an explorative attempt to discover an alternate avenue at perceiving and experiencing Filipino culture through architecture.

As such, this project offers not a prescriptive solution but simply aff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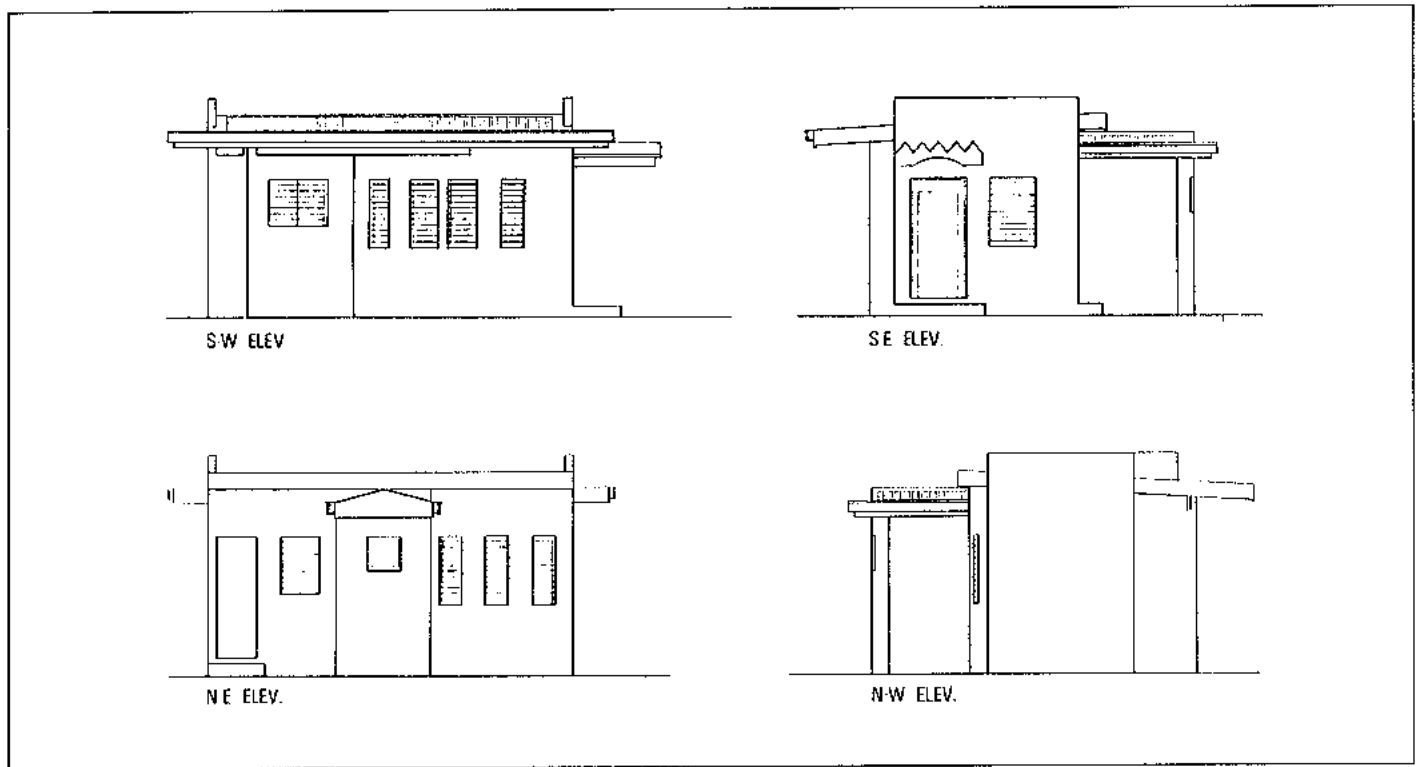
one a fresh vantage point.

Such an avenue is attained by exploiting and employing dominant Filipino cultural values to create an eminent medium able to effectively transmit symbols and evoke a potent cultural realm. Manipulated formal and surface elements which make a structure tangible collectively constitute the physical presence of this medium. But at the heart of this medium lies the dynamics of Filipino social relations, the mechanics of which is generated by the interplay of the two most pervasive Filipino cultural values, "pakikisama" and "hiya". Simply put, the former value is synonymous with the maintenance of good public relations and is a major factor in the Filipino's all too present desire for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latter value in turn can be literally translated to mean shame. However, in its actual cultural context,

"hiya" transcends its psychological character and assumes a powerful sociological dimension. It becomes a social control/sanction which seeks to achieve and maintain moral order. For purposes of literary expediency the rigors of dialectics shall be eschewed here and instead only a brief rationale shall be presented.

To note,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validity of this medium, this architecture, will not be confined to form and function. It shall, as has been noted earlier, be exacted from the medium's efficiency to transmit symbols or cues and its ability to evoke a cultural realm; an environment potent enough to enable one to live one's culture.

The criteria shall henceforth be referred to in this paper as the dualism of transmission and evocation. Furthermore, a tool has to be devised to



먼지 사회와 공중을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점이 “필리핀 국민의 친절성”이란 문화적인 징표로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본 설계작품은(경제적인 주택)이러한 이론의 토대위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한다. 우선 사람이 주택에 접근하면 현관문을 통해 신호가 울린다. 현관문 위에는 박공지붕이 있고 옆에는 외팔보가 있어 토착적인 필리핀 주거양식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관문이 닫혀있지만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새로운 주택구조는 방문객을 환영하는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외부에 있는 외팔보창은 G.I. 와 판재로 만들어져 있고 비록 골조모양이긴 하나 주택내부와 같은 길이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건축적 고인을 통해 외부들 내부로 끌어들이는 의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사실상 이것은 그보다 더한 의도를 지니며 그것은 필리핀 사람들의 가치관인 “Pakikisama”와 “hiya”의 일반적인 개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누구든지 필리핀 사람이면 방문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려는

“Pakikipagkapwatao”(“Pakikisama”와 밀접하게 연관된 특성/일종의호의)의 관습이 있는 반면에, 방문객으로 하여금 “hiya”(일종의 부담감)의 거북한 느낌이 들게하는 것도있다. 이러한 상반된 역설은 집주인이 방문객에게 들어오라고 계속 권유하는 동안 방문객은 그것을 계속 사양하는 행동을 보이는 줄다리기와 같은 묘한 심리적인 결전을 벌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테라스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며, 따라서 건전한 문화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주택현관에 설계된 닫집모양의 차양은 방문객이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전자와 같은 역설적인 행동의 모순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필리핀 주택은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필리핀의 일반적인 주택들은 도시권 시골이건 간에 다음과 같은 테라스, 거실, 식당, 부엌, 화장실, 욕실, 그리고 침실등을 갖춘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을 이용하는데에는 우선적으로 공중성을 참작하여야 할것이다. 필리핀 사회의 문화적인 면과 공간 이용면에서 볼때, 개인주의적인 분리는 사실상 필리핀 고유의 미덕인 “Pakikipagkwa”의 부족이며 상호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필리핀사회 문화가 관여하는 한 위와같은 분리형식의 공간이용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문화적 소산으로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있다면 그것은 방문객이 어느집을 방문했을때(그가 손님이건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건 간에)그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 방문객이 식사 도중에 오게되면 식사하는 가족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식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의 그러한 열성적인 행동이 외국인 눈에는 역설적이고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이것은 다만 방문객을 그렇게 호의로 받아들이므로해서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건축상의 공간 비행이다. 신진국의 문화에 영향을 입어 자국문화에 맞지않는 거실, 식당 그리고 부엌등의 공간분리는 꼭 사회적인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설계에서는 이러한 분리를 막고 공간을 하나로 통일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통일된 공간은 “silid-tipunan”이라 불리우며 집회나 모임의 장소란 뜻을 지니고 있다.

“tipunan”에는 벽이나 칸막이가 같은 분리대를 없애고 오락과 식사를 위한 가구등도 없었다. 또한, 부엌 싱크대나 조리대 등은 건축적으로 잘 처리되어 있어서 새로운 공간과 풍토적인 면을 보여주고있다.

건축물의 구조는 직사광선과 비의 침입을 막도록 설계되어있고 벽은 지진의 강도를 견디어 낼수 있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건축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둥 없이 특별히 설계되었음)또한 건물 대지의 특수한 지형은 다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deencloses”라 불리우는 지역의 모든것을 종합해 볼때, 설득력있는 건축 매개체는 새로운 창조에 기여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만이 외부로부터 잘못된바 들여진 가공물질은 환경에 방해없이 필리핀 자국 건축을 재평가할 수 있게된다. 자국의 문화를 하나의 인격으로 볼때, 개개인의 부주의한 표현이 곧 문화의 분리를 초래하게 된다. 강력한 사회적 유산의 견지에서, 본 이론은 다름 아닌 필리핀의 문화의 영역을 일깨워주는 역할의 일부분이 될것이다.

facilit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dualism. This tool will be known in this paper as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Very briefly, the theory capitalizes once again on Filipino values and social norms which have cumulatively molded the Filipino to be fervently family oriented and personalistic, and largely because of these has come to possess a world-view that yearns for immersion in kin-like interactions and relations. Thus, Filipino territoriality tends more than anything else to accommodate rather than keep somebody at bay. Filipino space is postulated then as perceivable access to public and other social interactions. This accounts for that all too familiar cultural trademark known as "Filipino hospitality".

Now, notwithstanding its stringent budget, this project (a small residence even by low-cost housing norms) nonetheless strives to make maximum use of this theory. Thus, as one approaches the house, the initial cue of accommodation is transmitted by way of the main door. Its presence, as a matter of course, is emphasized by a cantilevered canopy formed by a series of miniature gables (an abstraction of the indigenous gabled huts). The door itself is constructed such that it presents a partially open appearance even if it is actually closed.

This innovation, although not meant to be "trompe l'oeil" piece per se, evokes from the approaching visitor the perception of access thereby setting up an initial expectation and impression that an environment of hospitality is forthcoming.

Moreover, the cantilevered canopy, which is of timber construction with G.I. sheathing, penetrates at an equal length into the interior of the house albeit in a skeletal form. Ostensibly this device can be readily construed as another way of putting across that architectural cliché of "bringing the outside to the inside". It is in fact more than that, it mediates a common Filipino behavioral paradox result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s "pakikisama" and "hiya". Whereas the culturally expected behavior from any Filipino is to be accommodating to visitors ("pakikipagkapwa-tao", which is a trait closely related to "pakikisama") the natural tendency or reaction of the visitor is to feel "hiya". This paradox results in a social tug-of-war where the visitor exhibits threshold behavior while

the owner of the house insists that the former come in.

This situation is further unwittingly compounded by the presence of a terrace since this space will contingently serve as the visitor's threshold space. Consequently, the evocation of a probable healthy cultural realm is truncated if not totally frustrated. The trans-area canopy resolves this paradox because it not only discourages threshold behavior but also transmits directional cues towards the inside.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finally comes into full play inside the house necessitating a drastic reinterpretation of commonly accepted spatial requirements and arrangements in the Filipino house.

Normally a typical Filipino house, whether in an urban or rural setting, would have the following spatial requirements: a terrace, living area, a dining area (or a living/dining area), a distinct kitchen area (a "dirty kitchen" usually complements this), a toilet and bathroom, and bedrooms. The hierarchy of spaces commonly follows the exigencies of public to less public progression. Note, in the Filipino culture and as indicated by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the concept of privacy is actually considered the lack of the trait "pakikipagkapwa-tao" and consequently anathemic to the cultivation of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points, at the very least, to an inefficiency in such an architectural status quo as far as the culture is concerned. For the Filipino, the natural and expected cultural corollary of inviting a visitor into one's house (whether he is a guest or a total stranger) is to offer him something to eat or drink. Moreover, should the visitor arrive during mealtime, joining the family at the table is the expected consequence. Complementing all these is the unstated requirement of putting the visit at ease by way of, paradoxically enough in the eyes of foreigners, solicitous conversation.

The theory, more importantly, propose growth from the architectural status quo and a spatial transformation is required to initiate this growth. The theory furthermore suggests that transformation is attained by first setting aside the prevailing culturally incongruous mined-set which mandates that the Filipino living, dining, and

kitchen areas (notwithstanding a pseudo living/dining area) are symbolically and even sociologically demarcated spaces. Thus, in lieu of these perceived demarcations, a unifying space is introduced. In this project, the space is called "silid-tipunan" which approximately means room for congregation or gathering. The "tipunan" not only does away with obvious demarcation symbols like wall divisions and free-standing partitions but also dispenses with subtle cues such as distinct sets of furniture for entertaining and eating. Furthermore, the kitchen sink as well as the cooking appliances are so architecturally treated that they become virtual furniture pieces endemic to the new space. Outside its utilitarian role of deflecting direct solar and rain intrusions and its structural function of providing folded wall strength to counteract seismic forces (the structure was specifically designed without columns to reduce construction costs), the peculiar formal configuration of the space does serve another purpose. It "deencloses" the area by virtue of the animated and dynamic nature inherent to curvilinear walls. This is an important sensorial cue in light of that environment predicted by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All these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cogent architectural medium, in fact, an architecture that enables the Filipino to self (as differentiated from self-expression) without the artificial impediments of an ill-conceived physical environment. Being the unit personification of his culture, expression of the self inadvertently translates to expression of a segment of that culture. Taken collectively and seen within the inherent interactive framework of a dynamic society, this comes to nothing less than a cultural realm evoked.

이 시대 建築士들의 獨白(續)

— 建築士 國家考試를 中心으로 —

崔昌奎 / 건축사사무소 신진

by Choi, Chang-Kyu

“

連帶의 명제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집단엔 더 없이 중요한 말이다. 폴란드의 노사지도자 레프 바웬사의 Solitarinosk(連帶)는 공동운명의 폴란드 노동자를 구해 내는 유일한 힘인 것이다.

우린 그 엄청난 무서웠던 시대에도 李承晩의 하야를 직언한 용기를 가진 일이 있었다.

대권을 거머쥔 자가 국민앞에 자존과 자율과 공평을 선언한 이 마당에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사란 타이틀을 취득하는 제도인 建築士國家考試의 전 업무와 권한을 建築界에 돌려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라는 외침을 왜 못 할 것인가?

”

우리나라는 法治國家라고들 하지만 그 법들이 입법정신이나 취지에 정반대로 작용하는 때가 많아 한심스럽다. 필요에 따라서 번조할 수 있게 단서를 달아 놓는다든지 특자나 特別자를 붙여 자유자제로 어떤 特定側에 유리, 편리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점이 허다하니 법의 존엄성이나 권위, 실효는 어찌될 것인가. 특히 분개해 마자 않는 것은 공무원 위주, 공무원 우선, 공무원 우대라는 점인데 머슴이 주인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통제한다면 그것은 망한다는 것은 옛부터 이어져오는 이야기이다. 머슴이 주인 위에 군림하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民主化가 아니다. 때문에 우린 얼마나 긴 세월 대가를 치르면서 민주화를 외쳤던가 말이다. 이제 겨우 그 일부가 성취되어 국민의 함의로 總選이 끝나고 오늘은 正統性을 찾은 새대통령의 취임식을 가진 뜻깊은 날인 것이다.

범람하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퇴폐된 법들, 또 이런 법을 들먹이는 관료주의나 관리행정적들의 월권과 횡포는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殘滓가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남아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고시를 면제해주고 建築士免許를 주겠다는 特惠의 發想을 낸 부처가 어디이며, 이런 발상을 한 공무원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국가고시를 면제 받을 건축직 공무원들은 무슨 공로가 있기에 뻔뻔스럽고 무식하고 몰상식하게, 후안무취하게 그런 記案이 나오는지? 또 그런 기안을 決裁하는 고위공무원(무슨무슨官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이 어떤 공로나 권한으로 결재할 수 있는가. 무식한 소견으로는 국가관, 정치관, 행정이란 국소수의 공무원에 의한 것이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나 국가나 사회를 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 국토를 방위한다는 전문적인, 고등훈련과 교육을 받은 陸士출신이 어찌 軍務가 아닌 관리행정직이나 관공서에 자리잡고 있는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들의 조국이며서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허다하니, 하물며 외국인의 눈에야 어떻게 비칠까, 부끄러움을 느낀다. 필자는 언제인가 유럽여행중 서독에 들렀을 때, 마침 고국에선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에 鄭模장군이 임명됐고 계엄군이 진주했는데, 계엄령하의 계엄사령관이 체포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독의 한 건축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어찌된 나라냐? 계엄령하에 계엄사령관이 체포될 수 있느냐. 또 그를 체포하는 자들은 또 무엇이나?”라고 질문을 받고 얼굴 붉힌 기억이 난다.

“이 질문의 답이 있거든 알려주세요.” 여하간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라는 흘러간 시간대 속에 들어가 버린, 되찾을 수 없는 일들이다. 때문에 새대통령은 과거를 깨끗이 망각의 땅장에 묻어 버리고 회망과 행복과 자유와 평등으로 매진하고자 선언하지 않았던가. 유행가는 아니지만 과거를 묻지 말고, 建築士國家考試를 전설부에서 문교부든지 建築三團體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에게 考試免除나 형식적인 科目縮小등의 특혜를 준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회적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建設部가 져야 할 것이다. 현재 건축사협회의 항거의 소리가 부드럽고 유순하다고 우습게 본다면 큰 오산이다. 건축사협회원중에는 공무원 출신이 상당수가 있다.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관직에 있을 때와 건축사로 있는 현재와는 그들 나름대로 비교해 보고 있는 것이고 관의 내막이나 계통을 잘 아는 그들이지만, 또 안면이 익숙한, 한때는 상사요 부하인 공무원들과 접촉에서 허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지나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우린 이때까지 검박고 살아왔다. 하고 싶은 말을 힘부로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달라진다. 文化部의 신설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건축이 기술이나 예술이냐의 논란 이전에 창작이라고 한다면(물론 복합적인 면이 있고 타문화분야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
崔昌奎

필자는 17년 함경남도생으로 농성중야고농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 72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신진 자영.

建築士國家考試를 건설부에서 문교부든지

建築三團體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에게

考試免除나 형식적인 科目縮小등의 특혜를

준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회적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建設部가 져야할 것이다.

건축사협회의 항거의 소리가 부드럽고

유순하다고 우습게 본다면 큰 오산이다.

전제로 해서라도) 문화부 관하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施工分野가 엄연히 건설부라면 設計와 施工의 分掌管理도 시도해 볼만한 제안으로 부상될 줄 안다. 거듭 말하지만 동구 공산권국가나 구미제국의 여행에서 크게 느낀 것은 建築科가 공과대학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된 건축대학이거나 미술대학에 속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다. 물론 우리 학계에서도 몇년전부터 몇몇 학교에 건축공학과와 건축미술과를 공존시켜서 시범적으로 그 성과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축은 공과라고 규정짓고 있는 듯하다. 근자에 와선 醫學에서 구조적인 계통만 있으면 모두 工學이라고 하는 경향이긴 하다. 생명공학, 유전공학 등등 모든 학문에 공학을 붙일 순 있을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건축학은 그 특성이나 종합성이나 다양성이 판이하므로 독립된 建築大學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北歐제국이 그러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가 젖 얻어 먹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도 새로 세상이 시작되고 言路도 서서히 열려나가기 우리의 주장을 외치고 울어야만 한다. 울어야만 무시당하지 않고 찾아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건축사협회는 건설부의 Field Office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예측되어 있었다. 特別法人이라는 러울 좋은 법인체로서 우리의 自尊을 위해서도 사사건건을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은 서서히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로 시성해 나가야 할 때가 왔고, 그런 의미의 발언이나 주장이 建築士誌 아닌 타 언론자들에게 울려대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낭분간 타성으로 이어지는 관료주의는 급속히 사라지는 않는다고 보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나 의견을 두려워 말고 開陳해야 할 것이다. 협회의 기구는 회원의 증거로 비대해 간다. 기구가 비대해 지면 비대해 질수록 관청화 되는 것이다. 이 관청화 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이때까지 말한 것은 마치 건설부를 성토한 것 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13대 대통령의 취임식 광경의 簡素하면서도 할 일은 다하는 검박한 모습이나 權威主義의 색채가 사그러져가는 것을 보았고 취임사 내용의 대통령의 信念化된 意志가 그러할진대 우리도 그 말에 순응해야 한다면 이 글에 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자부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행정부가 해온 처방은 정신이상의 정신병 의사가 정신병 환자에 내린 처방이었던 것을 알았다.

줄속과 과장의 반복. 중국의 작가 魯迅의 수필 제목에 “來了” “라이라”라고 발음하는 왔다, 도래했다는 의미인 來了. 무엇이 왔단말인가? 새시대가 왔다는 말이다. 民尊, 자유, 자율, 평화, 행복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살다보면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우리말고 집만 먹고 살다 죽을 순 없는 것이 아닌가. 건축계에는 建築士 자율과 자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魯迅의 말대로 來了, 건축사의 금지와 발언의 시대가 來了다. 連帶의 명제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집단엔 더 없이 중요한 말이다. 폴랜드의 노사지도자 레프 바웬사의 Solitarinosk (連帶)는 공동운명의 폴랜드 노동자를 구해 내는 유일한 힘인 것이다. 우리 그 엄청난 무서웠던 시대에도 李承晚의 하야를 직언한 용기를 가진 일이 있었다. 대권을 거머쥔 자가 국민앞에 자존과 자율과 공평을 선언한 이 마당에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사란 타이틀을 취득하는 제도인 建築士國家考試의 전 업무와 권한을 建築界에 돌려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라는 외침을 왜 못할 것인가. 이제 곧 문화부가 문공부에서 분리 독립된다(그들은 약속했었다) 이제 곧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이다. (이것도 약속했었다) 그러면 건축사협회는 자율적인 連合체가 될 것이고 각 支部는 각 道の

協會가 될 것이다. 본부는 연합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리 될 것으로 믿는다. 이때도 건축사 국가고시도 각도별이나 시별로 할 것이다. 이때까지 모든 일들이 中央集權式으로 행하여져 왔다. 습관화된 우리들의 의식구조에선 선뜻 실감이 나지 않는 일들이지만 필연코 그렇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외치고 싶은 것이다. 더우기 공무원에게 특혜를 준다는 따위의 發案초차가 언어도단이다.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일년간의 공무원들의 비위 건수가 발표된 적이 있다. 몇만건이라든가. 일년간에 전국의 비위건수도 기사화 된 적이 있다. 압도적으로 후자의 숫자가 많음을 보고 모두가 놀랐을지는 몰라도 전체 공무원의 수에서의 비위건수의 율과 전체 국민의 수와 비위건수의 율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생각이 들 것이다. 더우기 국민들의 비위건에는 대개의 경우 공무원이 관여되어 있다면 통계상 數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건축사들에게 합동이나 연서제니 해 가지고 1건의 위법 건축이 적발되면 연서된 3명이 위법 건수라고 계산해서 연제인가 서울에서만 건축사들의 위법 건수가 수천건이라고 신문에 발표한 그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상대적으로 비위나 부정을 수로, 율로 내용을 발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암흑의 날들이었다. 우리 건축사들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들 손위에서 노는 것을 혹독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위대하지 못한 우리 보통사람들이 위대한 보통사람들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수가 지났으나 속담대로 대동강물도, 한강물도 풀려야 할 때인데. 왜 이렇게 화창한 봄날이 오는 것을 시샘이나 하듯이 울썸년스러운 하늘이여!! 그래도 봄은 반드시 온다. (完)

건축사협회에 바람

Wishes for the KIRA

姜銅徹 / 신동아건축사사무소

by Kang, Kang-Chul



현재 우리나라에는 3천에 가까운 建築士들이 등록, 개업하여 국민들에게 건축물을 설계하여 주고있고, 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단체로 건축사법 6장 규정에 의한 建築士協會가 있다. 이 협회가 생긴 목적은 사법 제31조에 있는 바와 같이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과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벌써 협회가 창립된지 20여년이 지나 6.25이후 파괴된 도시의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현재까지의 건축기반을 조성키 위해 열심히 뛰어 온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나은 建築環境을 조성키 위해, 또한 협회의 생긴 목적을 충분히 이루기 위해, 몇가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건축사 협회가 어떤 機能이 있어야 될 것 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현재의 기능수행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건축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교류, 친목등을 도모하는 기능이다. 등록, 도서신고, 협회원 명단 배부와 같이 별문제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둘째, 정보의 媒介機能이 있다. 특히 관공서에서 나오는 업무관련 공문서를 입수,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이다.

셋째, 건축사들의 협회로서 회원의 權益을 보호, 증진시키는 기능이다. 각 개인의 회원으로서 청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집적인 권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끝으로 건축문화의 발전과 기술연구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첫째 사항은 여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 가자.

둘째 情報의 媒介機能에 대하여, 건축사협회로 통지되는 관련 공문서는 빠짐없이 회원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선 건축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배포된 내용이 얼마나 部分的인가를 느낄 수 있다. 설계에 입하여 각종 법규와 통지된 공문서만으로 허가에서 준공까지 완벽하게 처리되는 일은 별로 없다. 건설부와 각 道市, 郡廳 등은 나름대로의 행정지침을 수없이 양산해 내고

있어 일단 허가 서류를 넣게 되면 그때까지 잠복해 있던 수많은 지침들이 쏟아져 나와 수정사항과 첨부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며 때로는 반려되고, 가끔은 완전히 건축 불가능한 경우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등록 건축사는 어느 한 지역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어느 일이고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 획득 가능범위는 정해져 있어 他支部나 他分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해당지역 회원들은 나름대로 많은 공문서를 접수했으나, 기타지역 사무실은 이에 대한 통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협회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회원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보관,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문서 이외에도 허가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行政指針事項을 조사하여 해당지역 건축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타지역 회원도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된다. 전국에는 14개 支部와 50개에 이르는 分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집된 정보자료는 각 분소끼리 교환하여 각 지역별로 분류해 놓으므로써, 어느 회원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셋째의 기능인 건축사의 權益을 保護 增進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언뜻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권리나 이익의 면에서 별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창작권, 경제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侵害 또는 不利益을 당하고 있다. 먼저 創作의 권리 부분에 있어 설계자는 건축주와 허가관청으로부터 거의 무방비의 침해를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건축사 본인에 있으며, 각자가 상당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사를 전문가로 인식해 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과 관공서의 각종 심의와 협의과정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은 많은 부분이 建築士協會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다. 각종 매스컴에 자랑할만한 건축물이 소개될 때, 施工者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辨도 같이 이야기되나 設計者는 어느 구석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협회는 대사회적 발언을

◆ 姜銅徹

필자는 58년 전북생으로 80년 부산산업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신동아건축사사무소(인천)를 개설하여 자영하고 있다.



강화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협회 내부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기획물을 작성 각 매스컴에 홍보하여야 하고, 독립기념관과 같은 민족적 건축물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기간동안 이에 대한 건축적 비평이 사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放送과 新聞社의 문화면을 이용하여 건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며, 국민에게 가장 근접한 예술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또한 각종 법규와 행정지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가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美觀審議를 비롯한 각종 심의제도에 있어 설계자가 직접 잠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현장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심의기준을 만들어 창작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일 수 있는 건물들은 별일없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창작성 있고 약간 개성있는 건물은 이웃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너무 복잡하다, 단순하게 하라는 등 어떤 기준이 없는 '任意대로'의 심의를 하고 있다. 또 郡協議를 보면 신청인이나 건축사가 해당기관의 출입조차 금지되어 있고, 모든 민원서류에 정해져 있는 처리기간이라는 것도 없어, 일단 접수해 놓으면 하염없이 되돌아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러한 부조리한 행정제도는 任意運營을 낳게되며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를 가져오므로, 협회는 행정의 임의성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자치에 의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건축사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事務所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랄 수 있는 경제적인 권익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設計費 수준이 참다운 건축작 설계를 하기에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웬만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몇 건 처리해 가지곤 사무소의 운영이 안된다. 따라서 많은 건수를 수주해야 겨우 損益分岐點을 넘으며, 그나마 성실한 설계를 위해 인력을 투입하면 경제적 운영이 어려워므로 대충 許可用圖書 수준에서 설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개업건축사에서 실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업무 수주에만 매달리도록 하며, 계획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건축사보에 일임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피해는 건물주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87년 시행하는 實績會費 산출용 공사비 산출단가를 보면 붉은벽돌 조적조로 25평 주택을 지을 때 평당 27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며,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이 평당 49만원의 공사비로, 10층이 넘는 철골조 업무시설이 평당 63만원이면 공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물론 이 금액이 공사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켄스레 정해놓은 土協單價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일전에 공사비 예산이 10억에 달하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는데, 건축주측이 건축사협회의 實績會費算出用 單價에 맞추어 설계비를 산출하니, 공사금액이 4억원대로 떨어져 비렸고 이에따라 설계비는 원래 금액의 55% 수준 밖에 받지 못했다.

이러한 단가를 정하려거든 현실 공사비에 맞춰야 하며, 실제회비등이 상승하거든 해당 비율을 낮춰 조정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가 건축가로 참다운 활동을 하기 위하여 수주활동보다 계획 및 설계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부분인 建築物의 質의 向上的 기능면을 살펴보자. 현재 협회에 몇개 研究委員會가 설치되어 있고 기획적인 보고서 등을 발간하기도 하며 '건축사'지를 통하여 많은 논문과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제 설계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충당 면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협회의 資料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회원이 기증한 도서나 보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건축에 관련된 모든 도서와 각종 논문, 작품들이 총괄적으로 수집 정리되어 회원에게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필자가 87년 봄에 국내 건축잡지 두가지를 선정 그 내용을 분류하여 보았다.

각 논문류와 작품들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건축론, 사무실, 전시장, 은행..... 등등, 연면적으로 분류하여 500㎡, 1,000㎡, 1,500㎡..... 등등, 건축면적으로, 대지면적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를 외장재료별로 구분하다보니 비록 두 가지 월간지만 택했지만 이 자료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필자의 목표로는 건축주가 얼마의 대지에 어떤 건물을 몇층 몇평으로 지을 때, 그리고 외장재료는 무엇일 때, 현재 소개되어 있는 유사자료들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너무 방대한 것이어서 일개 작은 사무소가 해낼 수 없다는 걸 안 것이다.

이런 작업을 건축사협회가 수행해 주어야 한다. 건축사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유사한 設計例나 관련 논문등을 수집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 시간적인 절약을 가져와 훨씬 향상된 건축설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 建築設計의 質을 높이는 필수품으로 제품에 대한 카다록과 사양시방서가 있다. 그나마 근래에 와서 일부 카다록을 집성 판매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하며, 현재 국내의 카다록 배포방법은 각 개인이 직접 전달 받는 원시적인 것이다. 건축사협회는 국내외 資材業者를 수배하여, 각 건축사무소의 주소록이 포함된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무실 숫자만큼 카다록을 접수, 일주일 혹은 한달 단위로 모아 회원에게 발송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은 건축사지에 작품이나 논문을 실은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건축기술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한가지 더 제안하는 것은 좋은 設計圖書를 선정하여 원하는 사무실에 배부해 달라는 것이다. 각종 건축잡지나 서적에 소개된 내용은 기껏해야 잉킹된 몇개 도면이고 사진 몇장에 불과하다. 이 내용으로는 타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자료로 이용하기 어렵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해당 건축사와 협의, 설계된 내용 전체를 교환할

“ 건축사협회는 設計圖書나 신고받고 福祉會費, 實積會費나 접수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부만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사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적합한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수 있게 해야 하겠다. 일전에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도서의 표준적인 작성방법을 보여주고져 발행한 도면이 있다. 그 내용은 디테일이나 상세한 내용도 많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글자와 숫자들이 글자판에 의해 써져 있어 실제 사무실에서 작성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내용을 발간하기 보다 일선사무실에서 작업한 설계의 내용을 선정, 인쇄하여 배포한다면, 잉킹한 도면만큼 깨끗하지는 않다하더라도 훨씬 더 작업내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圖書檢討라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다시 생각해볼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건축사끼리 남이 설계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검토도 시킨다는 것은, 회원끼리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원래 목적이 너무나 무성의한 설계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다른 의사가 검토하여 하자를 가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한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을 변호사협회에서 나서서 옹고 그름을 가리는 제도는 없다. 유독 건축사협회만 다른 건축사에게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다. 건축사가 하나의 업무를 수주하여 설계를 완료한 내용은 전적으로 해당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비록 중간에 도서검토를 타건축사가 하였다 손 치더라도 검토한 건축사는 하등의 법적 책임이 없다. 이러한 제도는 회원 상호간 權利侵害뿐 아니라 불협화음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젊은 건축사로서 개업시 애로사항에 대해 낚두리 몇마디 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洋式建築 歴史가 그리 길지 않으며 60년대 이전까지도 전쟁후 복구 등으로 이렇다할 건축기술이 발전되지 못했다. 70~80년대에 들어 괜찮은 건축기술이 발전 보급됨으로써, 근래 15년 정도에 건축학습을 한 젊은 건축도들이 그나마 건축에 대해 어느정도 배웠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젊은이들이 개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福祉會 入會費란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선불을 요구하고 있어, 선배들의 사랑을 받기는 커녕 적극적인 排斥를 당하고 있다. 처음 개업한 건축사는 업무를 수주하기 어려워 상당기간동안 사무소 경비와 인건비 부담마저도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젊은 건축사를 排斥하는 것이 기존 선배 건축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능력있는 사람을 사장시키게 되고, 결국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

건축사협회는 設計圖書나 신고받고 福祉會費, 實積會費나 접수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부만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사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적합한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도 협회 내부에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일부에 국한되어 몇몇 실무자나 소수의 임원이 모여 의논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실제 일선에서 뛰고있는 건축사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고, 學界, 業界, 建築主측과 수많은 관련 분야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한다.

좀 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차례의 公廳會, 自由討論會 등을 갖고 앙케이트등을 실시, 광범위한 의견을 조사하여 국내 건축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좋은 해결책을 조속히 수용하여 실무에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우리 건축계에 건축사협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建築士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관련 官公署와 建築主에게도 상당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건축사 개인의 소양과 양심을 개선하기 어려우며, 관공서와 건축주에게 문제해결을 미룰 수도 없다.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이 모인 단체인만큼 직접, 간접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가장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이 글을 쓰며, 이 글로 인해 건축계 내부에 많은 의견들이 開陳되기를 바란다.



“聚落構造 改善事業 유감”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Structure

鄭求殷 /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ung, Koo-Un

근간에 농촌이나 도시 외곽지역
住宅改良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되어 지고
있는 聚落構造 改善事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로 그치고만
느끼어다.

홀어져 있는 취락을 정비하여 도로망과
하수도관 개설하고 전기, 수도등
便益施設을 마을 공동으로 이용케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와같은
취락을 형성하는 기초작업인 劃地分割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완성된 마을의 外觀은
마치 도시 주거단지의 한 구석을 옮겨다 놓은
꼴로 되어버려 그 좋은 田園의 주거지를
삭막하게 버려놓은 느낌이다.

사업보존비의 한계와 택지구입의 난점등
필지의 적정분배에 있어서 어려운 난점이
있겠으나 마을 전체 분위기를 살린다는
의미로서 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기초계획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좋은 聚落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때때로 도시 주거지
劃地分割에서도 접하는 바이지만
宅地分割은 불가분 건축환경의
기초작업으로서 그 기술적인 전문영역을
절대로 소홀히하여 地籍分割에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넓게는 도시계획에서, 좁게는 하나의 동네를
택지로 분할하는 지적분할이나 획지분할은
건축보다 앞서는 고도의 환경계획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영역이
하루 빨리 수립되어야 할 줄 믿는다.
건축은 이미 분할된 개개의 필지에 建築法의
태두리 안에서 充塡되어 주변과의 조화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건물의 성격이
주변환경을 유도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최근 都市設計區域의 지정으로 그와같은
작업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시환경의 기초작업이란 무엇보다도 획지의
분할에 있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우리들의 範疇이외의 상황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곤혹스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된다. 취락구조의
획지분할이 그러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구조의 건축법 한계 때문에 그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주거환경이 粗惡한 것이
그러하다. 너나할것 없이 주어진 법의
한계까지를 최악으로 악용하려 하고,
악용하지 못한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建築環境속에서는 그 동네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요즈음 도시주변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양상은 본래의 취지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필지가
도시사람들의 田園住宅化하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 기존
거주자들의 근거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시행 기간내 모든 건축물이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무리가 따르고
있다. 또한 취락지구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의 특수한 建築規制에 익숙치
못한 일반 건축주들의 불만 또한 대단하다.
쉽게 말해서 자기 땅에 자기 돈 투자해서
내집 하나 마음대로 짓겠다는데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고, 내 마음대로 주택하나 지을 수
없느냐는 것이다.

도시의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누구에게 물어도 잘못이 없다.
그러나 법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에서
彈力的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미 취락을 형성하는 도시주변의
마을은, 그 마을의 특징을 살려서 一律의인
적용이 아닌, 하나의 마을단위의 법적용이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건축법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적으로 세분화 될수록 건축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모자라는 택지사정과 무주택자의 수요가
날로 급증해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허용된
한치의 땅이라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잘못 저지러진 住居環境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투자는 엄청난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인 까닭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啓導로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합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꿈꾸어 왔고,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鄭求殷

필자는 46년 충북생으로 홍익대 건축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끝없는 도전속에 자연을 품꾸는 기술의 장인

렌조 피아노

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Renzo Piano

成仁洙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Seang, In-Soo



1. 렌조피아노

미래를 바라보며, 건축가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건축주와 당국은 과거를 보는가? 미래를, 또는 현재를 바라보는가?
빛나는 장인은 기계, 기술과 공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태어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곳의 하이테크는 무엇인가?

1. 대표작

‘파리에 내려 앉은 우주선’은 조르쥬 폰피두문화회관을 두고 한 말이다. 도시내에 건축물기운에 깊숙히, 과학공상소설이나 영화 ‘스타워즈’에나 나올만한 기계를 얹어놓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설계자의 마음에는 이 건물은 무엇이었을까? 기계시대의 산물을 의미하는가? 또 일반시민에게는 이 주목할만한 기계조작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하는가?
폰피두문화회관을 설계한 피아노나 로저스도 이 건물이 아니면 세계적 건축가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때때 데팡스(사진3)의 건축가로 덴마크출신의 요안 오토 폰 스프레켈센의 경우나 바스피유의 오페라(사진4)를 설계한 카를로스 오토가 이름이 알려진 건축가가 아닌것처럼, 유명하지도 않은 건축가로 부터 우수한 안은 어떠한 필요에서 추출해 내는지, 그러한 힘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느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할 건물을 그들은 현상설계를 통해 모색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부러워해야만 하는지?

생생한 정보가 있는 현장 “A live centre of infomation”

이 말은 조르쥬 폰피두 센터의 현상설계에서 건축가들에게 요구조건으로 내건 조건이었다. 즉, 정보와 오락과 문화의 중심지로서¹⁾ 건물은 융통성있는 건물이고 동적이며 기계적 지원이 잘 되었거나 조립식으로서 전통적, 문화적으로 일상적인 제한을 초월하여 가능한 한 일반대중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요구했다.²⁾
이 거대한 건물은 명확하게 나누어진 4개의 공간으로 되어있다. (사진 3~12)

1. 전시장과 광장
2. 건물진입부
3. IRCAM.
4. 건물상부구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건물상부구조는 다시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5개층의 거대한 전시용 단일공간. (층당 170m×48m×높이 7m)

2. 광장을 향한 서측의 8m 길이의 구조체

3. 르나르거리를 향한 동측의 8m 길이의 구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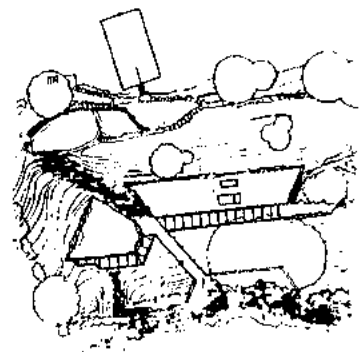
4. 지붕구조체³⁾

이 건물을 창조하기 위해 여러분야와 협동하게 되는데 피아노의 작업에서 실제로 코디네이터가 참여하기는 훨씬 뒤에 이루어졌다. 폰피두센터에서 서로 성격이 상반되고 경력이 다른 피아노와 로저스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미라노의 BBPR의 유명한 어네스트 로저스의 조카인 리카르도는초기에 영국 서부 코튼월에 반자하에 문헌주택(사진5)을 하면서 건축과 조경은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아노는 로저스와 반대되는 경력을 지녔고, 그러한 건축적 접근을 하고 있다. 피아노의 형제가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재들을 이용해 자립화 할수 있는 구조와 그 구조로 이룰수 있는 융통성을 터득하고 있었다. 폰피두센터의 설계진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파리 국립교육문화성이고 건축기팀은 렌조 피아노+리차드 로저스 스튜디오였다.

현상설계, 프로그램, 실내장식 담당자는 프란치니이고, 즈빈텐등 4명이 구조와 기계설비를 맡았다. 일면설계와 갤러리(Gallery)는 홀트가 담당하였다. 스탠턴등이 광장 내외부 시청각 시스템을



成仁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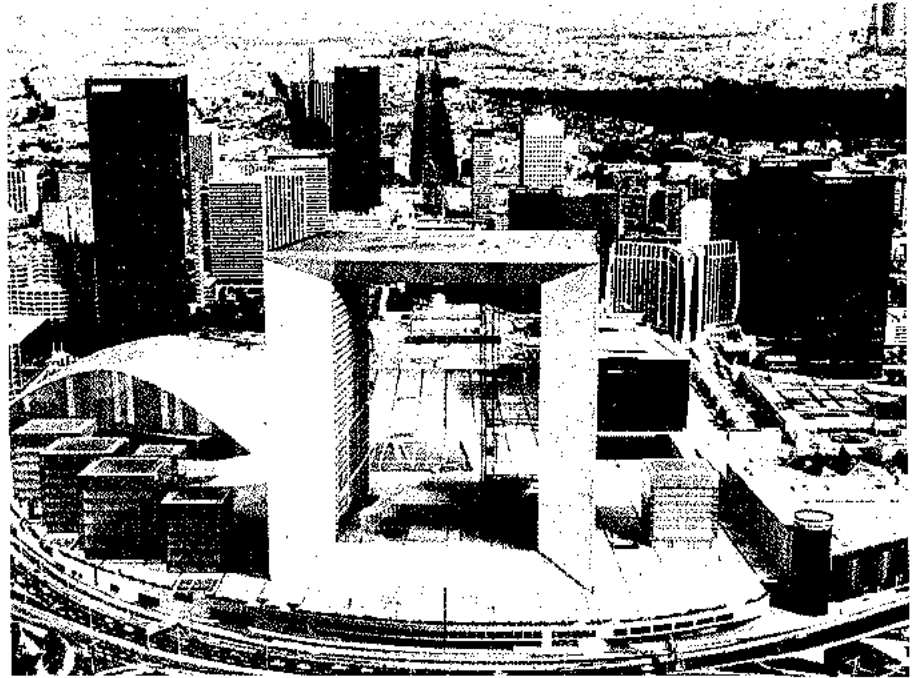
52년 인천생으로 75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同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송민규건축, 의정건축사사무소 근무하였으며 현재 울산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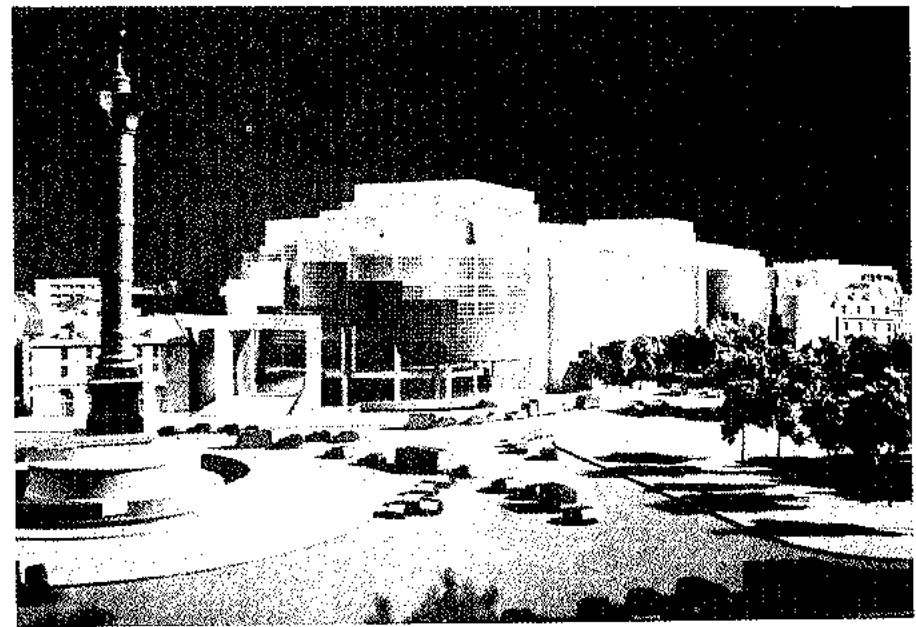
2. 비디오 작업중인 피아노의
부인 마그다 아르튀노

담당했다. 브릴만이 시각적공간연출을
담당했다. 플레트너가 현장관리를 하였다.
'음악과 음향 조정연구소'⁵⁴⁾측에서
테이비스의 3인이 담당했다.
그의 협동단체로는 '오브 어럽과
협동자들'이 구조, 설비설치, 공사비 조정을
맡았고, 시공은 G.T.M이 맡았다.
오랜기간동안의 파트너중에서 피아노와
1971년이후 작업을 해온 엔지니어 '오브
어럽'은 최근 하이테크 건축가에게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창립자 오브 어럽(Ove Arup)에 의한
'독창성과 창조성'은 50여년의 역사속에
빛나고 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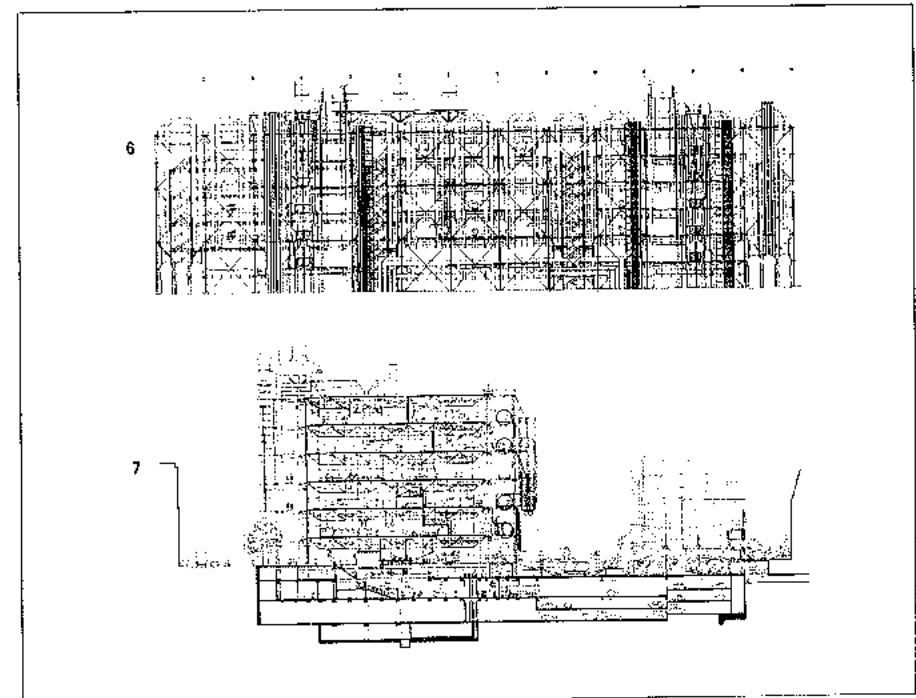
설비의 노출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실험적
표현과 기술적 해결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톰 바카를 중심으로 한 환경기술자가
시도한 또하나의 실험, 즉 8기의 히트 펌프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회수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않다. 이
시도는 그에게 중요한 경험을 가져다 주어
다음의 과정에서 보다 건축에 통합된 체계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⁶⁾ 8m의 길이의
겔버(Gerber : 독일인 이름)보가-피터
라이스(Peter Rice)의 2명에 의해 50m의
보를 받는 주철보의 성과가-풍피두 센터에
효과적으로 쓰였다.⁷⁾ (사진 6 ~ 17)
우리가 피아노의 작품을 하이테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예를 드는데 실제로
그러한가하는 점이 우리가 관심을 갖을
만하다. 피아노나 그의 작업팀에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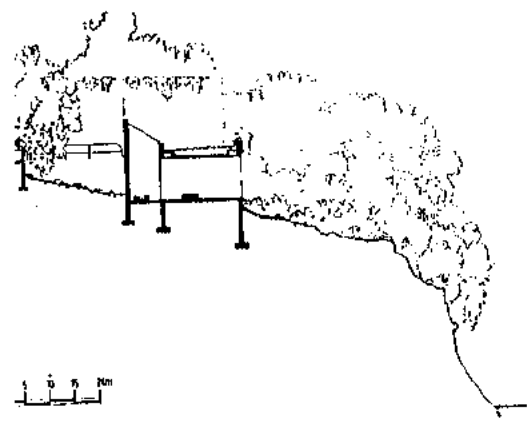
3. 데트데광스



4. 바스피워 오페라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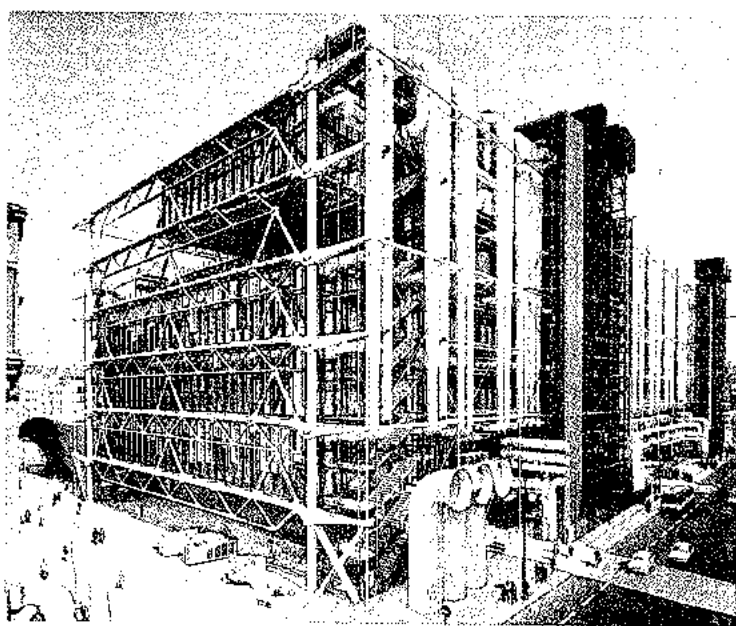


6.7. 풍피두센터 입면도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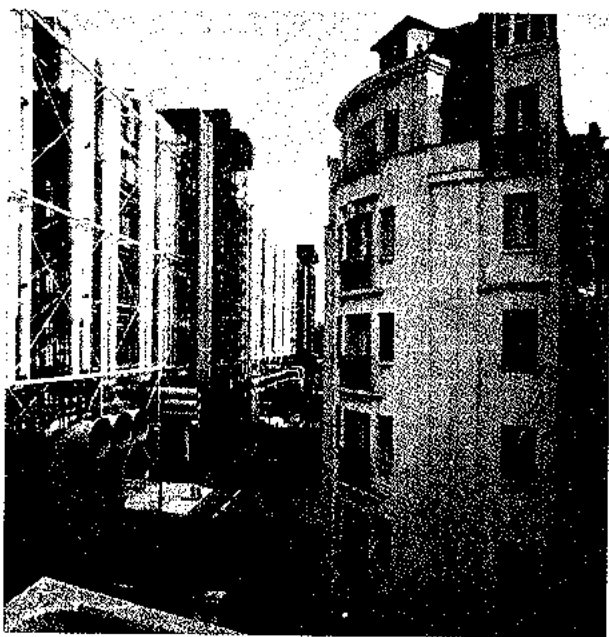




8



9



10



11

이야기는 그러한 점을 부정한다.

‘하이테크’라는 말은 하이테크놀로지라는 말이다.

실제로 건축에서 그러한 하이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되는데, 건축은 응용종합적 학문이라는 데서 근본적 퍼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피아노는 복잡한 콘크리트, 철관, 유리, 플라스틱, 막구조, 신소재들의 이용을 하고 있으며 건축재료의 제한적 사용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렌조 피아노의 작품에

하이테크(High-Tech)라는 라벨이 급하게 붙은 이후 피아노는 기술적 극단론의 이미지를 지닌 대표적 건축가가 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정확한가 하고 마씨모 디니(Massimo Dini)⁵⁾는 묻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기술의 선택은 건설을 위해 선택한 암시일 뿐이다. 지금은 손쉽게 작업하고 다룰 수 있으면서 고도의 부착력과 내구성을 지닌 재료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모든 건축의

언어를 다루어 볼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다는 것은 실책이다.…… 건축가는, 시공자는 설계상의 요구에 직면했을 때 기술적방법의 활용을 회피 할 수 없다.”⁶⁾

더욱 중요한 것은 하이테크의 기술적 승리뿐만이 아니라 그뒤에 담긴 정신은 무엇이고, 그러한 정신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프랑스정부, 심사위원 그리고 피아노와 로저스가 만든 이 건물은 실제로는 그 사회를 이끌어온 시민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강렬한 메시는 프랑스와 한국의 사회적 차이만큼의 거리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조건에 미흡하다면 무엇을 신장하여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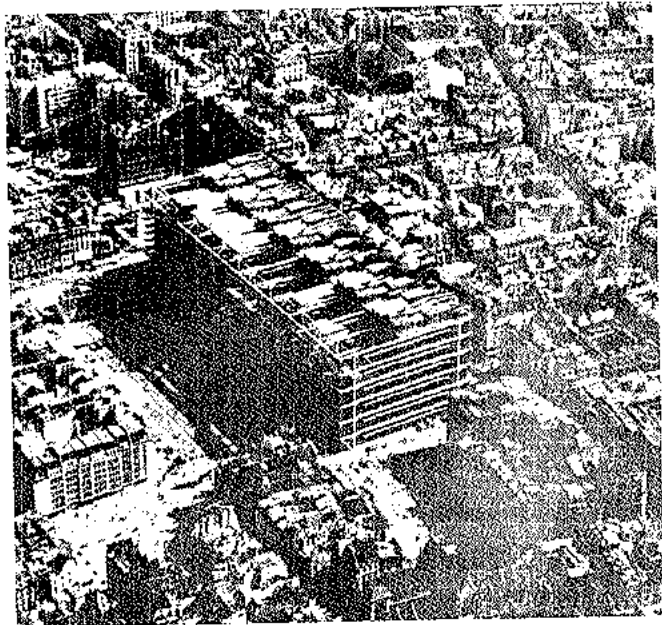
피아노는 풍피두센터에서 대중과의 접촉은 의도대로 되지않는다고 보았다. 하루 2만5천명의 이용객은 관람태도가 피상적이고 소비지향적이며, 대다수가 정서적 반응을 받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2. 활동과 작품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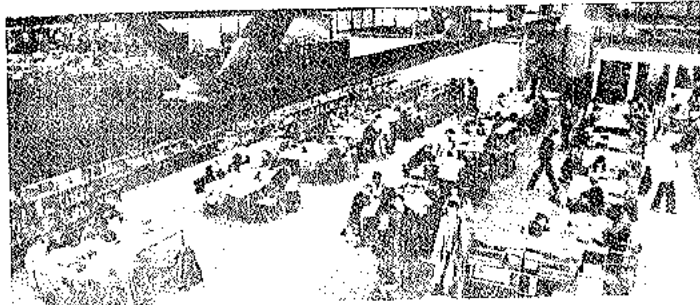
‘건축에서의 장인정신을 이어받고, 하이테크의 인간화의 원조’로 평가받는¹¹⁾ 렌조 피아노의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에 따라 그의 활동시기조차 다르게 나눌 수 있다. 오카베 노리아끼의 시기구분이¹²⁾ 타당하고 상세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964~70 구조기술과 소재의 탐구 1971~77 구조+설비+피복 1978~80 디자인 영역 확대의 실험기 1980~ 환경의 건축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와 만나는 사점이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된다. 다른 시기분류로는 마씨모 디니의 분류를 볼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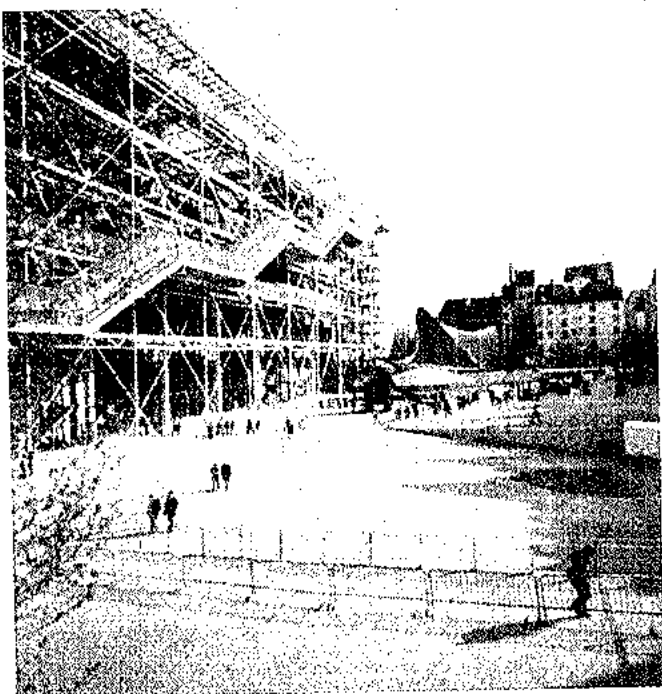
1937년 9월14일생 제노아 출생, 건설업자 칼로 피아노의 아들로 태어남. 피아노와 형제인 에르마노 피아노 역시 건설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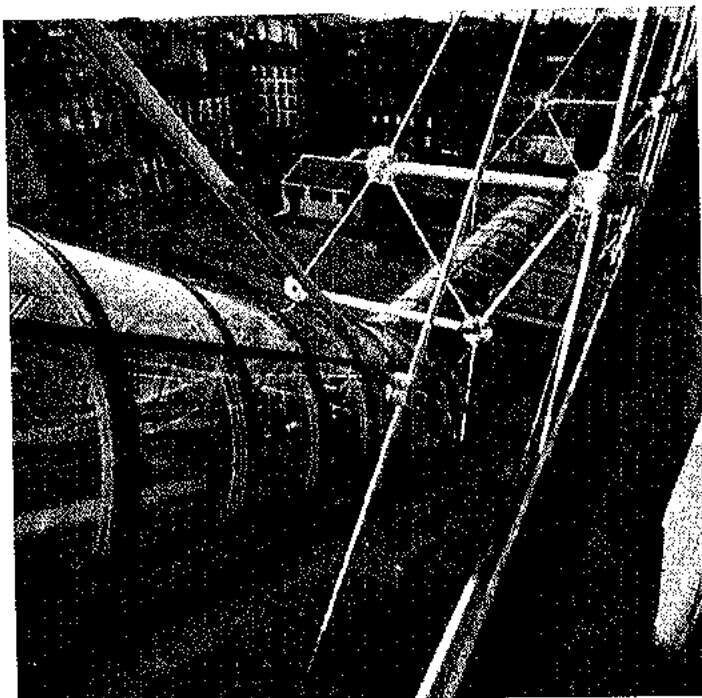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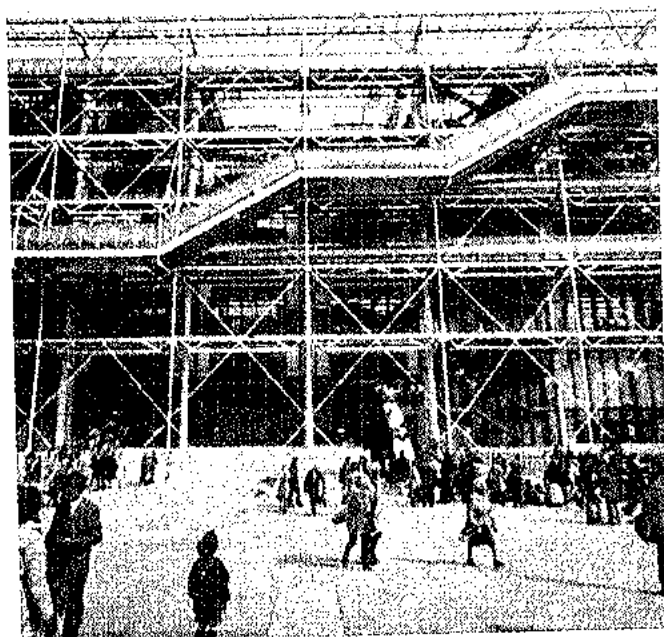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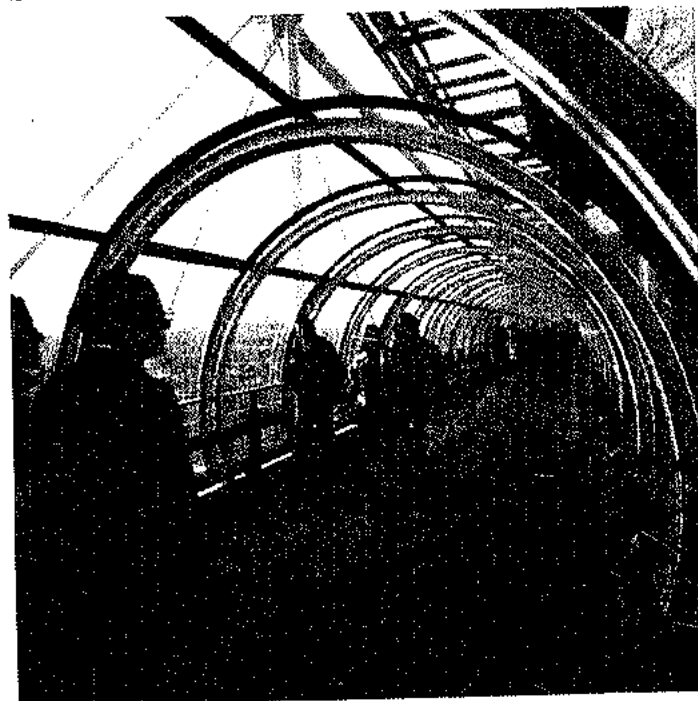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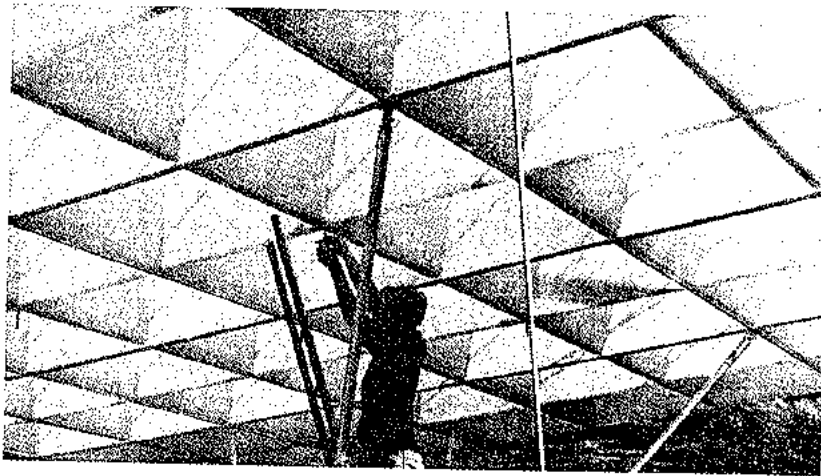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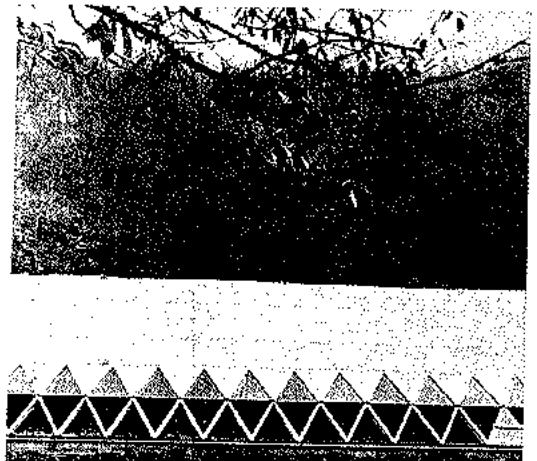
14



15



18



19

종사함.

1962년 마그다 아르뒤노와 결혼.

1962~64년 프랑코 알바니 지도하에 그의 사무실에 근무

1964년 27세에 밀라노공과대학(Milan Polytechnic)에 건축학과 졸업. 졸업후 아버지를 도와 미라노에서 일함.

1964~5년

* 제노아, 강화 폴리에스터 스페이스 프레임 연구. (스튜디오 피아노)(사진 18)

1965~1970년 마코브스키와 협동으로 작업을 함.

1965년

* 제노아, 목재작업공장설계. 절곡철판을 이용한 자립구조. (사진19)

1966년

* 로마, 유황추출공장을 위한 가변 구조물 설계. 단일공간으로 생산되는 강화폴리에스터 단위부재(유닛)를 이용하여 자립구조화 할수 있는 단위부재연구. (사진 20)

* 제노아, 공기로 팽창시킬 수 있는 단위부재로 된 스페이스 프레임연구.

* 제노아, 철 케이블과 강화 폴리에스터 구조를 이용한 이중막구조 연구. (사진 21~23)

1967년

* 미라노, 셀구조 연구. 14회 트리에날레를 위한 전시관을 위해, 공범 개발함. (사진24)

* 볼로냐, 철근콘크리트구조 연구. 장비와 설비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된 구조체계연구.

1968년

* 제노아, 공동주택을 위한 공업화시공 체계연구. (사진25)

* 이브레아의 스카마노, 올리베타공장의 지붕구조설계. 강화 폴리에스터구조를 이용하여 공장의 환기 및 열환경을 고려한 천정조명의 최적화 연구.

* 제노아, 렌조 피아노 스튜디오를 위한 사무소 작업실 설계. 경량콘크리트 비내력 판넬과 마이크로세드 폴리에스터지붕과 피라미드형태의 철구조로 이루어진 작업실 완공(1969년) (사진26)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해리스버그, '올리베타-언더우드' 공장을 위한 지붕조명부재 연구. 폴리에스터와 알루미늄등이 시멘트로 통합된 스페이스

프레임을 위한 조명기구. (1970년) 이 건물은 루이스 칸이 설계한 (1966~70년) 공장이다.

* 영국, 런던, 19세기 건물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최상층의 확장 (1971년) 1969년

* 영국, 캠브리지, 피츠로이 쇼핑센터, 도시중심지역에서의 상가로의 용도변경과 개조계획(1971년)

* 크레모나의 크레마, 올리베타공장의 강화폴리에스터 조명기구가 있는 지붕구조

* 알렉산드리아의 가로네, 개방형 주택. 내부 평면배치에 융통성을 지닐 수 있는 목재 피라미드형 스페이스

프레임지붕구조계획. (사진27)

* 일본, 오사카.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이탈리아관. 강화 폴리에스터 막구조와 구조팀은 SERTEC 엔지니어링. (사진28, 29)

1970년

* 로마, 새로운 프리패브체계를 적용한 주유소 현상설계, 철재 프리패브 부재를 이용한 구조분할연구. (1971년)

* 미국, 워싱턴 병원용 표준 모듈. ^[4] 병원의 정교하고 복잡한 설비를 내장한 의료지원 캡슐을 연구. 이 계획이 로저스와 피아노가 함께 협동하는 계기가 된다. (사진 30~32)

1971~77년 리카르도 로저스^[5]와 함께 "피아노와 로저스"로 활동.

1971년

* 코모의 노페드라테, 비 앤 비 사무용건물. 사무실 배치와 채광을 쉽게하는 철구조로 덮힌 단일공간계획. (1973년)(사진33)

* 프랑스, 파리 조르쥬 퐁피두 문화회관. (1977년)

1972년

* 제노아, 페로세멘트.

* 프랑스, 파리. 내륙용 선박의 용도변경.

* 밀라노의 쿠사고. 단독주택. 실내를 자유롭게하는 철재 지붕구조로 된 4채의 단독주택. (1974년)(사진3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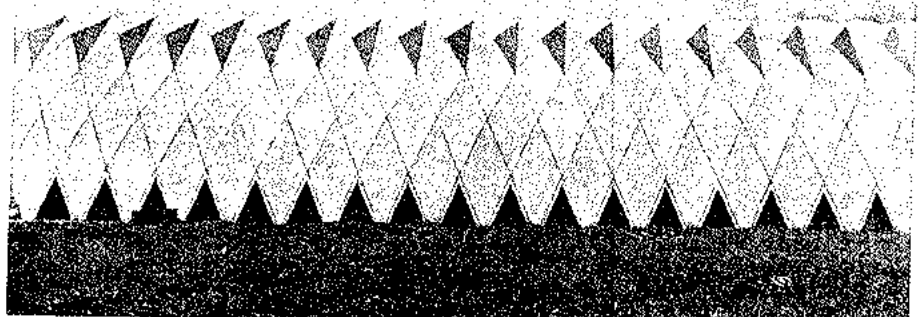
1973년

* 영국, 애쉬포드. 향수제조 화학공장. 제조 설비와 구조와의 통합에 대한 연구. (1974년)

* 알렉산드리아의 오바다 공장. 공장생산체 철근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부재를 이용한 공장. (1976년)

* 프랑스, 파리. 아틀리에 피아노. 피아노의 파리 작업실. (1974년).

* 프랑스, 파리. 음악과 음향효과 조성연구소(IRCAM). ^[6] 음악가, 수학자, 물리학자와 건축가의 협동으로 계획이 이루어짐. 외부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에 건물처럼 설치된 음악을 위한 시설. (1977년)



20

이 IRCAM은 퐁피두센터의 4분야중 분야를
맡고 있다. (사진36~38)

1976년

* 영국, 캠브리지, 전자공학 연구실.
연구소를 위해 고도의 설비가 통합이 된
단일공간의 건물.

* 전화국 계획안.

1977~1980년 피터 라이스와 함께
“아틀리에 피아노와 라이스”로 활동

1977년

* 밀라노, 사무소 체계연구. 조명,
온도조절, 통신시설이 통합된 사무소 가구의
모듈체계.

* 제노아, 피아노 스튜디오 작업실. 17세기
건물의 정원에 전시장, 스튜디오,
작업실등을 설치함. (1980년)

* 프랑스, 마르네-라-발리. 주거와
작업실. (1980년)

1978년

* 프랑스, 스트라스보르. 크로넨보르
공장건물.

* 벽 체계 연구.

* 프랑스, 샬지 퐁트와즈, 주택단지 현상설계.

* 세네갈, 다카르. 유네스코 다카르 지역
사무소(건축주)의 요청으로 세네갈에서
이동용 작업실의 건설단위부채연구. (사진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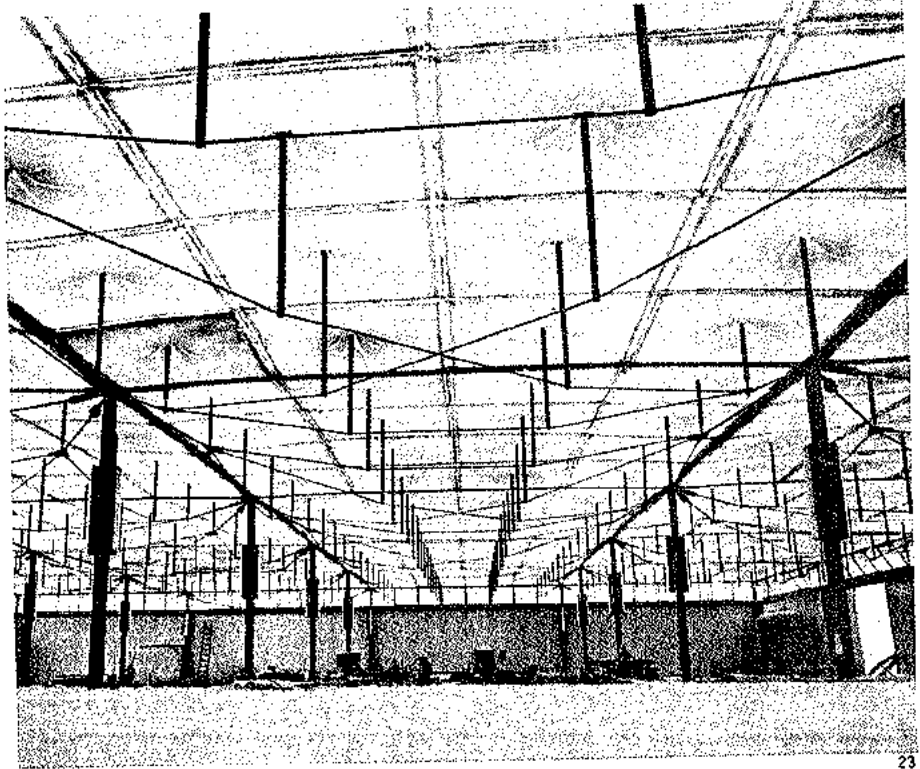
* 현상설계. 태양열 설비로 기후가 조절되는
단층건물체계 연구.

* 페르시아. 변화되는 가족을 위한 공업화
건축체계. (사진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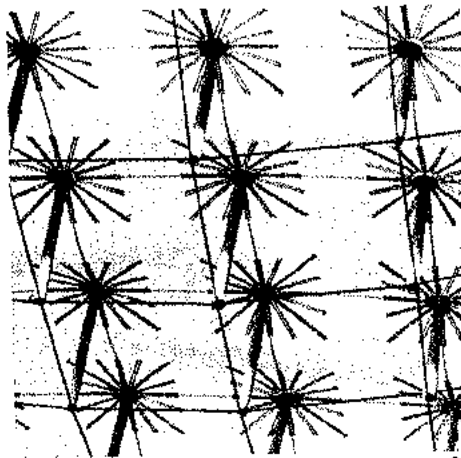
* 튜린. 나르는 카페트’라는 별명의 기본적
자동차 설계. 엔진과 기아변속장치등
기본적인 것은 이탈리아에서 제작하여
수출하고, 편편한 바닥과 윗부분은 이
자동차가 필요한 지역에 맞게, 단순한
부품들로 제작할수 있도록한 계획. (사진41)
“렌조 피아노는 다양한 도시를 구상한다.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끝나지 않은
상태의 건물들, 다양한 교통체계등을
꿈꾼다.”¹⁷⁾

* 튜린. 피아트 VSS 실험용자동차,
경량화와 안전도를 연구하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뼈대와 외부철판을 분리한 실험용
자동차. (1980년)(사진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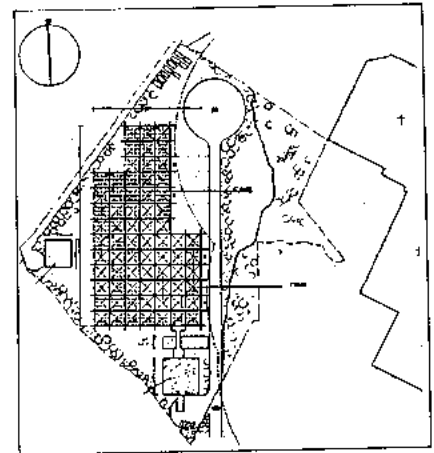
* 페르시아의 코르치아노, 리고지구
주거계획. 거주자가 참여한 실험적
주거계획. 코르치아노주민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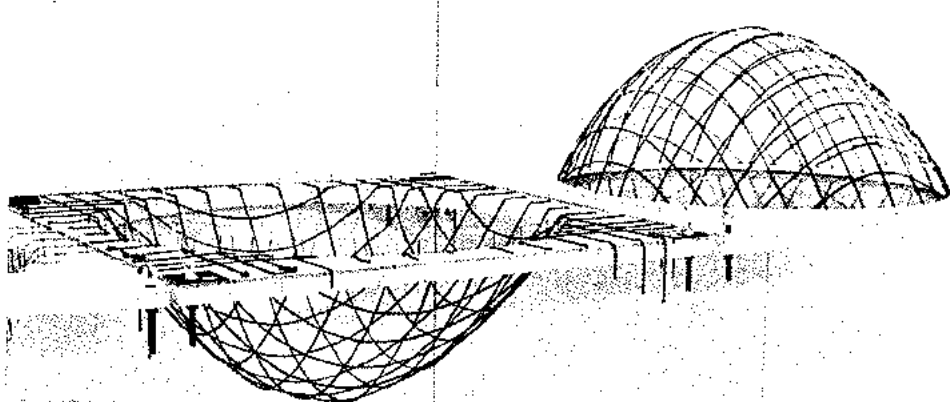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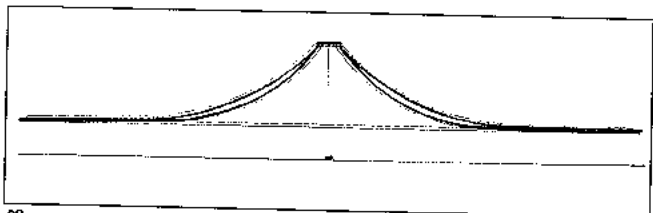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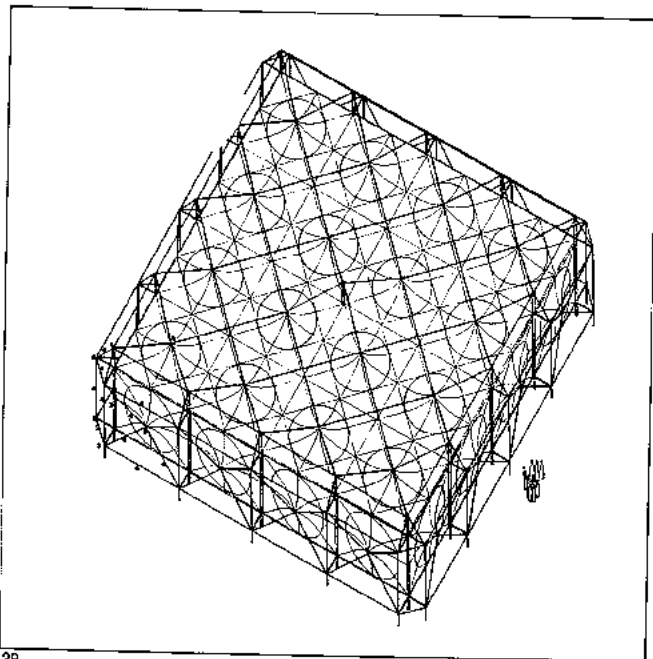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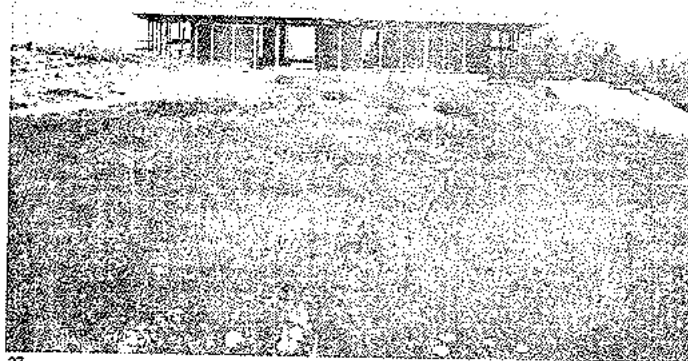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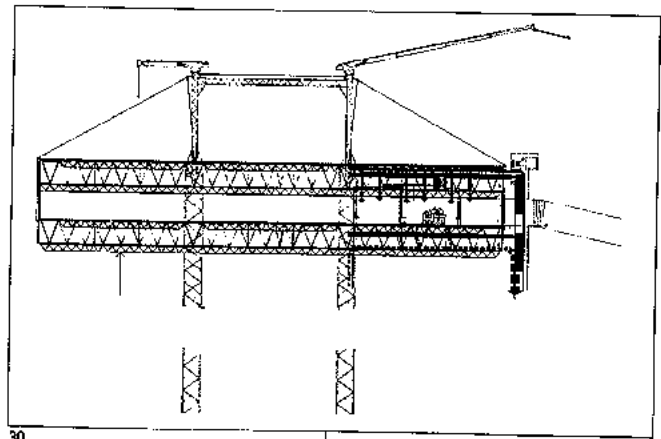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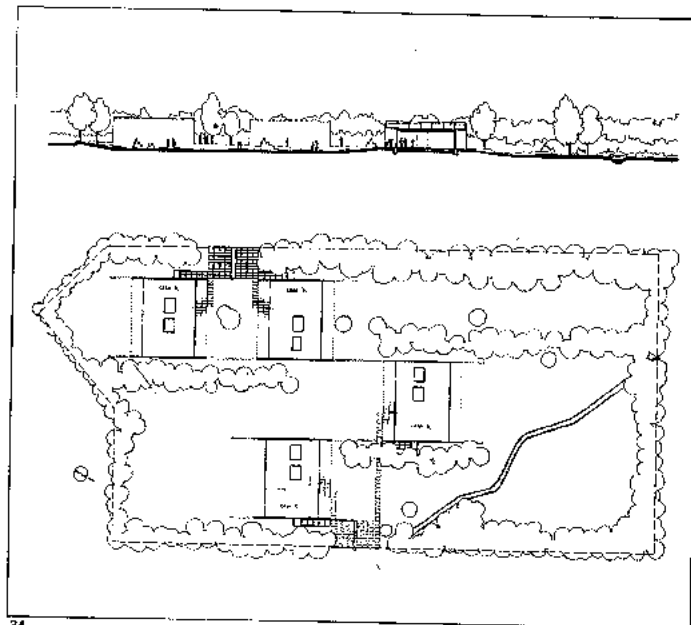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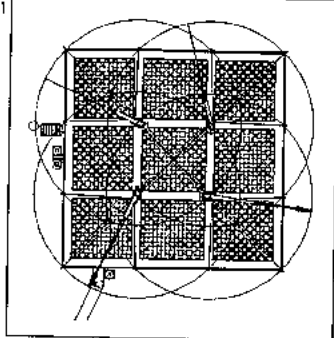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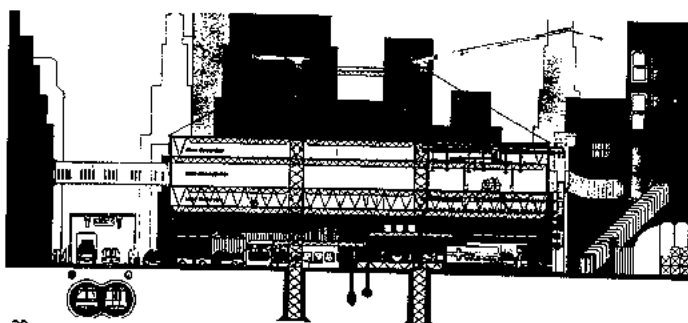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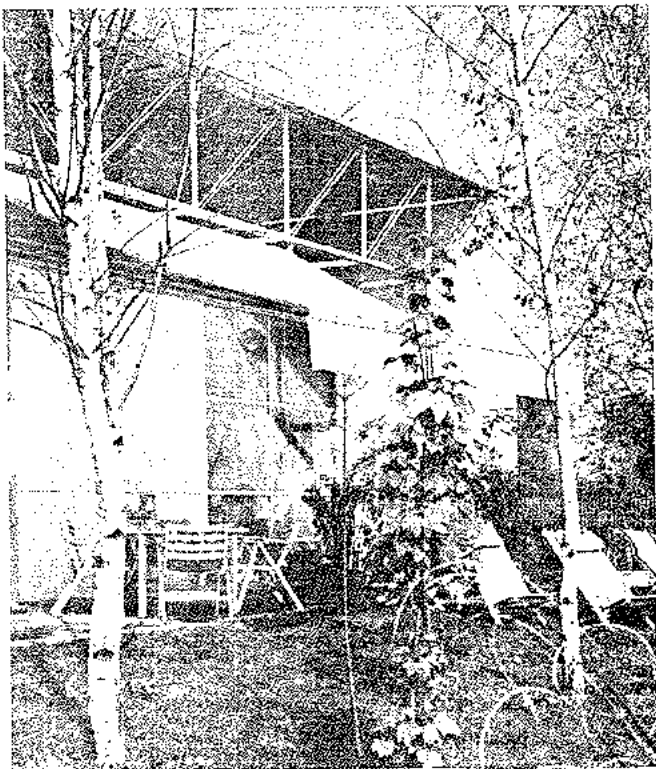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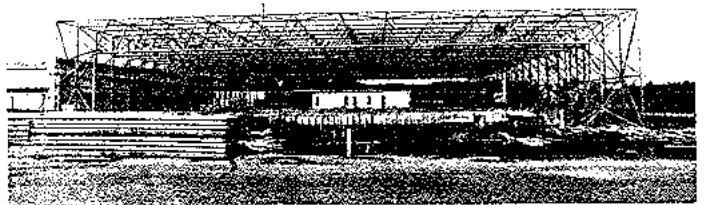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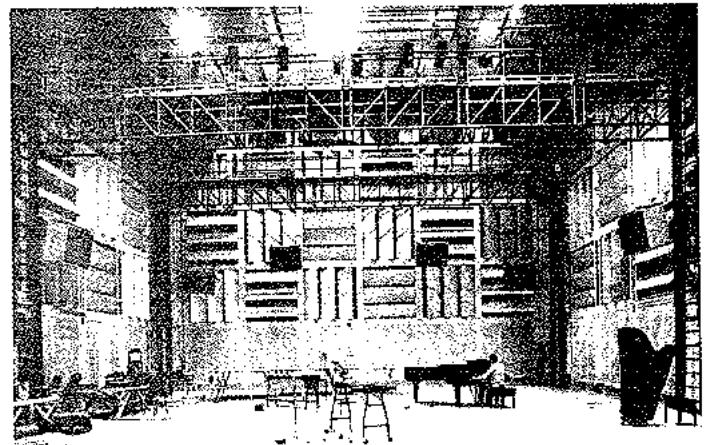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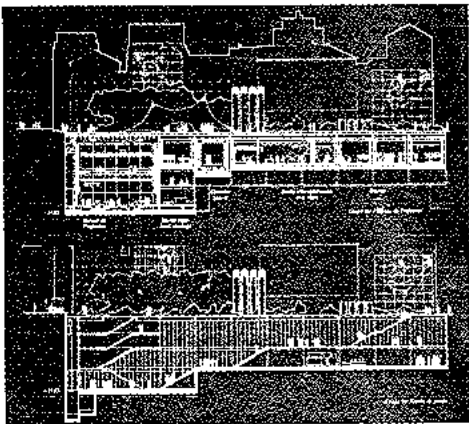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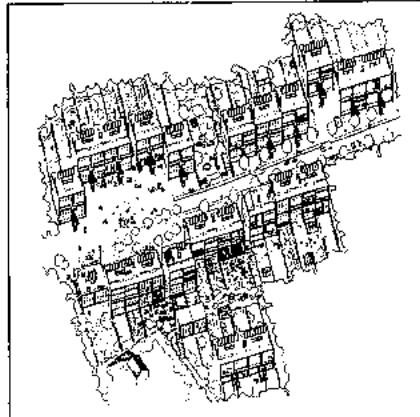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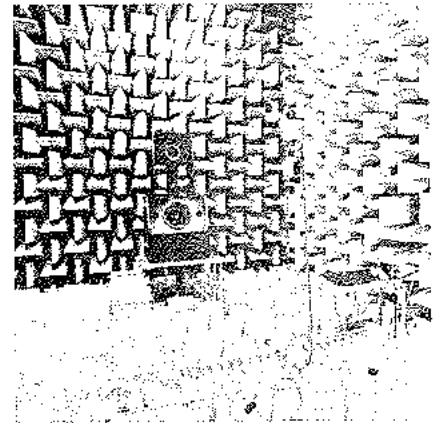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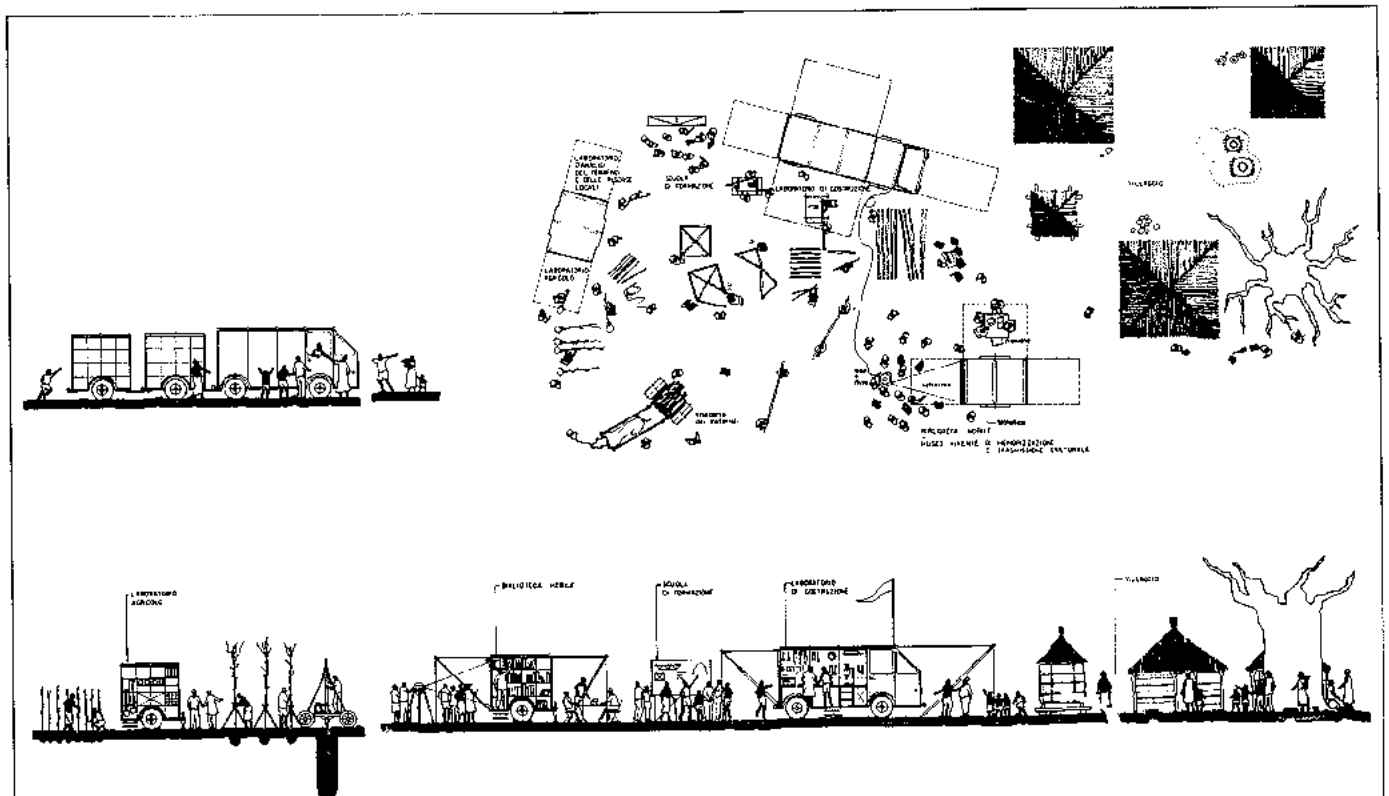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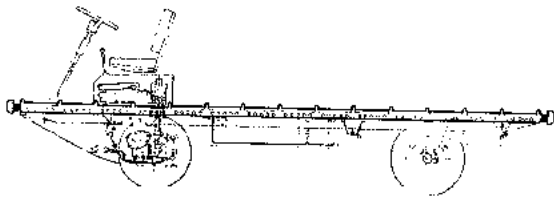
40



37



39



41

건축주. (1982년)

* 알렉산드리아, 몰라레의 썬 루카.
태양에너지와 자연환경으로 개량된 실험적
주거단지계획. (1982년)

1979년

* TV,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공지(Open Site)". (사진43, 44) 이탈리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국(채널 2)의 요청으로 제작됨.
감독은 줄리오 미찌. 제작은 루즈발디.
건축가는 피아노와 라이스와 8명이
참여했다. 글과 대본은 피아노의 부인인
마그다 아르뒤노가 담당함. 과거를 탐구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거를 그리며 성당의
유형적분류를 해보는 것이 아닌, 건설기술의
제발전에 그 의미가 있었다.
"과거 건축가는 최종결과물을 고려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설계하고 꾸미고 작업했다.
그들의 재료 즉, 돌을 완벽하게 이해하여
성당을 건설한 위대한 건축가를 생각해
보자. 그 성당은 하나의 큰 도전이었을
것이다."¹⁸⁾

* 사무소형 공장 설계.

* 스위스, 마폴름. (1981년)

* 오토란도, 고대 도시의 재건을 위한
실험의 공동작업.

1980년부터 리처드 피체랄드와 함께
휴스턴에서 협동작업을 함

* 베니스의 부라노, 부라노섬 재계획.
주민과 장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공동작업. (사진45)

* 바리 기존건물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1982년)(사진46)

* 제노아, 다용도 식료품 집하장,
에너지충전의 기술적 실험을 한 도시의
식료품 시장 단지.

* 밀라노, 밀라노프리카 회의장을 위한 적재층
내력구조. 밀라노 세계무역센터의
건물지지용 철재보의 구조체계.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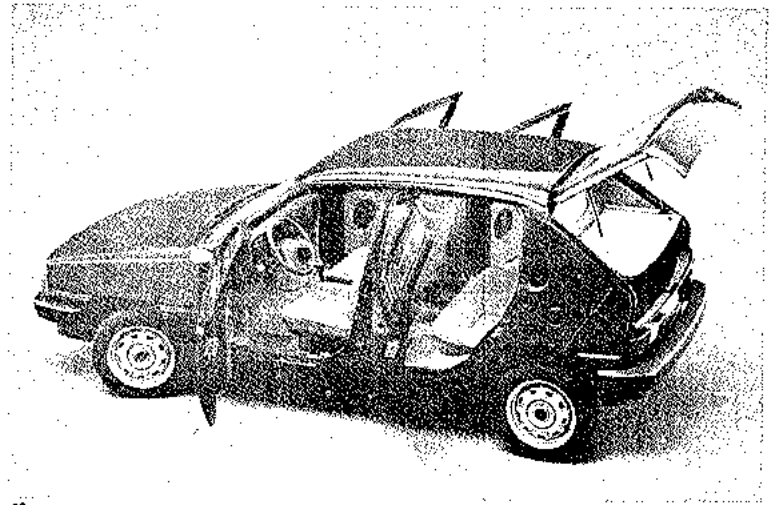
* 페르지아, 15세기 베네딕트 사원의 문화
전시관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복원작업.

* 밀라노, 전시장 단지. 철근콘크리트
피라미드형 공간격자로 구성된 지붕데크가
있는 전시장. (사진47, 48)

* 사보나, 해변개발계획

* 사보나, 마을회관, 도서관과 회의실이
있는 회관

42



* 크레모나, 아르베디 튜브구조체계 연구.
대규모 생산공정을 위해 건축가와
산학협동에 의해 개발된 강관구조를 이용한
설계. (1981년)(사진49)

1981년

* 제노아, 도시 서비스체계 개량을 통한
물로지구 재개발. (사진50)

* 튜린, 중세도시 중심지역의 불력과 거리
재구성. (사진51)

* 미국, 텍사스, 휴스턴 박물관내,
아프리카예술품과 상징주의 작품들을 소장한
메릴 소장품을 위한 미술관. 건축주는
도미니크 드 메릴. 리처드 피체랄드와
함께. (1983년). "빛의 신전"이라 할 수 있는
이 건물에서 피아노는
"사람이 혼잡하거나, 때론 적막하고
분화되어 있지않는 미술관을 거부한다.
미술관에서의 전시란 소수의 사람에게 짧은
시간안에 미술품의 역사성과 미술관의
기술적 효과가 마련되어야 만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미술관에서 극도의 피로를
느끼는 관람객을 구하는 길이다."¹⁹⁾
이 건물에서 외부와 차이가 없는, 분산된
자연광으로 이룩된 내부실내조건을
만들었다. (사진52~54)

* 레지오 에밀리아. 농,
상업은행건물. (1984년)(사진55)

* 프랑스, 몽루쥬. 20세기초 공장의
용도변경 및 재구성. 주차공간, 도시공원,
사무실, 공장등으로(1984년)(사진56)

* 서독, 베를린. IBA를 위한 지명현상설계.
국립미술관(미이스설계) 증축과 주거단지
설계. (사진57)

1982년

* 쿠웨이트, 석유수출국기구(OPEC)
단지현상설계. 지역기후를 이용한 설비
체계와 확장을 고려한 사무용 건물.

* IBM 이동전시장.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전시장. (사진58)

* 튜린, 알렌다 칼더를 회상하는 벨라
광장의 재사용 계획(사진59)

* 로마, 첼토첼 업무지구 신시가지 계획안.

* 프랑스 파리. 1989년 만국박람회.
쎈즈강에 떠있는 주진입광장.

* 노바라, 오데냐. 피에트라지역의
상세계획. 공업지역에 있는 코비안치건물계획

* 모데나. 공업·상업은행지점설계.

1984년

* 베니스, 르네상스식 산 로렌조 성당의
내부 음악당개조계획. '음악 감상용 기계'
전위적 작곡가 루이지 노노와 음향공학자
한스 피터 할러와 피아노와의 협동작업.
400명을 수용하는 이 음악당은 원래의
대리석 바닥위에서 3m 높이에 떠 있다.
거대한 U자형 목재중첩보와 합판으로된 이
시설은 거대한 소리통안에 있는
것이다. (사진60, 61)

1986년

* 프랑스, 그레노블. ESRF시설. 유럽공동
싱크로트론 방사시설. (사진6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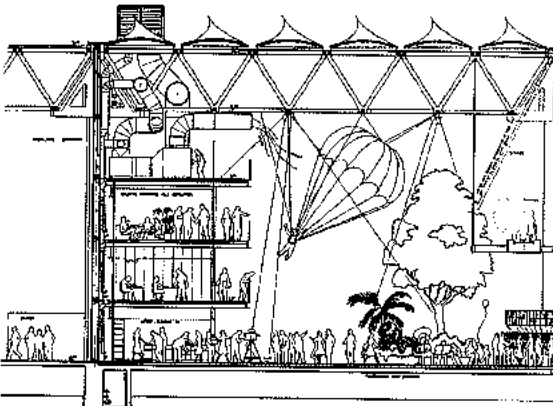
현재 그는 런던, 제노아, 파리, 휴스턴에서
작업을 함

피아노의 작업사무실은 3도시에 있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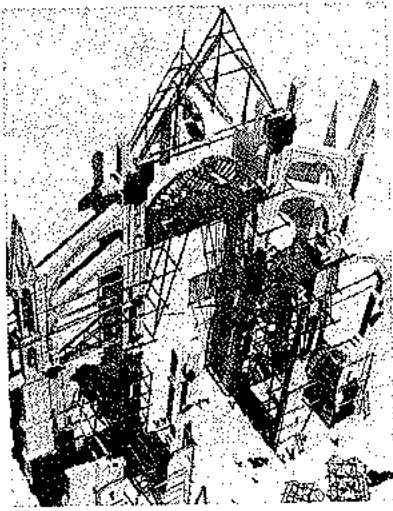
1) 이탈리아 제노아 사무실(건축작업실,
약칭으로 S.r.l로 부른다. Building
Workshop)에는 14명의 건축가와 1명의
기술자와 피아노의 부인이 포함된 3명의
컴퓨터와 필름제작팀, 그래픽 1명, 모형제작
2명, 비서실 1명, 행정담당 2명 도합 24명의
인원이 있다. (사진64)

2) '아틀리에 피아노'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사무실에는 건축담당 10명과 2명의
비서실 직원이 있다. (사진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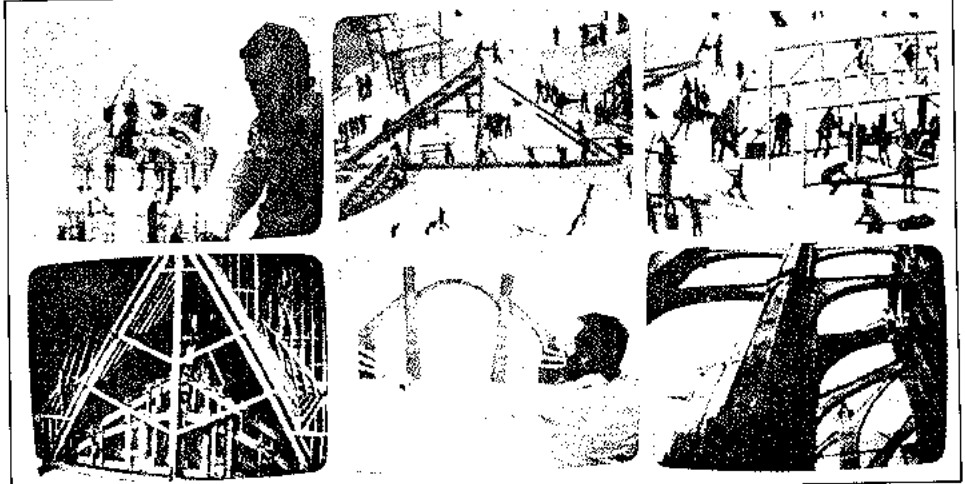
3) 피아노의 피체랄드의 미국의
휴스턴사무실에는 4명이 직원과



47



43



44

협동설계자로서 런던의 Ove Arup와 라이스 구조팀, 4명의 베이커 설비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파리거주²⁰⁾

3. 그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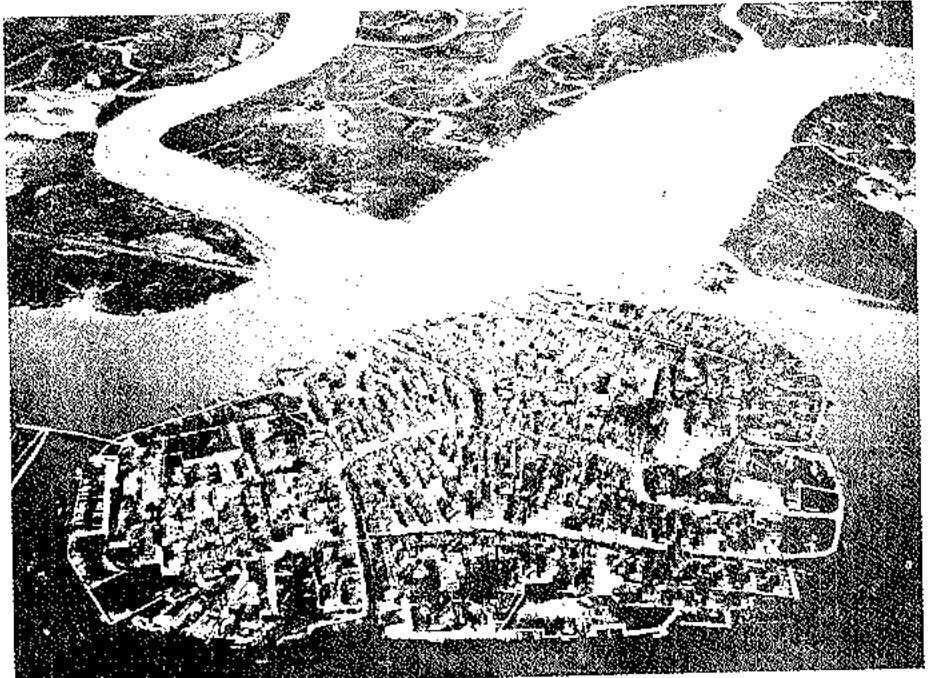
a. 피아노의 작업태도

“모든 계획을 시작할때마다, 끄적이면서 시작한다. 나는 건축언어라든지 건축적 표현이라는 말을 거부한다. 양식이란 습관일 뿐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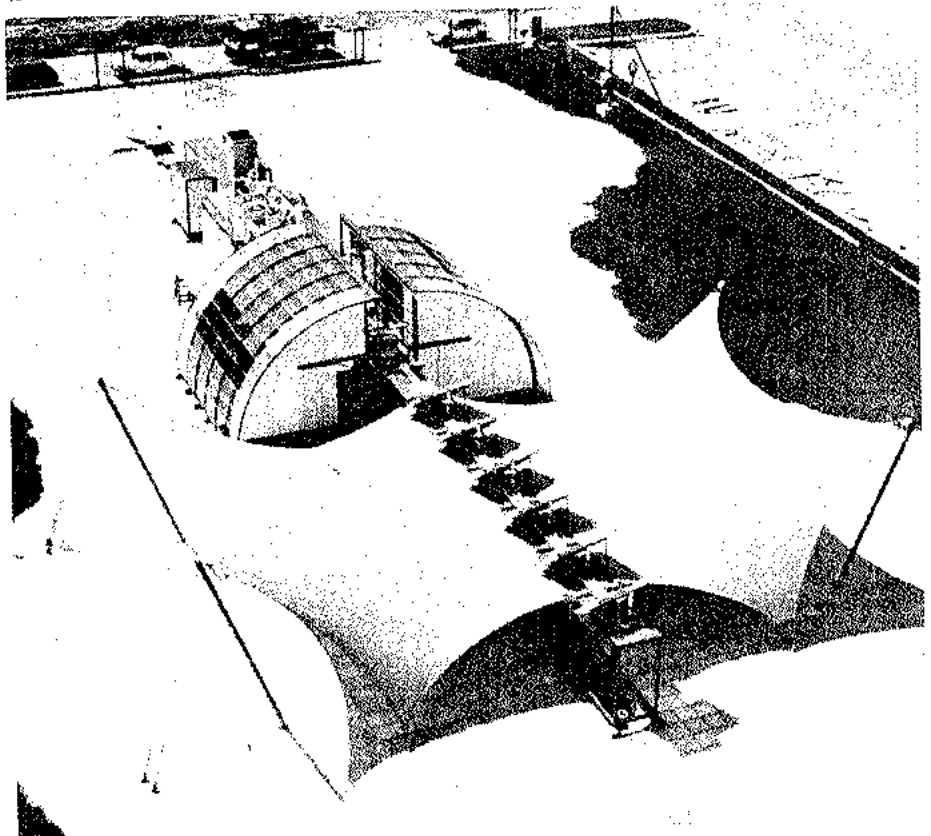
“일반적인 설계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설계로 진행되는 실수를 자주하게 된다. 솔직하게 나는 일반적인 스케치만을 해놓고는 엔지니어에게 나머지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건축가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건축의 분열을 의미하며 정신분열증후군일 뿐이다. 건축은 총체적이며 모든면에서 주의깊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은 사라질 것이다.”²²⁾

피아노의 생각의 정수는 인간을 위해 완벽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한 뒤 건축가의 세밀한 손길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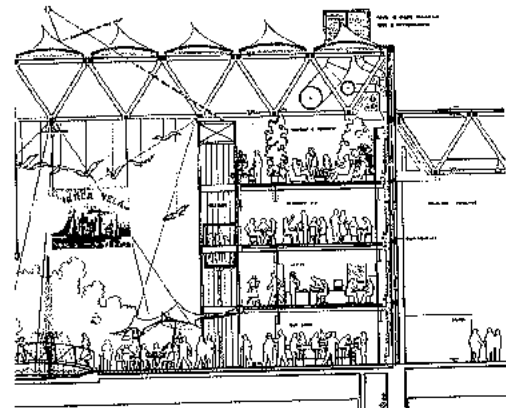
“제가 건축가냐, 아니면 엔지니어냐구요?
왜 그런 질문과 논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나 댐등을 만드는 사람들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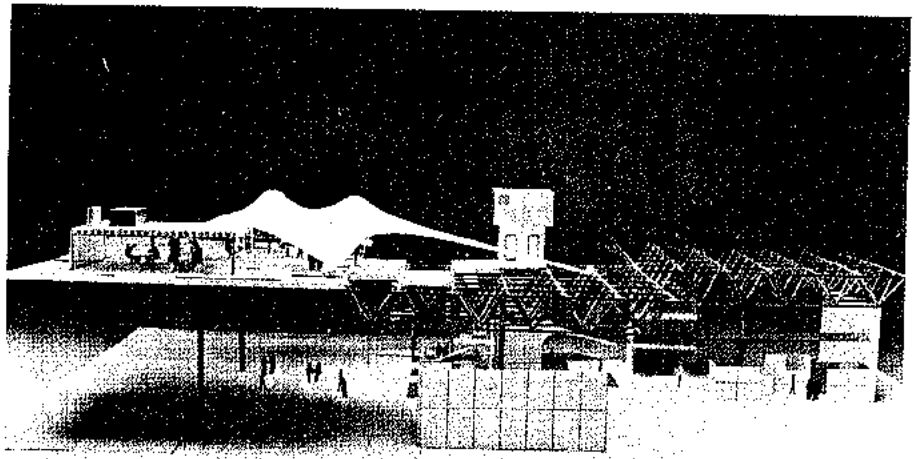


45



46





48

위와 같은 피아노의 생각은 그에게 영향을 준 건축가들로 부터 연유하고 있다. 피아노에게 영향을 준 건축가들은 다음과 같다. 프라아 오토에게 실험적 작품태도와 자연현상에의 호기심을 배웠다. 마코프스키에게서 그의 수학적 접근 태도를 배웠다.

피엘뤼지 넬비로 부터 잔 프로베에 이르는 선대의 건축가로 부터 개념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과 그것을 장인의 기질로 완성해내는 능력을 배웠다.

프랑코 알비니에게서 조직적이며 완고해야 하며 부주의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배웠다. 마르코 자누조에게서 재료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배웠다.

필라델피아에서 루이스 칸을 만나 작업을 하며, 칸의 태도와는 다소 다르기는 해도 -작품에 현신적인 봉사태도를- 칸으로부터 배웠다.²¹⁾

스승에게서 피아노가 배운 것 보다는 그것을 독자적으로 개인의 특질로 통합한 것이 돋보인다. 그것은 건설업자인 아버지 곁에서 배운 것이 초기의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 건물을 사랑하거나, 작업에 임하는 태도나 장인의 철학과 실험정신의 기초적인 틀을 일찌기 아버지를 도우면서 배운 젊은 건축학도로서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 컴퓨터 언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어이듯, 피아노의 건축언어도 역시 국제적일 것이다.

“건축가는 자신의 작업도구,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도구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것은 인습주의나 관념적 과정인 대량생산에 의해 더욱 정당화된 것으로 오늘날의 건축가가 되돌아가야 할 원천으로서의 도구이다. 만약 건축가가 도구를 만들지 못할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비효율적이고 과거를 회상케 하는 공간만을 만들게하는 위험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²²⁾ 피아노의 다학문적이고 혁신적인 작업태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피아노의 신념은, “건축에서의 기술을 이해하거나, 어떤 도구로서 실험을 하는데 있어 건축가의 이해는 완전히 잘못 되었으므로,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요구를 마땅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³⁾

“나는 실제적인 사람이다. 나는 기술을 다루는 장인이다. 일단 목표를 세우면 쉬지않고 달성시키고야 한다. 그러나 그 도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²⁷⁾

그의 작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 (1)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위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고자 한다. (Human Oriented)
- (2) 과학적 해결방법 (Scientific Approach) 재료의 발견, 도구의 설계, 계산과 실험, 스타일의 발달. 구조결합부의 개발.
- (3) 움직이는 구조 (Mobile Structure) 휴대와 이동성. 가변성.
- (4) 확산하는 공간 (Evolving Space) 용도가 정의되지 않은 단일 공간, 융통성, 현수지붕, 공업화 공정. 전시장의 확장, 성장과 변화에의 용이한 대처.
- (5) 문화와 기술의 조화 (Culture and Technology) 동피두 문화회관, 건축과 음악, 빛을 이용한 아틀리에.
- (6) 조화를 추구하는 재개발 (Gentle Renewal)
- (7) 도시의 연속성 (Urban Continuity)²⁸⁾

b. 피아노의 실험정신

1978년 여름 니콜라 튜파렐리 피아트 경영책임자로 부터 렌조 피아노와 피터 라이스는 90년대의 자동차를 발명하는 특별한 위촉을 받았다. 디자인의 영역을 뛰어넘어 자동차의 기본적 개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였다. 우선적인 목표는 최소한 20% 이상의 무게를 줄이고 그 대신 연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피아노와 라이스는 이를 승낙하고 유린에 I.D.E.A. (자동차 공학개발연구소)를 만들었다.

만테가짜를 책임자로 하고, 피아노가 소장, 라이스가 부소장으로 사무소형태의 연구소를 차렸다. 연구예산은(325만\$)로 3년간 연구하기로했다. “공장에서 매일 지켜보며 작업을 시작했다. 자동차디자인에서는 아버지적인 단테지아코자의 안내로 제작공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공장에서의 각양의 부품조립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자동차공장이란

건축가에게는 훌륭한 학교였다.”²⁹⁾

자동차 설계의 결과는 긴밀한 공동작업의 결과였다. 연구원들은 여러나라와 여러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가,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기술자 등등이었다. 이것은 협동속에 이루어진 다 학문적인 접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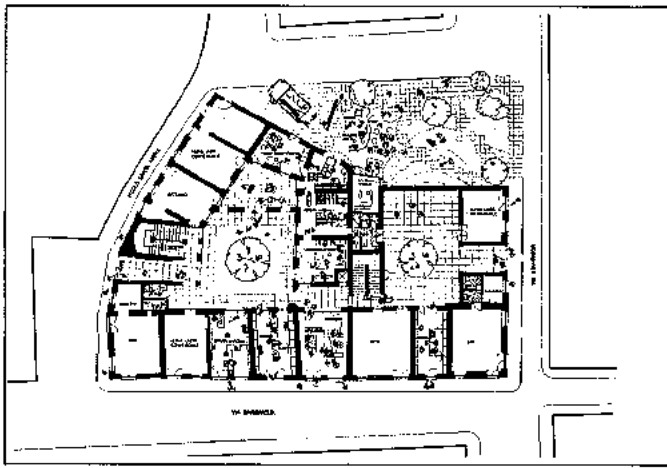
자동차의 기능과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1차적 기준이었다.

논리적으로는 이런작업은 분리하거나 상호교환할수 있는 부재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풍피두 문화회관에서 이미 피아노가 달성하려고 노력한 설계과정이기도 했다. VSS표준형에는 4가지 기준이 있다. 경량화, 내구성, 안정성, 승차감등이다. 자동차의 무게는 결정적 과제이다. 피아노는 기존금속판으로서의 차체디자인 공정은 포기해야 하며, 폴라스틱이나 그 소재(폴리카보네이트SMC)등 다른재료를 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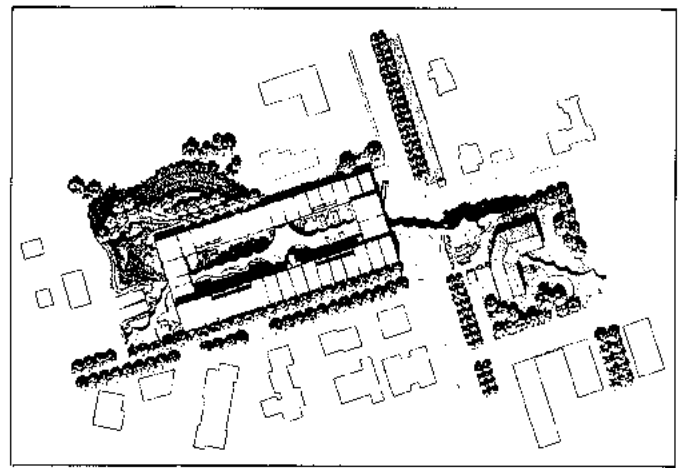
그러나 인장력부족이나 사고시 안전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결점이 있다. 해결은 금속구조중 파괴되는 동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갈바나이즈드철판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학적 연구에 의해 최적화된 구조로서 기존 금속판의 전통적 자동차보다 20% 경량이다. 폴리카보네이트 외피는 내구성에서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조건에서 녹이 스는 철과 달리 방청제코이다. 이것은 VSS로 20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시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소비자를 성인으로 보전 그렇지 않건간에, 나는 대중을 믿는다. 자동차산업에서조차 혁신을 이해하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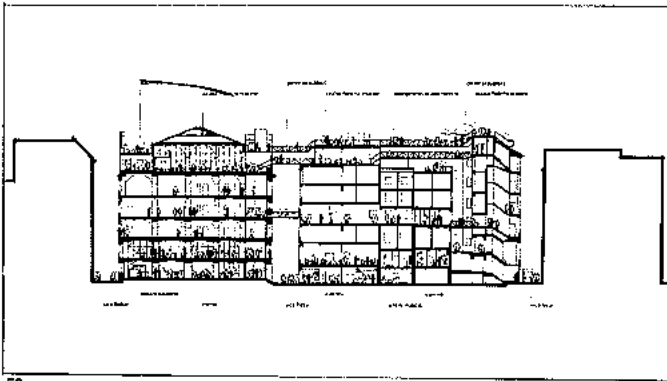
또, 피아노가 1986년에 설계한 ESRF(유럽공동 싱크로트론 방사시설)는 입자가속기로서 ESRP에서 실시한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것이다. 입자가 속기는 X선으로 물질의 구조를 알수 있도록 한 장치로서 높은 에너지로 전자 또는 양전자를 가속하기 위한 시설이다. 둘레 299m의 가속장치를 포함한 연구시설을 건축가가 설계한다는 것은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피아노의 실험정신을 볼 수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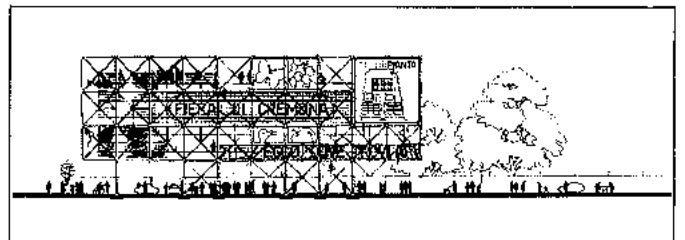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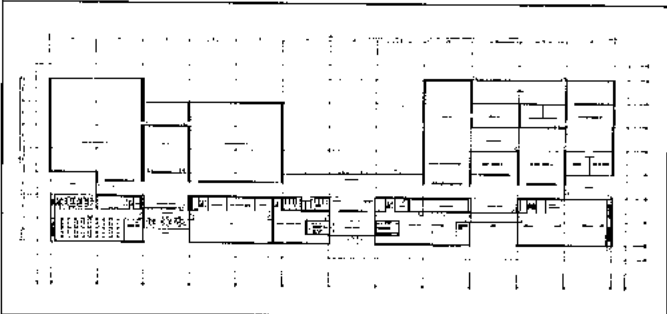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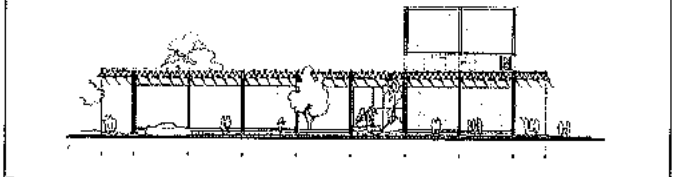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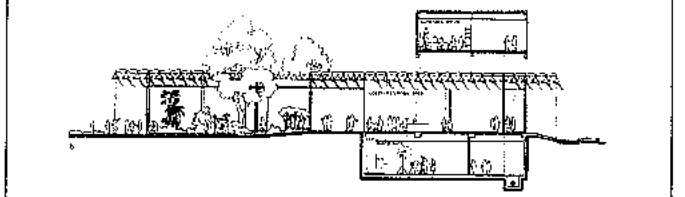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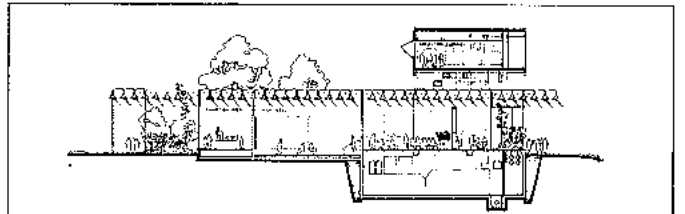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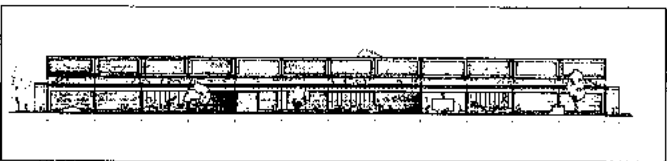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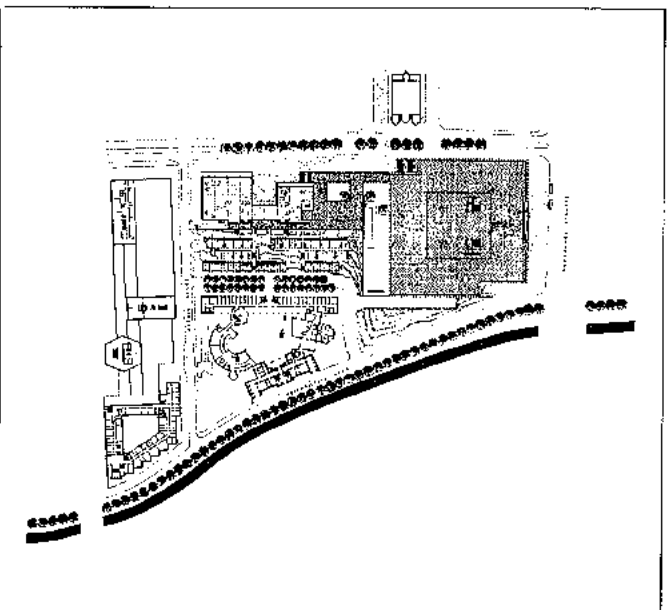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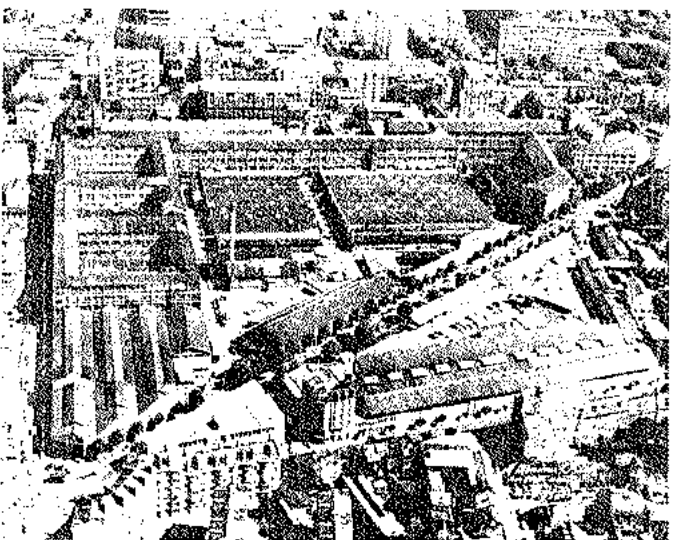
54



53



57



56



58

4. 배경과 상황

a. 새로운 건물

수정궁이 지어졌을때, 알버트공은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는 눈부신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가 지향한 위대한 목표는 인류의 통일이며 현대는 그 실현을 향해 급속히 전진하고있다”고 했다.³²⁾

알버트공은 당시 여왕의 부군으로서 헨리 콜경과 함께 1851년 영국의 만국박람회를 주관 했었다. 당시의 만국박람회란 19세기 말경까지 과학, 공업, 금융, 재정등의 모든것이 교환되던 국제회의장이었다. 또 박람회는 창조적인 건축물이 태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때의 아름다운 두 건물이 죠세프 팩스틴의 수정궁(1851년)과 구스타프 에펠의 에펠탑이었다.

하이드 공원에서 박람회후에 철거하여 다른곳에 옮겨 짓기로한 수정궁은 본래 1동당선작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면 때문에 취소 되었다. 팩스틴의 수정궁은 완전한 조립식공법의 채택, 빠른 공사기간, 박람회 후에도 장소를 옮겨 다시 건립할 수 있는 장점등이 심사후에 다시 부각되었다.

수정궁의 여러장점들은 그가 이전에 경험한 기술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정원사, 기술자로서의 그의 온실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이룩한 것이었다.

에펠의 경우, 에펠탑(1889년)에서는 탑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바람에 관한 연구가 이미 그전부터 이루어 졌다. 35세에

엔지니어로서 사무실을 차리기 전부터 교량설계에 관한 경험이 있었으며, 새로운 공법과 구조에 몰두 했다. 구조역학의 측면에서나 시각적 측면에서 기술적 해결방법의 가능성을 준 근대건축의 시금석들이었다. 후에 에펠은 78세의 나이로 고층구조의 최대의 적인 바람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최초의 공기풍동을 제작했으며, 항공기의 풍동테스트도 처음으로 실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두 건물이 개인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성취됐다면, 지금의 기술과 공학은 건축가 개인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는데 사회의 복잡함과 분업의 다양화가 두드러진다. 1816년 건축강의에 구조과목이 시작된 이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건축과 구조와의 논쟁이 시작되었고 교육기관의 토의 쟁점이었다.

피아노는 건축과 구조, 설비 또는 어떤 분야든 분리보다는 일체로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믿고있다.

피아노에게 엔지니어로서 오브 어렵의 협조는 기억될만한 것이다.

피아노가 설계에 이용한 컴퓨터가 그 좋은 예인데 피아노의 부인이 컴퓨터를 다루고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준 것이 그의 작업에서 두드러진다.

거대한 단일 전사용공간을 얻기 위해 기계설비를 외부에 노출시킨것은 이미 건축가들이 타진해 오던 것이었다.

(1) 르코르뷔제의 “주택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라고 한 것은 현대건축의 주요 테마중의 하나였다.

A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³³⁾

(2) 루이스 칸이 설비를 분리시킨 건물을 이미 1957~64년에 펜실베니아 대학 리차드 의학연구소에서 제시했다. 제공받는 공간(Service Space)과 제공하는 공간(Servant Space)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인간이 제공받는 공간은 스튜디오 3개블럭과 생물학 연구동 2개 블럭이고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간은 배기덕트, 급기덕트와 수평덕트 구역동이다. (사진66)

(3) 1966년 아키그램의 데이비드 그린의 ‘누에고치형 주택’(Living Pod)은 기계시설과 재료를 통합한

세포형태로서 아키그램의 일반적 대형계획안과는 다르게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어느지형조건에서도 신축성있는 4개의 다리에 의해 자립할 수 있고, 온도 조절, 세척, 목욕, 쓰레기 처리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독립적으로 주거단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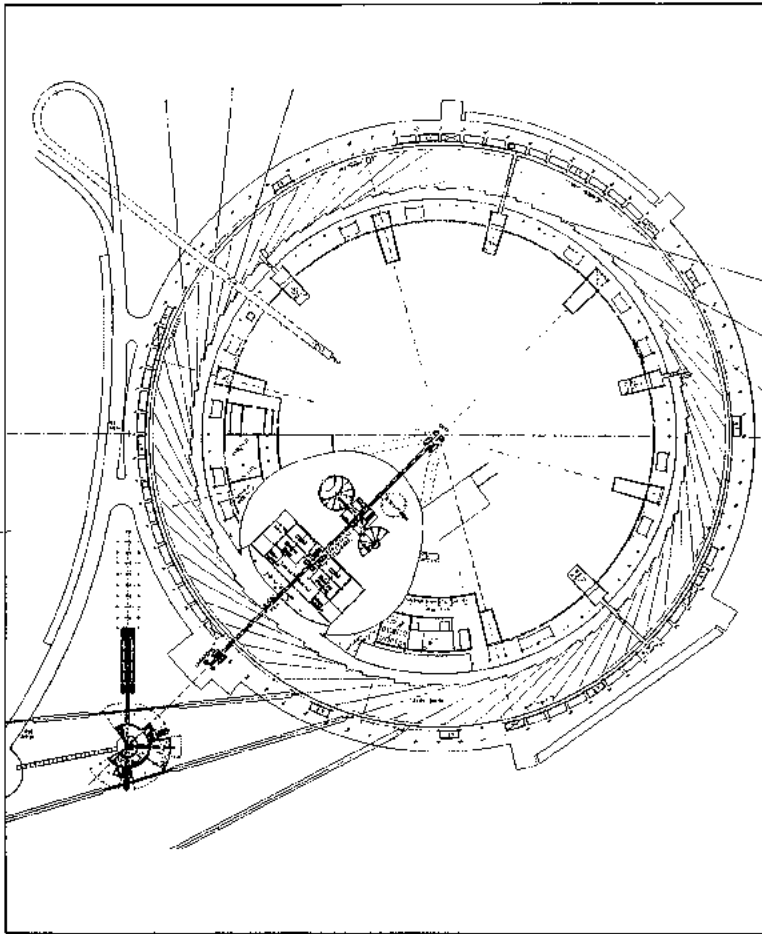
계획했다. (사진67~68)

아키그램의 피터 쿡, 데니스 크럼튼, 톤 해론, 위켄 측, 마이클 웹 등은 설비등의 노출된 거대한 구조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최근에는 과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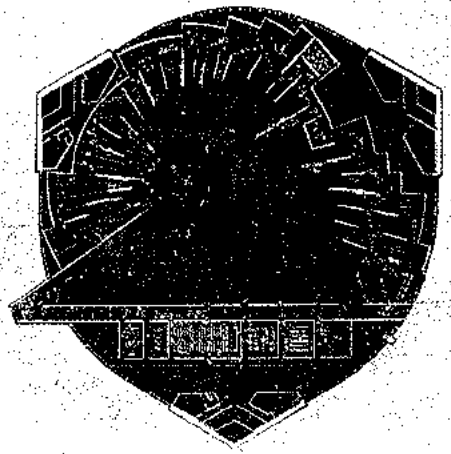
b. 미래, 인간사회와 문화

미래의 사회나 인간을 표현해 주는 말은 많은 종류가 있다.

1. 우주시대(Space Age),



62



59



63

2. 정보화시대(Information Age),
3. 전자공학시대(Electronic Era),
4. 지구촌(마셜 맥루언, Global Village),
5. 기술전자공학시대(브레인스키, Technetronic Age),
6. 탈산업사회(미국 사회학자, 다니엘 벨, Post-industrial Society),
7. 과학기술혁명(소련미래학자, Scientific Technological Revolution)
8. 초산업사회(알빈 토플러, Superindustrial Society),
9. 달리는 인간(Homo Movens)³⁵⁾
알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파도)”에서, 하나의 가설로서 3종류의 시기를 분류하였는데 제1의 물결의 시대는 기원전 8000년에서 시작하여 서기 1650년~1750년경 까지로 구분하였다. 제2의 물결의 시대는 1650년~1750년 경부터 1955년~65년까지의 시기로 나눈다. 제3의 물결의 시기는 1955년~65년부터 그 이후의 미래를 가르킨다. 이렇게 나눈, 토플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류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삶을 영위했으며, 채집, 어업, 사냥, 목축으로 식량을 마련했다. 그것이 어느시점, 즉 대충 1만년전쯤서부터 농업혁명이 시작되어(제1의 물결의 시대가 열려) 지구상에 서서히 퍼져갔다. 마을과 권력과 경작자가 생겨났고 새로운 양식이 확대되어 갔다. 제2의 물결은 석탄이나 석유라는 에너지를 원을 모체로 하여, 1700년경 부터 산업혁명으로 부터 서구세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인구이동, 도시집중등의 여파와 함께 인간의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물결이 진행중이던 1955~65년을 전후하여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경(서구의 경우겠지만), 정신근로자(화이트 칼라)와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처음으로 육체노동자(블루칼라)의 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또 컴퓨터의 도입등으로 부터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이때부터 인간의 일상생활이 여러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가르켜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른 것이다.³⁶⁾ 인간의 미래는 아름답게 또는 그반대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렉토피아(Practopia)는 현실적인 미래를 말한다. 인간이 상상할수 있는 세계중에서 최고도 최저도 아닌, 우리의 현상보다는 훨씬 현실에 입각한 세계이다. 플렉토피아는 유토피아와는 달라, 질병과 정치적 부패와 악습에서 해방될 수 없는 사회이다.³⁷⁾

c. 프랑스의 경우

제2의 물결을 열게한 결정적이유중에는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산업이, 프랑스는 정치가, 독일은 철학이 발달했다고 한다. 1989년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간과 인간, 이익과 이익, 계급과 계급이 충돌하고 화해했던 프랑스 혁명. 1786년부터 1799년 나폴레옹의 군사혁명에 이르기까지, 4부류의 집단이 차례로 벌인

제4혁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시도와 조정이 있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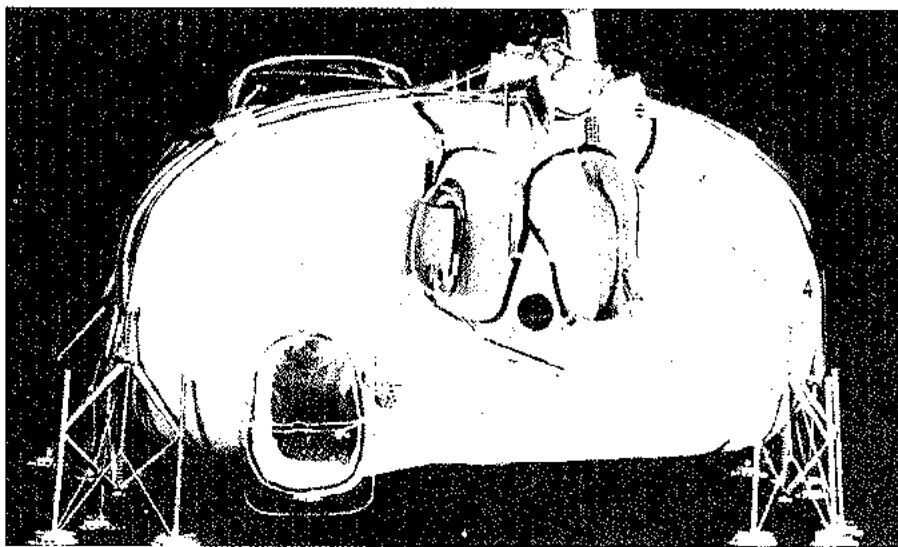
“풍피두 센터가 창설된지 10여년이 된 지금 문화,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도구,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도구, 수단들은 창작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전문인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조형미술, 과학, 기술, 산업, 새로운 통신수단, 도시인들의 여가휴식등 여러분야에서 각광을 받고있다.”³⁹⁾

이탈리아와 영국로 색슨계 건축가에게서 이러한 구상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71개국의 681개의 응모안에 이런 아이디어가 포함된것도 이상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류의 아이디어는 이미 아키텍트에 의해 태어났고, 현실세계에는 다양한 설계안이 모이기 때문이다. 왜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것을 당선 시켰고,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으며, 더욱이 행정당국은 이러한 일에 적극적이었나? 하는 점이 궁금하다.

에펠탑이나 풍피두문화회관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건물을 용납하고 이로부터 어떤 정신을 꽃피우는 태도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최근 서울에서 전시된 적이 있는 ‘프랑스 문화시설’전시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방법에서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상과 발명을 파악할 수 있다. 과학의 연구나 이의 재빠른 응용을 하는 문화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시대의 변화나 그 역할 담당자를 더욱



68

이해하기 위해⁴⁰⁾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러한 점을 더욱 확인 하게 된다.

“정책은 무엇보다도 프랑스 사회가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진정한 문화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그 주요 목표로 삼고있다”⁴¹⁾ 이러한 목표아래 그들은 퐁피두 예술회관을 만든 것이다.

“왕궁이나 종교건축물들은 원래 목적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이런 건축물들은 프랑스 문화 유적이 되었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풍부해졌다”⁴²⁾ 드골, 조르쥬 퐁피두,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와 미테랑에 이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가들은 문화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지지고 있었고, 현대미술관, 공공정보 도서관, 산업디자인 센터, 음악과 음향학 연구센터등의 기능을 갖는 퐁피두센터는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의 서구와 동양이나 또는 제3세계간의 갈등은 제2의 물결을 같은 시기에 겪지 못했다는 데 있다. 우리로서는 그 기준이 우리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1의 물결(농경사회)을 완전히 벗어났는가? 제2의 물결은 어느정도 진행중인가? 제3의 물결은 우리결에 얼마큼 다가왔는가? 그러한 진행은 우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기준인가? 우리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겪는다면 그만큼 부작용도 많을 것이다. 공해, 민주화, 산업화, 수출주도형, 농촌의 위기, 도시화, 자율화 또는 노동조합등의 여러문제는 이 여파에 따른 부산물이다.

우리는 1978년 4월 14일 개관된 세종문화회관과 1977년 완공된 퐁피두센터와 비교하기에 크나큰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세종문화회관의 한 직원이 “회관내부적으로는 시민과 가까운 친절한 문화공간이 되게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기관의 지나친 통제등 외부적 요인때문에 회관 이미지가 크게 흐려지고 있다.”고 이야기 한점이나, 세종문화회관을

서울시내의 문화공간중 ‘가장 불쾌한 장소’라는 비난을 많은 사람으로 부터 받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을 듣게 된다.⁴³⁾ 외국의 세계적 단체와 한국의 수준높은 예술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평가외에 지나친 정부행사로 인해 공연을 소홀히 하여 부정적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점은 일반시민에게 제공되기에는 ‘달려진 공간’으로서 그 권위주위적 ‘문화의 전당’으로서 역할이 제한되어 왔다. 최근 일부완공된 ‘예술의 전당’이 기존 세종문화회관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어느정도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건립배경으로 국력신장에 따른 국제적 예술공간의 필요, 문화예술활동인구에 비한 문화예술공간의 부족, 서울 강남북간 문화시설의 불균형 극복, 지방문화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중심적 역할공간 필요, '88 서울올림픽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예술공간의 확충이라는 5가지 이유로서 시작되었다.⁴⁴⁾ 대통령은 ‘프랑스의 퐁피두센터나 영국의 바비칸센터 같은 문화예술의 총본산을 세우고 싶다’는 소망을 밝힘에 따라 건립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은 퐁피두센터가 목표로 한 것과는 다른것을 계획했다고 생각되며, 실제운영을 통해 누구를 위한 예술의 전당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것이다.

즉, 시민을 위한 정보, 오락, 문화의 생생한 현장으로서 라기보다, 세계를 향한 고귀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기때문에, 새로운 기술서대를 맞이하는 일반시민의 정보나 문화충족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기능은 미약하다는 뜻이 된다.

문화회관 하나가 하이테크로 되었건 기와형대로 되었건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방송국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는 젊은이들이 모여 그들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현실에서, 전국 곳곳에서 커리커리 전통문화나 외국의 것을 외쳐볼 여지가 없을때, 그들은 TV 공개홀이나 외국가수 앞에서 괴성을 지르게 되거나 술집에 처박힐 것이다. 시범적으로 입안자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이테크의 건물을 소유한다 해도,

기본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앞을 즐겨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세대조차 추스르기 어려운 판에 우리가 어떻게 젊은이를 위해 필요한 문화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비교적 변화가 심한편이다. 점차 안정화추세에 있다고 해도, 생활도구로서의 컴퓨터의 등장이나 가족의 형태의 변화, 주거지의 변화등은 정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을 토풀러는 ‘미래의 충격’으로 불렸다. 사회의 영속성의 종말로 인하여 환경의 일시성, 환경의 새로움, 환경의 다양성등이 나타나므로서 인간의 적응력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미래를 대처해야 할 것이다.

d. 미래에 대한 예견

아키그램의 한사람인 피터 큐의 아래 정리를 보면 우리는 60년대의 아키그램의 실험정신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파악하였다.

- 정리 1. 미래는 변화 할 것이다.
- 정리 2. 미래는 소모성 사회가 될 것이다.
- 정리 3. 미래에는 반드시 쾌적해 질 것이다.
- 정리 4. 미래에는 개성화 할 것이다.
- 정리 5. 미래에는 인간의 책임이 증대할 것이다.
- 정리 6. 미래에는 다양한 사회가 될 것이다.
- 정리 7. 미래에는 부드러워질 것이다.
- 정리 8. 미래에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될 것이다.⁴⁵⁾

그런가 하면 낙관적도 비판적도 아닌 것으로서 현실 그대로의 미래를 토풀러는 플렉토피아(Practopia)라 불렸다. 인간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러한 미래를 예측을 하게된다. 그러한 예측에는 낙관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태도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현대문명에 대한 예측기법으로서의 델파이기법도 플렉토피아를 산정하는 합리적 방법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즉,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이란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져 그 결과로

“ 혼해져 가는 컴퓨터가 설계사무실에서 얼마나 이용이 될 것이며, 과감한 투자를 할 자신감은 무엇으로 부터 비롯되는지. 이글마저 많은 건축사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다른 방법과 다른 것은 여러번 시행하면서 각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가 각 단계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의견을 수정해 본인의 태도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⁶⁾

찰스 젠크스가 쓴 “2000년의 건축”을 보면 이러한 텔파이 기법으로 인간의 미래를 예견한 것을 인용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이 몇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선을 그대로 실내로 전달할 수 있다면, 즉 그러한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된다면, 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즉 건물외 창이나 입면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다.⁴⁷⁾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것이 건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곧 그러한 조건들이 머지않아 상용화되어 건축요소로서 등장할 것이다. 또는 사회조건을 결정지워 줄 것이다.

하이-테크 건축은 그 건축의 태어날만한 조건을 갖춘곳에서 태어 난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프랑스의 대형건축물들이 “행정부처들과 공공시설기관, 예술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관들, 음악가, 무대장식가, 통신분야 전문가, 건축가, 엔지니어링 설계진들, 일반관련기업들을 결합하도록”⁴⁸⁾ 협동작업이 이루어 진것과 같은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 한일이다.

하이테크란 제3의 물결을 기준지우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한 건축이며, 새로운 인간조건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낼때 비로써 태어난다.

“오늘과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는 이테오로기가 건축의 보조역할을 할수도 있다”⁴⁹⁾는 찰스 젠크스의 이야기는 건축과 정치와 사회교육의 함수관계를 의미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건축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문제의 한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5. 그에 대한 견해

필자는 한국건축계에서 세부 디테일 설계에 몰두함으로써 건축기술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존경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술적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시기에도 그러했고 우리의 기술이 중동에서 외국과 비교해서 뒤질때도 그러하다.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은 새로운 재료, 공법등의 습득이나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세부적인 것만이 건축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온몸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협동작업속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풍피두센터 한 건물로서가 아니라, 피아노의 노력을 보면 그는 기술에 앞서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재료를 동원했다. 그것도 장인의 기질을 발휘하여 절제하게 진정한 하이 테크놀로지의 길이 험하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길이 편해지지 않는 이상, 부딪혀 해결해야 할일이다. 우리가 40대에 각종 질병에 지쳐 쓰러진다는 신문보도를 보면, 이는 시대변화를 수용치 못한 집단 스트레스에 연유한다고 믿게 된다. 우리시대에 장인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의 미래에도 장인 기질을 지닌 건축가가 있다면, 그는 어떠한 모습일까? 장인 스스로 도구를 만들어 가며 설계를 하는 장인정신이 필요하다고 믿는 피아노를 보면, 그가 기술시대의 장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된다. 밀려오는 외국의 수입문화 개방압력속에, 또 산업화는 되고 있지만 기초보다는 응용력이 두드러진 한국의 과학과 기술의 허점속에서, 수입된 자재와 수입된 설계로 이루어진 우리의 하이테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건물은 사회를 향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이야기해야 한다. 깊은 곳에 직원만이 출입이 가능한 건물에서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도 다음 시대를 맞는 마음의 준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행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기한 건물이나 시설을 관람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면 행정당국은 미래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 스트레스를 미리 막기 위해서도 과감히 투자를 하기도 해야 함은

물론 과감한 선택으로 사회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틀속에 용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혼해져 가는 컴퓨터가 설계사무실에서 얼마나 이용이 될 것이며, 과감한 투자를 할 자신감은 무엇으로 부터 비롯되는지. 이 글마저 많은 건축사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준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제1의 물결의 시대의 장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들어왔다.

제2의 물결의 시대에 장인이 있다면, 그는 기계와 기술을 마술처럼 부리지 않을까?

제3의 물결의 시대에 장인이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 註 □

- 1) “A live centre of information, Entertainment and culture”
- 2) Architectural Design. 1977.2.p.112.
- 3) Architectural Design. 1977.2.p.87.
- 4) IRCAM: Institute for Research and Coordination in Acoustics and Music.
- 5) 프레스 8801
- 6) 오브 어렵과 협동자들, 건축과 환경, 8704. p. 77. 톰 바카.
- 7) 오브 어렵과 협동자들, 건축과 환경, 8704. p. 57. 피터 라이스
- 8) 마씨모 디니 Massimo Dini, 1946년 프로렌스 출생, 1971년 대학졸업(인문학부). 프로렌스대학 루드비코 조리교수 밑에서 연구. 1978년 부터 신문기사 생활. 1981년 부터 경제신문 문화면 칼럼 편집장. 현재 파노라마 잡지 기고자.
- 9) Massimo Dini, “Renzo Piano”, New York, Rizzoli. 1984. p. 7.
- 10) 2장의 지명중 나라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탈리아의 도시를 말한다. () 안의 연도는 완성년도를 말한다.
- 11) Architecture Review, 1983:08, p. 27-31
- 12) 건축과 환경, 8705, p. 105.

“ 피아노의 생각의 정신은 인간을 위해 완벽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한 뒤
 건축가의 세밀한 손길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13) 그는 (1)하이 테크(High Tech)의 시기—1960년대의 스페이스 프레임의 시기
 1970년대의 자동차설계의 시기
 1981~83년의 미술관의 시기. (2)최근의
 생체공학직(Biotechnological) 시기등으로
 나누고 있다.
 14) ARAM:Association for Rural Aid
 to Medicine.
 15) 라카르드 로저스, 1933년생. 미라노의
 BBPR의 유명한 어네스트 나탄 로저스의
 조카. 예일대학 및 대학원졸. 플브라이드
 장학생. 예일장학생 및 에드워드
 스톤장학생. 예일에서 세마이애프 밑에서
 도시주거문제 연구.
 16) RCAM:Institute for Research and
 Coordination in Acoustics and Music.
 풍뢰두센터(보부르) 근처에 위치한 건물로서
 건물지붕이 도로바닥높이를 기준하고 있다.
 IRCAM은 음악의 탐구를 위해 필요한
 기법이나 수법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5개
 분과로 나누었다.
 악기를 위하여, 전자음악을 위하여, 음성을
 위하여, 컴퓨터와 합성음(썬세사이저)을
 위하여 그리고 기타 일반음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소 목표는 연구와
 창조사이의, 과학과 예술사이의 경계를
 불식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코자
 과학자와 예술가가 협력하고 있다.
 17) Massimo Dini, 앞책. P. 62.
 18) Renzo Piano의 말, Massimo
 Dini저, 앞책. p. 218.
 19) Renzo Piano의 말, AR 1983:08. p.
 27.
 20) Massimo Dini, 앞책. p. 243.
 21) Massimo Dini, 앞책. p. 62.
 22) Massimo Dini, 앞책. p. 51.
 23) AR 83:08. p. 30.
 24) Massimo Dini, 앞책. pp. 10-11.

25) Massimo Dini, 앞책. p. 7.
 26) Massimo Dini, 앞책. 뒷표지.
 27) Massimo Dini, 앞책. p. 26.
 28) Massimo Dini, 앞책. p. 5.
 A.D.1975.5
 29) Massimo Dini, 앞책. pp. 38-39.
 30) 앞 책, 같은 쪽.
 31) GA PROJECT, International 1, pp.
 16-21.
 32) 현대건축사전, 서문.
 33)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p. 89.
 34) Justus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35) Alvin Tofler, "The Third Wave",
 유재천역, "제3의 물결", 서울:문화서적,
 1981년. pp. 27-28.
 36) Alvin Tofler, 앞 책, pp. 32-33.
 37) Alvin Tofler, 앞 책, p. 389.
 38) 알베르 마피에지, 김종철 역 "프랑스
 혁명사", 상, 하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년.
 39) 이브 도즈, "빠리의 대형기획물",
 건축가. 1987.5-6. p. 10.
 40)
 41) 건축가 1987.5-6.
 42) 앙드레 라귀에, "프랑스의
 문화시설정책", 건축가. 1987.5.6. -p.46.
 43) 동아일보, 1988년 3월 1일자. 6면.
 44) 예술의 전당, 건축문화 별책 01.
 45) Justus Dahinden. 앞 책, pp.
 189-191.
 46)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Elwood s. Buffa, "Modern
 Production/Operation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pp.79-81.

47) 표 참조: 찰스 젠크스, "2000년의
 건축". p.43.
 48) 이브 도즈, "빠리의 대형기획물",
 건축가. 1987.5-6.p.10.
 49) 찰스 젠크스,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서문.
 50) Peter Cook, "Architecture:Action
 and Plan", Studio Vista, London, 1967
 51) A.D. 1975:05. PIANO+ROGERS.
 52) A+U 1976:06 Reyner Banham.
 PIANO+ROGER'S Architectural
 Method.
 53) A.D.1977:02 AD Profiles 2.Centre
 Georges Pompidou, A Statement.
 Critique:Alan Colquhoun
 54) A.A. 1982:02 Renzo Piano
 Architecture et Technologie
 55) AR 1983:08 Piano Machine.
 56) AR 1983:11 Piano Rehab.
 57) AR 1984:11 Arcadian Machine.
 58) AR 1984:12 Piano+Nono.
 59) Btw 1986:04

참고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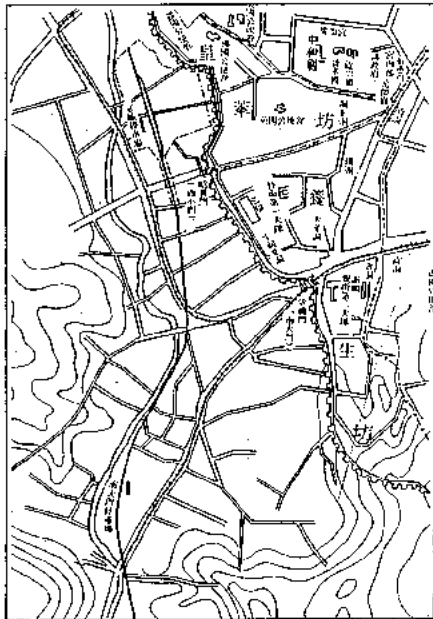
Alvin Tofler, "The Third Wave", 유재천역,
 "제3의 물결", 서울:문화서적, 1981년
 Alvin Tofler, "Third Wave",
 Alvin Tofler, 앞 책.
 Massimo Dini, "Renzo Piano", New
 York, Rizzoli.1984.
 Massimo Dini, 앞 책.
 Peter Cook, "Architecture:Action and
 Plan", Studio Vista, London, 1967
 Peter Cook, 앞 책,
 알베르 마피에지, 김종철역 "프랑스 혁명사",
 상, 하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화합속에 민주발전 안정속에 나라발전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金晶東 / 북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꾸민」 주간
by Kim, Chung-Dong



▲京仁鐵道개통당시의 남대문정거장 (韓國鐵道史)

◆
위 치 : 봉래동 2가 122
착공년월일 : 1922. 6. 1
준공년월일 : 1925. 9. 30
설 계 자 :塚本靖
시 공 자 :清水組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하 1, 지상 2, 옥탑 Dome
대지면적 : 70,083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2,052평
보존 상태 : 史蹟 第284号

65. 서울驛

서울역의 歷史는 1900년이 열리는 해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鐵道史는 1899년 9월 18일 京仁線의 개통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舊韓末 光武시대였다. 처음 「仁川-鷺梁津」노선이 먼저 개통되고 1900년에는 서울, 남대문까지 기차가 들어오게 되었다.¹⁾ 그해 7월 8일에는 겨우 10평차리의 목조 바라크 건물을 염전고 아래는 가운데다 대충 지어놓고 「南大門停車場」이라 불렀다.²⁾ 1920년대에 들어서 京城인구는 30만명이나 되었고 京城을 통하는 物動量은 크게 증가되었다. 「南滿州鐵道株式會社」는 京城驛을 국제규모로 세우기로 했다. 日本-朝鮮-滿州로 이어지는 국제 철도 시대의 序幕을 열거자 했던 것이다. 일본 東京에서 시모노세끼(下関)까지 國鐵이 움직이고, 下関, 釜山은 關釜連絡線으로 건너와, 釜山, 奉天 또는 北京까지 직통 열차가 달리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또한 이 직통열차는 하르빈을 거쳐 시베리아 鐵道로 연결되고 모스크바-베르린까지도 이어지도록 했다. 京城역은 「朝鮮半島의 玄関이고 식민지 經營의 樞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³⁾ 사실 日帝 統監府는 용산과 한강변에 포진한 朝鮮軍司令部 사단 陣營에 일본군을 실어 나르는 목적으로 龍山停車場을 더 먼저(1906. 11) 세워 놓고 20여년을 기다려 왔던 것이다.⁴⁾ 용산역 주변은 그 기간 중 대륙으로 뻗는 철도 기지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京城역은 龍山역과는 좀 다른 의미로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 식민 통치, 사회의 정착에 그 설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위치는 南大門停車場 자리일대를 그대로 택하기로 했다.⁵⁾ 또한 大日本帝國이라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제 南大門停車場의 초라한 農協 倉庫 같은 건물은 하루 속히 헐어버려야만 했다.⁶⁾ 新驛舍의 설계는 동경대학 건축과 교수인 쓰카모토 야스시(塚本 靖)에게 맡겨졌다. 日本 新建築期(明治期)의 代父 다쓰노 강고(辰野 金吾)의 제자였던 그는 스승이

일본에 세워왔던 東京驛舍를 본뜨지 않으면 안되었다.

驛舍 신축의 추진은 朝鮮總督府 철도국 공무과 건축계에서 맡았다. 공사는 1922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1925년 9월 30일에 끝났다.⁷⁾

그해 10월 12일 거창하게 상강식을 치르고 10월 14일 첫 업무를 개시했다. 驛舍에 일장기가 휘날리고 부산행 열차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기적을 올릴 때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상공들과 친일 관리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⁸⁾

새 역사는 대지 면적 70,083평에 건축면적 2,052평에 이르는 당시로는 초대형 건축사업으로 이뤄졌던 것이다.⁹⁾ 동경역 규모에 육박하는 이 역사는 Neo-Baroque 적인 높을 얹음으로써 단순한 Renaissance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었고, 당시의 京城 시민에 대단한 충격을 줄 수 있었다.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로 표피를 이루고 돌이 장식요소로 첨가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이 驛舍는 건물을 繪畫的 건축으로 보이게 했다. 건물은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변화와 조화가 뚜렷했고 더구나 뛰어난 디테일은 집근성에서도 친밀감을 주었다.

중앙홀 상부는 특색있는 4면체의 돔 구조로 하고 4부분을 반원형의 아치로 둘러 대합실 내부에 광선을 끌어드리도록 했다. 특히 돔 상부의 Lantern 과 Cap 은 피뢰침과 함께 정밀한 감을 준다. 驛舍의 핵심이 되는 시계탑 상부의 Vault 부분 처리는 물이 흐르는듯 자연스럽게 처리되어 건물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驛舍의 용도는 列柱가 있는 1층은 대합실로, 2층은 귀빈실과 식당으로 사용했고, 지하는



▲正面部

역무실로 쓰여졌다. 지하는 곧 바로 승강장(platform)에 이어지게 했다.¹¹⁾ 驛舍는 8.15해방 후인 1946년 5월 美軍政 당국에 의한 「南韓의 사설철도 및 부대사업 일체를 국유화」한다는 지침에 의해 접수됐고 역의 명칭은 그때서야 「서울역」으로 바뀌었다.¹²⁾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서울역은 大韓民國 교통부의 관할로 완전 이관되었다. 그러나 6.25로 인한 피해는 이 건물에도 돌아닥쳐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중앙 홀 천정의 Stained glass가 유형을 잃고 그후 太極과 鳳凰 그리고 무궁화 부늬로 교체 수리되면서 내부에 떨어지던 빛을 잃어 버렸다.

1958년 1월 현재의 새마을호 대합실이 본래의 이미지를 잘 조화시키면서 증축되어 서울역 광장의 수평선을 확대시켰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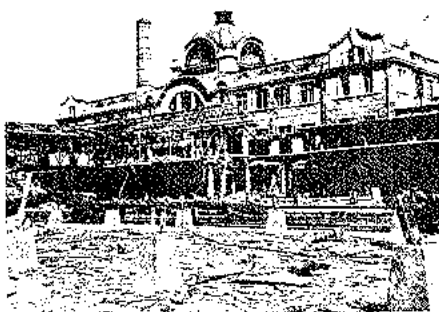
1985년 여름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동부의 동판 일부가 파손되었다. 이에 鐵道廳은 350㎡의 동부를 모두 해체 새로운 동판으로 갈아 입히기도 했다. 1981년 9월 서울驛舍는 史蹟 제 284호로 지정되었다. 이제 서울역은 民資驛舍가 건립되어도 헐려버릴 수난은 면하게 되었다.¹⁴⁾ 앞으로 고객과 화물의 증가가 계속될 것이므로, 그때 이 건물의 기능이 상실되면 「鐵道博物館」으로 轉用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면 驛 본래의 통과적 면모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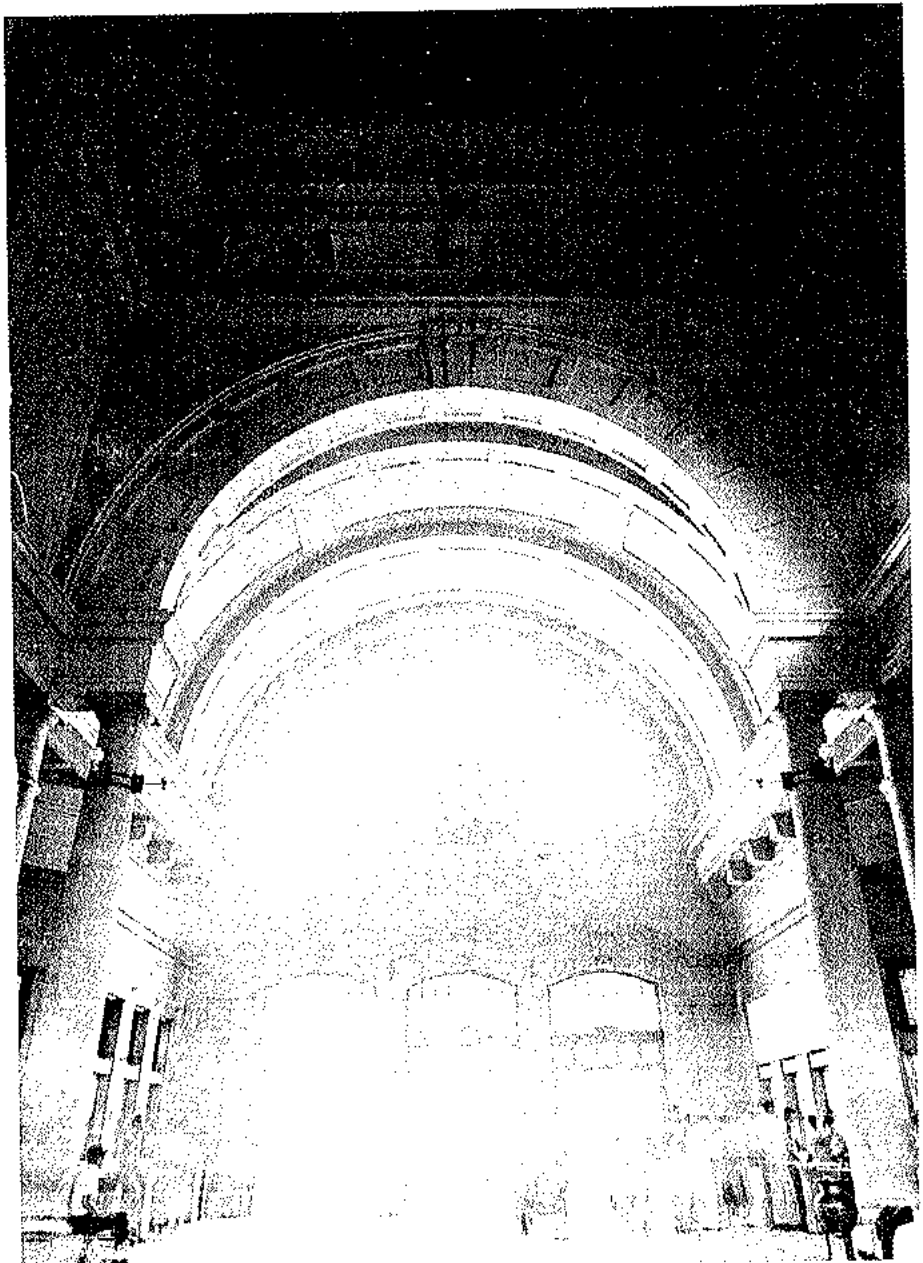
1. 1900. 7. 5, 漢江鐵橋 개통.

1900. 11. 12, 京仁線 개통식에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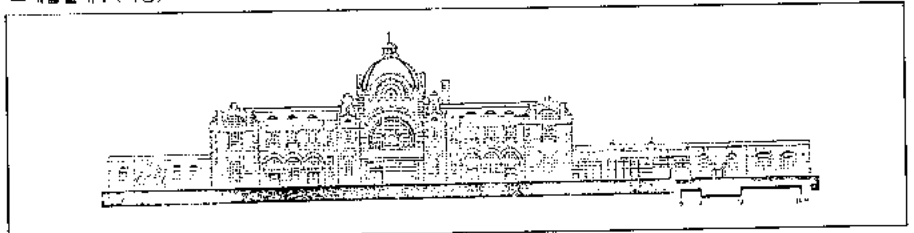
1902년 京義線 기공식, 1905년 京釜線 준공식, 1906년 京義線 준공식이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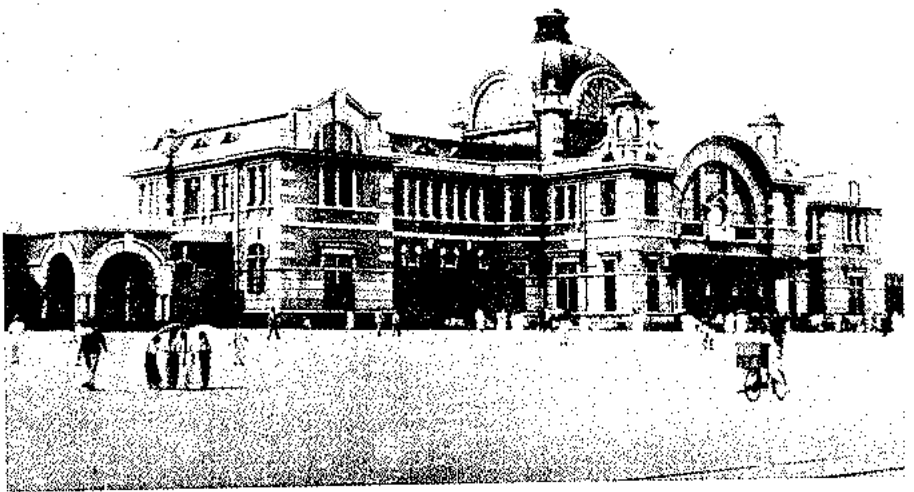
▲6·25의 피해를 입은 後面과 승강장
(1950. 9. 30의 모습, 月刊朝鮮 198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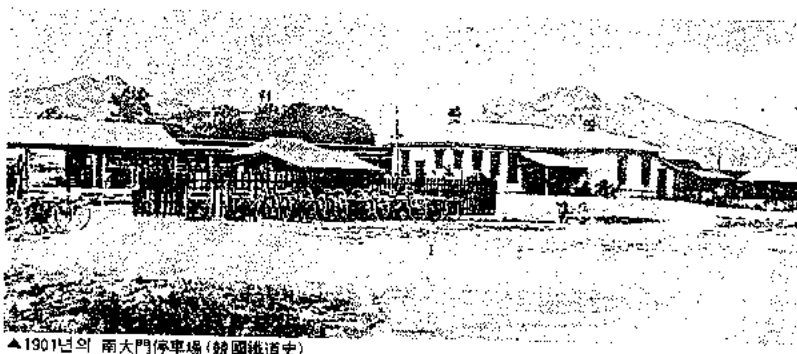
▲대합실내부(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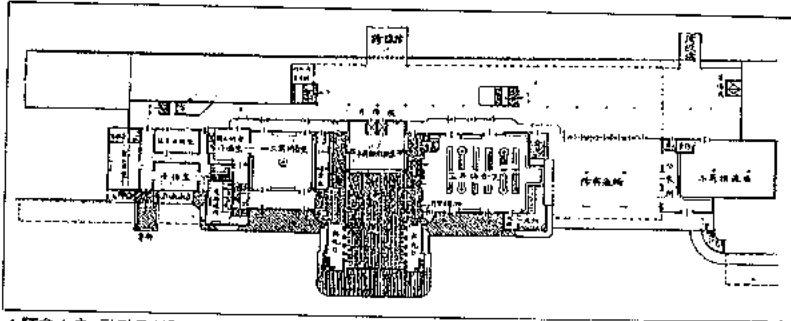
▲正面道(洪道逸)



▲1925년의 京成驛(檀民地史)



▲ 1901년의 南大門停車場 (韓國鐵道史)



▲ 聖公會 1층 평면도 (朝鮮と建築)



▲ 현 서울역의 聖面

남대문시장에서 치뤄졌다.

2. 南大門停車場은 1910년 10월 1일부터 京城驛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3. 동양제 1번은 東京驛이고 동양제 2번은 京城驛이라 칭했다.

4. 복조 887평에 이르는 朝鮮 제1의 화려한 정거장 건물이었다.

5. 京城府 古市町

6. 1925년 營樂津驛으로 그대로 옮겨 세웠다.

원계획은 1922년 6월 起工, 1924년 7월 준공예정이었다. (『朝鮮と建築』1923. 2).

· 실제적인 공사주입은 古岡孫一이 맡았고 清水組의 담당자는 京城支店長 藤井專之助였다.

공사는 1923년 끝날예정이었으나 日本東京의 지진으로 영향받아 늦어졌으며, 공사비도 일부 감액되어 마감되었다.

8. 「마당」, 1984. 9, pp. 34~47.

9. 지하 815평, 1층 798평, 2층 439평, 연건평은 24,484평.

10. 이 시계탑은 「파발마」로 불리워졌다.

11. 姜炳國, 「서울驛舍」, 경향신문, 1984. 10. 16.

12. 1947. 11. 1.

13. 西部驛은 1968년 준공되었다.

14. 현재 驛舍시설 현대화와 여객편의 제공을 위한 「서울역 선상 대합실」공사(종합건축+아키텍)가 진행중에 있다. (1988. 8 준공예정)

66. 聖公會 서울大聖堂

聖公會¹⁾가 시민의 의식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된 것은 아름다운 성당 자신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德壽宮과 貞洞이란 장소성도 그 聯想에 더 크게 기여했다. 이 聖公會 성당은 新·舊敎의 건물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高宗皇帝의 고문관 미국인 Sands는 그의 회고록에서

『...聖公會는 과거 해군함대 전속목사였던 Charles John Corfe (高요한)주교로 대표되는데, 그 후임자는 유명한 육상선수 출신의 턱이 높은 아더 터너(端)였고, 현재도 Mark. N. Trollope (조마가) 주교가 이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만큼 신앙심이 깊은 인물들이었다.....』²⁾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국교이며 기독교의 한 유파인 英國聖公會는 1890년 9월 29일 인천에 상륙 인천과 서울에서 선교를 시작했다.³⁾ 그들이 貞洞에 터와 집을 마련하고 선교사업을 실질상 시작한 것이 1891년 부활주일 이었다. 그곳은 韓末 修學院의 터였다.⁴⁾

이 초기 성당시대를 지나 본격적 성당을 세울 계획을 갖게 된 것은 1914년의 일이다. 이때의 情況은 다음과 같다.

『...지금에 고아원은 水原으로 半移 하였으므로 그 집을 다 헐고 端主교(터어너 제2대 주교) 기념성전 짓기를 위하여 예비하는 중인데 이미 남대문으로부터 景福宮까지 대로가 준공되었는데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새 聖殿이 美麗한 위치를 점령하겠고 城內 4면에서 보이기 쉽겠도다. 지금 주교께서 영국에 있는 家屋建築製圖人 (建築士)에게 부탁하여 성전의 圖本과 병제를 마련하여 할 터인데 온전히 석재로 짓기를 희망하나 그러하나 거액의 돈이 더 수렴되기 전에는 일시에 성전 전체를 준공할 수 없겠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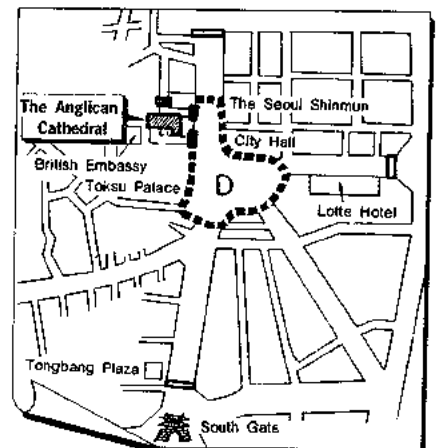
지금에 朝鮮에서 6,000환이나 수렴되었고 英國에서 8,000환이나 수렴되었으니 총합이 14,000환이라, 그러나 30,000환은 가져야 건축을 시작하겠으며 비록 시작할지라도 온전히 건축하지 못하고 몇분의 일만 짓겠나이다. 이 성전을 화려 광대하게 건축하려 하는 것은 서울 교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서울교회가 온 朝鮮聖公會的 母親됨을 因함이다...』⁵⁾ 성당은 貞洞 현 위치에서 1922년 착공

되었다. 건축설계 (家屋 建築 製圖人)는 英國王立建築學會 (RIBA) 회원 건축사 Arthur Dixon 이 맡았으며, 감독 또한 영국인 브록크였다. 성당은 4년 후인 1926년 5월 2일(일요일)일단계로 준공 되었다.⁶⁾ 설계자 Dixon은 1927년 성당 일부의 개조를 위하여 다시 서울에 왔다. 그는 이 때 다음의 기록을 남겼다.

『... 이 교회당은 朝鮮聖公會的 大聖堂으로 “세인트·메리·앤드·니콜라스” 성당⁷⁾이라 부른다.

완성 후에는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콤파어 唱歌隊席)와 7개의 Bay (柱間)를 가진 Nave (身廊)의 2개의 Trancept (抽廊)로 이루어 질 것이나, 현재 단지 Nave는 3개의 Bay 뿐, Trancept는 극히 일부분만 완성된데 지나지 않는다. 좌우의 Trancept는 영국인과 일본인이 사용할 것이므로 완성 후는 각기 Apse (後陣)와 Altar (祭壇)가 이루어지기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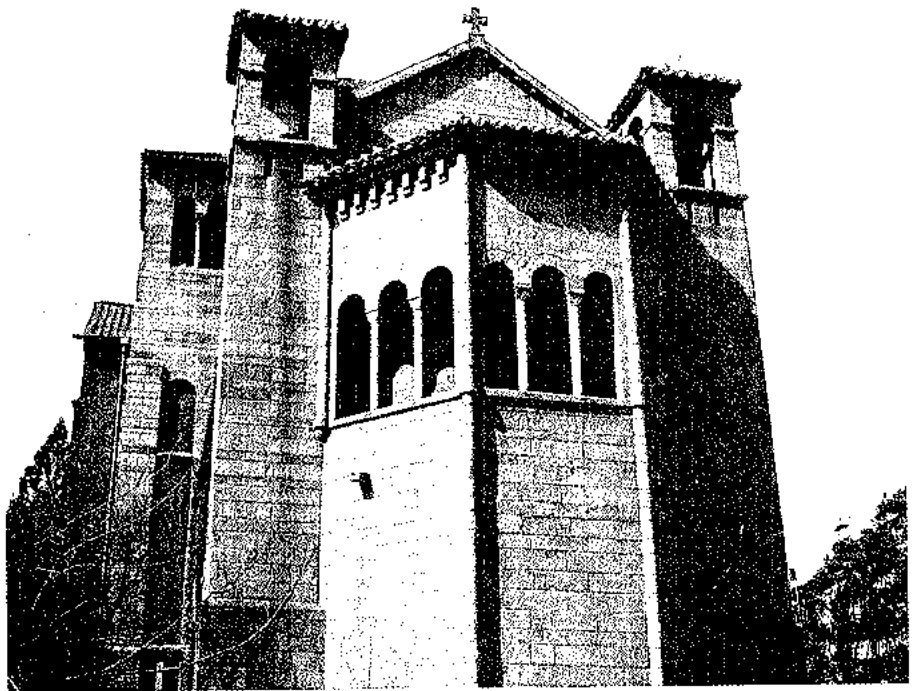
현재 영국인은 오래된 강림교회를 일본인은 Crypt (玄室)을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쌓았고, 내부는 화강석 기둥 외에는 모두 자연회로 칠했다. 짐작 각종 물건에 여러색이 칠해질 것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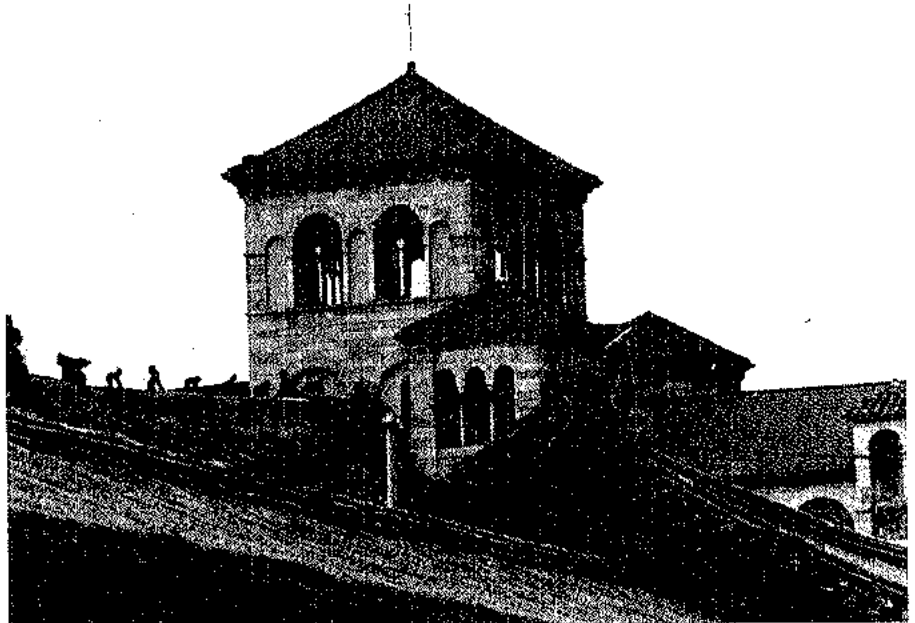
▲ 英文 위치도

◆ 위 치 : 충구 忠州 3번지
 착공년월일 : 1922
 준공년월일 : 1926. 5. 2
 설계자 : Arthur Dixon (英)
 시공자 : 브룩크 (英)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
 층별 : 지상3, 옥탑1
 대지면적 : 1,346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300평
 보존상태 : 地方有形文化財 제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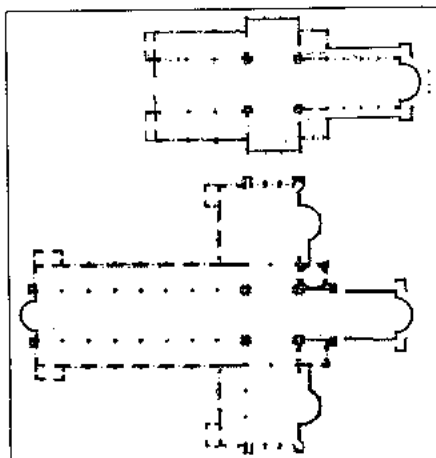
그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는 흰 벽이
 알맞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미
 唱歌隊席과 지붕들과 身廊과 女室의 기둥
 柱頭에는 다소 채색이 되어 있는데,
 明年에는 後陣 상부의 半 돔에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모자이크로 만들고, 다시
 後陣의 벽에는 色大理石과 모자이크로
 장식하게 되어 그 설계는 런던의
 「조지잭크」에 의하여 완성되어 있다. 하나의
 건축이 무슨 양식으로 설계되는가 하는
 질문을 건축가가 가끔 받는 것인데, 그러한
 질문은 건축가에 있어서는 매우 달갑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오래된 건축은 그 건축된
 시대에 있어서는 참된 생명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죽은 양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近代의 모든 건축은 그 죽은
 한둘의 古建築의 模寫를 의미하는 듯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유럽건축의 전통은 파괴되었다. 따라서
 건축은 생명있고 성장하는 유기체가 아닌
 것이 되었음은 사실이다....(중략)...
 또한 머지 않아 성당의 정원에는 전나무와
 기타 樹木을 심어 주위에는 낮은 담장 또는
 사철나무를 두르고 도로에서의 조망을
 美化할 예정이다.
 남쪽탑 위에 최근 단 鍾은 영국의 「로프



▲돌, 벽돌, 기와 그리고 디테일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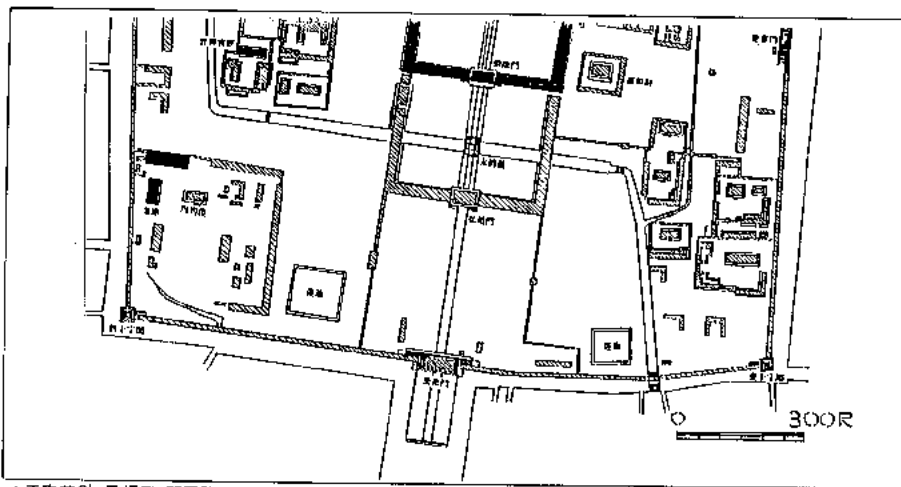
▲德壽宮과의 조화가 특징적이다. (1988. 3)



▲1층평면도 아래그림은 源計劃이었고, 위 그림은 준공된 이후의 평면이다. 많은 부분이 미완성 상태이다. (朝鮮と建築)



▲인왕산을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금동 프라자 호텔쪽에서 촬영 (1986)



▲工事前の 景福宮 配置圖

바로」에서 주조한 것으로 영국제일의 것이다. 이 건물이 언제 완성할 것인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다.⁹⁾

이 未完의 Romenesque 성당은 그 부족함에 불구하고 독특한 자신의 언어들을 내보이고 있다.

『... 성당의 위치는 英國 領事館 옆의 확장된 太平路邊이었으므로 어떤 방향에서도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¹⁰⁾

독일의 건축가 Mies Van der Rohe 가 “Less is More”를 말한것은 1923년의 일로서 이 성당이 세워질 때 유럽건축의 한 흐름이었다. 어쨌든 이 작고 정중한 성당건물은 시각적 장소성의 우월을 떠나 이 건물의 시간적 연속성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시각의 평도 있다.

『... 韓國 聖公會 초기 신부들은 수준 높은 문화와 건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한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 당시 주교였던 Mark Trollope (1862~1930) 신부가 太聖堂을 지을 때 Romenesque 樣式을 택하였다. 이 서울太聖堂을 보면 순수하게 Romenesque 樣式』¹¹⁾으로 건축되었지만 형태는 明洞聖堂 보다는 오히려 한국식 기와집과 비슷한 형태이다. 이 성당의 내부 형태도 역시 예배 분위기에 잘 맞는 형태로 건축되었다. 이처럼 한국 聖公會 성당이 한국의 문화에 맞게 건축된 원인은 아마 한국에 온 聖公會 신부들이 대부분 聖公會 高等派(천주교와 비슷한 禮式派)에 속해 지식과 문화수준이 높은 이유 때문인 듯하다...』¹²⁾

聖公會 성당은 基礎部와 後面 등에는 화강석을, 그리고 나머지 벽체는 얇은 갈색의 벽돌로 쌓아 exotic 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多段의 位階로 德壽宮과 한 울타리인 느낌도 주고 있다. 특히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모임자리의 塔屋은 德壽宮의 팔각(합각)등과 어울려 마치 대화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聖公會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많다. 이는 이 건물에 대한 관심도를 말해 주는 것이다.¹³⁾ 1987년 그 6월(6.10 국민대회)에 이 성공회 건물은 자유와 민주를 생취하는 공간으로 제공되어 역사적 조명을 받기도

했다.

□註□

1. 英文은 The Anglican Cathedral
2. W.F.Sands, 「The far East: 1896~1904(朝鮮의 마지막 날)」, 未完, 1986, p 58.
3. 仁川에서는 聖누가병원, 서울에서는 聖마태병원, 聖베드로병원 등을 설립했고, 인쇄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4. 왕족 및 귀족자제의 修學之所였다(李哲源, 「王宮史」). 尹一柱는 貞洞의 西學硯 韓屋 대지는 목조의 건물이 있었고 이 곳에 고아원도 설치됐었다」고 말했다. 金正新은 1892년 30여명의 韓屋으로 신축하여 장림성당(The church of Advent)으로 축성하였다고 했다.(건축문화 1984. 10.)
5. 「朝鮮聖公會 월보」 제69호, 1914. 3, p 39, 尹一柱, 再引用.
6. 「朝鮮と建築」, 1926. 8.
7. 1891년 부활주일에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復活의 집”이라고 불렸다.
8. Crypt는 지하성당을 말한다. 그곳은 玄室(墓室)또는 2층교회의 아랫층을 말한다. 따라서 이 건물에서는 교회의 1층을 말한다.
9. 「朝鮮と建築」, 1927. 7, pp. 10~20 小河弘道(京城工高教授)역으로 실렸다.
10. 金正新, “聖公會聖堂,” 「韓國 미술사전」.
11. 원래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은 로마 제국 멸망후 기독교정신이라는 숭고한 정신적 지주가 뒷받침되어 中世문화에 적합하도록 로마건축 양식을 변용하여 발전시킨 유럽의 종교건축양식이다. 특히(마살리카)聖비타레(6세기)의 6각형 건물이 聖公會 건물과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있다.
12. 金正玄(James H.Grayson). “韓國基督教聖殿에 대치한 小考,” 「건축과 환경」, 1986. 12, pp. 60~65.
13. 韓京熙 聖公會 서울太聖堂에 관한 小考. 裴滿實 博士 華甲紀念論文集. 梨花女大, 1983

◆ 위 치 : 景福宮內
 착공년월일 : 1916. 8
 준공년월일 : 1926. 10. 1
 설계자 : Georg de Lalande + 野村一郎(外)
 시공자 : 清水組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석조
 층별 : 지하 1, 지상 5, 옥탑 Dome
 대지면적 : 30,000평
 건축면적 : 2,134평
 연면적 : 9,619평
 보존상태 : 博物館으로 轉用

67.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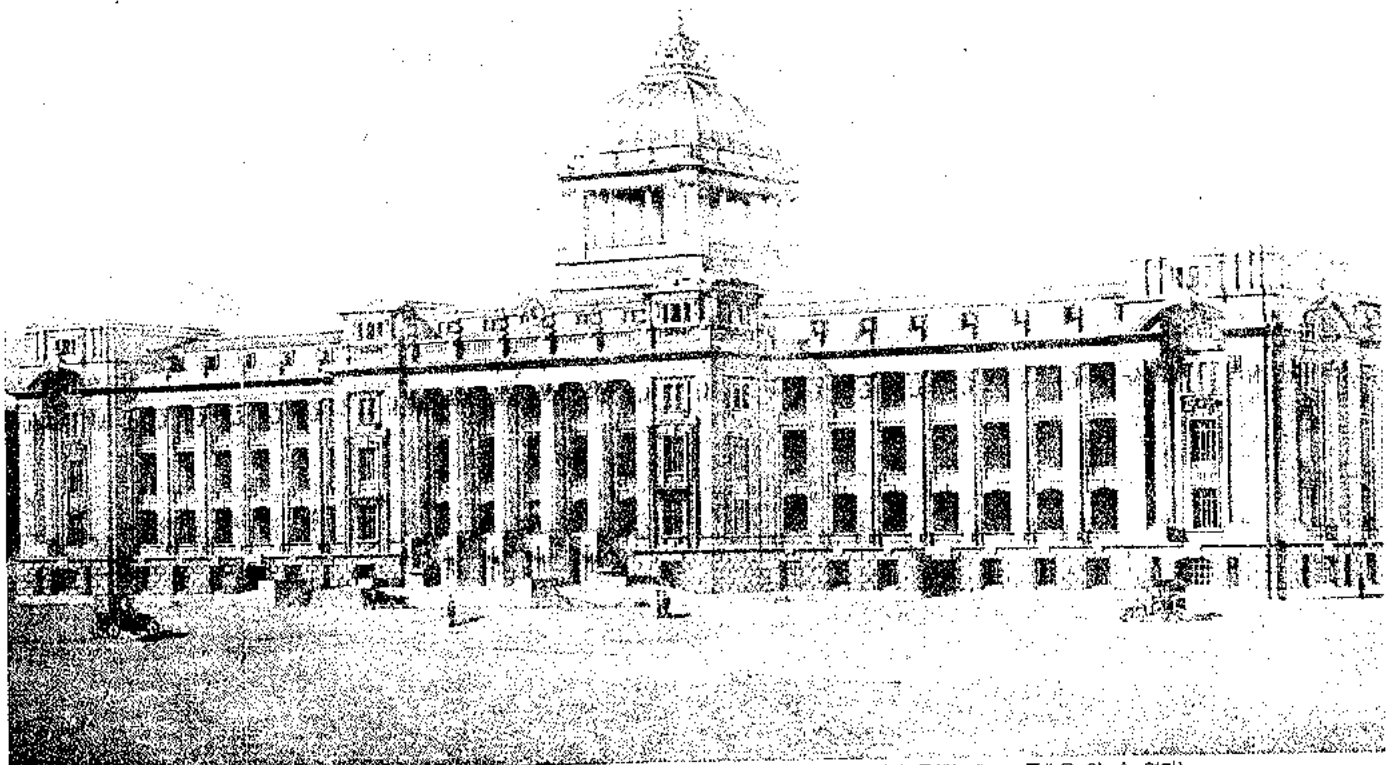
이제 君臨하던 石造건축물은 국민들에게 되돌려졌다. 사실 그 기간동안 이 건물은 아무나 들어 갈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 울타리 속으로 촌로부터 어린이까지 마음대로 들어 갈수 있게되었다. 1910년 日帝가 칼을 차고 들어왔을 때 景福宮은 닫혀 있고, 光化門은 뜯겨져 나가기 시작했다.¹⁾

그들은 그 자리에²⁾ 日帝毒牙 정치의 상징적 권위주의의 건물을 세우기로 계획했다. 상황은 1920년대였다. 朝鮮王朝의 마지막 목숨마져 누르는 작업이 곧 벌어졌다. 1910년 韓日合併후부터 그들은 남산에 있는 舊統監府 청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³⁾ 그것으로서는 그들의 위세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912년부터 청사를 위한 준비는 시작되고 있었다.⁴⁾ 景福宮 前面部 일대를 신축부지로 확정하고 그들은 설계에 착수했다. 설계는 일본에 거주하는 폴란드인 建築技師 Georg de Lalande (1872~1914)에게 맡겨졌다. 그는 이미

「朝鮮호텔」(1913. 3~1914. 9. 30)을 설계한바 있었다. 그는 朝鮮 總督府 설계를 자문하고 있던중 급작히 폐렴에 걸려 요코하마(横浜)의 한 여관에서 급서하고



▲「白岳奇蹟」은 安仲植(心田)의 대표작이다(1915년) 이 그림이 그려진 후 2년후 光化門은 日帝에 의해 뜯겨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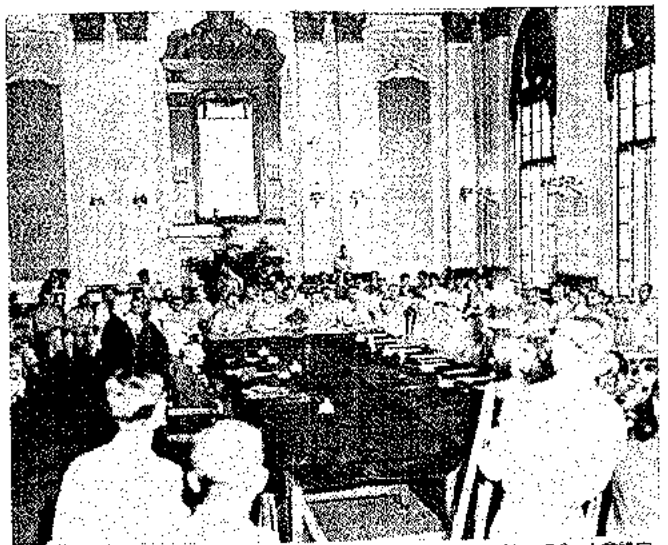
▲이 투시도는 庁舎의 初期 計劃圖으로 보여진다. 부분적으로 변경되어 준공되었다. (仁寺洞의 한 古書店에서 구했는데 그 原典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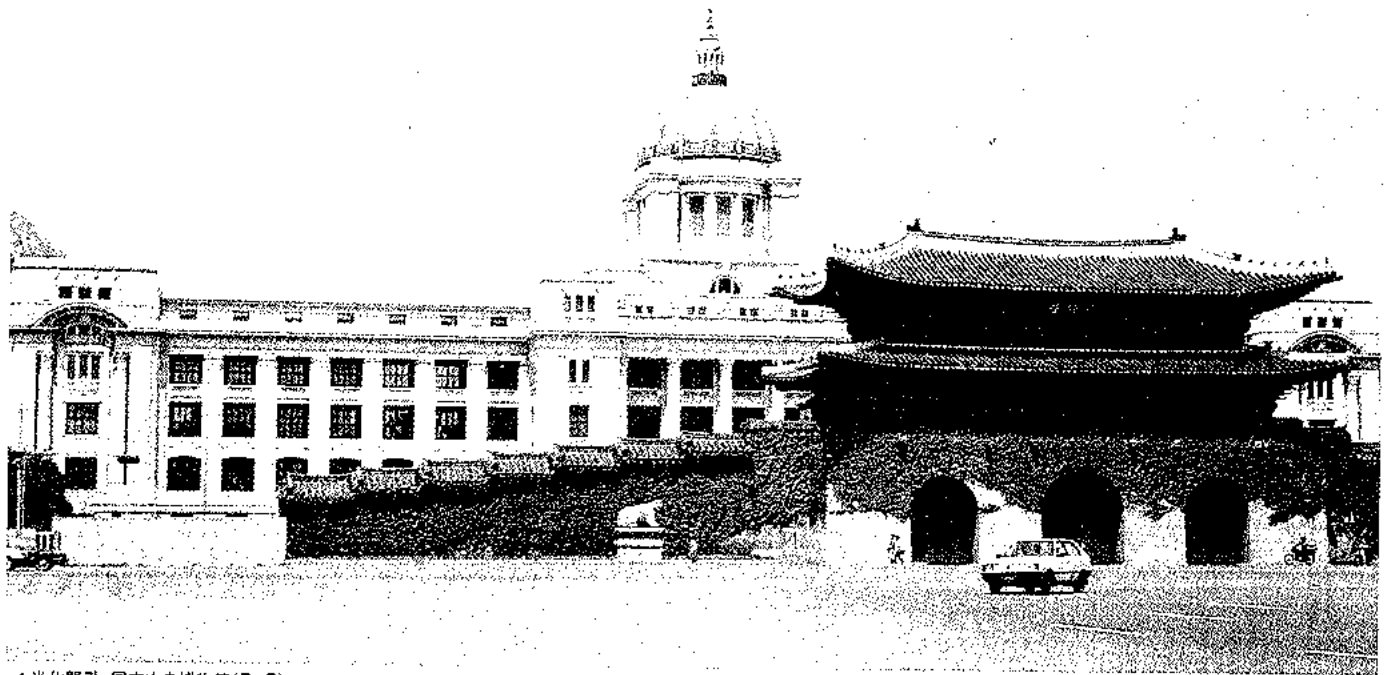
▲中央홀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Vault 측면의 그림은 和田三治가 그린 것으로 이른바 內鮮一體를 상징하고 있다.



▲朝鮮總督府 舊籍係의 사무실이다. 이곳에서 日帝下의 크고 작은 建築物이 設計되었다. (朝鮮總督府 庁舎新築誌)



▲1945. 9. 9. 16:30. 日帝가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場所는 庁舎 大會議室 (東亞日報)



▲光化門과 國立中央博物館 (P. C)

말았다.⁵⁾

일본제국은 그 남은 일을 臺灣에서 활동하고 있던 노무라(野村一郎)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일인 건축가 國技博에게도 임무를 맡겼다. (國技博은 1930년 日本東京의 日比谷에 朝日生命館을 설계한 바있다.) 1916년 그들은 地鎮祭를 有別나게 살 치렀다. (일본식으로) 조선왕조의 얼과 기를 빼는데 별 흠이 없었다.

[... 이 승리자⁶⁾라는 사람들은 하필이면 옛 왕들의 宮殿마당에 꼭 이 건물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모양은 "Washington"의 정부 건물을 영터리로 본뜬 것으로 시멘트로 美國건축양식을 평편없이 모방한 것이다.⁷⁾ 그 어처구니 없는 건물이란 것이 가볍고 정교한 옛 韓國王朝의 宮殿을 내리 누르고 서서 보는 사람의 눈을 가리는 통에 궁전의 전체 모양을 감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⁸⁾

외국인 여행자의 시각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廳舍는 1926년 10월 1일 준공되었다. 이날자 京城日報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오늘은 施政紀念日이다. 매마침 이날에 總督府 새 廳舍는 그 공사가 완공되고,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실로 1910년 9월 23일 兩國合併을 무사히 넘겨서... 始政紀念의 이날, 半島 民衆이 다같이 옷깃을 바로잡고 생각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이다. ...]⁹⁾

總督府 청사의 신축에는 독일(폴란드)과 일본의 건축가만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韓國人으로 朴吉龍을 비롯하여 6명이 현장에서 직접 활약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들의 공헌도를 새로이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¹⁰⁾

中央廳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8.15해방과 함께였다. 1945년 9월 9일

오후 4시30분 중앙청에서는 敗戰 일본 총독 아베 노비유키(阿部信行)가 한국주둔 美육군 사령관 하지 중장 앞에서 降伏文書에 서명했다. 이후 어둠속에서 태어나 新生韓國의 새빛을 담았던 이 건물은 政府廳舍로 사용되었다.¹¹⁾ 그러나 때만되면 이 건물의 存廢是非가 잇달았다. 어차피 이 건물은 日帝의 시대적 상징일 수 밖에 없었다.¹²⁾ 많은 자료도 쏟아져 나왔다. (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 등) 이제 이 廳舍는 사회교육의 殿堂인 國立中央博物館으로 轉用되었다.¹³⁾ 1986. 8. 21) 우리는 이 건물을 보면서 하나의 새로운 인식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식민통치 시대의 쓰라린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건물은 다시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감상적인 存廢是非는 이제 끝내야 할 것이다.

□註□

1. 1904년 東京大 세키노테이(關野貞) 교수가 조사한 「韓國建築 調査報告」에 景福宮의 원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최근 日本에 발견되었다. (在日교포 趙奎錫)
2. 그 위치는 勤政殿 앞의 勤政門에서 南쪽으로 17칸, 光化門에서 北쪽으로 46칸되는 거리에 잡았다. 正殿인 勤政殿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였다. 이 자리에는 원래 興禮門과 그 回廊이 있었고 그앞에 禁川과 禁川橋가 있었다. 이자리에서는 施政 5周年 物産共進會가 열리기도 했다.
3. 南山 倭城대
4. 京城府史 제2권, p. 225
5. 1912년부터 설계 계획안은 착수되고

1914년에는 대체적인 설계는 끝났다. (京城府史 제2권 p. 225), 그러나 日本의 건축관계 기록에 이러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 혹은 朝鮮と建築)

6. 1905년 露日戰爭에서 승리
7. 白堊石造 건물로 세웠으므로 그런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기록에는 그 소위 復興式 樣式으로 인하여, 印度總督府를 본떴다고 쓰여있다.
8. 블라스코 이바네스(1867~1928)의 紀行門 "우수의 韓國-釜山"에서 新義州까지, 1923 日本人은 印度 總督府를 본따 지었다고 했다. 시멘트가 主材가 아니고 石材였다. 이점은 틀린것 같다.

9. 京城日報 "始政紀念日, 新廳舍의 落成" 1926. 10. 1.

10. 拙稿, 中央廳, 保存과 再使用이 바람직 "마당 1984. 10

「朝鮮總督府新營誌」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인 기술자는

旗手: 朴吉龍, 李勳雨

雇員: 李圭象, 金得麟, 孫亨淳.

朴東麟등이 있다.

11. 8.15 해방후는 美軍政廳, (1945) 정부수립후 (1948) 政府廳舍로 각각 쓰임. 6.25동란으로 內部가 全燬 되었다. 1962.11에 復舊되었다.

12. 건물의 中央홀 양측 박공면에는 일본인 西洋畫家 와다산조(和田三造)가 그린 이른바 內鮮一體의 그림 2개가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은 철거하여 다른 어떤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13. 1982. 3. 16 부터 行政府 中央廳舍의 移轉사업이 시작되었고 1984년 봄부터 改修작업이 시행되었다.



▲現在の市庁舎(서울특별시)

68. 서울 市廳舍

서울市廳이 세워지던 1925년 前後는 일본이 韓半島에서 각분야에 걸쳐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다. 특히 건축분야가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세워진 건물로는 서울역(1925), 中央廳(1926) 등이 있었다. 이 廳舍가 세워질 때의 町청은 京城府 廳舍였다.¹⁾ 京城府 廳舍는 1910년부터 현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세워졌던 일본 領事館 건물을 轉用 사용했었다. 1920년대에 들어 시세가 팽창하자 새로운 府廳 건물이 요구되었다. 1922년 新廳舍를 세우기로 하고 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 때의 후보지는 朝鮮호텔 前面의 大觀亭, 南大門小學校, 京城日報社 등이 거론되다가 德壽宮의 광장을 전면에 두고 西側을 太平路, 東側을 武橋路에 두는 서울의 핵심지였다. 또한 서울역, 남대문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結節點이고, 을지로, 소공동으로 가는 分節點이기도 했다. 공사는 1924년 8월 23일 착공되었다. 설계 및 감독은 중앙청(현, 國立中央博物館) 공사에도 참여했던 朝鮮總督府 건축과에서 맡았다. 설계 지도는 이와이(岩井長三郎) 설계 주임은 張然采, 설계 담당은 암권선지가 각각 맡았다. 韓國人으로는 張然采가 참여(強度計算係)했다.²⁾ 공사 시공은 小寺組(小寺忠行)가 지명 낙찰되었다.(1924. 11. 15). 廳舍는 京城의 Civic center, City Hall 을 기대하여 France Renaissance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山形의 평면형을 갖고 광장과 太平路쪽을 감싼 形으로 계획하였다. 廳舍부지는 1,630평이며 철근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그리고 角塔屋을 2개층으로 계획되었고, 연건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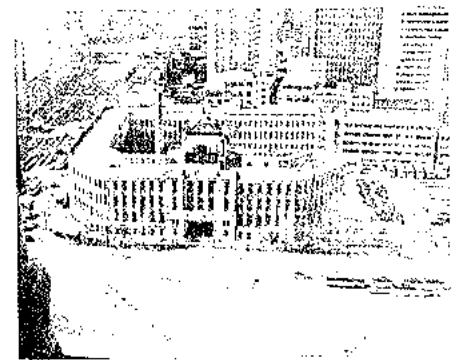
2,052.34평 이었다. 벽체는 柱間에 벽을 쌓아 Curtain Wall 형식으로 했다. 基壇部(1층)는 지면면보다 높이하여 화강석으로 돌렸다. 그 외는 리싱蔭로 마감했다.³⁾ 廳舍는 1926년 11월 30일 준공되었다. 전체적으로 빈틈없는 要塞같이 지어져 일반 시민의 접근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정도이고 4면에서의 느낌은 답답하게 느껴진다. 1926년과 1972년 두차례 증축할 때 울타리를 둘러치듯 무계획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잡하게 됐다. 1980년과 1987년에는 신축 廳舍에 관한 시비가 있었으나 그 후 곧 無散되었다.⁴⁾ 그러나 88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수요가 확대될 것을 고려, 증축된 부분들은 철거하고 소규모 녹지공원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본건물은 「서울 올림픽 기념관」으로 轉用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1천만명을 넘고있어 어차피 도시집중단 극대화시키고 있으므로 시청은 도시외곽에 이전되어야만 할 것이다.

□註□

1. 漢城府가 京城府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10. 10. 1986년 신축설계, 감독은 일본 內務省 技師 殷起欽哉, 벽돌 2층건물, 總督府 시대에는 京城理事廳, 總督府인 1910년부터 1926년까지는 京城付廳을 사용되었다. (『京城府史』, 제3권, 「서울 600年史」, 제3권, p.306).
2. 大觀亭은 옛 共和堂舍(현, 주차장) 南大門小學校는 현 大韓商工會義所 빌딩 京城日報社는 현 市廳자리. “京城府付 市廳新築と追懷”, 長尾仟, 「朝鮮と建築」, 1926. 10. p12.
3. 張然采(1901~68)는 京城高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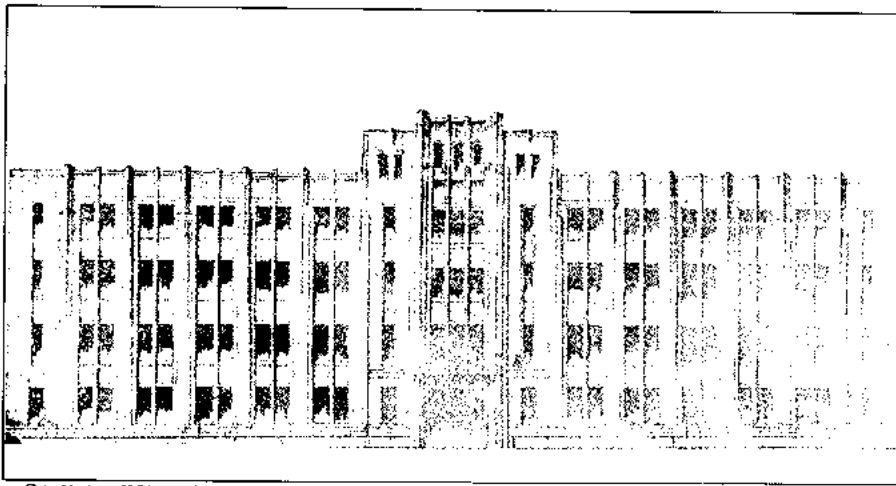


▲新世界백화점 자리에 있었던 京城府庁舍, 1910.



▲프라자호텔 객실에서 내려다 본 庁舍

- ◆ 위치 : 太平路 1街 31
 착공년월일 : 1924. 8. 23
 준공년월일 : 1926. 11. 30
 설계자 : 岩井長三郎, 殷慶一, 岩根善之, 張然采
 시공자 : 小寺組(小寺忠行)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하 1, 지상 4, 옥탑 2
 대지면적 : 1,630평
 건축면적 : 평
 보존상태 : 연면적 : 2,052.3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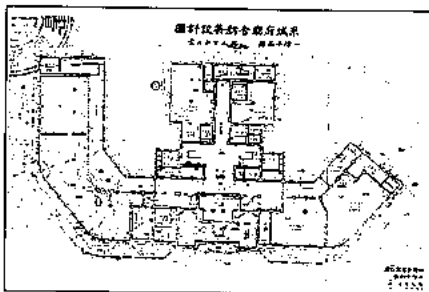


▲最初の社屋設計圖. 이후축소 설계. 시공되었다(原案은 横濱건축사무소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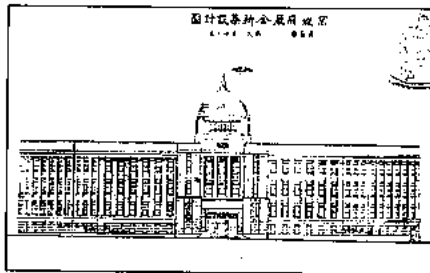
졸업(1925) 總督府, 全南道廳
朝鮮住宅營團에 근무했다. 岩槻善之는
그의 공로를 기록했다. (“新府廳舎の
表現其の他に フムコ”, 「朝鮮と
建築」, 1926. 10, p. 20.

4. 리성塗는 흙수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지만
하지만 외관이 부드럽게 보이고 추위에 잘
견디는 특징이 있다. 主性分은 眞砂土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市廳舎에 처음
사용되었다. (서울「600年史」, 제4권,
p.357).

5. 1994년은 한양천도 600년이 되는 해
이므로 前市長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市廳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强辨했다.



▲1924년 設計 당시의 市庁 1층 平面圖



▲立面圖(朝鮮と建築, 1924, 10)

69. 東亞日報社

1919년의 3.1 운동은 일제
식민통치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탄압 일변도의 정책을 화유책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조선인의 신문사
설립을 허락했다. 이에 의하여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는 창간되었다.¹⁾
동아일보사는 우선 花洞에 있는 옛
중앙학교를 빌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창립
사무소」의 간판을 내걸었다.²⁾
「... 지금은 터도 없어진 花洞洞 막바지 늪은
포플라 나무가 엉성하게 늘어선 거처는
터전에 고가가 두세 채, 그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널판지와 양철판으로 얹은 방이
세상을 흔들던 大「東亞」의 편집국 이었다.
고옥의 이모적모를 뜯어고쳐 사장실을
비롯하여 편집, 영업, 공장의 각부분을
함부로 마련하였으니 그 엉성하기란 말할
나위도 없었다...」³⁾

농아는 이 곳에서 약 7년간
(1920. 4 ~ 1926. 12) 지내면서 새사옥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서둘렀다. 사옥의 터는
서울의 중심지가 되는 黃土岬(光化門)에
두기로 하고 이어 明月館을 구입했다.
이 明月館은 당시 기생요리집으로
유명했었는데 灰色의 2층 양옥이었다.⁴⁾
대지를 구입하자, 동아는 건축 전문가에게
설계를 위탁하기로 했다. 신가옥의 설계는
일본 대판 소재 「横濱建築事務所」에
의뢰되었고 건축 설계도면은 작성 되었다.
이 설계는 다시 朝鮮殖産銀行 營繕課長
나카무라 마코토(中村 誠)에 의하여 (1차
설계를 바탕으로) 여기에 더 근대적인
수정을 가해 완성하였다. 이 2차 설계는
대지면적 402평에 건축면적 140평 연면적
473.1평의 규모였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조로 계획됐다.
설계도로 채택된 2차 설계는 공사감독
건설회사 清水組에 맡겨졌다. (공사감독은
中村誠)⁵⁾

1925년 9월 27일 사옥은 착공되었다.
東亞日報는 이 때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本報가 시련과 정리 시대를 一過하여
발전과 활약하려 하는 현상에 있어서 외관과
형식도 내재적 실력의 확충을 따라서 도저히

◆
위 지: 光化門 140
착공년월일: 1925. 9. 27
준공년월일: 1926. 12. 10 (1차)
설 계 자: 横濱建築事務所 + 中村誠
시 공 자: 清水組
건축 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 + 벽돌조
층별: 지하 1, 지상 3
대지면적: 402평
건축면적: 140평
연면적: 473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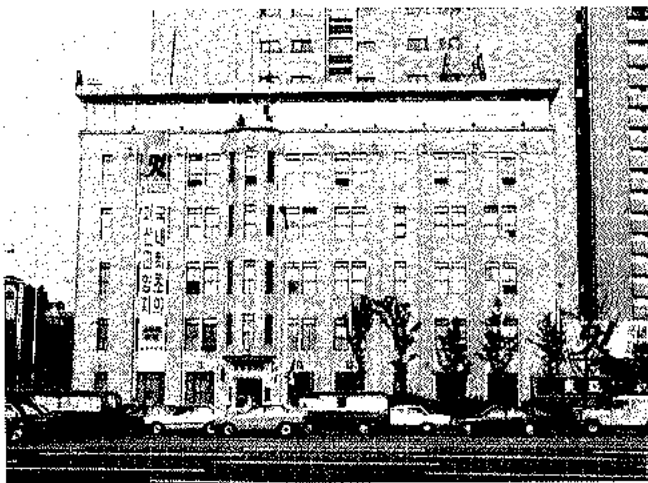
보 존 상 태: 1939. 7 과 1963년 증축

旧日의 容態를 고수기 難하게 되었다...」⁶⁾
近代 Renaissance 양식의 건물로 모든
부분은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건물의 특징은
현관 상부로부터 옥탑층까지 올라간 Bay
Window의 처리에서 볼 수 있으며
1920년대 건물 양식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허리장식을 부각
건물에 접근할 때 친밀감을 느끼도록 했다. 1년
3개월의 공사 끝에 1926년 12월 10일
사옥으로 준공되었고 이후 光化門의 한
네거리에 서서 韓國 역사의 길목을 지키는
「과수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준공식날
東亞日報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싣고 있다.
「... 오늘 서울의 한 복판 景福宮 앞이요,
옛날 六曹 앞인 황토마루 네거리에 하늘을
찌르듯이 뭉뚱뚱이 높고 철근 콘크리트로
붙여도 아니 타고 지진에도 아니 무너지고
바람 비에도 아니 각질 굉장한 새집으로 옮겨
갑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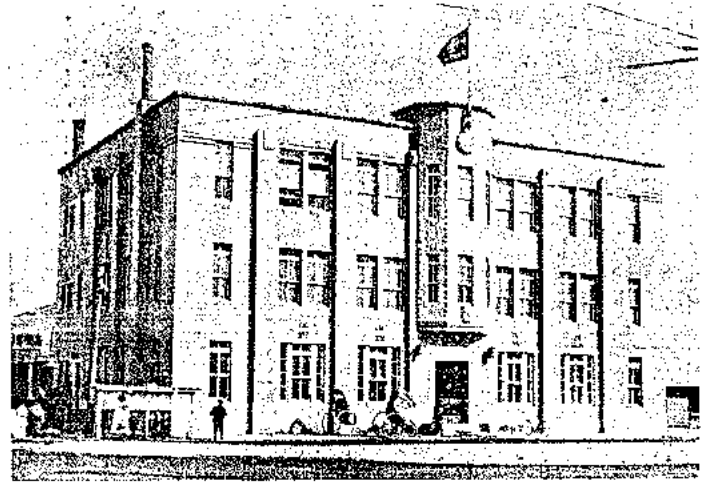
이 때의 사옥은 그 내부를
지하실...난방기관실, 숙직실, 소변실,
揚佛所, 倉庫, 階段室, (40평)
1층... 정면현관, 광문, 응접실, 발송부,
영업국, 인쇄공장, 측면현관, 변소, 계단실
(140평)
2층... 사장실, 응접실, 편집국, 문선정판실,
전화교환실, 변소, 계단실(141평)
3층... 구락부, 조사실, 사진부, 수조실,
회의실, 변소, 계단실(141평)
옥탑... 계단실, 창고, 운동장(10.3평)
로 분할하고 있다.⁸⁾
東亞日報는 그 후 社勢가 확장됨으로써
1935년경부터 증축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1939년 7월에는 社屋 증축 허가원을 총독부
당국에 제출했는데 그 규모는



▲花洞의 첫 社屋, 1920년경(中央高校史)



▲현재의 東亞日報 社屋



▲東亞日報 社屋의 증축前 (朝鮮と建築, 1927. 6)

철근콘크리트조 540평²⁾으로 건물
오른쪽으로 2 Bay 추가, 상부로 2개층
추가하였다. 이후로도 東亞日報는 停刊,
復刊, 續刊을 거듭했으며 8.15해방을 맞아
다소 활기를 띠게 되었다.
東亞의 사옥은 그 후로도 끊임없는 정치의
한 장이 되어 閉舍를 계속했다. 1963년
(4.25)에는 東亞放送이 개국되어
同社屋의 6층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이 때
사옥은 1개층 증축됐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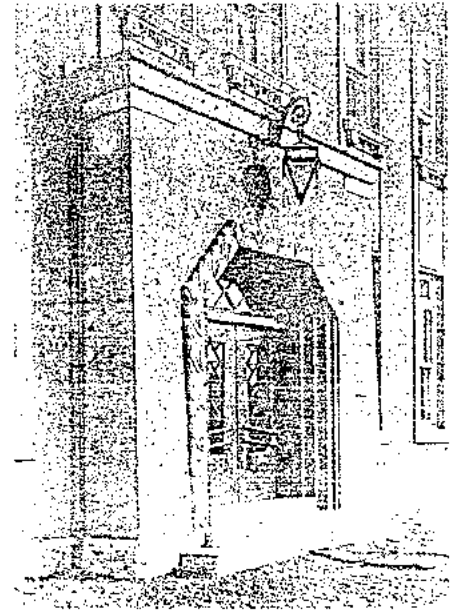
1. 朝鮮日報는 1920. 3. 5 창간.
2. “이 舊屋은 지금의 安國洞 로터리에서
北으로 거슬러 前 李容善의 私邸였던 것을
1908년 畿湖學校에서 구입 개축 하였던
것으로 그후 中央學校가 桂洞 교사를
신축이전하기까지 사용해
왔었다. (『東亞日報史』, pp. 87~95).
• 漢城北部花洞 138번지, 大屋3동,
小屋2동의 韓屋 단층건물
(『中央60年史』p. 181).
3. 東亞日報(1930. 4. 1)에 실린 薛義植의
회고 (『東亞日報史』, p. 94).
4. 『서울600年史』, 제1권, p. 1163.
5. 앞 책, pp. 241~266.
7. 東亞日報(1926. 12. 11) 사설, “새집이
있다, 이천만 민중의 집.”
8. 『朝鮮と建築』, 1927. 6.
외벽은 벽돌로 쌓고 石材 혹은 化粧타일을
붙였다. 일부 조각은 테라코타 붙임이다.
현관은 대리석 마감으로 했다.
9. 『東亞日報史』, p. 382.

70. KBS 放送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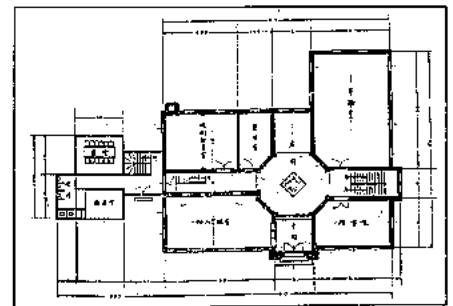
『… 비록 우리말을 끝내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가슴 깊이 감춘채였으나, 여기서
비롯된 우리 방송전파는 우리 손으로 우리
배달거레를 위해서 힘차게 자라나, 앞으로
한가람 푸른 물과 마되높은 바위가 마르고
달도록 겨레의 마음을 실어 하늘 높이 그리고
멀리 쏘아 올려야 한다…』¹⁾
처음의 출발은 京城放送局이었다. 오늘의
KBS의 웅대한 규모에 비하면 今昔之感을
느끼게 한다. 京城放送局은 그 첫 방송을
1927년 2월 16일에 시작하였다.²⁾
(시험방송은 1926. 12).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의 일이다. 開局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本局은 1925년 2월 15일에
설립하였는데, 통신기관으로는 최신 문명의
것이라 하겠다. 가정 단란의 실현에
공헌함이 다하며 자기 가내에 안자서
朝鮮, (内地) 日本, 浦藍, 上海 등지의
사정을 쟁취할 수 있다. 現今 청취 가입자가
9,500인 (1929년 7월 22일 현재)에
달하였으며, 總督府에서 년 2萬圓의 보조가
있다 한다. 거대한 건축물이 정동 고대에
屹立하였고, 사용 電波長이 366 m 이요,
호출 번호가 JODK 이다…』³⁾
이 때만해도 방송매체는 라디오 뿐일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혁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방송국의 위치는 英國領事館과 聖公會에서
가까운 「貞洞 언덕」이었다. 현재의
덕수국민학교 운동장 부근으로 당시의 이
터는 李皇室의 관리지였다. 부지는 700평
정도 확보했다. 설계는 朝鮮 殖産銀行의
技師인 中村誠에게 맡겨졌다. 그는
은행건물 설계전문가였는데 신문·방송국의
설계까지 맡아하게 된 것이다.
건물은 매우 평범하고 단순하게 설계
되었다. 지하1층, 지상 2층의 벽돌조로
설계되었다. 건물의 樣式은 이때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독일식 Secession 風을
따랐다. 그 風은 1층 현관 입구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건물의 외관은 연한 크림색으로
칠했다. 공사는 1926년 7월에 착공되어
5개월만인 같은해 12월에 준공되었다.
공사는 橋崎組에서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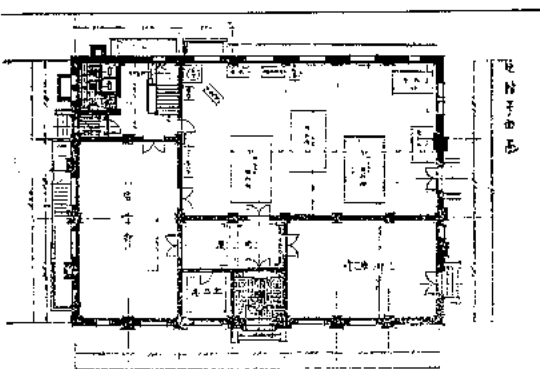


▲ 세세션 風의 玄關디테일 (朝鮮と建築, 192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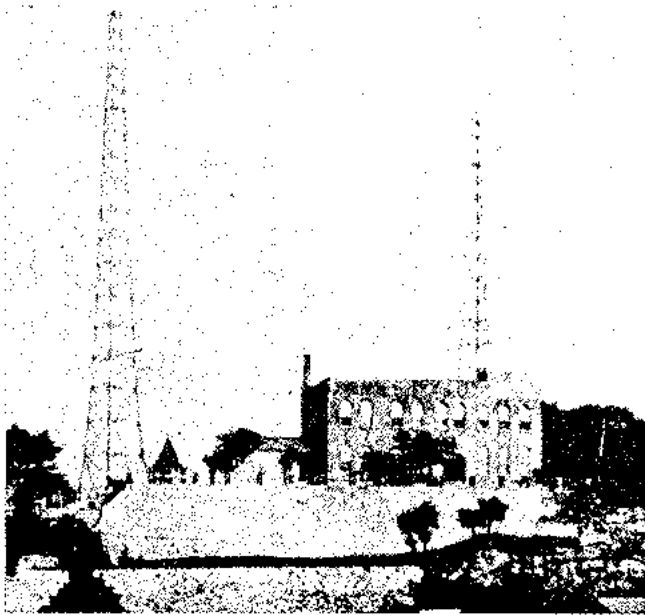


▲ 1층平面, 현관을 들어서면 8각형의 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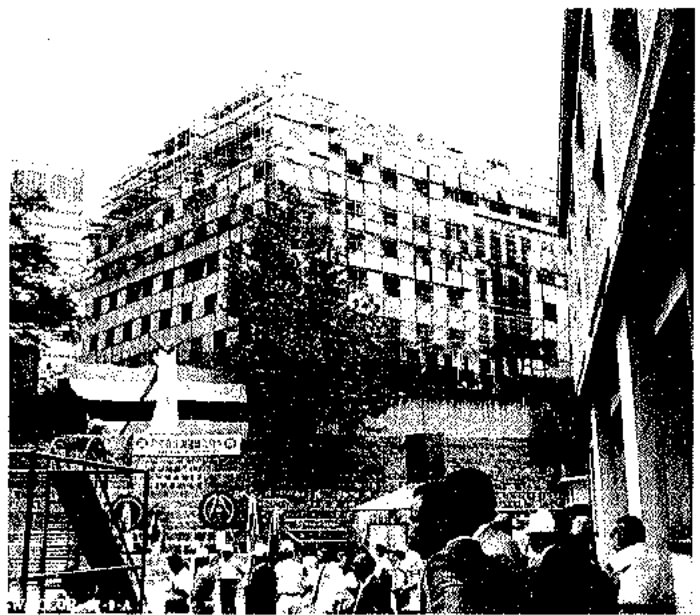
- ◆ 위치 치: 貞洞 1번지
- 착공년월일: 1926. 7
- 준공년월일: 1926. 12
- 설 계 자: 中村誠
- 시 공 자: 橋崎組
-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 층방: 지하 1, 지상 2, 옥탑 1
- 대지면적: 700평
- 건축면적: 51.31평
- 연면적: 188.96평
- 보존 상태: 撤去



▲ 1층平面圖, 이후 오른쪽으로 2 Span증축되었다.



▲ 1926년의 京城放送局 건물, 貞洞언덕 (한국전쟁 100년사)



▲ 첫 방송터 기념비제막, 덕수국민학교운동장에서 신축되는 朝鮮日報社 언덕 (1987. 9. 3)

설계자는 2층의 방송관계 諸室에 많은 배려를 했다. 24평의 樣式 방송실과 10.5평의 日式 방송실을 마련했다. 방송 참관자들을 위한 동선처리에도 유의했다. 1KW의 출력으로 시작된 방송국은 시대가 흐를수록 그 위치의 부적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¹⁾ 정동은 이미 고층건물에 둘러 싸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8.15 해방 후 라디오 청취자는 더욱 늘어났다. 라디오 뿐만 아니라 TV도 수요가 더욱 증가되었다. KBS 방송국은 남산언덕으로, 그후 다시 여의도로 옮기면서 物量的 質的 발전을 더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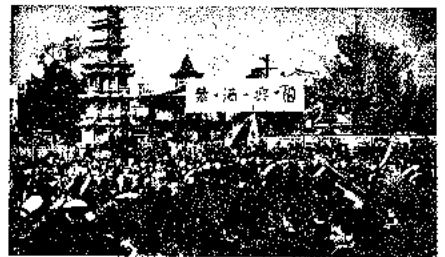
□註□

1. "첫방송터" 1987. 9. 3. (방우회행사문 앞글에서)
2. 日本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東京방송국」이 최초인데 本 방송은 1925년 7월 처음 시작되었다.
3. 「京城便覽」, 1929.
4. 호출부호 JODK, 주파수 690KHz, 출력 1KW였다. 첫방송 실시당시 라디오 대수는 1140대 정도(한국인 소유는 275대)였다. (康賢斗, 한국방송의 通史의고찰)

71. 救世軍 本營

光化門 德壽宮 돌담길 貞洞 京畿女高 隣近에 救世軍의 本據地가 있다.¹⁾ 每年末 자선남비와 Brass band, 그리고 단정한 군복차림으로 우리 눈에 익은 구세군은 英國 런던에 總本部(司令部)를 두고 기독교의 한 宗派로서 우리나라(서울)에 들어왔다. 英國 감리교회 목사 부드(William Booth)와 그의 부인 Catherine 이 1865년 가난과 사회악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진도에 중점을 두고 창설했다. (Darkeet England and the way out 최대암흑의 英國과 그 구제책) 허가두(Robert Hoggard, 許壽斗) 正領과 그 일행 6명이 우리나라에 파견됨으로 한국 구세군은 창설되었다.²⁾ (1908. 10. 1) 이들은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포교를 시작, 1909년에는 平洞에 營을 설치하였다.³⁾ 다음 해인 1910년에는 新門路韓國 本營을 세웠다.⁴⁾ 英國을 뿌리로 하기는 聖公會와 마찬가지로. 聖公會는 英國 해군 군목이었던 Charles John Corfs 가 1890년 내한하면서 시작하였다. 구세군은 성공회보다 조금 늦은 1908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救世軍 士官學校와 韓國 本營의 설계자와 시공자는 未詳이나 성공회와 마찬가지로 英國人의 의도와 日本人 건축가에 의해 세워졌으리라 추측된다.⁵⁾ 원래의 新門路 本營은 스케일이 크고 웅대했다. 兩 현관 입구의 Arch 처리, 창문 피석 처리는 독특하다. 특히 Key Stone 부분을 점찍듯 처리한 것은 경쾌하다. 지붕의 돌출물 장식은 英國의 塔形 건물에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한편 (1855~1910은 그의 梅泉野祿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英國 기독교인 許壽斗, 班禹巨 등이 救世軍을 창하고 서울에 常駐하여 西門 밖

平洞에 營을 세우니 수일간에 사람들이 모여 수천명에 이르렀다...」 平洞 本營의 규모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으나 梅泉野祿으로 보아 비교적 큰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⁶⁾ 현재의 貞洞 救世軍 士官學校 건물은 1926년에 세워진 것으로써 正確한 Pediment가 雙으로 강조되고 창문디테일은 가식이 없다. 정면 입구는 Pediment로 처리되고 4개의 円形 石柱가 받치고 있다. 근대적 향취가 짙은 貞洞 길목에서 근대적 건물로는 이제 드물게 남아있는 건물의 하나이다.⁷⁾



▲ 1910년대, 救世軍선교당사의 파고다공원(救世軍)

◆ 위 치: 卓洞 1街 23번지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26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면적: 구조: 벽돌조

층별: 지하 1, 지상 2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평

보존 상태: 救世軍 士官學校와 並用



▲貞洞, 救世軍本營

□註□

1. 救世軍의 英名은 The Training School of Salvation이다.
- 2 「사진으로 본 韓國基督教白年」, 해외동포 선교회, 1984, p.75.
3. 종로구 평동 76번지 9에 자리를 잡았다.(현 高麗病院 뒷편, 현재 그 자리는 한국전기공업협회로 쓰고 있다) : 孫楨睦「都市變化課程 연구」, 1982. 一支社, p.236
4. 현재의 본영은 중구 정동 1가 23번지에 있으며 1926년에 미국 軍友會들의 헌금에 의해 사관학교로 지어진 것이다. 원래의 新門路 本營 자리는 1968년에 60주년 기념사업으로 救世軍 빌딩으로 改築(1972.8.竣工). 財源用 임대 빌딩이 되고 있다. ;孫楨睦, 앞 책, p.36. 救世軍士官學校는 1918년에 시작되었다.(처음은 救世軍 성경대학)
5. 日本의 救世軍 本營은 東京의 간다(神田)에 세워졌는데 (1928년) 설계는 曾中條 건축사사무소에서 했다. 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한국에 昭和 거린맥주 영등포공장(1933.7)도 설계한바 있어, 韓國救世軍 관계의 건물들도 이



▲ 1915년 新門路의 救世軍本營(救世軍)

-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으로 추측된다. 소네 다쓰요우(1852~1937)와 주조 세이이지로우(1868~1936)는 그들의 합동으로 건축사무소를 낸바있다.
6. 梅泉은 韓末秘史를 담은 그의 野錄에서

- 救世軍을 基督教人으로 보았고, 平洞의 營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p.383(孫楨睦의 記錄은 註3 참조)
7. 1937년에는 忠正路에 救世軍 育兒院을 세웠다.

질의회신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공동주택의 각각의 세대내에 2개 이상의 노대가 있는 경우 노대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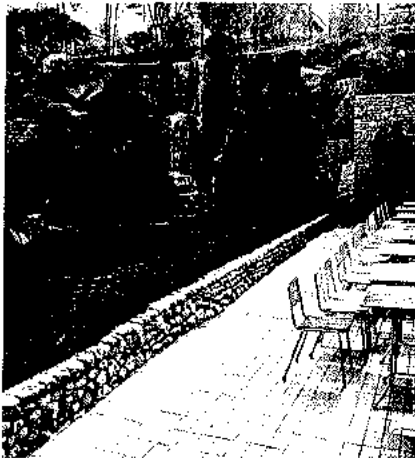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면적 산정은 노대에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로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삽입하는 것인바, 공동주택의 각각의 세대내에 2개 이상의 노대가 있다하더라도 각각의 노대로써 상기규정에 의한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노대등이 바닥면적에 삽입되는 부분만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団地 造景

Fine View of Apartment Area

吳尚坪 / (주) 正東엔지니어링, 國土開發(造景)技術士
by Oh, Sang-Pyeong



1. 폐쇄에서 개방으로

아파트단지는 計劃都市의 신개발 集團 共同住宅團地, 풍수해, 화재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집단 住居團地 및 기존도시의 재개발로 發生되는 아파트단지등 그것의 형성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리국민의 도시화율이 70%를 넘어선 구성비를 갖게되는 현 단계에서 볼때 국민 住居生活 기여도는 실로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人間의 기본적인 욕구는 다양하며 복잡한 것이어서 그 시대의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인 요구도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8.15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억눌림과 가난과 무지와 전쟁의 폐해에서 방황하던 산동내 판자집 시절과 보릿고개에 먹지를 못하여 부활이 들어 죽어가던 농촌생활의 참상은 불과 20~30년전의 우리생활이었다. 경제의 발전과 産業化는 2차대전 이후 세계적인 성장 물결이었으며 이에 낙오되지 않고 우리도 부지런히 노력하여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잘살게 되었다. 먹을것이 해결되고 입고 걸치는것이 해결되면 生活하고 쉴 수 있는 住居는 당연히 요구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생활하는 정도와 社會, 文化的의 요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출된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매우 발전이 되어 도시 서민 A.P.T 단지도 대부분 15평이상 20평내외가 평균이 되었으며 여유가 있는 중산층은 30~50평 규모의 住居生活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웠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향상된 상황이었으나 政治, 社會的으로는 매우 폐쇄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기집, 자기가족, 자기개인만 너무 집착하여 공동의 소유, 참여의식등이 결여된 이기주의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환경하에서 A.P.T 단지의 공공을 위한 시설인 團地內 造景施設 역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중요인식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현관문 안의 순수한 個人을 위한 구역 안과 밖의 관심 정도는 매우 편이한 것이어서 우선 가족 구조가 얼마나 호사스러운가 하는 것이 큰 관심이었다. 예컨대 최근에 신축중인 강동의 모 A.P.T는 주인이 외출중에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취사, 조명등의 점멸, 커튼의 조작등을 자유자재로 할수있게 전자 장치를한 Home Automation 덕분에로 분양에서 30~40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그 인근에 건설되는 1개소의 공공이 시행하는 대단지에는 내부는 전자 장치등 호사스런 장치가 없고 대신 개인 영역을 벗어난 외부 즉 단지의 형태를 본다면 단지 면적에 비하여 고밀도와 사키지 않고 각양각종의 건물군이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보도의 포장, 조정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등은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다되지 못하여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아파트단지는 주거등 도시시설 오픈스페이스의 각종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각요소의 성능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는 각 요소마다의 시스템(그루핑 구성, 주거구 구성, 도로망, 오픈스페이스 시스템등)을 어떻게 상호 연관시키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단지의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종래 아파트단지의 계획설계를 뒷받침해 온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대체로 다음과같이 다섯가지의 설계이론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理論的 背景

①日照理論 : 일조는 각 주거의 주거성에 직접적이고도 종합적인 관계를 지닌 요소로서 단지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이것은 太陽고도가 가장 낮은 등지를 기준으로하여 정오를 포함하여 4시간이상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층 높이의 스라브등에서는 10m, 5층의 주거등에서는 25m, 11층의 고층일 경우 55m 정도의 동간 거리가 필요하고 일조건 확보를 전제로 하여 얻어진 공간은 각 개별 주거에 프라이버시와 어린이놀이터 배치나

吳尚坪

필자는 41년 경남생으로 농학과와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정동엔지니어링 지영.

표준 일조 성능 (표 - 1)

지역모델		등급	A	B	C
I	도시내 흐름들의 거점이 될 단지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II	도시내의 한적 한 단지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III	근교의 시가지 형성에 질서를 주는 단지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IV	풍부한 푸르름에 쌓인 단지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V	교외 발전의 핵이 될 단지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식재 경관 구성을 위한 공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우리나라의 現行法으로서는 충분히 규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 시가지의 재개발이라든지 민간이 건설하는 A.P.T 등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일조권이 2~3시간으로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제한받는 일조권만큼 주거공간이나 옥외공간의 성능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② 단계구성이론 : 사람의 생활행태에는 일정한 체계와 그것에 기인하는 유형이 있다. 공간이나 시설의 이용형태나 이용거리와 같이 간접적인 행동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다.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단계구성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주거요소들에 대해 그 체계 설정의 한 예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주거동배치 → 주거 → 주거동 → 주거동군(그루우평) → 주거 → 가구 → 주택지.

○ 도로배치 : 어프로치 → 보조도로 A (폭 4~5m) → 보조도로 B (폭 6m) → 간선도로 (8m 이상)

○ 공원배치 : 놀이터 → 아동공원 → 근린공원 → 지구공원 → 종합공원 → 운동공원.

또한 주택에 필요한 각종시설(구매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 성립의 배경이 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의 구성요소 상호간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주택지나 단지의 전체를 구성해가는 사고방식이 바로 단계구성의 理論으로서 일조이론과 함께 단지계획 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계구성이론의 응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① 체계의 설정에 거리적 要素와 인구적 要素가 있다.

② 표준적인 밀도의 단지인 경우 거리적 要素와 인구적 要素의 체계가 대다수 일치한다. (예컨대 5층 정도의 주거동을

주체로 하는 용적율 60~80% 정도의 단지)

③ 저밀도 단지의 경우는 거리적 요소에 의한 체계에 의해 사실이나 공간의 위치 규모 종류등이 결여되어야 한다. (예컨대 저층주택을 주체로 하는 용적율 20~40% 정도의 주택단지)

④ 고밀도 단지의 경우는 利用人口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 시설이나 공간등의 배치를 결정짓는다. (예 : 고층 주거동을 주체로 하는 용적율 120~200% 정도의 단지)

단계구성 이론은 다양한 생활 형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계획설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고방식이기는 하나 실지 생활면에 있어서는 예들들어 주부들의 장보기나 어린이 놀이를 위한 움직임등 상정된 분위기를 벗어난 공간내지는 시설이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한 연후에 계획설계를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③ 보차도 분리이론 :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보차도와 그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두가지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평면적인 분리유형을 기조로 하는 계획사례이고 또 하나는 도시기능의 추구를 근거로 한 교통시스템으로서의 입체적 분리를 기조로 한 계획사례이다. 아파트 단지의 설계에 있어서는 평면적 보차도 분리시스템을 기조로하는 유형이 채택되는 일이 많으나 평면적 분리수법, 입체적 분리수법, 시간적 분리수법 등을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시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동선공간에는 보행자의 동선 공간으로서 어프로치, 원로광장, 보도, 보행자도로, 녹도등이 있고 차량의 동선공간으로서 어프로치, 주차장 보조도로, 간선도로등이 있으며 자전거도로는 양자의 중간적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각종 동선의 종류, 성격, 동선량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행자의 동선시스템과 차량의 동선 시스템을 설정함으로써 안전하고도 쾌적한 옥외생활공간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보차도 분리 이론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④ 공간조형이론 : 주택 단지로서의 품격이나 풍요로움을 物理的으로

實現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 조형에 의한 설계수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공간조형으로 표현하고자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질서있는 공간 조형 → 연속성, 방향성, 통일감이 용이한 판단등

② 변화있는 공간 조형 → 리듬감, 스케일감, 개별성, 지역성등(이때 매우 중요시될 것은 혼란하지 않는 다양한 변화성이 요구된다)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이 혼재하는 기존 시가지는 변화는 있으나 혼란한 상태가 많고 질서가 결여되어 있으며 한쪽으로 동일한 외모와 크기를 가진 건축물의 주거단지에서는 질서는 있으나 변화가 결여된 인상을 받기 마련이다.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 구성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할 사항은 각 공간이 개성적이고 풍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체로는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주택지 경관을 창조하는데 있으며 그점에 공간조형이론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주거동 → 주거동의 높이, 주거동의 형식, 주거동의 디자인, 주거동의 배치.

○ 시설 →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시설의 디자인, 시설의 배치.

○ 도로 → 로폭, 도로의 선형, 도로의 구배 도로의 패턴, 도로의 경관.

○ 공원 → 공원의 종류, 공원의 규모, 공원의 배치, 공원의 디자인.

○ 보행자도로 → 노폭, 보행자도로의 선형 패턴, 디자인, 또한 기준수법이나, 새로운 식재에 의해 구성되는 푸른 경관은 각구성 요소의 조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한편, 단지 전체로서의 개성과 차별한 느낌, 계절감등을 자아내는 중요한 조형요소의 구실을 한다.

⑤ 자연조형이론 : 단지내의 외부공간 구성에 깊은 관련성을 지닌 自然的인 부지 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관여한다.

○ 地形的 → 부지의 기복, 구배, 고저차

○ 植生的 요소 → 기준수법의 식생분포

○ 景觀的 요소 → 부지내외의 경관조망 이러한 부지조건을 주거동 형식의 선택, 주거동의 배치, 도로의 배치 공원녹지의 배치등에 적극적으로 살려 조형적으로 보다 아름답고 합리적인 주택지 구성을

“ 아파트단지의 조경은 환경 계획적인 측면에서 주거의 거주성을 높여주는 한편 거주환경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向上시킨다고 볼 수 있고 경관 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적 경관과(인공적 경관) 자연적 경관의 조화로써 이것이 함께 지니는 품격높은 주택지의 경관 환경을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연조형이론의 사고방식으로서 단지의 조경계획이라는 관점으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수법의 하나가 된다.

○ 自然地形을 살려 주거지를 형성한다.

○ 地形을 이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를 計劃한다.

○ 自然地形의 특징을 주거동의 배치와 디자인에 살리도록 한다.

○ 기존 樹林을 保存하여 푸른 랜드마크로 삼는다.

○ 부지밖은 景觀을 차경으로 받아들이는 등을 들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열거한 다섯가지의 理論 외에도

○ 각 住居의 居住性과 주거의 욕의 生活要素의 다양화에 유의하면서 주거동의 배치를 고려하는 - 주거주위 공간이론.

○ 주변지역을 포함한 단지 전체의 인간관계에 유의하면서 택지를 구성하는 - 커뮤니티 이론.

○ 주거구 구성이나 시설 배치에 있어서 集積의 장점을 살려 도시 구조적인 주택지 설계를 指向하는

수법 - 어버니티(Urbanity) 이론을 비롯하여 각종의 이론이 제시되어 구체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하나의 團地가 하나의 設計理論만으로 계획 설계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두가지 이상의 설계이론을 모순됨이 없도록 상호 연관성하에 응용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의 조경적 개념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중 하나를 든다면 옥외 生活공간의 공동소유 내지는 공동이용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전개되는 생활행위는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단지의 역사와 구성될 입주인의 계층과 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간이란 본래 利用하기에 따라 무한히 넓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 공간의 용도를 너무 한정적으로 성격지워 놓게 되면 그 융통성이 결여되어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매우 협소하고 쓸모 없는 것으로 되기 쉽다.

예컨대 주거 단지의 커뮤니티에 광장, 노천시장, 도로, 전시장, 운동장등을 결합 수 있는 광장에 환경 조형 시설물과 분수를 결합하고 녹음수를 식재한다면 그 공간이 갖는 다양한 수용성과 기능은 단지 면적의 대소에 상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團地造景設計에 있어서 주거동을 비롯한 각종시설, 도로, 녹지등의 구성요소를 구사하면서 일상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옥외공간의 구성은 공간이 지니고 있는 잠재 소질을 기능적이고도 시각적인 질을 높임으로써 쾌적한 住居환경을 창조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제에서 본다면 아파트단지의 조경은 환경 계획적인 측면에서 주거의 거주성을 높여주는 한편 거주환경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向上시킨다고 볼 수 있고 경관 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적 경관과(인공적 경관) 자연적 경관의 조화로써 이것이 함께 지니는 품격높은 주택지의 경관 환경을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레크레이션 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일상적인 옥외 레크레이션에 대응하는 장소를 하나의 핵으로 해서 기능적이고 또한 쾌적한 생활공간 시스템을 구성한다. 아울러 커뮤니티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이와같이 다양한 기능과 기능성을 가진 공간의 존재는 기존 시가지의 경색되고 웅색한, 제한된 상황에 비하여 기능이나 경관면에서 뛰어나게 됨으로서 團地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거주자 상호간의 광범위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창조한다. 각 주택지의 형태는 自然 및 사회적인 立地조건과 사람들의 生活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와 반대로 주택지의 공간적 특성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규정하는 일도 있다. 그러한 뜻에서 주택 단지에 있어서의 옥외공간설계가 갖는 역할은 사람들의 생활을 받아 들이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그 그릇을 만드는 수법여하에 따라서 그곳에 전개되는 행위가 단조로운 것이 되기도하고 인간성이 넘치는 다채로운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변화성있는 생활행위가 생활환경의 필요로움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생활환경의 설계 → 생활행위의 다양화 → 생활환경의 필요로움이라는 체계가 성립되고 여기에서

공동 사회의 造景 발상이 생기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景觀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되어 간다. 그것은 파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의 경관 변화 속도에 비교한다면 극히 완만한 것이어서 식재된 수목의 성장과 함께 지역 주변의 발전과 매우 잘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훌륭한 주거환경으로 성숙해 간다는 점에 있어서 안정감에 넘치는 것이 된다.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기본적으로 3가지로 구분지어 본다면,

○ 人工的 경관 : 주거동, 각종 돌출된 시설물, 도로, 놀이터등의 인공적인 요소.

○ 自然的 경관 : 지형, 토양, 물, 식생등의 自然的 요소

○ 生活景觀 : 일상生活, 옥외레크레이션, 근린시설등의 생활적 要素등이다.

이러한 각종의 要素들은 각기 독립된 존재가 될수 없으며 예컨대 주택지로서의 품격을 연상시킬수 있는 웅장하고도 푸른 가로수, 어린이들의 손때가 묻은 놀이터, 시설물, 낙서가 있는 담장, 비바람에 씻겨 나뭇결이 붉어진 벤취등 인공과, 웅스 들레에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 노인정 옆에 세워진 등나무, 우거진 피클러등 인공과 자연의 어울림, 교회의 첨탑, 도로의 아스팔트, 보도의 각양각색 포장무늬등등 人工과 自然的 景觀 및 生活의 景觀이 한데 어울어진 미묘하게 겹쳐지는 곳에서의 동기는 시간의 경과와 경관의 정수일 것이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풍요함이 더해지고 각가지의 행동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개성적인 생활 환경을 창조한다는 것이 아파트단지 造景設計의 가장 중요한 目標가 된다. 이러한 주제를 받아 들이기 위하여 조경공간의 디자인 수법을 여러각도로 추구해야 하나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자연적인 환경조건인 지형을 비롯하여 식생, 토양, 水系등을 기본조건으로하여 규모가 큰 단지 경관을 구성해 나가는 조경수법, 안정성, 쾌적성, 합리성이 우수하고 내일의 도시 주택에 어울리는 품격높은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都市景觀 조성수법, 풍요하고도 안정된 지역사회 조성을 지향하는 근린공간 디자인수법등 이상의 각 방법 가운데 어느 수법을 적용시킬 것인가하는 문제는 입지조건을 비롯한 각가지 설계 조건과 대응

“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向은 일조, 통풍소음 및, 조망등과 복합적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검토하지 않고서는 결정지을 수 없으나 어느 수법으로 접근하던가간에 하나의 조정설계를 완성시키는데 있어서는 모든 수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파트단지의 경관문제에 다소 첨가해서 부언을 한다면 단계계획 당시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조망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社會心理的 要求와 物理的인 結合體로서의 人間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매우 다양한 것이다. 영역성(Territoriality), 向과 眺望(Orientation and View), 프라이버시(Privacy), 독자성(Identity), 편의성(Convenience), 접근성(Accessibility), 안정성(Safety), 쾌적성(Amenity), 사회참여성(Social Contact), 이미지성(Image) 등 수많은 因子가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경관적인 문제로서 眺望(View)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로 해본다. 眺望이라는 것은 向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向은 일조, 통풍소음 및, 조망등과 복합적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日照上으로는 正面에서 약간 벗어난 南東向이나 南西向이 바람직하며 南西向은 오후의 최대 일광을 받게 좋고 南東向은 아침 햇살을 받아 좋은 向이다. 그래서 침실이나 부엌은 南東向이 이상적이다. 모든 세대의 住宅이 가장 이상적인 向으로 배치되었으면 최상이겠으나 아파트단지에서 모든방이 좋은 向으로 향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모든 住宅의 向이 완전한 단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조망은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적정 높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양호한 경관을 즐길수 있는 위치의 주택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한의 즐거움을 가져다 줌으로서 인기가 있거나 잘팔릴 수도 있다. 주거의 구조에 따라 주변 경관의 이용은 유리할 경우 받아 들일 수 있고 불리한 경우 차단시킬 수도 있다. 고로 단계계획가는 조망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항시 충분히 고려해야만 된다. ○ 모든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극적인 경관이 있는가?

○ 모든 사람을 위해 保全(Reserver)되며 주거군의 배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초원, 호수, 삼림, 언덕, 강물이나 바다같은 특징적 경관을 갖는 곳인가? ○ 주택이 그 주위에 분산 배치될 수 있는 수풀, 露頭, 명쾌한 경관을 제공하는 골짜기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가? ○ 태양의 직사광선과 겨울바람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향은 어디인가? ○ 웅벽이나 급경사의 法面을 사용치않고 造景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각지역의 단면을 분석필요와 뒷세대의 視野를 가리지 않는 인동간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경사도를 파악해야 한다. 경관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眺望의 計劃에 있어서는 平地일 경우 부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주택을 배치시켜 각방향의 시야를 차단시킴이 없이 주변경관을 이용함이 좋을 것이고 극적인 경관에는 크고 짜임새있는 주택을 지어 모든 세대의 전망을 좋게 해야하며 골짜기를 내려다 보는 경치가 골짜기로부터 올라다보는 것보다 낫다. 개활적 경관에는 보다높은 지역에 큰 건물을 짓고 저층부의 주택들은 테라스하우스(로단식 주택)을 짓는것이 유리하다. 자생적으로 기존되어 있는 수목군 거수목, 아름다운 바위등 자연적인 매력들은 소규모 주거군을 위한 촛점적 역할을 한다. V字形 또는 U字形 전경은 한쪽방향으로 탁트인 조망을 제공하며 테라스형주택은 여러세대의 양호한 전망을 제공한다.

4. 아파트 단지의 조경계획

① 경관요소로서의 주거동 住居棟은 아파트단지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건물로서 단지 경관의 주 구성 요소가 된다. 옥의 공간의 구성요소로서 주거동을 보는 경우, 높이 형상, 主開口部の 方位, 주거동의 축선방식, 주거설계가 중요한 인자가 된다. 주거동과 옥외공간의 대응관계를 분류하면 크게 나누어 네가지로 구분된다. ○ 높이에 의한 분류 - 저층주거동, 중층주거동, 고층주거동 ○ 형상에 의한 분류 - 板狀주거동, 塔狀주거동, 복합주거동

○ 축 방향에 의한 분류 - 東西축 주거동, 南西축 주거동, 중간방위 주거동. ○ 주 개구부 방위에 의한 분류 - 남쪽에서 접근하는 주거동, 동서측면 접근 주거동, 북측 접근 주거동 등 위와같은 분류된 각 주거동의 형식에 따라 단지내에 구성되는 외부공간의 형태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단지내의 造景의 실제 계획이 상응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된다. ② 저층주거동일 경우 1~2층의 주거동으로서 높이는 6m 정도가 된다. 주거동은 소형으로서 지형의 고저와 변화등에 쉽게 적응하며 각종시설과도 균형이 잘 유지된다. 높은 밀도의 거주형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건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동 사이 및 주거동과 옥외공간 사이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중요시되며 놀이터 녹지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특별한 설계상의 창의가 필요하다. ③ 중층주거동일 경우 3~5층 정도의 주거동으로서 높이는 14m 정도가 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계높이가 된다. 주거동 주변에 식재되는 교목의 높이와 거의 비슷하며 옥외의 각 시설물과의 균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고밀도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므로 집합주택 즉 아파트단지의 표준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④ 고층주거동일 경우 8~15층 정도의 주거동으로서 높이는 43m 정도까지이다. 건물의 높이와 폭이 모두 대형으로서 옥외의 각종시설과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랜드마크나 동선의 유도등 원거리로부터의 시점에 대해 유효하다. 고밀도의 주거형태에 잘 적응될 수 있으나 종일토록 그늘지는 범위가 크고 전파장해, 풍해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조경계획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된다. ⑤ 판장 주거동 단위 주거에 대해 균등한 조건을 부여하기는 쉬우나 옥외에 대한 대응도에 따라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연속되는 꾸밈새를 갖고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범위가 넓고 영구적인 그늘을 만들기 쉽다.

“ 단지 속의 옥외공간은 주택의 정원을 집약하여 단위주거 + 공용 또는 공공 공간이라는 구조로 바뀌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에 반하여 공간을 분할하거나 영구적인 폐쇄공간을 만들어 내는데는 어울린다. 지형이나 고저의 변화 또는 기존수림의 보전등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⑥ 탑상주거동

각 단위의 주거동에 균등한 조건을 부여하기 쉬우나 변화성이 큰 경관을 만들어 내기 쉽다. 독립동으로서 시야를 가리는 범위가 비교적 적으며 영구적인 그늘이 조성되는 비율 또한 적다. 랜드마크적 기능을 갖는 외에 해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어울린다. 지형과 고저의 변화 및 기존수림대의 보호등에 대해 비교적 적응성이 쉽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⑦ 동서측 주거동

主開口部가 南北을 향한 주거동으로서 고밀도 住居形態를 취할 때 옥외공간에 대한 일조조건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위주거에 대한 일조조건은 가장 좋아 일반적으로 흔히 채택되고 있는 주거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⑧ 남북측 주거동

主開口部가 東西로 향하는 주거동이다. 밀도높은 住居形態에도 비교적 옥외공간에 대한 일조조건은 양호한 편이다. 단위주거에 대한 일조조건이 동서측 주거동에 비해 불량함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채택된다.

⑨ 남쪽에서 접근하는 주거동

보행자도로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옥외공간의 연결성이 양호하다. 그러나 주가 되는 침실이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와 낙하물에 대한 위험성의 방지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⑩ 북쪽에서 접근하는 주거동

동서측 주거동에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법을 갖는 주거동이다. 보행자 도로가棟의 북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나 낙하물에 대한 배려는 비교적 안심되는 형이지만, 출입구가 북측에 위치하여 항상 영구적인 그늘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어서 조격적인 측면에서 배려는 매우 어려운 경우이다.

⑪ 동서측면에서 접근하는 주거동

주개구부에 대해 평행하는 방향으로부터 접근하는 주거형으로서 프라이버시등에 대해서는 유리하고 옥외공간의 연결성도 좋으며 풍부한, 변화성있는 경관을 쉽게

조성할 수 있다.

5. 전용 정원

단지 속의 옥외공간은 주택의 정원을 집약하여 단위주거+공용 또는 공공 공간이라는 구조로 바뀌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個人的인 옥외공간이란 발코니나 베란다와 같은 소규모의 건축적 공간 밖에는 확보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폐쇄적 공간의 소유는 불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전용정원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휴식을 위한 자리인 동시에 생활을 위한 자리이고 수납을 위한 자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채택된 것이다. 규모는 15~30㎡ 정도로서 일조와 통풍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여기에 부가되는 장치로서 경계담, 산울타리, 옥외창고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은 전용정원은 1~2층 정도의 저층주거동에 부설되며 접지하지 않는 주거에 대해서는 인공적인 테라스를 설치하는 등의 장악에 의해 접지형 주거에 해당하는 속칭 빌라등의 주거형에 알맞는 형식이다.

6. 공용 정원

일조, 통풍, 방진, 보온, 프라이버시의 확보등을 위해 각동 사이에 설치되는 단지 특유의 정원이다.

휴식을 위한 자리를 구성하는 감상적인 정적공간으로 설계되는 경우와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활동적인 근린 공간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있다. 중층 단지의 경우에는 100~200호 단위의 주거에 대응하고, 저층 단위 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30호의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규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

7. 분수원 정용화단

전용정원이 가지는 기능 가운데서 특히 조화 동 식물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한 시설이다.

週團位 레크레이션시설이기 때문에 유치거리나 위치 등에 따르는 제약은 없다. 작업도구와 수납시설을 비롯하여 관개시설,

휴식시설을 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구획의 크기는 4.5㎡ 정도를 표준으로 하나 이용 상태에 대응하여 규모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면적보다는 총 면적 규모를 어느정도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식재시설이기는 하나 수경적 요소가 극히 적기 때문에 주위를 산울타리 등으로 가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사가 극히 미약하나 독일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시설로서 특정한 주거지역이 아닌곳, 예를 들면, 도시 역전, 도심지 녹지대, 일반 공원, 주택지 등 그 분포는 일반 도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지의 土地利用上 여분의 토지확보가 어려운 형편으로 실행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아파트단지의 計劃段階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 봄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8. 주지계획 :

아파트 단지의 조정 계획상, 녹지계획이란 단지내부에 植物을 美的 기능적, 생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창출코자하는 植物利用計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은 造景家가 하나의 경관을 꾸며내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가운데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요구와 단지의 입지조건을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우수한 소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식생의 아름다움은 복잡과 다수, 성장등에 따르는 변화에서 발생되는 미적 증가와, 견고한 생감새와 균형잡힌 量感, Mass 를 다루는 것은 건축가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녹지대의 배식설계는 계획가의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美的인 경관환경의 조성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植物은 土壤에 뿌리를 박아 살아 나가야 하는 기본적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내의 綠地土壤의 質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알맞은 토양의 준비 또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고, 樹木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므로 식재인 사후 관리

“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수목은 푸르름을 제공하여 단지내의 경관을 정비하는 주역으로서 겹쳐진 아파트건물의 수평적인 스카이라인을 끊어주어 단조로운 경관에 큰변화를 부여하며 과다히 노출되어 인간적인 스케일을 크게 벗어난 콘크리트의 벽면을 덮어 줌으로써 ”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9. 配柱의 기능

수목을 비롯한 모든 식물은 인간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과 심지어는 장소에 따라서도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용방법에 따라 수목이 발휘할 수 있는 각종기능을 간추려 보면 건축적인 기능, 공학적인 기능, 기상학적인 기능 및 미적기능 등의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건축적기능으로서는 사생활의 보호적 기능(Privacy Control)과 차단, 은폐(Screening)의 기능이 있는데 사생활의 보호와 차단·은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차단 은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관을 가리워주는 구실을 하나 경관으로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사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단지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고립시키는 수법이다. 다시 말해서 수목을 밀집상태로 식재하여 사람의 침입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 차단이나 은폐와 다른 점이다. 또한 건축적 기능으로서 공간의 분할(Space Anticulation), 점진적인 공간의 이해(Pregressive Realigation) 등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분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배식에 따라 공간이 분할되는 것이다. 울타리의 안쪽과 바깥쪽 화단의 경계와 보호등의 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점진적인 공간이해라는 것은 단지내 식재군을 형성하여 건축물과 상호연계시킴으로써 단지의 내부가 외부로부터 직선적인 노출을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단지내부의 깊이와 유연성을 유지시키고 주거환경의 안정감을 유지시킨다.

다음 공학적 기능으로서는(Engineering Function) 주어진 환경속에서 그 환경이 지니고 있는 공학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의 기능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토양보호 → 토양의 침식조절(식물의根系의 物理的인 作用)
- (Soil Erosion Control) 토양 습도조절.
- 소음방지의 기능(Acoustical Control) → 소음방지의 기능으로서 수목의

枝葉으로부터 음향의 차단과 흡수반사적 기능.

○ 대기정화작용(Atmospheric Purification) → 수목의 枝葉에 의한 분진의 흡착과 여과작용 및 탄산동화작용으로서 공기의 정화, 산소의 공급과 유해가스의 흡수효과, 꽃과 잎에 의한 향기의 제공, 공기습도조절.

○ 광선반사 및 섬광조절기능(Reflection Control and Glare Reduction) → 직사광선의 차단효과, 반사광 및 섬광의 차단, 저층세대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방지 등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기상학적 및 미적 기능으로서는 ○ 태양복사열 조절작용(Solar Radiation Control)

○ 풍랑조절작용(Wind Control) 강우조절작용(Precipitation Control)

○ 美的기능으로서 (Esthetic Function)

○ 樹木의 조각물적 利用(Sculpture Uses)

○ 植物의 影象的 利用(Silhouette)

○ 樹木의 線形美 및 장식적인 수벽

○ 樹木의 自然的 美 → 식물의 美中에 제일 으뜸이 되는 美는 역시 自然美일 것이다. 녹음, 새싹, 꽃, 열매, 수간, 가지, 겨울눈 속의 수목 등등

10.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

人間의 生活環境 속에서 푸르름이 지닌 作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설명의 여지가 없다.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수목은 푸르름을 제공하여 단지내의 경관을 정비하는 주역으로서 겹쳐진 아파트건물의 수평적인 스카이라인을 끊어주어 단조로운 경관에 큰변화를 부여하며 과다히 노출되어 인간적인 스케일을 크게 벗어난 콘크리트의 벽면을 덮어 줌으로써 압박감이나 소외감을 완화시켜주고 또한 주거동 사이를 가득 메워 줌으로써 외부공간에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의 국부적인 경관 또는 수목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며 또한 수목은 스스로가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봄의 싹과 여름의 녹음, 꽃과 열매, 가을단풍, 겨울하늘에 펼쳐진 섬세한 가지의 아름다움,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생김새를 전개하여

거주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생물인 수목은 숲을 이룸으로서 새와 벌, 나비등 많은 생물을 불러들여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여 인간의 생활에 생동감을 불러일으켜 준다. 물론 그러한 생기감도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새들이 즐겨먹는 열매나 벌레가 모여드는 꽃이나 수액을 가진 나무를 곁들여 심어 놓아야 하고 농약의 사용에도 신중을 기하여야만 된다. 식물의 올바른 생장 생육을 계속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흙의 공급이 필요하며 복히 소홀히 취급하는 토양은 아파트 건축공사 쓰레기 등의 매립으로 매우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대지조성단계에서 노출되는 압반이나 쇄석공사중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 목재조각, 심지어는 도배 휴지조각, 비닐, 유리조각등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이물질이 토양 속에 매몰되어지는 곳이 아파트단지의 토양이다. 자연은 자체정화능력을 갖고 있다. 토양 역시 자연이므로 여기에 全단지의 토양을 전부 바꾸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부식질의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부식토양을 충분히 공급하여 수목의 초기 생육물 조장시켜야 하고 성장에 양호한 조건을 인간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11. 配植의 方法

一端的으로 造景配植의 方法으로서는 整形形式 配植(Formal Type Planting)과 非整形形式 配植(Informal Type Planting)이 있다. 配植手法은 땅가르기(Zoning) 방법에 밀접한 配植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되며 整形形式 手法은 건축물의 대칭형과 관련지어 축선(Axis)과 평행 또는 직교하는 선에서 직선적으로 구획지어진 정원에 어울리는 형태로서 건축물과 정원이 직선적 관계에 존재하므로, 일명 건축식이라고도 하며 평면기하학적 외모를 갖기 때문에 기하학적(Geometrical Type) 정원이라고도 불려워진다. 따라서 배식에 있어서는 직선적인 꾸밈새와 어울리도록 원추형으로 다듬어지거나 원주형 또는 球形으로 다듬어진 같은 크기와 형태의 동일수종이 圖路에 따라 직선을 이루며 동일간격에 반복적으로 심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한구획의 중심선과 같은 강하게
視線을 끄는 자리에 실시되어진다.
이에 대하여 非整形形式 配植은 정원내에
自然의 풍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18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자연풍경식 수법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전통적인 수법이
모두 비정형식 배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집어두는 것은 단순히
풍경이라 하면 自然풍경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풍경식이라는
명칭대신 자연식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둔다.
풍경식의 경우 땅가르기 자체가 자연적인
곡선을 이루며 원로 또한 이에따라 완만한
곡선을 그려가도록 배치된다. 따라서 배식
또한 자연 그대로의 숲이나 산기슭의
관목군락이 풍기는 운치와 정서를 느낄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배치상태로 구성된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아파트단지에서는
직선적인 땅가름에 따라 구성된
정원일지라도 풍경식에서 구사되는
배식수법이 실시되어 정형식과의
절충적인(Compound Style) 것이 상당히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파트단지의 공간은 규칙적으로 단지의
용도와 이용계획에 따라 구성되어지므로
도로등 땅가름의 굴곡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직선형이 채택되며 주거지로서의 아늑함을
요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의 포근함도
역시 동시에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은 상반된 요구와 필요조건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정형과 비정형식의
절충식이 적절히 구사됨으로써 정형식이
갖는 기능면도 충족되어야 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포근한
자연식 수법도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주거동이 평행해서 배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棟사이에는 차양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게 있어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녹지대 내에는 각종 시설물이 돌출되어 있어
이것을 가리워야 하는 문제등 차폐 식재를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차폐의
대상은 어떠한 장소에서 바라보아도
완벽하게 가리워지는 차폐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고층에서 지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고층에서의 시각적
차단이란 실현성이 없는 것이므로 주로
차폐의 개념은 보행자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차폐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수종으로서 가이스카 향나무, 미국측백,
편백, 화백, 재래종 한국향나무 등이
침엽수종으로서 주로 쓰이며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녹나무, 구실잣밤나무, 아왜나무,
후박나무, 후피향나무 등 상록 교목류는
우리나라의 남부해안지방에 잘 적응하는
수종이며 팡나무, 금목서, 돈나무, 사철나무,
식나무 유엽도들은 상록 관목으로서 역시
남부지방에서 사용되는 수종이고, 중부이북
지방에서는 일부침엽수종외에 낙엽
교목류로서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서어나무, 미류나무, 산딸나무 등이 쓰일
수도 있고 낙엽관목으로서 쥐뚝나무,
개나리, 말발도리, 명자나무, 조팝나무,
무궁화 등이 쓰이며 만경류로서 둥나무,
남오미자, 담장이덩굴, 인동덩굴, 칙둥이
쓰인다.
또한 기능을 위주로 하여 쓰이는
녹음수(그늘나무)로서는 가충나무,
느티나무, 당굴피나무, 중국단풍나무,
백합나무, 은행나무, 프라타나스, 팽나무,
피나무, 회화나무 등을 들수 있고
방음식재용으로는 편백, 미자나무,
가이스카향나무, 감탕나무, 녹나무, 담팔수,
소귀나무, 아왜나무, 태산목, 팡나무,
개동청목, 사쓰끼칠쭉, 왕쉬뚝나무, 개나리,
딱총나무, 매자나무, 산사나무, 가막살나무
등이고,
방풍식재용으로서 독일가문비, 리기다
소나무, 삼나무, 가이스카향나무, 향나무,
잣나무, 편백, 화백, 창포, 잔디, 양잔디,
클로우버, 알파파 등이 있다.
그의 단지내의 식재와 관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면 요소와 분야에 따라 한없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나 생략기로 한다.

12. 어린이 놀이터 시설

어린이는 人間성장단계에 있어서

발육기로서 자연환경의 혜택과 부모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시기는
일생에 있어서 인구형상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발달심리학의 입장에서 볼때
人間과 環境의 상호관계에서 發生하는
행동은 어린이 성장단계에서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는데 각 시기에 어린이가 획득하여야
할 행동양식을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 이라하여 이들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시기의 행동발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있다.

어린이놀이는 놀이라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행동으로 심리학에서 논의되는 어린이의
욕구는 일반적으로

- 배고픔, 목마름 등을 만족시키려는 욕구
- 외부에 대한 신체적 보호를 구하는 욕구
- 성적 욕구
- 활동 및 휴식을 구하는 욕구
- 배설등 생리적 욕구
- 사회적 인지를 구하는 욕구
- 새로운 경험을 구하는 욕구

등의 욕구는 심리적 불균형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어린이의 행동은 환경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유형화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신체의
발달을 구하는 신체적 행동.

○ 환경의 자극에 대한 내부적 반응이
감정적 의식을 수반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

○ 사회적 환경에 적응키위하여 그 社會의
文化傳統, 가치관을 습득하는 社會的
行動.

○ 지각과 지각이 발달하고 사물에 대한
관념이 명확해지면서 환경을 변화 시키려는



行動이 커가는데서 이같은 事物을 재구성하려는 창조적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린이의 놀이의 의미는 무엇이든 하고싶은 행동을 하고싶은 시간에 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표현한다.

어린이의 놀이는 어린이의 모든 행동을 수용하며 모든 행동은 놀이라는 行態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행동요구는 어린이의 욕구가 環境—物理的, 社會的 環境—에 의해 영향을 받아 놀이라는 행동양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어린이놀이터 計劃設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이의 놀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해 계획되고 의도된 환경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린이놀이터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도심지의 공간확보등의 영향을 받아 충분치는 못하지만 여러가지의 형태로 유형화되어 나타났다.

○ 전통 놀이터 :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설치되어 오던 유형으로서 놀이터부지 전체가 어린이의 신체발달을 위한 그네,

미끄럼대, 시소, 철봉 등의 놀이기구로 구성되는데 一名 기구놀이터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유형의 놀이터는 그것이 갖는 재료의 단순성과 놀이기구와 시설의 고정성, 경직성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곳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관찰해 보면 놀이기구의 단순성으로 쉽게 실증을 느끼고 그시설위에 그들 나름의 독창적인 놀이행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모험 놀이터 : 1943년 덴마크의 쏘렌슨 교수는 어린이들이 그를 위해 만들어준 놀이터보다도 폐품이 쌓인 곳이나 폐공장, 폐차장등에서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여기에 착안하여 코펜하겐의 교외 신흥주택지에 폐품을 利用한 어린이놀이터를 개설하고 숙련된 놀이지도자를 상주시켰다. 그결과 어린이들은 곧 익숙해져 건축자재와 부품을 쌓고 허물고 하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갔다. 반면에 어른들은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쉽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으나 재래의 전통놀이터에 비하여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놀이를 계속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놀이행태를 취할 요소가 없으므로 더욱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영국, 미국, 유럽대륙 캐나다로 번져 이제는 범세계적으로 권장되는 어린이놀이터행태가 되었다. 그외에 창조놀이터, 가로놀이터, 교통놀이터등 여러가지 유형의 놀이터가 성행하고 있다.

13. 그외 시설물

그외시설물로서는 파고라, 벤치, 휴지통, 각종안내판, 환경조형 시설물, 가로수보호불력 등의 간단한 시설과 지전거 보관대, 분수대 시설등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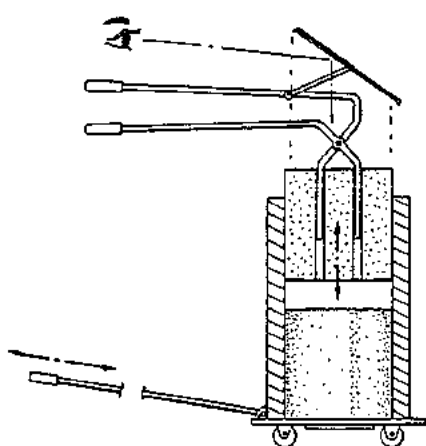
《계속》

新型 연탄보일러 아궁이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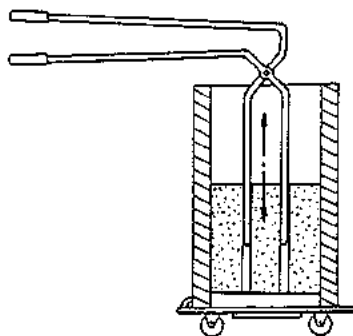
Study of the Fireplace of a Briquet Fired Boiler

姜泰旭 / 국토개발기술사

by Kang, Tae-Uk.



ㄱ字型 孔炭집게 (A型)



ㄱ字型 孔炭집게 (B型)

온돌 밑에서 연탄보일러를 설치,
조작하고 취사도 하는 아궁이
구조

序言

보통가옥에서 취사겸용 공탄부뚜막에서나
보일러에 연탄을 갈아 넣을 때 배출하는
연탄가스로 인하여 비위생적이고, 또
부뚜막이나 보일러에서 열손실이 막대한
것을 개량할 필요가 있어 위생적이고도
열효율을 제고시키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装置構造

보통 연탄 보일러를 온돌외부에 설치하고
별도의 煙突을 이 보일러에 설치하여 연소
가스를 배출케 하던 것을 보일러를 온돌밑
안에 설치하여 배출연소가스가 갖는 廢熱을
온돌에 흡수시키고 煙突로 배출하게 하고
보일러에서 발사하는 폐열도 온돌에
흡수시킨다.

이때 가열된 보일러의 온수는 파이프를
면하여 여타 온돌파이프에 배수되어 난방을
하고 온수 탱크에도 공급된다.

여기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로터식 孔炭煙筒을 이에 출입시키는
간단한 보일러이다. 공탄연소에 공기공급을
위하여 보일러 밑을 통하는 공기관을
벽체의부까지 뚫는다.

보일러와 부엌벽사이의 공간에 연탄연소통을
놓게하여 이 연소통에서 취사물을 가열케
하고, 이때 생기는 연기와 수증기는 온돌을
통하는 사이에 그 온실에 흡수되고 연통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는
가열상태이므로 온실내에 結露되지 않는다.
벽체에 상하2단의 출입문을 만들어 하단문은
연탄연소통을 출입시키고

상단문(투시창부착)은 상하활동식으로 하고
취사용수 설치, 연탄 교체등을 이 문을 통하여
한다. 목이 긴 ㄱ자형 공탄집게(B형)과
굴절부위에 반사경이 달린 ㄱ자형
공탄집게(A형)를 사용하여 연탄교체를
한다. 부엌 바닥의 깊이가 충분치 않을 때는

연탄연소통이 놓이는 바닥면과
부엌바닥면과를 層下을 있게하고 그 사이를
函室을 만들어 하단출입문을 개폐할 때만 이
함실뚜껑을 옮기면 된다.

操作法

상단출입문을 조작할 때는 하단출입문을
닫는다. 상단출입문의 투시창을 통하여
연탄의 연소상태 취사물의 가열상태를
점검하여 되도록 이문의 개폐를 적게
한다. (상하활동으로 열손실이
극소임)상단출입문을 열어도 온실내의
공기가 대류작용으로 상단출입문으로의
연기나 수증기의 배출은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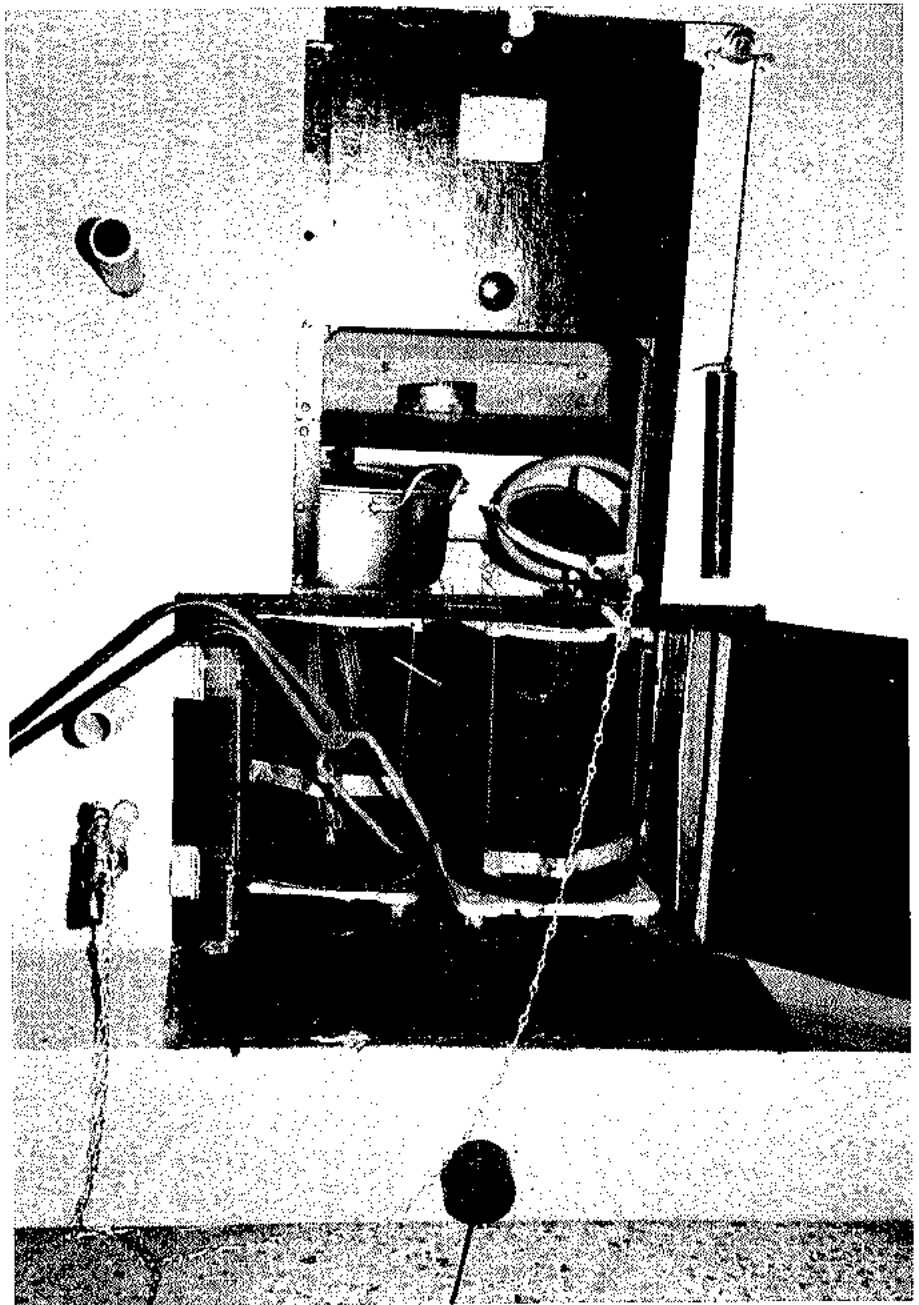
보일러 및 온돌을 가열하는 연료연소조절은
보일러 내에 넣은 연소통과 보일러와
부엌벽사이의 연소통을 넣은 위치와 이의
갯수를 변화시켜서 하고 또 보일러의 문은
개폐하여서도 한다. 그리고 연탄연소통의
하부공기 조절장치를 조작하여 연탄연소를
조절한다. 온수탱크의 온수공급은 자체
밸브로서 한다.

온돌 및 벽체 내에서 연탄연소통의 연탄을
갈아 넣을 때의 조작은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연소통을 보일러에서 꺼내어
벽체출입문(하단)까지 오게하고
상단출입문을 통하여 B형 ㄱ자형
공탄집게로 연소통상부에 있는 연소중의
연탄을 집어 온돌내 공간에 놓고 다시 이
집게로 그 연소통 하부에 있는 연소가 끝난
연탄을 집어서 벽체외부로 내놓는다. 다시
또 이 집게로 온돌 밑에 놓았던 연소중의
연탄을 이 연소통의 하부에 집어 넣는다.

다음 새탄을 A형 공탄집게로 집어
상단출입문을 통하여 연소통 상부에 놓고 이
집게에 달린 반사경을 통하여 수직방향으로
보면서 상하위치의 연탄연소공을 일치
시킨다. 이것은 약간의 경험으로 곧
숙련하게 된다. 다음에 상단출입문을 닫고
하단출입문을 열어 연소통의 공기조절공을
조작하고서 그 연소통을 소정의 위치에
있게한 다음에 하단출입문을 닫는다. 이상의
조작은 항상 장갑을 착용하여 화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
姜泰旭

필자는 18년 평남생으로 40년 남만주공업전문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52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국토개발기술사로 현재
한진개발공사 상임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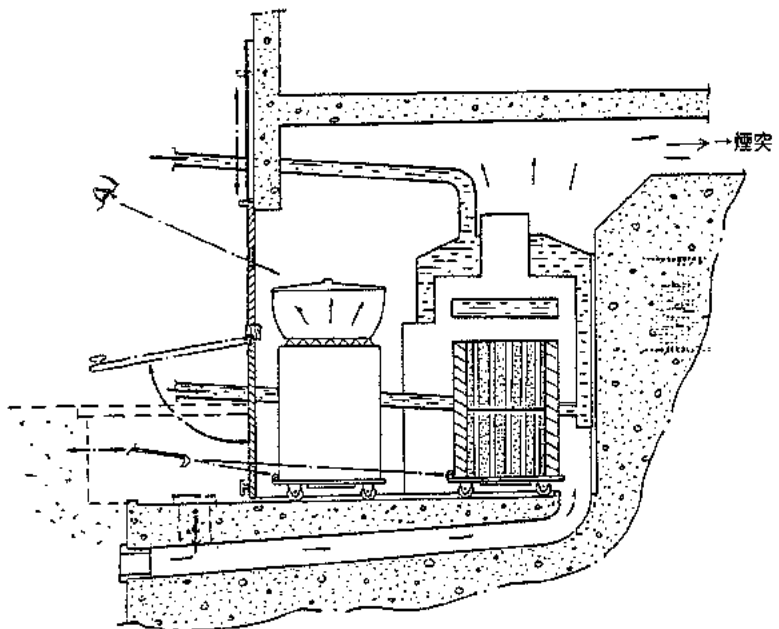
「보일러」設置・溫突・斷面圖

効果

본인이 가옥을 개조하여 이 장치를 하고 실험한 결과, 보일러를 설치한 온돌방(파이프온돌이 아님)면적 약 3평, 보일러 온수를 送水하여 난방한 면적이 약 6평, 외에 온수 탱크 온수를 3인가족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약 30% 이상의 연료절약(폐열이용)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치를 하기위한 가옥개조가 간단하고 물론 신설시에도 적용이 될 것이며, 저렴하고도 간단한 구조의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고 고장이 전무하고 조작이 간편하며 연탄가스가 건물내에 배출되지 않아 위생적이고 연소된 연탄을 온돌및 벽체내에서 조작함으로써 안전하다. 또 보일러나 온돌내에서 연탄연소통을 벽외로 내놓고 폐기물, 임산물, 농산물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탄이나 기타 연소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건물외부에 거의 방출되는 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어 경제적이다. 그리고 雨氣나 換節期등 일시적으로 난방할 필요가 있을때 이러한 연료를 사용하면 착화가 불편한 연탄의 사용을 적게 할 수 있어 편리하다.

結言

본 고안은 우리민족의 오랜 역사를 갖는 풍습인 온돌부뚜막 생활에서 비위생적이고 비경제적인 결점을 제거한 것으로서 부뚜막을 온돌내에 설치한 획기적 변화를 하게 하였다. 물론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는 단칸방 아궁이에서도 이 장치는 적용된다. 국내 유일의 연료자원인 무연탄, 임산물, 농산물, 폐기물등의 사용은 必至이며 경제적이다. 따라서 본 고안의 구조장치를 특히 농어촌, 도시서민 가옥에 보급하여 연료를 절감하고 다양화하며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이득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갖게 하고 싶다.



建築法施行令中改正令

1988년 2월 24일

■ 建築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法상 建築申告로써 建築許可에
같은하게 되는 農漁村 地域에서의
農漁村 住宅・畜舎 및 倉庫의
규모를 새로이 정하여 農漁村住民의
便宜를 도모하고 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容積率의 基準을 地域 特性에
맞게 細分하여 規定하는 등 現行法の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建築許可에 같은하여 申告만으로
가능한 建築物은 邑・面地域
중에서 都市計劃상 市街地로 指定하고
인정하여 市長・郡守가 指定하는
곳에서 建築하는 것으로서 住宅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 畜舎 및
倉庫의 경우에는 각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함(令 第5條의 2)

나. 일정 규모이상의 大型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建築物의
유지・管理狀態에 관한 調査결과를
당해 建築物의 竣工日로부터
3年마다 定期的으로 市長・
郡守에게 제출하도록 함
(令 第11條의 2).

다. 6層이상의 建築物등은 地震에
安全하게 建될 수 있도록 반드시
耐震設計를 하도록 함(令 第16條
第1號나目)

라. 條例에서 정할 容積率의 基準의
범위를 一般住居地域의 경우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로
정하는 등 用途地域에 따라
細分하여 定함(令 第86條 第1項)

〈법제처 제공〉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 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로 한 것을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 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 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어업용인

신고대상건축물등)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읍·면의 지역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호중 “31층 이상이거나”를
“21층 이상이거나”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등”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와 제출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도시설계구역의

직용의 완화)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도시설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용지로 제공한 때에는 법

제9조의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용지로 제공한 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용지로 제공한 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대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자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일반소매시장”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으로

동항제4호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 등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본문중 “바에 의한다”를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제2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것. 제25조중 “별표10”을 “별표13”으로 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이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47조제1항의 표중 건축물의 용도별란의 제1호중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연구소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제56조중 “오물청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한다.

제6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	도지가 도로에 접하여 할 길이
1 천제곱미터이상 2 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6 미터이상 8 미터미만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 1
	8 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6분의 1
2 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8 미터이상 10 미터미만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 1
	10 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6분의 1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2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준주거지역 : 별표3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4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5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6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7. 전용공업지역 : 별표7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8. 일반공업지역 : 별표8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9. 준공업지역 : 별표9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0. 보전녹지지역 : 별표10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15호에서 “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라 함은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내의 폭 3미터이상인 도로(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클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11. 생산녹지지역 : 별표1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2. 자연녹지지역 : 별표12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장의 규모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
2. 공장의 업종 : 공장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것.
3. 공장의 개별업소별 면적 : 300제곱미터이하(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중 이천축전권역안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인 것.
4. 공장의 위치 :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

지 역	대지면적 최소한도
전용주거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하
일반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상 180제곱미터 이하
준주거지역	7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중심상업지역	30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 이하
일반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하
근린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하
전용공업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하
보전녹지지역	35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 이하
생산녹지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하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 이상 700제곱미터 이하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역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60제곱미터 이상 180제곱미터 이하

**

지 역	용 적 율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7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5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35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0.5배이상 띄어서 건축한 것.

5. 공장의 개별업소별 구획 : 각 개별업소는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감충반화문으로 구획하고 벽 및 바닥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업소등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 것.

③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공장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보전녹지지역안에 있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외의 교육연구시설인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축및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업무지구안의 건축물의 모양·색채·높이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업무환경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업무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표* 참조)

③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중 폭 25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의 2분의1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표** 참조)

⑤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율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중 “상업지역”을 각각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한다.

제90조제1호본문중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2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표*** 참조)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항중 “법 제42조제4항”을 “법 제42조의2제3항”으로, 법 제42조제1항제3호”를 “법 제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중앙건축위원회)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조직 및 운영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 심의사항 :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등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수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4. 운영 등 :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97조의 제목“(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위원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을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본문 및 동조제5항 내지 동조제7항중 “건축위원회”를 “지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를 “풍치지구·미관지구·업무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1층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98조제1항제1호중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중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를 “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56조의2 및 법 제57”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으로 한다.
 제10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101조제1항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 및 라목을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이 산입한다.
 다.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제102조제3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7(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3조제1항중 “법 제56조의2제2항”을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4에 의한다.
 [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10]을 각각 [별표7]·[별표12]·[별표11]·[별표2]·[별표3]·[별표5] 및 [별표13]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② 다세대주택(3세대이하인

구 분		외벽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0이상	1.0이상	0.5이상
관람집회시설 또는 종교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3.0이상	2.0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4.0이상	3.0이상
공동주택(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	1.0이상	0.5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2.0이상	1.0이상
		개구부가 있는 곳		
		개구부가 없는 곳	1.0이상	0.5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3.0이상(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이상)	2.0이상(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2](중전의 별표5)의 제목중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 내지 제19항을 제2항 내지 제20항으로 하며,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5항(중전의제4항)·제14항(중전의 제13항)·제15항(중전의 제14항)및 제17항(중전의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외의 것으로서 폭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⑭ 운수시설(철도역사·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⑮ 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차고 및 주차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차고와 폭2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을 제외한다)

⑰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별표3](중전의 별표6)의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운수시설(철도역사·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⑨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⑪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중전의 별표7)의 제목중 “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및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도계장을 제외한다)

⑥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⑧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중전의 별표)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별표8]의 제목중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동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별표9]의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주택·다중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다중주택·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에 한한다)

⑤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으로서 사용연료량 및 폐수배출량의 구분에 따른 1종 내지 3종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환경보전법 제15조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배출 폐수전량을 위탁처리하도록 환경청장이 지정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1](중전의 별표4)의 제1항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의 제7항중 “공공직업훈련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비영리법인인 인정직업훈련시설”로 하며, 동표의 제14항중 “도살장”을 “독촉장”으로 한다.

[별표12](중전의 별표3)의

제1항·제17항·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및 다세대주택

⑰ 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

⑱ 자동차관련시설(차고·자동차매매장 및 자동차제강소에 한한다)

⑲ 동물관련시설(도축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⑳ 제1항 또는 제2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시장·군수가 녹지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㉑ 공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시설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13](중전의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표]의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부표]의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세대주택(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 이상인 것)

[부표]의 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시설의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것)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표]의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㉒ 운수시설

1. 시외버스정류장(고속버스정류장을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정류장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

5. 해운시설 : 항만법 제2조제항제1호 내지 제7호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표]의 제2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표]의 제2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축장

[부표]의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㉓ 분뇨·쓰레기처리시설(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198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 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의 설치허가등을 받은 부지에 있어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이영 시행전에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 6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의 제한기준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후 대지조성사를 착수한 때에는 착공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당초의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 건축면적, 연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4]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내에 부표제1항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을 제외한다)
- ②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내에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을 제외한다)
- ③ 기숙사
- ④ 노유자시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⑤ 격리병원

⑥ 공장(인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⑦ 창고시설

⑧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⑨ 폐차장 및 자동차재장습소

⑩ 동물관련시설

⑪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⑫ 교정시설

⑬ 묘지관련시설

[별표6]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격리병원

③ 관람장

④ 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차료처리 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⑥ 운수시설(시외버스정류장을 제외한다)

⑦ 폐차장

⑧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도계장을 제외한다)

⑨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⑩ 묘지관련시설

[별표10]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및 2층이하로서 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

②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일용품소매점·이용원·마용원·약국·의원과·3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대중음식점 및 일반복육장에 한한다)

③ 근린공공시설

④ 노유자시설

⑤ 전시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동·식물원에 한한다)

⑥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용에 한한다)

⑦ 군사시설

⑧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에 한한다)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구분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품목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보통합판 4. 수도용 아연도강판 5. 인입용 바닐절연전선 6.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7. 배선용 금속접속기 8. 도아클로우지 9.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10. 수도꼭지 11. 창동벨크 12. 복층유리 13. 보주강철 14. 배관용 탄소강관 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알루미늄형제 16. 난방용 주철 방열기

구 분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 층 이상이 거나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품목	17. 난방용 강판방열기 18. 난방용 방열기부속품 19. 경질비닐전선관 20. 강제전선관 21.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22. 프리텐손방식 원심력피씨말뚝 23. 도자기질타일 24. 나사식 기단수절제관이음쇠 25.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26.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강관 27. 후로팅보우드 28. 일반용 경질열화비닐판 29. 경질열화비닐골판 30. 비닐석면타일 31. 발포폴리스틸렌보온재 32. 합성수지에열전폐인트 (외부용) 33. 광명단조합페인트 34. 조합페인트 35.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36. 합성수지에열전폐인트 (내부용) 37. 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38. 아연말프라이머 39. 투명락가 40. 우드실라 41.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42. 알키드수지바니쉬 43. 스파바니쉬 44.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 46.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자연건조형 47. 소켓 48. 배수용 경질열화비닐이음관 49. 강화유리 50.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 음쇠 51.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 아음쇠 52.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53. 스위치박스 54. 암면단열재제품 55. 유리면보온재 56. 기름연소온수보일러 57. 누전차단기 58. 배선용 차단기 59. 구명탄용 온수보일러 6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61. 아음매있는 동 및 동합금관 62. 주택용 분전반 63. 프러쉬플레이트 64. 노오말밸브 (경질비닐전선관용)

구 분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 층 이상이 거나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품목	65. 박스 (경질비닐전선관용) 66. 카바나이프스외치박스 67.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68. 10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보울 밸브 69. 수도용 제수밸브 70. 추철밸브 71. 주강10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 밸브 72. 주강10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게이트 밸브 73. 주강20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 밸브 74. 주강20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게이트 밸브 75. 파이프랭기 76.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분강 77.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7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79. 타로에폭시수지도료 80.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81. 폴러팅밸브 82. 일반배관용 스텐레스강관 83. 가교화폴리에틸렌관 8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8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86. 하이테크용 사이폰 87. 로우테크용 볼탭 88. 로우테크용 사이폰 89. 시멘트벽돌 (6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0. 동 및 동합금의 관이음쇠 91. 강관삽입용접플랜지 92. 위생도기 93. 플로어헌지 94. 난방용 알루미늄방열기 95. 점함유리 96. 아웃레프트박스 97. 일반배관용 스텐레스강관프레스 관이음쇠
구분	2.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건축재료
품목	1. 보통벽돌 (소성벽돌) 2. 시멘트벽돌 3. 시멘트블록 4. 시멘트기와 5. 가압시멘트판기와

〈과태료의 산정기준〉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1	법 제28조 법 제31조	지방세법에 의하 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 가표준액 (이하 이 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한 다) 의 100분의 10이하
2	○법 제8조의2 제1항, 법 제27조 법 제32조·법 제33조·법 제33조 의2·법 제41조· 법 제41조의2·법 제48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이하
3	○법 제7조의3 제 1항·법 제9조·법 제9조의2·법 제10조 제1항·법 제11조·법 제15조 법 제16조·법 제 17조·법 제22조의 3·법 제23조·법 제23조의2·법 제 35조·법 제36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
4	○법 제7조 제1항· 법 제22조의2·법 제23조의4·법 제 25조·법 제29조· 법 제38조·법 제 51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이하
5	○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1조 법 제23조의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에 위반하게 된 경 우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

◎ 대통령령 제12,402호

주차장법 시행령중 개정령

1988. 2. 24.

◇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이유

날로 가중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공동설치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의료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에 대하여는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의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6조제3항).
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1대당 규격을 폭 2.5미터, 길이 6미터에서 폭 2.5미터, 길이 5.5미터로 축소함(영 제6조제4항).
다. 종전에는 주차대수 5대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건축물에게까지도 이를 허용하도록 함(영 제6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동조 제2호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7조 각호 및 동법 제28조각호”를 “도로교통법 제28조각호 및 동법 제29조각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중축으로 인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5호에서 같다)로, “자동차여행자호텔”을 “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동차여행자호텔”을 “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중축으로 인하여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법시행령 부표중 의료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과 동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을 위한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중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5미터 이상, 길이 5.5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구획의 길이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7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5대이하인”을 “8대이하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 주차장 공동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기존의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외 한다)
2. 건축물의 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현황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 조서를 포함한다)
4. 공동소유임을 증명하는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임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5. 주차장설치부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한 지목변경신청서

제6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8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건축물에서의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건축물(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중 주차대수가 30대 이상인 것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주차장이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에 미달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洪承道
1956. 6. 30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세창건축사사무소
경남 사천군 수석3동 251-15
52-8271



金哲薰
1957. 4. 17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대동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85-2
735-7178



林在福
1956. 3. 6
부산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승원건축사사무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637-5
556-8668



韓聖東
1944. 5. 13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수북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북문로3가 87-4
2-0894



金成守
1953. 1. 10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호남종합건축사사무소
군산시 중앙로 1가 6-11
3-8881



李正熙
1956. 9. 10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대동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85-2
738-7178



金學萬
1936. 11. 1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우진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108-6
491-3109



韓徹
1953. 4. 20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송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1-3
542-4644



李鍾順
1951. 8. 25
건국대학교 건축공과
건축사사무소 三政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84
798-7041~2



李仁敬
1959. 5. 20
동의공업전문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새한, 외신, 영그룹
부산진구 전포동 673-1
89-3062



朱宰善
1953. 6. 6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4-4
547-2497



李承熙
1941. 1. 7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범아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대봉동 60-10
423-2191



金彰植
1954. 3. 9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세안건축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5-19
587-0946



張炳憲
1932. 10. 20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신라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삼덕2가 173
44-0095

그리운 투가리 장맛

Traditional Culture I Miss

李珪杓 / 임이중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ak-Pyo

책상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짐과 동시에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면서 권태가 밀려왔다. 마침 점심 때이기도 해서 일을 덮어 두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니 화창한 봄날의 햇살이 온거리에 가득 차있다.

근무하는 사무실이 안국동에 있는 빌딩의 14층에 있는지라 인사동의 오밀조밀한 韓屋이며 골목이 한눈에 들어오고, 길거리의 나무는 가지마다 물이 올라 갈색의 나뭇가지속에서 연한 녹색을 완연하게 들어 내보이고 있었다. 코트를 벗은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저렇게 되었나 싶어, 옷옷을 서둘러 걸쳐 입고는 밖으로 나와 인사동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정말로 할일 없는 한가한 걸음으로 양지쪽을 골라가며 골동품가게도 기웃거리고, 담벽에 붙어 있는 美術展포스터나 選舉벽보까지 읽어가며 걷는 사이 어느덧 종로에 다다르고, 파고다공원에 표를 끊고 들어가 가장 햇살이 잘비취는 벤치를 찾아 앉고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나에게서 멀리 달아나고, 주변의 소리마저 잠시 멈춘채로 오직 얼굴위에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과 그햇살에 섞여지는 담배연기를 바라보는 눈길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無聊하게 앉아 있다가 이왕 내친김에 종로로 해서 광화문으로 돌아 어디 적당한 데서 점심을 먹고는 사무실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는 일어섰다.

그러나 그게 크게 잘못됐음을 얼마 전지 못하고 알게 되었다. 종로 거리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또 어떻게 바쁜 걸음으로 걷는지, 보통 잽싸게 움직이지 않으면 부딪히기가 일쑤고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화신쪽에서 쭈어, 음식점을 찾아 들어가나 그 또한 보통 복잡하게 아니었다. 시끄러운 것은 둘째치고 마치 고속도로 休憩所에서 음식먹듯 하는것 같아서 도로 나올수 밖에 없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의 속도가 그래왔고, 우리의 정치가, 문화가 마치 숨들릴사이도 없이 뛰어 왔기 때문에 많은 施行錯誤와 副作用을 수반하게 되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착오와 부작용을 잉태하게 된다. 풍가집 며느리가

시집가서 그 손끝에서 그집의 음식맛이 나올 때까지는 술한 세월과 함께 시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고 그 손끝이 다음 며느리에 이어진다. 요즈음 요리책을 통해서, 또는 강습을 통해서 단기간에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능률적이고 빠를지는 모르나, 그래도 역시 計量컵이나 計量스푼에 의해 圖式的으로 맞추어진 맛보다는 손끝의 감각에 의해 나온 맛이리라 제 맛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 눈어림의나

익히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어리석게 보이고 비능률적인 일로 되어져 점점 우리의 맛과 특색이 사라지고, 포장과 판매술에 능한 패스트푸드(Fast Food)가 성행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잘 지어진 빌딩에 들어가보면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매끈하게 잘 다듬어져 있으나 팬시리 마음이 허전한 듯한 기분이 드는 수가 가끔 있다. 마치 F.R.P 로 잘생긴 바위를 떠서 만들어낸 인공폭포를 보듯 불품은 있으나 感興이 일지 않는다. 호롱불을 키고 화로에 둘러앉아 이야기로 겨울밤을 보내던 아늑한 초가집의 낮은 천정의 분위기가 그리면 옛날의 일이 아닌 우리의 세대에서, 너무 빠른 현대화는 우리의 것을 잃기가 십상이다.

비록 장작을 때던 아궁이가 파이프 온돌로 바뀌고, 에어컨이 들어서고, 인텔리전트 빌딩을 추구하는 세상일망정, 조상의 장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文化를 담은 우리의 그릇을 빚고 싶다. 역시 된장은 투가리에서 끓여야 제격이 아니겠는가?



李珪杓

필자는 48년 서울생으로 71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임이중건축사사무소 자영.

獨立豫算制 實施와 支部運營方向

慶尚南道支部篇



金正洙 / 慶尚南道支部長

1. 1988년도 豫算規模

1978년도 이래 統合豫算制度로 운영되어 오던 본협회 예산제도가 1988년도부터 본부 및 각시도지부의 獨立豫算制度로 전환 됨에 따라 본부 및 각시도지부의 업무와 사업의 현실적인 축소 증대에 의한 예산규모의 조정 및 실정에 부합되는 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 설정에 의한 지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는 바, 1988년도 예산 규모는 歲入豫算은 회비 수입에 의한 자체실적회비 정수율 0.4%와 전국 실적회비 정수율 0.7%에 해당되는 회비를 주재원으로 하여 1987년도 대비 4천3백8십5만5백35원 증액(65.89%)된 1억1천40만원, 歲出豫算은 會議費에서 지부 총회비를 연2회로 현실화하는 반면, 윤리위원회의 신설, 분소장 회의의 재할 및 제도연구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의 신설에 의한 증액, 管理費는 분소운영비를 배증하는 한편 업무활동을 위한 차량 유지보조비의 신설에 의한 증액, 事業費는 본부 사업의 일부가 지부로 이관됨에 따른 활성책 강구를 위한 조사·지도·국제·교육훈련·출판·홍보·사회지원·친목단합·본부 재정 충당지원을 역점화 증액, 인건비·사무비·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균형 조정하고, 辦公費는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

慶弔費는 회원 경조사 보조금으로 신설증액, 資產取得費는 책시미리 설치비 증액, 적립금 예비비의 신설 등으로 1987년도 대비 4천3백85만5백35원 증액(65.89%)된 1억1천40만원.

2. 事業計劃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 하였다.

가. 會員 福利增進

- 1) 건축관계 정보 자료수집
 - 건축관계 정보 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의한 회원 업무활동 지원 및 기술보급
- 2) 건축 조례집 발간
 - 회원 업무의 편의를 위한 시군 조례집 발간 배포
- 3) 회원 업무의 합리화
 - 보수 요율의 담핑 방지
 - 부당한 경쟁 및 업무처리 방지

나. 會員 相互 親睦圖謀

- 1) 회원친목 단합대회
 - 상호 이해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한 단합행사
 - 체력 향상과 취미생활을 위한 활동 및 행사
- 2) 간담회
 - 회원 상호 이해 증진과 건축사계 풍토 조성
 - 관계법 및 행정상의 문제점 발제, 본협회 및 대관계청에 건의
 - 지부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 청취로 취약성 보완 및 발전 도모

다. 建築士 業務改善

- 1) 관계 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 관계 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점 연구 개선 건의
 - 업무상의 문제점 연구 및 개선
- 2) 제도 연구위원회 운영
 - 제도 연구위원회 활성화
 - 업무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보완 시정 건의
- 3) 설계도서 검토
 - 자질의 향상화
 - 객관적인 업무 풍토 조성

라. 會員 品位 向上

- 1) 윤리위원회 운영
 - 건축사 윤리 함양

마. 敎育

- 1) 회원 교육
 - 실무에 필요한 교육 강연회 세미나
- 2) 보조원 교육
 - 건축사보 보조원의 자질 향상
 - 업무 취급 요령 및 자세 확립
- 3) 직원 교육
 - 지부 및 분소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화
 - 자질 및 봉사정신 함양

바. 指導啓蒙

- 1) 회원 사무소 및 업무에 관한 지도제공
 - 업무의 계도 및 업무질서 확립
 - 감시활동 강화에 의한 업무개선
 - 상호 이해증진 및 분쟁 조정
 - 성실한 회원의 권익 옹호
 - 회원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타결 방안 강구

사. 國際交流 推進

- 1) 국제교류 추진
 - 외국 건축제도 연구 및 기술 정보 교류 유도
 - 국제 관계 기구 가입화 및 유대강화

아. 對社會 支援

- 1) 새마을운동 전개
 - 명랑사회 분위기 조성
 - 질서 지키기 계도 실천
 - 자연보호
 - 불우 이웃돕기
 - 농어촌 일손 돕기

자. 奉仕活動

- 1) 건축 민원상담
 - 건축 민원상담 봉사
 - 관계법규 인식 제고
 - 불법 건축자세 계도
 - 회원업무 홍보
 - 대사회 건축사 업무 인식제고

차. 弘報活動

- 1) 홍보활동
 - 지부 분소 및 회원 업무 홍보활동
 - 건축사 업무 인식 제고
 - 대사회 신뢰도 유지 확산

카. 豫算 및 物資節約

- 1) 근검 절약운동 전개

“

地方化時代の 건축문화발전을 위하여
또한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任期동안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

- 감소한 지부 운영
- 예산 낭비요인 제거

3. 事業推進方向

사업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
추진코자 하는 바,

가. 基本方向

- 독립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지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사업추진
- 윤리위원회, 제도연구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의 활동에 의한 회원의 권익
옹호
- 분소장 회의에 의한 분소의 합리적인
운영 및 업무 강화
- 회원의 품위 보전 및 기술 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한 조사연구, 지도계몽 강화
- 설계도서 검토 운영강화 및 민원상담
- 신공법 기술 보급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 추진
- 회원, 직원, 보조원 교육에 의한 회원
업무의 객관화·능률화 및 지부 분소 직원의
업무 자질 향상화
- 신인 학생 작품의 출품 장려로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 회원 친목단합 강화 및 복리증진
- 지부 분소 및 회원 업무의 홍보활동
전개
- 대사회 신뢰도 유지 확산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지원.

忠淸南道支部篇



姜祐植 / 忠淸南道支部長

신년도부터는 支部獨立豫算制度로 轉換,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부 창립 이래 支部獨立豫算制度.
그리고 本部統合豫算制度, 다시
支部獨立豫算制度로 이어지는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지부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모두는 역대 支部長님과 任員들 그리고
우리 支部會員님들의 합치된 노력과
화합으로 이룩된 결과이다.

1년전 지부장으로서 취임하면서 기대하였던 이
지방의 건축경기는 너무나도 큰폭으로
떨어져 우리 회원들의 사무소에 운영난에
봉착하여,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지부장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이
본인의 탓인 것 같아 회원들을 대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임지부장님들이
뒤아 놓은 업적의 後光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아무탈 없이 지부를
운영해 왔고, 또 회원들께서도
자성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고통의 표시없이 인내로써 잘 참고 견디어
주신 점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기만 하다.
특히 지난 支部定期總會에서는 본지부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음을 이사람에 대한 큰
체적으로 알고 감사히 여기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들의 地方化時代를 위하여
안으로는 우리 130여 회원들의 안위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해야겠고 밖으로는 우리
건축사의 대외 인식도를 높여 신뢰받고
존경받는 건축사상을 고착시키는데 전념해야
겠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풍성한 建築景氣를 맞아
苦盡甘來의 옛 말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88년도 본지부의 業務計劃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87년도에 이루지 못한 소속 회원의
建築作品展을 개최하여 우리들의
작품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폭넓게
충남도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를 알게하고
애향심을 고취해야겠다.

둘째 우리 충청남도에 산재한 옛 건축물과
오늘의 건축물을 한곳에 모아 보는 “忠南의
建築”을 편집 발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많은 자료가 수집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고대로 이어지는
이조건축과 쓰러린 민족사속의 일제시대에서
현대까지 충남의 건축을 한눈으로 볼 수
있을 줄 믿는다.

세째 結緣을 맺고있는 日本
靜岡縣建築士會 浜松支部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외국의 견문을 넓히고
내실있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밝은 이는
건축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네째 도내 건축사사무소에 재직하고 있는
建築士補와 補助員들을 교육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섯째 현재 우리 지부가 맡고 있는 충청남도
체육회 산하 忠淸南道力道聯盟
會長으로서 회원님들이 지원하여 주시는
보답으로 역도선수 양성에 힘써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우승함은 물론
나아가 88올림픽에서도 우리 충남에서
매출한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어 국위를
선양, 세계에 자랑시키고자 한다.
끝으로 그간 실시해오던 아침 커피타임을
부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지부참여도를 제고하는데 힘쓰겠다.

◆ 金正洙 / 慶尙南道支部長

필자는 41년 경남생으로 68년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 대한건축사협회 경남지부장이며,
새한건축사 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 康祐植 / 忠淸南道支部長

필자는 35년 충남생으로 60년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 대한건축사협회 충남지부장과
조형건축사 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1988년도 제1 회 臨時總會 개최

1988년도 제1 회 臨時總會가

3월29일(화) 오전10시부터 본협회 강당에서 재직내의원 2백95명중 1백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安箕泰 회장의 成員報告로 開會된 이번 임시총회는 국민의례, 건축사헌장낭독, 개회사, 추대회원 추대, 제22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심의, 기타사항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만세 3창으로 폐회 되었는데 각 회순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開會辭

任仁赫 사무처장의 會順 안내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었고 李世勲 이사에 의한 건축사헌장 낭독이 있었으며 이어서 安箕泰 회장의 開會辭가 시작 되었다.

安箕泰 회장은 <제6 공화국의 幕을 올린 새 民主政府가 출범한 이래 각 분야에서 의욕적인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과 발 맞추어 우리와 직접 관련있는 관계법에 대해서도 時代感覺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政府의 改政意志가 뚜렷하여 우리 建築士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말한 다음 이러한 正府의 움직임에 호응을 같이 하면서 <그간 協會가 연구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는등 꾸준히 노력을 집중한 보람이 있어>, <건축사 업무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法令의 개정과 制度의 개선 차원에서 풀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 하였다.

또한 <협회의 대내적인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 생활복지를 위한 建築士年金制度는 90년도를 앞두고 알차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중에 있으며 待望의 聯合會制度도 현실에 맞게 제반 規程에 대한 개정작업 등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올해는 협회와 회원 모두에게 큰 발전이 가능할만큼 여러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이 좀 더 協力하고 努力한다면 목적하는대로 무난하게 所期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좋은 기회가 跳躍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지원과 舍心協力을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會長 開會辭가 끝나고 推戴會員 추대가 있었으며 전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監查報告

監查結果 보고는 尹鳳源 감사의 行政監查 결과와 柳根洙 감사의 經理監查 결과의 순으로 보고 되었으며 報告內容 골자는 다음과 같다.

行政業務監查結果(總評)

成年協會 事務局으로서의 직원 근무자세는 안정선에 도달되었다고는 생각되나 아직 會員福祉를 위한 근무자세로 볼 때 創意力을 발휘하여 근무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 됨.

執行部는 會員板益擁護를 위한

계획사업이 미흡하므로 독립예산으로 진입한 시기에 支部는 자율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보다 주도면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중단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事業을 전개하여 주기 바람.

經理業務監查結果(總評)

금반 經理業務에 대한 監查는 전반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是正 여부를 확인하고 8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 하였으나 세입부문에 있어서 제반 장부정리상태와 수납 및 예치사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支部의 직원이 회비수납에 부정행위를 야기한 사실이 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본부, 각지부에 많은 발진을 가져왔음에 반하여 일부 支部는 부당지출사례가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사례로 지적하는 마이므로 향후 집행부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경제적인 예산집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함. (이상 세부사항 생략)

감사결과 보고후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이어 議案上程을 한 다음 12시37분 停會 하였다.

議案審議

오후 1시48분 續開된 회의에서는 上程된

議案과 기타사항이 심의 되었으며 안전별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 호議案

198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통과

● 제2 호議案

1987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통과

● 제3 호議案

1988년도 제1 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통과

● 제4 호議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다음 총회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원안 폐기

● 제5 호議案

1989회계연도 실적회비 전국 정수율 결정의 건
현행대로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 통과
기타 案件의 순서에서는, 서울시부소속 金源安 대의원이 서울지역의 建築士에게 부과되는 税金賦課率이 금년에 166%로 인상된 사실에 주의를 환기 시키면서 協會에서 다양하게 세움인하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회원들도 협회가 추진하는 인하노력에 호응하여 인하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요지의 제안을 하여 대의원 일동의 박수를 받았으며 역시 서울시부소속의 李在熙 대의원도 建築士 權益保全과 品位 문제에 언급, <協會가 회원의 가장 가려운 핵심적인 부분을 긁어 줄 것>을 요망하는 발언을 하여 대의원 일동의 박수를 받았다. 두 대의원의 발언이 끝난 직후 安箕泰 회장은 만세 3창을 하였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오후 3시56분, 1988년도 제1 회 臨時總會의 幕이 내렸다.

부의안건처리결과

구	분	의 결
제1 회의안	198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의결
제2 회의안	1987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의결
제3 회의안	1988년도 제1 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의결
제4 회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폐기
제5 회의안	1989회계연도 실적회비 전국 정수율 결정의 건	현행대로 시행



임시총회 전경



개회사를 하는 安箕泰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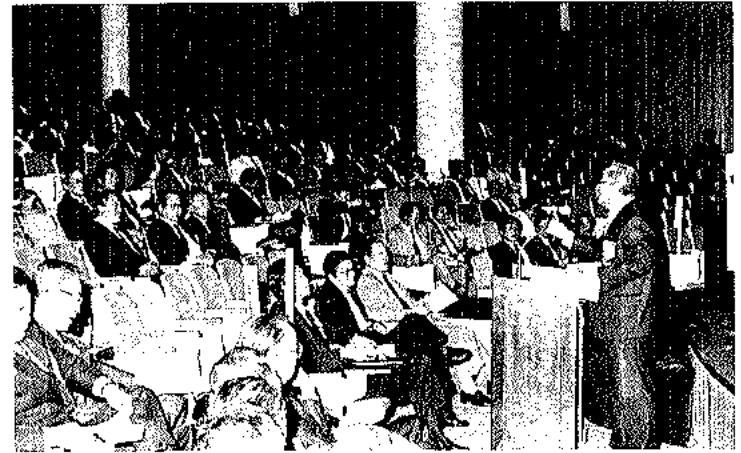
감사보고 (柳根淵감사)



건축사원장낭독 (李世勲이사)



감사보고 (尹壽源감사)



발언하는 대의원

推戴會員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소속지부	사무소명
214	김 정 학	22. 12. 14	서울	김정학건축사사무소
215	이 상 대	22. 12. 6	서울	미화건축사사무소
216	이 윤 복	23. 3. 28	서울	(주) 동방종합 건축사사무소
217	정 원 성	23. 3. 23	경북	부림건축사사무소
218	이 창 철	21. 5. 17	경기	(주) 삼우건축사사무소
219	최 순 남	23. 2. 22	경기	미래건축사사무소
220	홍 태 표	23. 3. 11	강원	가나건축사사무소
221	정 진 익	23. 1. 19	강원	정건축사사무소
222	마 효 열	23. 2. 28	충남	동양건축사사무소
223	허 정 욱	23. 1. 3	충남	미림건축사사무소
224	최 준 한	22. 11. 8	경북	포항건축사사무소
225	장 상 현	23. 1. 4	경북	영림건축사사무소

“祝賀에 感謝합니다.”

본 總會의 開催를 축하하며 성공적인
성과 달성을 기원하는 뜻으로 紀念品을 제작
기증해주고 축하 화분을 보내주시는 건축자재
생산업체와 건축관련 단체 및 기관에게
2 천 8 백여 建築士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여기 그분들을 밝혀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한다.

紀念品

한남화학주식회사 서류용 가방
연합인슈퍼넬주식회사 기념수건
축하화분
한국유리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제3회 理事會 개최

본협회 제3회 理事會가 3월15일(화) 오후 4시부터 安箕泰 회장 主宰 아래 부회장, 이사, 감사, 서울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前回 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부의사항 심의로 들어갔는데 주요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88년도 제1회 臨時總會 議題 승인의 건: 제1호 의안부터 4호의안까지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제5호의안: 1989회계연도 실적회비 전국 징수율 결정의 건>을 추가하기로 결의.

• 88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8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87년도 건축사업금 특별회계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다음 사항을 정관개정 내용중에 반영키로 하고 법제위원회에 실무를 위임함.
가. 지부장과 부지부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함.

나. 지부임원의 업무인수인계 일자별 명시
나. 副支部長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제3회 이사회 광경

강제조항을 완화하여 두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함.

• 推戴會員 대상자 추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停年退職 대상직원 연장근무 승인의 건: 충남지부장으로부터 정년퇴직 대상인 사무국장을 1993년 3월17일까지 5년간 연장근무토록 제정한 바 원안대로 승인

• 월정회비 미납회원 조치 승인의 건: 본협회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서울지부장으로부터 월정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조치 의뢰가 있는바 원안대로 승인.

• 1989회계연도 실적회비 전국징수율 결정의 건: 현행대로 1%로 결정.

臨時理事會 개최

3월24일(목) 오후 2시부터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1층사무실 임대및 임대료 결정의 건 • 건축사업및 보수기준개정(안) 승인의 건을 협의하기 위한 臨時理事會가 개최 되었다.

安箕泰 회장 주재하에 부회장, 이사, 서울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 臨時理事會에서의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定款改正(안) 승인의 건: 다음 사항을 정관개정(안)중에 반영토록 하고 부회장과 법제위원장에게 개정작업을 위임키로 함.
가. 本部의 機構縮小 일환으로 事務處의 企劃管理室을 削除하고 기타

5개 部를 5개 處로 두도록 명시

나. 支部任員의 임기만료일을 당해연도 10월말로 통일.

다. 副支部長의 임기만료일을 支部長의 임기와 같게 통일시키고 幹事의 임기도 격년제 동일수로 조정.

• 1층 사무실임대및 임대료 결정의 건: 전세 1억5천만원으로 임대키로 승인

• 건축사업및 보수기준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본 臨時理事會에서는 이 외에도

협의사항으로 1988년 제1회 臨時總會 진행상의 문제와, 기타사항으로 • 總選과 관련, 正黨의 창당대회 개최를 위한 강당사용 요청에 따른 임대여부 (임대키로 협의) 등을 협의하고 오후 5시 폐회 하였다.



▲제1회 지문위원회

제1회 諮問委員會 개최

3월25일(금) 오전11시부터 본협회 會長室에서 安箕泰 회장이 張起仁, 姜奉辰 韓昌鎭 李圭福 金斗燮 金枝泰 吳雄錫 全任會長을 모신 가운데 제1회 諮問委員會를 개최 하였다.

본 諮問委員會는 1988년도 제1회 臨時總會에 上程할 案件과 관련 協會運營 전반에 걸쳐 前任 會長의 폭넓은 의견을 들은 다음 오후1시15분 폐회 되었다.

제1회 建築委員會 개최

3월3일(목) 오후 4시부터 姜基世 위원장의 主宰하에 朴泰壽, 曹龜鉉, 金一榮, 李昌男 朴容漢 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建築委員會를 개최 하였다. 본위원회에서는 연구성과물로 발간되는 각종 도서의 시중판매방법연구를 비롯, 88년도 각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수립 등이 협의 되었다.

• 設備分科委員會

朴容漢 分科委員長은 3월17일(목) 3월24 오후 4시부터 設備分科委員會를 열고 88년도 사업계획을 협의 하였다. 88년에 실시할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텔리전트 빌딩의 건축설비에 대한 연구
나. 호텔건축의 전기 기계에 대한 연구
다. 건축물의 蓄熱·蓄冷에 대한 연구.

• 設計 監理分科委員會

金相一 分科委員長은 3월17일(목) 오후 4시부터 設計·監理分科委員會를 열고 건축사업무및 보수기준개정(안)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본안건을 협의한 결과 건축사업무및 보수기준개정(안)에 있어서 工事監理区分의 조항은 삭제하고 별표1의 설계공사감리

보수요율표의 상황조정건에 대하여만 이사회회의 결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검토결과를 건설부에 제출키로 하였다.

• 構造分科委員會

全相伯 分科委員長은 3월31일(목) 오후 4시부터 構造分科委員會를 열고 88년도 연구사업에 관한 과제를 〈옹벽의 標準圖와 計算의 實例〉로 정하는 등 88년도 분과위원회의 업무계획을 협의 하였다.

編纂·弘報委員會 개최

• 編纂分野 委員會

4월13일(수) 오전 8시부터 朴榮翼 위원장 主宰하에 하얏트 호텔에서 朝餐會로 編纂分野 위원회를 개최하고 建築士誌의 題号字体를 비롯한 표지 화보 본문 등의 디자인 포맷 변경안을 협의 하였다.

• 弘報分野 委員會

4월12일(화) 오후 2시부터 弘報分野 委員會를 개최하고 건축사지 배부처 명단조정, 한국의 건축 해외소개용 비디오 제작, 시도지부 홍보위원 연석회의 개최, 신문 방송을 통한 건축사업무및 건축사 홍보 선전방안 등 88년도 업무계획을 협의 하였다.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 서울시와 懇談會

3월24일 서울특별시지부와 서울市の 建設關係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협회 4층 회의실에서 회원업무관련사항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서울특별시 김인식 建設관리국장, 변영진 건축지도과장, 유경칠 지부장과 임원 및 11개 분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회의에서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별로 차등을 두도록.
- 위법건축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 감리업무 순번제정 및 화랑신청 등록은 협회에서 주관.

• 서울시장과의 懇談會

4월1일, 서울특별시장청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지부임원, 22개 분소장이 연석하여 서울시 建設行政에 관한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요 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 옥내의 비율조정.
- 건축국 신설
- 건축조례 내용중 미관지구의 불합리점 관계 개선
- 주차장 관리 조례 적용규정 완화
- 건축위원회에 건축사 참여 요망



▲설비분과 위원회의



▲ 건축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보 교육 (忠北支部)



▲ 서울지부 간담회

忠清北道支部

(지부장 表在範)

• 建築士補 교육

4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4층 회의실에서
건축사보 1백52명, 건축관련 공무원
76명에게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
하였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建築実務事例 道都市住宅係長
- 精神教育 副知事
- 建築設計 및 監理 建築士
- 建築法規解説 초빙講師
- 질의응답 道住宅課長
초빙강사
実務係長



▲ 지부회원 건축진 개막테프커팅 (忠南支部)

忠清南道支部

(지부장 康祐植)

• 建設協會와 간담회

3월 23일 대전중앙관광호텔에서
대전건설협회충남지부 권광순 지부장 외
임원 5명과 본지부 康祐植 지부장, 李元雨
부지부장 외 임원 7명이 연석, 양지부업무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하였다.

• 會員 建築展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주일간
대전시민회관에서 會員 建築展을 개최
하였다.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 安箕泰 회장을



▲ 건축행정건설사대채연찬회 (全北支部)

비롯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목원대학교
이공학부장, 대한건축가협회 충남지부장,
본협회 朴成圭 이사, 朴永憲 광주직할시
지부장, 康祐植 본支部 支部長, 李元雨
副支部長 및 임원과 회원 등 40여명에
의해 開幕된 이 전시회에는 충청남도지부
회원의 작품 42점이 전시되었으며
지역건축문화발전에 공헌하는 뜻깊은
문화행사라고 각계로부터 찬사를 모았다.
관람인원인 2 천 3 백여명에 이른 이번
전시회의 개최소식은 신문방송으로
보도되어 건축사 업무의 홍보 선전은 물론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에도 크게 공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언론매체
보도사례와 축하화분을 보내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언론매체 보도사례

○88. 3. 28. 18:00M, B. C. 지방뉴스

○88. 3. 29. 대전일보 문화면

○88. 3. 31. 15:30K, B. S. 지방뉴스

(교차로)

○88. 4. 1. 19:30 - 19:40

대전문화방송 문화사롱

축하화분

회장 안기태, 충남지사 한양수, 국회의원
강창희, 민정당 대전서구 지구당위원장
이재환, 대전서구청장,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충남대학교 건축학과장, 목원대학교 건축과,
충남도청 주택과, 대전중구청 건축과,
대한건설협회 충남지부장, 대한건축가협회
충남지부장, 대한건축학회 충남지부장, 부산
삼야요업사, 남건경화조, 대전보문 로타리클럽,
서울특별시지부장, 대구직할시지부장,
광주직할시지부장,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
천안분소, 홍성분소, 대천분소, 부여분소

全羅北道支部

(지부장 嚴柱浩)

• 해외시찰실시

1월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일본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한
허만회 회원의 15명의 해외시찰단 일행이
계획대로 施程을 잘 마치고 귀국 하였다.
해외건축계시찰을 통하여 건축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건축사와의 友誼를
높임으로써 회원의 작품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축계 시찰여행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金仁模)

• 88년도 건축업무 연찬회

3월24일 추선회관 5층 회의실에서
道주택과장의 주택과 직원 7명, 市都건축
및 주택계장 실무자 67명, 지부회원 및 직원
36명 등 1백10명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건축업무 연찬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를 위하여 支部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점心和 기념타올을 기증 하였으며
연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교육특강 전남대 김용선교수
 - 법령개정안해설 道도시주택계장
 - 협회현황 및 건의사항 토의
- 지부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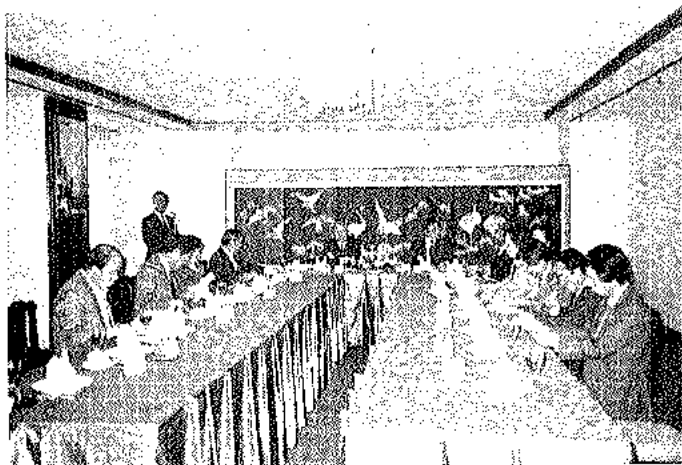
제 4 회

電氣·에너지大賞公募

京郷新聞社에서는 제 4 회 電氣·에너지
大賞作品을 公募중인데 88년 5월31일
접수를 마감하는 본상의 공모내용은 다음과
같다.

□ 公募部門

- 技 術 部 門 : 전기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 주요 기자재
국산화 우수 연구논문 및 저작발표 등으로
에너지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 管 理 部 門 : 전기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이용합리화에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 원 자 력 部 門 :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설비의
안전 운전등으로 원자력 산업발전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 國民奉仕部門 : 전기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의 행정구현, 국민봉사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 學 生 作 品 部 門 : 전기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분야의 산업발전과 에너지 자립 및
합리적인 사용 등을 소재로 한
- ① 초·중·고교생의 수기 또는 작문(국민학생
200자 원고지 10장 내의 중·고생 20장
내외)
 - ② 대학생논문(200자 원고지 50장 이상)
 - ③ 포어(16절), 포스터(초·중·고)



▲ 대한건설협회 충남지부와 간담회



▲ 해외건축계시찰단 일행 (全南支部)

□ 推薦 및 接受

- 주 천 : 소속기관장 또는 단체장이나 학교의 장
- 提出書類 : 추천서(본사 소정양식), 이력서 및 명함판 사진 2 장, 공적요약서(학생부문제외),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작품(공적기간 제한 없음)
- 接 受 處 : 경향신문사 사업부(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 마 감 : 1988년 5월 31일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음
- 施 賞 式
- 1988년 7월 7일(목) 상오 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 ※ 문의 : 경향신문사 사업부
(직) 737-3004
(교) 730-5151 구내 521, 522, 523

嚴德紋 회원

古稀宴 및 AUM賞制定 기념식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嚴德紋 회원이 3월26일 古稀를 맞아 롯데호텔 2층 연회장에서 古稀宴 및 AUM 건축상제정 기념식을 가졌다. 5백여 건축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된 이 교회연은 AUM 건축상 제정으로 더욱 뜻이 깊었다. AUM建築賞은 嚴德紋 회원이 1천만원의 出損 하고 재자들이 1천만원을 마련, 총 2천만원의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1989년부터 建築文化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建築界人士에게 수여 될 예정이다.

듀폰사, 앤트론 디자인 경연대회

3월7일 듀폰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는 연례 디자인 경영대회인 "앤트론 디자인 경연대회" (Antron Design Award)의 개최를 발표하였다.

앤트론은 듀폰이 개발한 나일론 6.6로 된 카펫 섬유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카펫 소재이다.

금번 제2회 경연대회는 다음의 5가지 부문에 걸쳐 실시 된다.

- 사무실(은행, 사무실)
- 접객업소(음식점, 호텔)
- 의료기관(병원, 진료소)
- 공공 장소(도서관, 극장, 학교)
- 상업(상점, 진열실)

본 대회는 아시아 지역의 건축가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도 우승자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상금이 수여된다. 1998년 대상에는

5,000달러의 상금과 기념패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걸친 듀폰사의 홍보 활동을 통한 업계 홍보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각 부문별 명예상에게는 2,000달러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를 비롯하여, 홍콩 Artist's Guild, 대만의 Chinese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Institute of Architects 등 각국의 건축가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들로부터 공식 후원을 받게 된다.

1988년 앤트론 디자인 경연대회는 6개월동안 지속되며 마감일은 1988년 8월31일이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듀폰 한국지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로 하면 된다.



▲ 嚴德紋 회원 古稀宴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 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